01

October
2024



2024/10/28
monday, am 7:41 | 56읽음
김양선

#1일차 키워드 : 열리다
챌린지 첫날을 여는 오늘의 키워드는
'열리다'입니다. 닫혀 있던 문이 열리듯,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하죠. 여러분은 언제 무언가가 열린
경험을 했나요? 그 열림의 순간에 느낀
감정이나 변화를 떠올려보세요. 아니면,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열림과 관련해
경험한 순간들을 글로 나눠 봅시다.

31 0



2024/10/28
monday, am 8:15 | 49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일차
나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 적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의 미래를 정했을 때이다.
나는 고2 때까지 명확하게 내가 어떤 학과로
진학을 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고1 땐
방송쪽으로 가고 싶다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 저절로 방송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졌었다. 그래서 새롭게 정한
학과가 사학과였다. 하지만 나는 한국사만
좋아했었다. 하지만 사학과는 한국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같이 하기에 나와 맞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나는 '좋은 친구
활동'이라고 장애인 친구를 돕는 활동을
했었다. 난 이 친구들을 돕는 것이 처음엔
봉사점수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갈 수록
봉사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사회복지학과 진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셨다. 난
진지하게 생각했다. 근데 뭔가 이전에 여러
학과에 대해 고민했을 때와 다른 이거다!
싶은 느낌이 훅 들어왔다. 고3이라는 늦은
시기에 사회복지학과라는 새로운 길이
나에게 열린 것이다. 그래서 난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또 다른 열리다에 대한 경험이라면 23년
12월 내 첫 친구들과의 여행을 갔을 때
하늘길이 열린 기억이다. 수능 끝나고 어른의
동행 없이 오로지 친구들과 가는 첫
여행이었다. 제주도로 갔었는데 분명 첫날
까지는 날씨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둘째 날
부터 비와 눈이 조금씩 오더니 우리의 여행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폭설주의보가
떠버린 만큼 눈이 엄청 왔다. 뭔가 싸함이
느껴져 공항으로 갔더니 모든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 내가 탈 비행기도
마찬가지였다. 급하게 우리는 다음 날에라도
제주도를 벗어날 계획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청주공항으로 간 다음
서울로 가는 방법이었다. 이마저도
초저녁이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던 찰나 친구 엄마께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포행 표를 구했다는 것이었다. 운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도 날씨는 좋지 않아 오후5시 비행기까지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초조했다. 하지만 5시 이후로 하늘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다행이게도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갔던 경험이 있다.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열리다' 라는 것은 거의 다 좋은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이 모두 크게 열려있으면 좋겠다!

28 20



2024/10/28

monday, am 9:29 | 46읽음
유채원(일본학과)

난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성격이었다. 집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누군가가 오면 내 방에 들어가기 십상이었다. 방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 공간 안에 있어서 아늑하다는 생각이 나를 감쌌다. 방의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의 문 또한 닫았다. 누군가 방문을 연다는 건 나를 침범하는 것과 같았다.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린 사람들이 있다. 그건 바로 나와 가장 오래된 친구들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그들은 차츰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도 네가 아플 일은 없다고, 문을 좀 열어두고 살아야지 세상이 넓어진다고 친구들이 말했다.
아직까지도 문을 활짝 열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씩 열어둠으로써, 생각보다 문을 열어놔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있다. 내 문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열리고 있다.
#1일차

29 17



2024/10/28

monday, am 9:35 | 36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일차
저에게 열린 경험은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알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알바천국에서 공고를 찾아 보던 중 집 근처 주방 보조 알바 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주방 보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지원을 보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힘들지 않은 일은 없기 때문에 주말 주방 보조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당일날 바로 면접을 보기 위해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께서 10월 26날에 인수인계 받으러 오고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하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바 면접을 보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알바 지원할 때마다 "이미 뽑아서 안 될 것 같다" "면접을 보고 있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동종업계 경력자를 뽑는다" 등등 많은 이유로 알바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당일날 합격해서 너무 기뻤고,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열린 경험이었습니다.

25 18



2024/10/28

monday, am 9:44 | 39읽음
정우현(철학과)

#1일차

처음으로 떠오르는 마음이 열린 경험은 배고파서 미치겠는데 배달음식이 왔다는 초인종을 들었을 때이다. 그때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없다. 특별했을 때의 열린 경험은 보통 어딘가를 놀러 갔을 때였다.

동굴을 갔을 때였는데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 차가운 공기, 습한 환경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나는 평소에 놀러가는 것을 좋아하는 내향인이다. 처음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고 재밌다는 감정을 느낀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됐다.

내 머리를 열게 해준 것 중 하나는 힙합이다. 힙합의 특징은 자신만의 가사가 있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힙합을 자주 듣고나서 몰랐던 나를 알게 됐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만 했었다가 지금은 힙합 동아리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내가 가사를 써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해봤다. 미칠듯이 떨렸지만 해냈던 경험이 내 마음과 뇌를 열게 해줬다. 사람은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것들을 통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통해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의 발전하는 모습을 궁금하게 되고 멋있는 나를 기대하게 된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 경험이야말로 나를 열게 해주는 것들이라는걸 배웠다.

23 18

모임이 쉬워진다!

2024/10/28
monday, am 10:34 | 38읽음
김미란

#1일차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 중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이 대사를 듣기 전, 나의 삶은 주로 이러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이랑 보내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단조롭고 안정적인 삶의 패턴을 살아가곤 했다. 새로운 것보단 익숙한 것들이 주는 편안함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듣고,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았다. 늘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들을 하는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도전은 ‘복싱 끊기’였다. 평소에 운동과는 거리도 멀고, 귀찮아했던 내가 전혀 안 해본 색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참고로 필자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의 여학생이다. 이런 내가 혼자 복싱장에 가서 “저.. 복싱 끊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관장님은 어떤 목적인지 여쭤보셨고, 어떤 식으로 운동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셨다.

이후 나는 혼자 복싱장을 매일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있으니 고등학생 친구가 와서 “먼저 런닝머신 타고, 줄넘기하고 있으면 이따 선생님 오실 거예요.”라고 말해주었다. 늘 내가 오면 나를 챙겨주는 귀여운 친구였다. 이후 나는

관장님이랑 코치님에게 차근 차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아버지뻘인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고, 너무나 친근하고 재밌으신 분이었다. 내가 복싱하는 모습을 흉내 내시는데, 너무 웃겨서 자지러졌다. '내가 정말 저렇게 하나?'라는 충격에 빠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냥냥펀치' 같다고 하셔서 난감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너무나 재밌었다. 내 삶에 그저 '복싱'이라는 요소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내 삶 전체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저녁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운동했다. 단조롭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냥냥펀치 같다고 하지만 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좋았다. 체력도 기르고, 땀 흘리고 나면 건강해지는 듯한 이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평소 가던 시간대에 일정이 생겨 다른 시간대에 운동하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후광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첫눈에 반하면 후광이 비친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갑자기 나는 고장 난 로봇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랑 별말도 안 해봤는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조심스레 그 사람에게 "주로 이 시간대에 오세요?"라고 물었다. 그렇다는 말에 나는 운동 시간대를 바꿨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복싱을 하니 사람이 대담해졌나. 이후 몇 개월이 흐르고, 이제 복싱을 그만둬야 하는 시기가 왔다.

나는 그만두기 전 용기를 내기로 했다. 종이에 '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적었다.

복싱 마지막 날이었다. 운동 도중 연락처를 적은 종이가 잘 있나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초조해진 채 운동했다.

그러나 운동이 다 끝나고도 오지 않았고, 딱 5분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다. 포기하려고 가려던 참, 그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선물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종이를 건냈고, 그는 "이게 뭐예요?"라고 웃으며 받았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다.

그저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 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 삶 전체가 다채롭고, 행복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느낌이 좋았다. 그 뒤로 나는 180도 바뀌었다. '안정 추구형 인간에서 새로운 자극 추구형이 됐다랄까?'

나는 그 뒤로도 끊임없이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열리지 않은 수많은 문을 열어볼 것이다. 그 색다른 경험을 통해 또 어떤 것을 느끼고, 성장할지 모르니까.

마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26 13



2024/10/28
monday, am 10:44 | 38읽음
이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소소한 행복은 나무에 열린 열매를 나눠 먹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부엌으로 가는 길에 빨갛고 짙게 익은 사과를 발견하고 말았다. 입에서 군침이 돌았고 곧장 손을 뻗었다. 사과를 반으로 쪼개 한쪽을 집어 들어 칼로 사과 겉면을 투박하게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사과를 빨리 먹을 생각에 신난 나는 사과의 형태만 알아볼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감자칼로 감자를 깎듯 사과 껍질을 베어냈다. 나만의 못난 사과가 탄생함과 동시에 엄마에게 혼났다. 껍질에 붙어버린 과육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아까웠다. 이왕에 먹는거 이쁘고 맨들맨들하게 깎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엄마가 한쪽에 엎어져 있던 사과 반쪽을 들고 시범을 보였다. 칼의 중간을 사과의 표면에 맞댄 뒤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된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엄지를 칼 중간 쪽으로 뻗어 사과에 맞대고, 이어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이번엔 성공이었다. 나의 투박한 첫 사과와 맨들맨들한 사과 모두 한입 크기로 잘라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아삭거리는 소리와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루를 가득 채운다. 소소한 행복에 내 얼굴에 웃음이 열린 날이었다.

어릴 적 나는 이웃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면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아냈다. 선물이 중요했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혼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에게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호의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콩 한 쪽이 아니라 사과 한 쪽을 나눠 먹었지만. 사과를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니 다음엔 배를 깎아주고 싶었다.

29 15



2024/10/28
monday, am 11:02 | 43읽음
전수현(법학과)

#1일차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 어느 문을 들어갈지 이 문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끊임없이 고찰해가며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열렸던 수많은 선택의 문으로 들어온 결과, 지금 이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한림대학교라는 입시의 길이 열렸었고, 당시 대학교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러 학교, 여러 학과를 알아보았지만 법학과라는 문에 가장 강하게 이끌려 한림대학교 법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이 라이팅 챌린지에 참여한 것이다.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대했던 신입생의 시절이 완전히 망가졌었다. 수업도 비대면, 동아리도 집회 금지로 다른 이들과 교류할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었다. 그렇게 군휴학을 하고

이번 연도 1학기에 복학했을 때, 열린 교류의 문은 많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런 걸 알려주는 선배님조차 없었기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1학기 때 방법을 터득하고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라이팅 챌린지 공지를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고 내 생각을 쓰는 교류의 문이 열렸다. 이 문을 내 손으로 열고 들어왔기에 챌린지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진하겠다.

26 13



2024/10/28
monday, pm 12:14 | 37읽음
박시연(사회학과)

#1일차
지난 주말 나는 우리 학교
지역정주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정선
지역탐방 활동에 다녀왔다. 정선이라는
생소한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나는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행은 우리가 더욱
폭넓은 시야를 지니게 해준다. 여행을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만 갇혀
지내기 때문에 그곳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닫힌 마음을 지니고 산다.
그러나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우리나라에
내가 모르는 이런 곳도 있었구나, 여기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랑 다르게
이러이러하구나, 길은 이렇구나하며
생소하지만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문화, 삶의 방식과
생각을 보고 느끼며 받아들인다. 그렇게
돌처럼 굳었던, 꽉 막혔던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열린다. 우리는 이제 유연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23 10



2024/10/28
monday, pm 12:17 | 39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일차
"아침이 열리다"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길 반복한다. 기운 빠지는
바람소리를 내며 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닫힌다. 마치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열릴 때의 바람 소리는 점점 한숨을 닮아간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안내 방송이
들려온다. 목소리는 덜컹이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을 채운다. 누가 듣고 있긴 할까.
아무도 대꾸 않는 그 목소리. 그녀는 꿋꿋하게
문의 열리고 닫힘을, 이번 역의 이름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 목소리는 역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지쳐간다. 지하철 창문
밖으로는 까만 풍경이 보인다. 어디가
끝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까맣고 까만 풍경이 창문 너머에 있다. 가끔
보이는 초록 가득한 풍경이 눈부시다. 그러나
동공이 닫히기도 전에 어둠에 삼켜진 풍경이
마음을 쓰리게 한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핸드폰에 시선을 뺏긴 정형화된 이들을
바라본다. 지친 표정으로 손가락을 바삐
움직인다. 지하철이 덜컹일 때마다 고개가
흔들린다. 그럼에도 그 시선은 휴대폰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이
지하철 속에 드러난다. 살아야 한다는 사실.
힘들다는 것이 휴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현실. 오늘 아침에도 피곤함과 사투를 벌였을
그들의 삶을 느낀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그곳엔 즐거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을 안다. 그 때문에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한없이 쳐진 눈매와
비어버린 눈동자를 이해한다.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이므로. 너무 빨리 다음 역에 닿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 좀 더 천천히 일터에
도착할테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까. 지하철
문도, 안내 목소리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걸. 그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일터에 닿아
있다는 걸. 결국 두리번거리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남들과 같이 휴대폰을 응시한다.
아침 7시. 지하철 문이 열리고 지친 이들이
밀물처럼 들어온다. 금새 콩나물 시루가
되어버린 지하철은 창문 밖 풍경을 똑 닮았다.
어둡고 탁한 기운이 지하철을 메운다. 몇 개의
역이 지나고 지하철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도 열린다. 한숨을 쉬며 썰물처럼
빠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행운을 빌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는 꼭 앉아서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내일 이 지하철에 탈 땐 덜
피곤할 수 있기를.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
생각하며 나는 마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의 작은 위로였다.

26 10



2024/10/28
monday, pm 12:44 | 34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일차
"열리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는 제일 먼저
새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딱 새해 첫날
아침은 공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해에는
부지런하게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기도 하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보겠다는 변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푼 기대가 열린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일기를 써보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보고 싶어 새해
목표를 적어놓았습니다. 매일 일기 쓰기는
매달 초기에만 써서 실패했지만, 새로운
취미는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해 작은 소망이
금방 지칠 수 있지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은
그 시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래가지 않은 마음이라
금방 포기할 수 있어도 그건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음 해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25 10



2024/10/28
monday, pm 1:40 | 42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일차

태어나 무리를 이루고 서로 연대하는
것.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기에
사람은 무리를 이루고 살아간다.초기엔 그저
짐승과 적으로부터 그들 씨족을 보호하려는
단순한 생존욕구에 가까웠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무리가 어느 순간 규모가 커지게
되고,장원이 되며 국가적인 규모에까지
이르자 점차 하나의 모습으로
체계화되었는데 그것을 사회라고 한다.이때
사회 스스로는 추상적인 개념과 같아서
독립된 개체인 인간에 의해
운용된다.사회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서로 간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는 인간 하나 하나에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소망과 꿈이라는,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닫을 생각 못하는
특별한 문을.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해
지키고 싶어서 내 안의 희망으로 걸음하게
만드는 힘을 일깨웠나보다.설령 그걸 가지는
대가가 유쾌하지만은 않더라도.

24년을 살아오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9년
동안 내 학창시절은 장마철과 같았다.티 없이

맑았다가 때론 먹구름이 짙게 껴 울먹해지고 천둥번개까지 내려치는,안팎으로 가해지는 고통이 버겁게 느껴져 세상을 등지고 싶어질 정도였다.부모님 조차 이런 내 처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어쩌면 모르시는 게 당연했다.괜한 걱정 끼쳐드리는 게 아닐까 하고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고등학교 자퇴를 한 뒤 수능을 치뤄 21살에 대학얘 입학했다.또한 학과 선택에 후회도 없다.뭐가 됐든 장점과 단점은 늘 공존하는 법이니까.입학한 나이는 애매했고 말을 트질 못해 사귄 친구가 많지 않았다.그래서 종종 도서관얘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읽을 수 밖에 없었다.다른 이들이 삼차원과 세상과 만나는 동안 난 이차원의 평면 너머로 그림보듯 구경했다.

생각해보면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꿈이 피어나고 있었나보다.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이었는데,그 책이 보여준 무언가는 단순히 내용을 넘어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했다.더불어 학창시절의 괴로움과 가해자들에 대한 내 사필귀정의 심정이 모두 정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깨달았다.그 순간 마음에는 큰 불이 붙었고 꿈 없이 방황하며 걱정하던 무채색 인간은 사라졌다.

그래서 당장은 누가 내 꿈을 묻는다면 나는 올곧음과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싶다.비록 그 길이 쉽지만은 않더라도,종국에는 유의미한 도약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족하다.사람이 품고있는 모든 생명과 삶과 열정을 불의로부터 지켜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보람차지 않을까?더 나아가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함께 이는 존재가 되고 싶어졌으므로 현재 수사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할 일 투성이다.막학년 막학기로서 졸업준비도 해야하고 공모전도 나가야 하며 콩알 같은 시간을 쪼개 공시 공부도 해야한다.쉽지 않다.분명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찾아올 것이다.그러나 나는 믿는다.언젠가는 그러한 순간들 마저 그랬었지 하며 회상하는 날이 올 거라고.마치 한 때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는 것 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23 20

2024/10/28
monday, pm 1:53 | 39읽음
함예원(디지떱미디어콘텐츠)

#1일차

저는 원래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주는

편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저의 성향 때문에,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쉽게 정을 주고 모두를 받아주다 보니, 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이 바뀌는 대학을 시점으로 바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성격은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친구들은 제가 쉽게 마음을 열어주어도, 저를 소중히 생각해 줍니다. 덕분에 이제는 예전과 달리 쉽게 문을 열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3 9

2024/10/28
monday, pm 2:05 | 37번째
최오영(심리학과)

#1일차

열리다

동사

1 닫히거나 잠긴 것이 트이거나 벗겨지다. '열다'의 피동사. 문이 열리 있다.

월요일 오전부터 다른 분들이 작성한 '열리다'와 관련된 많은 글을 읽으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더군요.

닫히거나 잠긴 것이 트이거나 벗겨지다. '열다'의 피동사.

저는 웬지 마지막에 적힌 피동사에 눈이 갔습니다.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 피동사. 저도 처음엔 저의 이야기를 작성해볼까 하였는데 타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동작이라는 동사에 좀 더 집중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인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로맨스 영화로도 유명하고, 실제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유명하기도 한데요, 저는 최근에야 감상해 보았는데 '열리다'의 사전적 의미를 알게 되자 마자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앨리'가 떠올랐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앨리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인생을 살다가 남자 주인공 '노아'를 만나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며 인생을 배우는 인물입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일명 일탈을 즐기는 앨리를 보며 진정한 열린 삶을 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걸어오는 노아의 데이트 신청과 그녀의 호기심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감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노아와의 데이트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데이트 중에서도 앨리는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 했습니다. 노아는 그녀의 옆에서 무한한 용기와 자극제가 되어 이전에는 몰랐던(앞으로도 몰랐을) 즐거움과 행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다'와 '열리다'.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동사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나니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졌고 두 가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열어준 문은, 앨리에겐 열린 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강조하지만 때로는 타인에 의해 열린 경험을 하는 것도 각자의 인생에서 좋은 기회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신 '열린 마음'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아직 안 본 영화라면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24 11



2024/10/28
monday, pm 3:56 | 36읽음
서정원(심리학과)

#1일차
오늘은 이번주 목요일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된 수필과 따로 책에 넣기 위해 기고한 글을 섞어 써보고자 한다. 오늘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사랑, 관계, 가족 이야기 등 사람과 관련된 글이 자주 보이는데, 아무래도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늘 서로 접촉하며 사니까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뮤즈와 사랑의 본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준비해봤다.
뮤즈(MUSE)
작가, 화가 등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INSPIRATION)는 여러 시대에 걸쳐 존재해 왔다. 시대를 불문하고 남자와 여자 두 성이 존재했을 때부터 존재해 왔을 것이다. 클래식계에서는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의 뮤즈는 알마 말러였고, 철학계에서는 프로이트의 뮤즈는 루 살로메였고, 팝송에서의 존 레논의 뮤즈는 오노 요코였다. 뮤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
여러분도 이들 예술가의 뮤즈 같은 존재를 곁에 둔 적이 있는가? 곁에 있을 때 일의 능률이 높아지거나 삶이 윤택해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둔 적이 있는가? 뮤즈는 자기 발전을 위해 내면으로 향했던 시선을 외부로 향하게 해준다. 뮤즈와 관련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을 아나토미적 요소로 해부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책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글을 인용해 보겠다.

"이상화:모든 갑작스러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과정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과장 덕분에 우리는 습관이 된 비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비겁함, 심약함, 게으름, 부정직, 타협성, 끔찍한 어리석음 같은 것—을 상대에게서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내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을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 정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자기 인식에서 나온 모든 증거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좋은 면들을 가진 이들에게 무의식적인 끌림을 느끼게 된다. —이를 분석심리학에서는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성,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아니마-아니무스 투영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적인 끌림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책의 말을 빌려보자면, 최초의 꿈틀거림은 필연적으로 무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알베르 카뮈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 매우 온전해 보이고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감정적으로 "통합되어"보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을 보면 몹시 분산되어 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 내부에 부족한 데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에 있어 열린다는 경험은 그 사람과 처음 마주했을 때 '이상화'를 시작했을 때, 즉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요즘 말로 '콩깍지'에 씌였을 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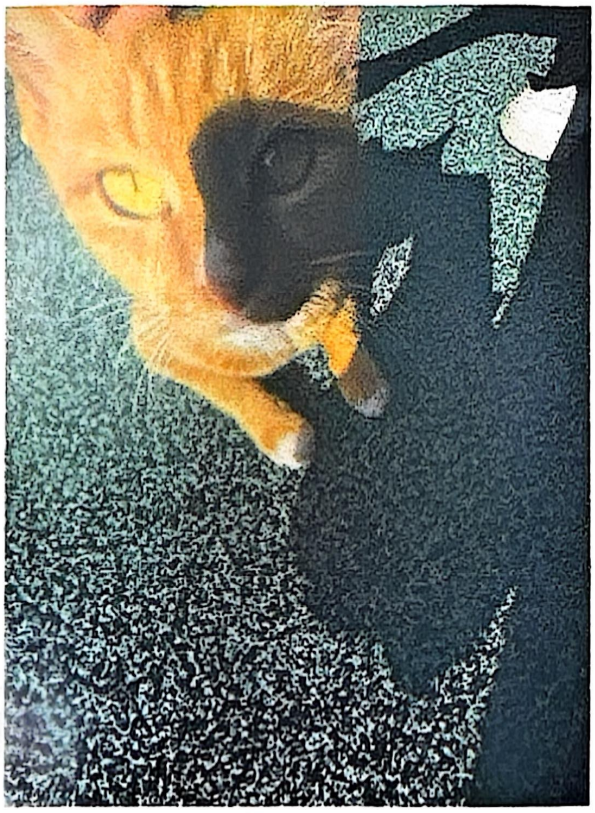
그러나 사랑에 빠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남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알고 보니 내게 영감을 줬던 뮤즈도 나의 부족한 면들을 내게 비추고 있는 부족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같은 경험을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며 풀어낸다. "사랑하는 여자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머릿속에서 작곡한 놀라운 교향곡을 나중에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로 들었을 때의 느낌과 같다. 남녀의 생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연주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에 감명을 받기는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이 의도와는 다르게 연주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무비판적이고 너그러운 감정. 조건이 없고,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기독교적 사랑으로 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말이 길어졌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에 대한 '이상화'를 멈췄을 때 현실적인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도 내 경험을 풀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또 이렇게 분석해서 쓰는 글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소에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대로 술술 써질 수 있게 해야지 꾸준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밴드에선 글자 크기 조정이 자유롭지 않고 정렬도 안되는데, 가독성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

23 14

2024/10/28
monday, pm 4:22 | 31위엽
홍다연(정치행정)

#1일차 '열리다'



1일차의 '열리다'라는 키워드를 보며, 저는 우리 학교의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이 고양이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대표 고양이인 '애기'를 만난 이후로부터 동물에 대한 저의 애정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기와의 만남을 통해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마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애기 외에도 여러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들어 운동장에서 자주 보이는 오렌지색 고양이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 고양이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그 오렌지색 고양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옆에서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되기에 만지지는 않았고,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여전히 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언가에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른 생명과의 교감은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저의 세계는 조금씩 더 넓어지고, 동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3 10



2024/10/28
monday, pm 4:42 | 24읽음
이예림(청각학전공)

#1일차

'열리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열릴 때 우리는 눈앞의 공간 뿐 아니라 우리 내면과 세상의 경계를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것들과 호기심,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길들은 우리 삶에 자극과 성장을 불러옵니다. 열린 마음은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을 여는 것도, 마음을 여는 것도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닫혀 있던 가능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다' 라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고 넓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7



2024/10/28
monday, pm 5:03 | 32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1일차 #골든리트리버와열림버튼

난 골든리트리버 같은 사람이라서 인간을 보면 마음이 화알짝 열렸다. 사물로 치면 문이 없는 엘레베이터다.
"내 마음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하고 다니니까 나쁜 사람도 많이 들어왔다. 그래도 그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자리를 내었다.

어느 순간!
연락이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아닌, 불안하게 두근두근

그때 엘레베이터에 닫힘버튼이 있는 이유가 생각났다. '기계도 정원이 꽉 차면 고장나는데. 나는 우주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담으려고 했구나.'

깨달음을 얻고 내게 닫힘 버튼을 달았다.

그리곤
'아 살 것 같다.'

고요한 한마디.

나는 이제 중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열림도 닫힘도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20 9



2024/10/28
monday, pm 5:07 | 15위팀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일차 #열리다

열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염없이 문을 바라본다.
혹시나, 혹여나, 설마, 아마도, 그래도.
쓸쓸한 문을 머릿속에 그린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허공을 바라본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봐도,
천장이 아닌 창문을 바라보아도, 침대 밑을 바라보아도,
애타게 문에 볼을 붙이듯 쳐다보아도,
역시나
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는다.

굳게 닫힌 문을 굳건히 네가 열고 들어온다.
들어온 너를 환하게 반기는 나의 모습,
너를 반기는 내 모습에 온몸으로 맞장구 쳐 주는 너의 모습,
서로를 감싸며 행복해하는 우리 모습을,
상상해본다.

춥다.

22 8



2024/10/28
monday, pm 6:00 | 21위팀
심유천(바이오메디컬학과)

#1일차
닫혔기 때문에 열 수 있었다. 문이 닫혔기에,
당신의 마음이 닫혀서, 내 의지가 닫혔다.
내 의지가 단단한 지금 나는 내 앞길을 열 수 있었고, 당신의 닫힌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는 같이 문을 열수 있었다.
계절의 순환으로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여름이 있어야 지금 가을이 오듯
닫힘과 열림 또한 그런 인과관계이다.
그런 반복으로 생명의 소중함, 기회의 소중함,
이 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다.

오늘의 키워드:열리다에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의 솔로곡
'담'의 가사 중
'나의 닫힌 마음을 당신이 열었더라면'
이라는
구절이 머릿속을 맴돈다.

닫힌 마음은 누군가가 열든, 혹은
내가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 수도 있다.
나는 두개의 경험을 다 했었는데 그중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경험은 썹쓸했다.
결국 상대방이 깨달아야 바뀐다는 것이다.

하고싶은 말은 열리다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마음을 열든,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타인은 결코 내 입맛대로 바뀌지 않기에
나만이 날 열 수 있다.

21 6



2024/10/28
monday, pm 6:40 | 27일용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일차
#열리다 사실 요즘 마침 이 표현과 관련되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때 막막하기만 했다. 뭔가 나에게 도약이 필요하고 어딘가 '닫힌' 느낌이었다. 나도 몰랐지만 나도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표현을 본 적이 있다 '사람은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고'.

나는 현실을 타협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ㅣ 싫어서, SnS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 모습이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나 주변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들어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몇 달 전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 분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사랑스러운 분이였다.
그 분은 자신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되었었다고 말했다. 나는 솔직히 속으로 운이 좋았던 거겠지 라는 생각을 손톱만큼 안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분 은 자기가 순수하게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했다고 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순수하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나도 사실 내 스스로에게 마음을 안 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랐다. 항상 나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자동적으로 생각하느라. 그래서 요즘 조금씩 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점점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22 7



2024/10/28
monday, pm 6:46 | 32일용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1일차

열리는 순간, 세상은 부드럽게 나에게 녹아든다.
안개 너머로 희미한 빛들이 춤추고, 무겁게 닫혀 있던 문이
살며시 숨을 내쉰다. 익숙한 듯 낯선 감각이 새로운 곳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마음을 열자, 수면 위에 내려앉은 빛들이
파도을 일으키듯 새로운 감정이 물결친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딘가로 흘러간다.
문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함.

아침만 남겨주고_ 김현창

19 6

2024/10/28
monday, pm 6:58 | 25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1일차 열리다

뭐든지 열려있기 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같아요.
저는 마음이 열리는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와 싸웠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애타게 기다려본 적도 있고요.
닫혀져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리도록 노력한 경험도 꽤 있었던 것같아요.

저희 집엔 3년 전부터 새로운 가족이 생겼었어요.
동물 친구인데요, 귀여운 아기 강아지였지요
저희 부모님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엄청 반대 했었어요.
당연히 소중한 생명이오니 강한 책임감도 필요할것이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이미 저희 가족의 소중한 10년넘게 살다간 강아지 천사가
이미 있었었기에 더욱 마음이 닫힐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소중한 가족이 떠난 그 아픔을 , 그 누구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싶지 않을꺼예요.

꽤 시간이 지나고 3년 전, 새로운 가족친구를 저희 언니가 데려왔는데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적응 할 때쯤 서서히 조금씩 깊숙하게.. 부모님의
닫혀져있던 마음이
열려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주는 그 행복과 사랑과
저희가 강아지에게 주는 행복과 사랑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여 더 큰 행복과 사랑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기억이 안날 만큼 너무 행복하게 살고있기 때문이죠.

19 8

2024/10/28
monday, pm 7:01 | 13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세상에 친절하려 최선을 다하던 내가 마음을 굳게 닫던 해가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괴롭혔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다.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날의 끝엔 도왔으니 돌려 받아야 한다는 날이 돌아왔다. 그러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꿈이자 목표이며, 본인의 직무를 이와 연결하여 살고 있는 한 멘토님을 만났다. 멘토님의 마인드는 명확했다. 함께 사는 인생인데 함께 행복하자.
숱한 질문에 답하며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에게 나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이에 대한 답을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내렸다. 어떤 방식이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대화가 편안하길 꾸준히 바라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를 바라보자 마음이 열렸다. 다시 세상에 친절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신은 당신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당신을 뭐라고 정의하겠는가?

22 9



2024/10/28
monday, pm 7:25 | 30읽음
최연진(임상의학뭉계)

#1일차 #열리다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만 있는 편이라서 그런 날마다 엄마가 같이 여행이라도 갔다 오자고 할 때가 많다. 여행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갔다 오면 경험과 시야가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그럴 때마다 과연 여행에 갔다 온다고 해서 정말 보는 눈이 넓어지고 높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여행 간 적도 없고 해외여행 경험도 없어서 여행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다.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고 낯선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막상 재미있게 지내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만약 기회가 돼서 갈 수 있게 된다면 인생이 변할 만큼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 기대되고 궁금해진다. 이번에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인제로 놀러 가는데 그때 여행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작은 여행부터 나중에 직접 모은 돈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여행 다니며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20 9



2024/10/28
monday, pm 7:48 | 29읽음
김경환(화학과)

#1일차
오늘은 라이팅 챌린지 3주 프로젝트 첫날을 맞아, '열리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냄비, 문, 가방처럼 열 수 있는 다양한 것들과 늘 가까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문'에 대한 기억이 특히 인상깊은 것 같습니다. '문의 열림'과 관련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린 시절 처음 만난 자동문입니다. 손을 쓰지 않고도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해서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해 계속 열어보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옛 성문들도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성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성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는 쉽게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들을 떠올리면, 성문이 열리고 닫히던 순간마다 그 안에 깃든 수많은 감정과 사연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과연 어떤 모습과 목적을 지닐지, 그리고 제가 그 문을 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19 3



2024/10/28
monday, pm 7:50 | 32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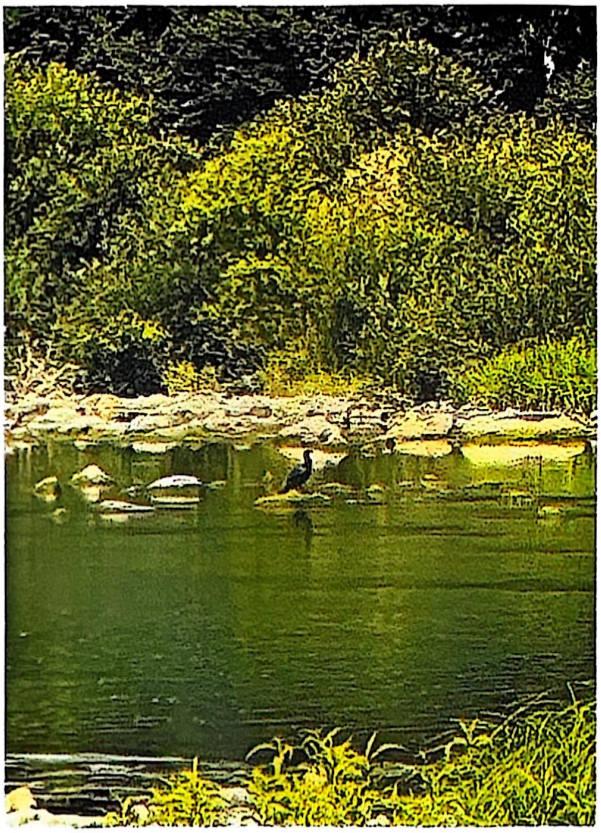
#1일차 #열리다

#감각의열림

매일 아침,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 소리에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익숙한 길과 쏟아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피곤한 얼굴들 속에서 나도 어느새 무표정해진다. 매일 반복되는 이 리듬 속에서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주위의 소리와 빛, 바람은 이어폰 속 음악에 묻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결국 시간만이 내 감각을 흔들어 깨운다.

그러다 도심을 벗어나 도착한 깊은 두메산골에서 텐트를 치고 처음 깊이 숨을 들이쉴 때, 잊고 지냈던 감각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하늘은 무심히도 파랗고, 나무 사이로 스며든 강내음을 머금은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이 생생하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는 귀에 맑게 닿는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다.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자연의 숨결,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열리며 되살아나는 나의 감각들을.

모임이 쉬워진다!



21 15



2024/10/28
monday, pm 8:00 | 32읽음
김경환(화학과)

#1일차
오늘은 라이팅 챌린지 3주 프로젝트 첫날을 맞아, '열리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냄비, 문, 가방처럼 열 수 있는 다양한 것들과 늘 가까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문'에 대한 기억이 특히 인상깊은 것 같습니다. '문의 열림'과 관련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린 시절 처음 만난 자동문입니다. 손을 쓰지 않고도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해서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해 계속 열어보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옛 성문들도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성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성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는 쉽게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들을 떠올리면, 성문이 열리고 닫히던 순간마다 그 안에 깃든 수많은 감정과 사연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과연 어떤 모습과 목적을 지닐지, 그리고 제가 그 문을 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22 6

2024/10/28
monday, pm 8:55 | 28위엄
김준호 (콘텐츠IT / 20195138)

#1일차

열리다.

인생이란 닫힌 문이 열리는 순간의 연속이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그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저절로 열리기도 한다. 어떤 이에게는 꿈을 향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린다.

스무 살,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그 설렘이 생각난다. 고등학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의 시야는 점점 넓어졌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열림'의 순간이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업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익숙해진다. 그러다 문득,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업무의 흐름이 보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며, 더 나은 방향이 보인다. 이것 역시 우리 안에 있던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과정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열림'은 중요하다.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굳게 잠긴 문을 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모든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는 문도 있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도 열릴 것이다.

'열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열림'의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것이다.

20 7

2024/10/28
monday, pm 9:13 | 31위엄
안보민(디지털미디어콘텐츠 | 20232549)

#1일차

혹자는 말한다.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사람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이다지도 불완전해서 때때로 그

무엇보다 견고해 보이는 사람이다. 겹겹이 쌓인 아주 얇고 벼려진 습자지들은 어느새 거대한 벽을 이뤄 나를 에워쌌고, 이윽고 나는 손수 지은 장벽에 갇힌 채였다. 한 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나는 안락을 느꼈다. 숨이 막히지만 숨통이 틔였고, 외로웠지만 누군가의 곁에 있을 때보다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믿었다. 이 보금자리가 언제까지고 나를 지켜주리라고.

누군가 말을 걸어 왔다. 양갈래 머리를 하고, 웃을 때에는 볼의 한 부근에 깊은 산을 이루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 애는 종교를 믿었다. 당시 완고한 무교였던 내게 신의 존재란 가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어쩔 때는 부러 그 애의 믿음을 부정할 때도 있었다. 내 세상 밖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던 탓이다. 그럴 때마다 그 애는 눈을 부릅 뜨고서,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며 나를 겁주고는 했다. 그럼 나는, 아주 작게 웃으며 네가 대신 용서를 구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보통 이런 식이었다. 나는 겁을 냈고 그 애는 열을 냈다. 그 애는 힘껏 쏟아지는 빛을 등지고 말했다. 문을 열라고. 바람이 선선하고 햇빛은 생명을 내리쬐니 제발 그 작은 대피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라고.

그 애가 열어 준 아주 작달 만한 틈으로 본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따듯하고 빛이 났다. 나는 이제 신의 존재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애정에 대해 믿는다. 봄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오로지 함께일 때 불어나는 힘에 대해 믿는다. 타인의 세상을 궁금해하기도, 못내 받아들일 줄도 안다. 이제서야 나는, 비로소 그 애가 열어 준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21 9



2024/10/28
monday, pm 9:32 | 34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일차 #열리다

[열여섯 번째 접시]

저는 열리다, 라는 키워드를 개최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봤습니다. 2024 -2 라이팅챌린지가 열리게 되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다수가 모이기 쉽지 않은 만큼, 챌린지가 열린 것이 사실 많이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개최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회든, 이벤트든, 챌린지든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은 종의 생명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한다면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지 않은가, 합니다.

2024 -1 라이팅챌린지에서 말씀드린대로 전과 이어져 열여섯 번째 접시부터 닦일 예정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나아가, 모두 다 함께 무사히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20 8



2024/10/28
monday, pm 9:55 | 27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열리다

약간 남아있던 더운 기도 사라지고 이제는 완연하게 쌀쌀한 계절들이 열리었습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단풍도 이제서야 서서히 예쁜 색들로 물들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앞을 바라보니 가로수 은행나무 잎들이 모두 노랗게 물들었더군요. 후덥지근하던 여름엔 언제까지 푸를 것만 같았는데 역시 시간이 해결해주나봅니다. 앞으로 열릴 계절을 떠올립니다. 아마 무섭게도 추운 바람과 몰아치는 함박눈이 오겠죠. 그 다음엔 개나리와 함께 다시 초록 잎이 피어날 겁니다. 우린 돌고 도는 사계절 속에서 새로운 계절이 열리기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 당연한 기다림이 질릴 만도 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은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일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민과 생각들에서 잠시 벗어나 계절이 열리는 시기를 한껏 느낍니다. 변화하는 이 삶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분명 대학 시기는 큰 변곡점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안 올 듯 하다 당연하게 오는 가을과 겨울처럼,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열리겠지요.

18 12



2024/10/28
monday, pm 9:59 | 36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1일차 #열리다

예고도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나타났다.

홍진경이 정신 작가에게 쓴 글을 좋아한다.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홍진경을 그저 웃긴 예능인 혹은 모델이라고만 알고 있었기에 동명이인인 줄 알고 몇 번이나 검색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아는 연예인 홍진경이 맞았다. 정신이라는 사람은 홍진경의 친구이자 작가였다.
역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소중한 관계 사이에 생긴 감정을 글로 와닿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다니! 부러울 뿐이다

이 글을 보고 어쩌면 사랑보다 깊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랑보다 진한 우정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사랑·우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고 새로운 감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했다. 예고 없이 나타나 기다린 듯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 애초에 굳게 닫힌 문도 아니었지만, 활짝 열어버리곤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존재도 모르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자꾸만 궁금해졌다. 내 이름은 왜 지혜고 내 이름엔 왜 받침이 없냐며, 책을 보면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별걸 다 질문하던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았냐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 아이에게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고 그 아이의 선물을
사고 집에 돌아왔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밀린 편지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그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1
너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니
무얼 먹었니
쉬는날엔 주로 어떤 소일로 시간을 보냈니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형제는 또 어떻게 되니
내 동생의 결혼할 사람을 앞에 둔
것처럼 나는
한 작은 여자를 마주하고 정말이지 그런게 궁금해져 깜짝 놀랐다
아 사람을 만나
사람을 만나 이리도 별게
다 궁금해 본 것이 얼마만인가
네 키의 반만한 이 아이가 누구인가
분명 지금 나를
온몸
흔들고 있는 무서운 기집애
내가 너 때문에 웃겠구나
내가 너 때문에
그리고
아름수
도
있겠구나.

2004 3월의 디미트리
정신을 처음 마주하고

5
정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나는 정신을 2004년에 처음 만났다
민선언니 소개로 나간 지리였다.
난생 처음보는 한 직은애가 시작부터 엉뚱한
무엇이었다 완전히 당했다.

아홉살에도 열네살에도 스물셋에도 내가 찾던 시람.
그 나이엔 어디에 살았느냐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딱 해댔었다

급리세린을 섞은 듯 쉽게 증발하지 않는 정신의 이야기들은
뒤를어져 엉거주춤 힘겨운 숨을 내쉬던 나를 촉촉히 적셔주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십오년이 흘렀다
서수남 하청일 같이 시이 좋게 쏘다녔다.

이제 나는 정말 더 찾지 않는다.

어떤 때는 정신을 한번도 못 보고 지나가도
정신을 모르던 시절같은 날들에 비하면
아름답다

정신 생일을 축하해
2019 9 14 홍진경

24 8

우리끼리, Band!



2024/10/28
monday, pm 10:10 | 31워홈
조세린(생명과학과)

#1일차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날씨

<문이 열린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

알람을 듣기도 전에 어제 물을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다. 그 급함도 잠시 귀찮음이 강하게 몰려와 침대에서 뭉그적거려본다.

아침 9시, 휴대전화에서 처음 들어보는 알람 소리가 울렸다.
결국 일어나 무슨 일인가 확인해 보았다.

네이버 밴드: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인증해 보세요! '3주 매일 글쓰기'"

세수와 양치를 할 겸, 화장실에 갔다.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이게 무슨 미션인지 생각해 본다. 아 드디어 생각났다. 시험 기간 전, 한 번 해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글쓰기 챌린지'였다. 오전 수업이 있기에 대충 나갈 준비를 하고 책상에 앉아 보았다.

오늘 쓸 키워드는 바로 '열리다'. 키워드로 소설을 쓸까, 에세이를 쓸지 고민해 보았다. 소설을 쓰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주인공과 스토리로 은유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소설을 쓰기로 결정했다. 일단 수업이 있어 강의실로 갔다.

수업 후 점심을 먹고, 소설 구조를 짜보지만 진전되지 않는다. 저녁까지 먹고 써보려 해보았지만 제자리이다. 어쩌면 예정된 미래였을지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소설을 어떻게 하루 만에 쓸 수 있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져 어렸을 때 종종 써본 일기 형식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열리다'를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 보았다. '열매가' 열리다, '길이'이 열리다, '문이' 열리다, '축제가' 열리다, '회의가' 열리다, '마음이' 열리다, '가능성이' 열리다, 등등 "열리다"라는 말 속에 다양한 의미가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생각난 '문이' 열리다에 집중해 보았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닫혀있던 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글을 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이 두려워 문 앞에 어슬렁거리기만 했다. 그 시간이 길어져 점점 그 문이 거대해져 나는 더 이상 그 문에 다가가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여운 고양이 홀리듯 포스터에 이끌려 다시 문 앞에 서, 문의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다시 손잡이를 놓을 수도 있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손잡이를 내리고 있다. 이 글을 마치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겠다.



(P.S. 모두 좋은 밤 되세요!)

20 9

2024/10/28
monday, pm 10:18 | 31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일차 #열리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영역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다. 이를 테면,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텃새가 심한 것처럼 말이다.
좁아하는 장소나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건
본인만의 영역을 드나드는 것이기에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까지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늘 친구가 있었고,
쉽게 다가갔으며, 마음을 쉽게 열었었다.
성인이 된 지금은 친구 사이에도 분명한
'선'이 생겼다. 친구가 나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속 깊은 이야기는 못했었는데,
하루는 고민 끝에 절친에게 고민상담을 했다.
내용은 20대 또래의 흔하디 흔한 연애
상담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한
대화를 오갔다. 그러다가 말하고 있는 내가
어색해져 친구에게 "재미없지?"라고 넌지시
물어봤을 때,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나 고민이 많아보였거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친구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감정이 들었고, 비로소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한다.

21 18

2024/10/28
monday, pm 10:27 | 37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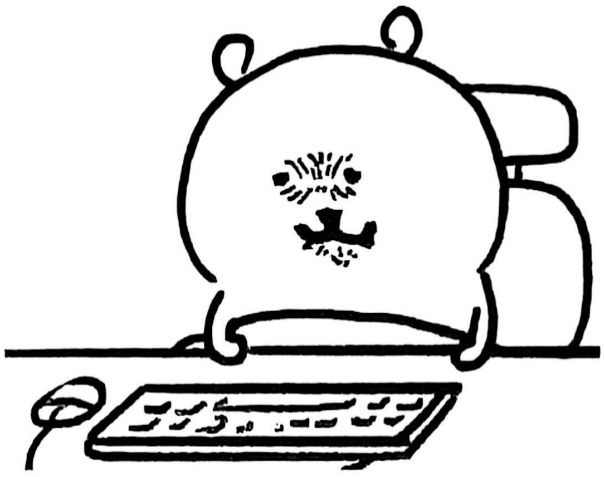
뚜껑이 #열리다

"왜 나만 아직도 중간고사야!!"

차라리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혹독한 양의 과제가 나를 덮친다.
어푸어푸 살려주시라요. 교수님, 제발...
하지만 교수님들께는 나의 간절한 외침이
닿지 않는지 아랑곳 않고 팀플도 얹어주신다.

그 무자비 함에 "오늘 넘기면 내일은
편하겠지"라는 달콤한 빈말로 날 속여보지만
다음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안다.
내 손에는 무기 아닌 키보드와 마우스,
전쟁터는 노트북 앞이다.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은 길어진다더니 딱 내
상황이 그랬다.
방학은 가을처럼 짧았고 이번 학기는
겨울처럼 길고 차가웠다...

밀려드는 과제를 막아낼 재량이 없었다. 그저
떠내려가며 버티는 수 밖에.
이렇게 된 거 그냥 미래의 내게 다 맡기면
조금 편할까?
하지만 과제를 하는 건 오늘의 나겠지.
교수님들께는 닿지 않을, 나만의 작은 뚜껑을
열어본다.



#1일차

24 12

2024/10/28
monday, pm 10:35 | 33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일차
노량진의 작은 원룸 방, 그곳에서 나의 꿈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학원에 가 책을 펼치는 순간 그저 얇은 종이 속 글자들이 아니라 내 미래를 열어줄 열쇠처럼 느껴집니다. 시험 준비는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노력할수록 점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옆자리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열고, 배움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노량진의 좁고 소란스러운 거리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피곤을 씻어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나의 마음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가면서 작성하여 벽에 붙인 글귀를 볼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작은 시험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며,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결국 꿈을 이루는 길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단의 사진은 제 방 벽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 맹자

22 10

2024/10/28
monday, pm 11:07 | 26읽음
권영하(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일차 #열리다

1년 전, 기타를 치던 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기타를 잡을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집에서 우연히 기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처음 다시 손에 쥔 기타는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기타를 치는 순간 만은 손끝에만 집중하여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된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힐링타임이다. 이 경험은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연결되는 순간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한계를 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타를 치며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19 3



2024/10/28
monday, pm 11:10 | 26읽음
임은송 (경영학과 20213029)

#1일차
1일차 키워드를 보자마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한 후, 자신의 방 창문이 열리면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장면이 떠올랐다. 이 순간, 그레고르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느끼게 된다. 창문이 열리면서 그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고립된 상태를 대조하며, 자신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레고르의 고통과 외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변신 이전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불행한 존재로 전락한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고립감과 소외 문제를 날카롭게 드러내며, 현대 사회에서 종종 겪는 갈등과 상처를 비추는 것 같았다. 결국, 그가 '열리다'라는 단어를 통해 발견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프지만 의미 있는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임을 느꼈다.

18 4



2024/10/28
monday, pm 11:14 | 27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일차
나에게 열린 경험이란, 아무래도 대학에 입학하고 지금 친구를 만난일인 것 같다.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준 그 친구는 대학에서 만났다. 학과 오리엔테이션날이었다. 그 날은 분반 시험을 치기로 했는데, 하필 펜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가져왔다. 곤란해하다가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가 나에게 펜을 빌려주었다. 내가 펜 없는 걸 어떻게 알고 바로 줬는지 의문이였지만 어쨌든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무사히 분반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대학에 입학하고 첫 전공수업을 들었다. 첫 수업이라 자기소개만 하고,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 날 밤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나와 친해지고 싶다는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피곤했던지라 일단 알겠다고 가볍게 답하고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원래부터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관심이 없던 성격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그 애가 귀찮았다. 툭하면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걸길래 가끔씩 짜증을 내기도 했다.그럼에도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다가 내가 살짝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 때는 내가 그 친구를 더 밀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 수록 그 친구는 매우 슬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 펜을 빌렸을 때, 순간, 익숙한 느낌이 들어 친구에게 물었다.
"혹시 너 오티 때 누구한테 펜 빌려줬니?"
내 질문에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맞아. 나 너한테 빌려줬어."
알고보니 그 친구는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친해지고 싶었다고 한다.
나는 그 때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에게 나같은 애가 왜 좋냐, 왜 친해지고 싶었냐 라고 물으면, 지금도 여전히 "너여서 좋다. 너여서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답한다. 지금은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고, 같이 요리를 하며 밥을 먹고 청소하고 과제를 하고 정~말 가끔은? 사소한 일도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와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아이 덕분에 내 세상이 열린 것 같다. 어쩌면 혼자 쓸쓸히 보냈을 수도 있었던 대학 시절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그 친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정말 오글거리는 말이지만...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운 친구다. 나는 그 아이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8 4

2024/10/28
monday, pm 11:29 | 28읽음
황윤정(광고홍보학과)

#1일차 #열리다
문단속
한때는 열려있다는 것을 존경했다. 모든 걸 포용하는 오픈 마인드처럼, 더 넓은 사람을 꿈꿔왔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싶었고, 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생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열고 싶지 않고 닫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되는 것 아닐까? 비로소 나를 드러냈을 때, 내 생각을 말했을 때, 솔직해졌을 때 무언가 끈끈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났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열 수 있었고, 열 수 있었기 때문에 닫을 줄 알았다. 열림과 닫힘은 떼어 놓을 수 없는 연속적인 관계라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 줄도 닫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열리기보다 닫힌 걸 선택하고 도망칠 때도 있지만, 그건 그냥 잘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나만의 문단속 안에서 큰 사람이 되어가고 싶다.

19 4

2024/10/28
monday, pm 11:44 | 24읽음
(알 수 없음)

#1일차
열려 있는 나의 진로 선택의 길.
하지만 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도 혼돈에 빠져 있다.
스무살이 되면 꿈을 찾아, 꿈을 위해 노력할 줄 알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막상 직업으로 삼자니 흥미를 잃을 거 같아서 망설여진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행복과 즐거움보다 걱정, 근심이 늘어나는 거 같다.
길은 열려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는 내가 하루 빨리 나아가길 바라기만 한다.

17 6

2024/10/28
monday, pm 11:46 | 29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1일차
때로 기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싶어 렉센터에 등록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삼 일은 억지로 억지로 나갔었습니다. 숨이 차고 뛰기 싫었지만 속으로 딱 1분만 더 버텨보자고 다짐하며 런닝머신 위에서 달렸고 1분이 5분, 20분, 30분이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대로 조금만 뛰었고 어떤 날은 30분을 훕쩍 넘게 뛰는 날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대충을 반복하며 뛰던 날들이 어느새 조금씩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을 뛴다고 해도 오늘 내가 1분을 뛰기로 했다면 한번도 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한 2분, 3분, 5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얻게되는 성취감은 저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나는 1분 뛰기라는 나와의 약속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으니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보이고 막막한 공부와 과제들도 더이상 어렵지 않았고 나아가 마주하기 두려웠던 고민이나 문제들의 해결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의 약속을 항상 해낸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제 삶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바꿀 기회, 나를 사랑 할 기회, 두렵고 막막한 일에 뛰어들 기회,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기회. 운동도 해냈으니 다른 것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새로운 언어 공부와 공모전 준비, 알바 구직도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제가 1분 뛰기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던 것처럼 제게 맞는 속도로 완주를 향해 천천히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루틴과 습관이 나를 변화시킬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운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고,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꾸준히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19 6



2024/10/28
monday, pm 11:56 | 22읽음
지소영(간호학과)

#1일차 #열리다

"열리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새로운 시작, 활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입니다. 서른 살이 넘은 나이에 직업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순간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중요한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결과와 과정을 고민하느라 망설이곤 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으니 편입학에 합격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제를 소화하고, 매주 쌓이는 수업 자료를 보며 지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을 열면 어떤 결과든 남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저를 느끼며 자긍심도 쌓여갑니다. 비록 새로운 시작에 나를 반겨주는 햇살이 없더라도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흥미로운 드라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시작해보자는 마음입니다.

17 6



2024/10/28
monday, pm 11:59 | 25읽음
이나영

19 3

#1일차 #열리다

늦은 밤 춘천에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다. 창 밖으로 흐르듯 보이는 풍경 속에서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거리는 온통 암흑이다. 낮에는 잘 몰랐는데, 해가 떨어진 한밤중에 밖을 나서면 무척 쓸쓸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모두가 가야할 길을 알고 떠났는데, 나 혼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떠도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경찰서, 소방서, 편의점처럼 가끔 불이 환하게 켜진 채 열린 곳들이 보이면 안심이 된다. 그 안의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겠지. 모두들 하루의 끝에는 자신의 공간에서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한다. 나도 굳게 닫힌 곳들을 지나 오로지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향한다. 따뜻하게 불을 켜 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활짝 열린 채 나를 맞이하는 공간. 나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있어 참 다행이다.

'열리는' 것은 곧 희망을 말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얼마 뒤에 열릴 경기를 기다리고, 축제를 기다린다. 다음 날을 기다리고, 며칠 뒤, 몇년 후를 기다린다. 때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음악에 귀를 열고, 문을 열어 누군가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처럼 '열린다'는 말은 여러 의미에서 늘 기쁘고 희망차게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하루가 열렸다는 시적 표현이 참 좋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내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다. 아침일수도, 혹은 오후, 새벽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새로운 하루가 열린다. 모두가 또 한 번 찾아온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나에게 열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지.



2024/10/28
monday, pm 11:59 | 23읽음
박현민(심리학과)

#1일차 #열리다

'열리다'라는 단어가 어울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창한 경험보다는 일상 속에 녹아든 생각을 풀어내고 싶다고. 나는 나와는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하는 타인과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타인의 생각을 읽을 때면 나의 생각의 문을 하나둘씩 열어가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세계가 전혀 달라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게 참 매력적이다.
과거의 생각했던 생각들이 현재의 내가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르게 변화했을 수 있고, 여전히 같을 수 있다. 그 사이 변화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문이 점차 많이 열려, 달라진 것이다. 즉 나의 세계가 성장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성장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학이 정말 좋고, 예술이 좋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또 하나의 경험이 생각났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나라는 사람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기분을 느낀다.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향을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재밌다.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타인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작게 혹은 크게 실망이 따른다. 그러나 나 자신과는 그 어떤 이보다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그 알다가도 모르겠음이 앞으로도 다양한 문을 열어줄 거라 믿는다.

18 3



2024/10/29
tuesday, am 12:17 | 47읽음
김양선

#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전부터 깊은 밤까지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고, 다른 학우들의 글을 읽으며 공감과 감탄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고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건 아닐까요? 열림이 있으면 닫힘이 있겠지요? 오늘자 글쓰기의 문은 여기서 닫힙니다.
수고했습니다.

25 0



2024/10/29
tuesday, am 8:00 | 53읽음
김양선

#2일차 키워드 : 찰나
'찰나'는 아주 짧은 순간을 뜻하지요.
손가락을 튕기는 그 짧은 순간, 눈을 깜빡이는 순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런데도 어떤 찰나는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나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내 인생의 짧고도 강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찰나'라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2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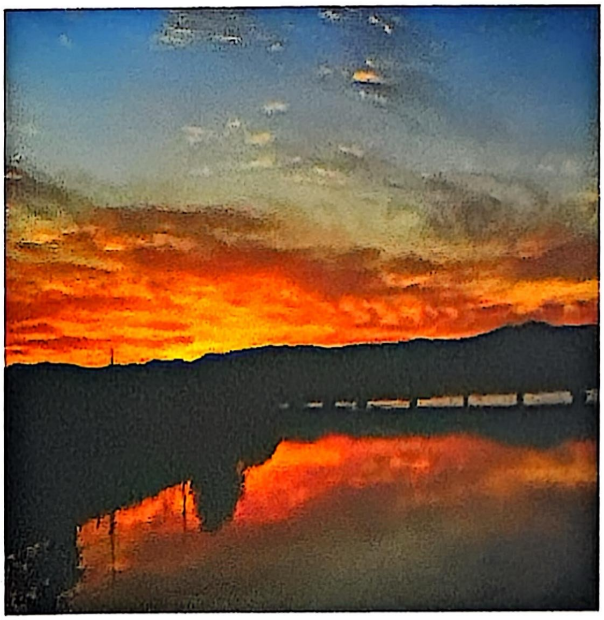


2024/10/29
tuesday, am 8:55 | 32읽음
전수현(법학과)

#2일차

내 인생에서 '찰나'라는 기억에 남는 순간은 노을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한순간의 기억이 아닌 매일 올려다보았을 때의 순간이다.
자연을 카메라에 담아 자연광에 비친 동물들, 식물들이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있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사진을 담고 사진을 찍기 위해 걸으며 하루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러한 사진들보다 가장 내 심금을 울리는 것은 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노을,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늘에 나타난 찬란한 주황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가슴 한편에 감동을 받는 느낌이 있다.
지친 하루 처음 느낌을 받았던 건 고된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여러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며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을 때, 하늘이 유독 밝아 고개를 들었다. 잠시 동안 노을이 잘 보이는 공원에 앉아 하늘을 보며 '오늘의 태양이 져도 내일의 태양은 뜬다. 평소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인 일이 쌓이면 그 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었다.
나는 러닝을 즐겨 하는 편이다. 러닝을 하는 이유는 체중 감량의 목표도 있었지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정화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노을과 함께 러닝 할 때면 숨 차오르던 것이 안정이 되고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기분을 받는다.
누구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한때가 아닌
앞으로의 순간일 것이다.



19 7



2024/10/29
tuesday, am 9:01 | 31읽음
유채원(일본학과)

#2일차
'찰나'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춘천 대학 연합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면
나는 축제 현장으로 어느새 빠져들고,
초등학생 때 운동회 사진을 보면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밥을 먹을 때나 어딘가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는
편이다.
어릴 때는 몰랐던 찰나의 소중함.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다. 부모님은 여행만 가면 '사진
찍게 여기 앉아봐라.', '브이 해봐라.',
'웃어라.' 이 세 문장을 반복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을 귀에 박히게 들어도
내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도리어 내가
부모님에게 말한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찰나가 영원으로 남는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18 6



2024/10/29
tuesday, am 9:02 | 27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2일차
나는 보통 '찰나'하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이 떠오른다. 인생의 찰나의 순간은 내 인생
중에 강렬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경험을 말하겠다.
6살 때 일이었다. 나의 본가가 서울
영등포구인데 교회에서 영등포노회
어린이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합창이든 중창이든 뭐든
나갈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나는 교회 무대 같은데 서면 다른 친구들은 다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유치부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나를 독창에 내보내겠다고 했다.
엄마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바료를 잘
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독창을 내보낸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했다. "과연 주현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다. 그 때 선생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어떻게든 주현이가 나가서 노래
부르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뤄졌다. 내가 어떠한 계기로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냥 이 선생님과
연습하다보니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다.
대회 당일, 교회 차량 운전을 외할아버지께서
하셨는데 난 그 조수석에 탔었다. 그 때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다른 사람 보고

부르는데 힘들면 맨 뒤에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봐라. 그리고 무조건 크게 불러라!
자신감 있게!" 라고 하셨다.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 이 말을 되새기며 노래를 불렀다.
가능 할까 했던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노래를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노래를 부른 것이다.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뿌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시상할 땐 솔직히 기대를 안 했다.
처음 나가는 거고 제대로 노래 불러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접으려는 찰나에 "사랑상, 양평동교회
이주현!" 이라는 말이 들렸다. 이 대회에서
사랑상은 1등 상을 말한다. 나와 엄마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그
아주 짧은 환호 속의 그 찰나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 때의
순간은 강렬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 1등을
해서 남아있는 거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순간이기도 해서 이다.
나에게 '찰나'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강렬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단어 같다!

21 8

2024/10/29
tuesday, am 9:18 | 33일차
김도은(광고홍보)

#2일차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첫 눈에 반해본 적
있는가?'

한 문장이 있다.말 그대로 당신이 첫 눈에
반한 무언가가 있었는지,혹은 그 짧은 순간
머리부터 발 끝까지 심장박동이 지배하는 것
같은 강렬함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것이다.애초에 종류가 플라토닉이든
아가페든 에로스든 상관 없다.아,조금 더
확대해서 나는 운명을 믿냐는 의미로도
생각해보고 싶은데,'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운명적 사고는 어떠한 이성이나
인과의 개입을 철저히 제한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제 3자적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그
누가 봐도 주관적이기만 하고
비이성적이다.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확고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다 이런 판단이 그저 편견이었으며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준 일이
생겨버렸다.그렇다.바로 첫 눈에 반해버린
것이다.그것도 아직 친하지도 않은
지인에게!당시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찰나같은 감정의
파도는 기억도 휩쓸어가기 때문일
것이다.아무튼 당시를 좀 과장해서
표현해보자면 누가 내 심장을 떼어다가
하늘을 향해 높이 던지고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한 마디로
어질했다.

모임이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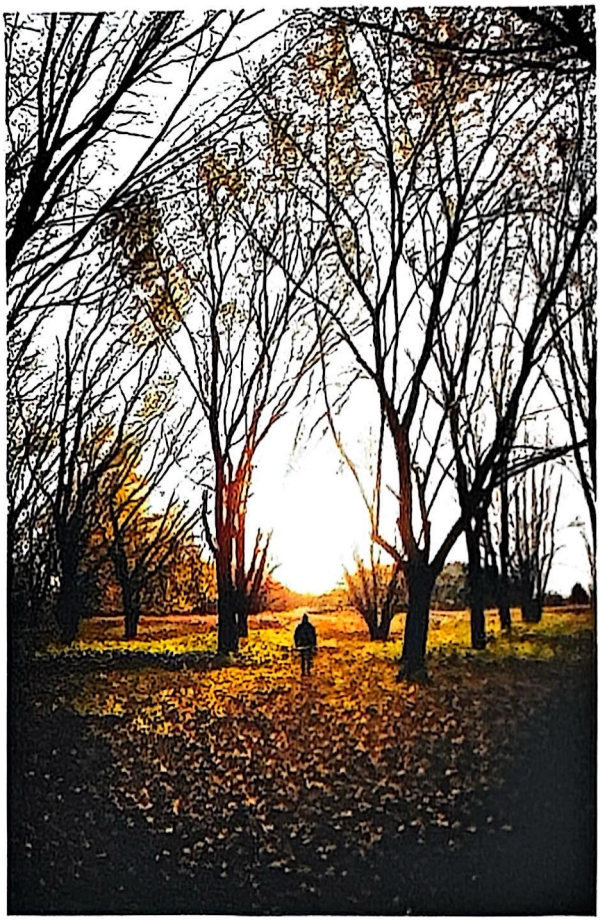
하지만 이 와중에도 머리속은 생각을 놓을 순 없던건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차고만다.이때 생각이란 '왜?'혹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낀거지?알던 사람이잖아.예전엔 이런 생각 안들었는데?'등등의 질문으로 객관성을 따져봄과 동시에 반추해보는 행위이다.그래서 일단 통과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를 해본다.

소위 말하는 '떠보기'이다.단순 애인의 유무와 이상형을 떠나 대화코드가 맞는지 지켜보는 것이다.혹자는 떠보는 것이 어떻게 가까워지는 작업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겠지만,직접적인 대시에 비하면 위험부담이 적기에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싶다.일과 목표와는 달리 사랑에 있어 난 생각보다 저돌적이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다.젠장 실패다!역시 본인이 짝사랑 전문가인 이유가 있다.

그 전설적인 찰나를 안겨줬던 지인은 더이상 이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다.'생각하므로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남긴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에서 '존재하지 않으니 생각도 않는다'는 대우가 되어버렸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첫 눈에 반했던 것이 무색하게 감상이 휘발돼버렸다.이쯤에서 다시 한 번 깨닫는다.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고,마음이 떠나면 결국 남는 것은 단지 무엇이 머물렀었다는 '자욱'이구나.그 후로 다시 감정이 이성을 선점하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절망적이라 여길 수도 있다.어느 한 편으로는 한심해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은 찰나가 주는 강렬함에 매혹되어 후회하는 것 보다 소통하는 과정과 감정 교류에서 쌓아올린 진정한 '유대감'만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곧게 세우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말이다.

우리끼리, Band!





※제가 찰나에 찍은 달 사진 공유합니다~!

19 17



2024/10/29
tuesday, am 9:19 | 28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2일차
저는 "찰나"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5분 정도 걸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까지 있습니다. 정류장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 기다리는데 버스 남은 시간은
5분 남아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버스를
놓칠 수 있는데 "찰나"의 순간에 초록불로
바뀌고 뛰어가서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탔던
경험이 생각 나네요.
또 다른 경험은 고등학교 졸업식날에
일어났던 경험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총동문회에 저를 장학생으로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만약에 받아도 선생님께서 따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날
체육관 단상 앞에서 졸업식 사회(?)를
봐주시는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고,
학교 총동문회장님께서 직접 장학증서를
주셨을 "찰나"의 순간은 제 기억의 강렬하게
남은 최고의 졸업식이였습니다.

17 12



2024/10/29
tuesday, am 9:44 | 31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2일차

나는 기억력이 정말 안좋아서 찰나의
순간들이 남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느끼려고 노력한다.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놀러갔을 때, 부산여행 갔을 때, 바다를 보거나 인상 깊은 영화를 처음 봤던 느낌. 이 모든 찰나가 눈이 부시던 순간들이였는데 그때 봤던 장면들이 정확하게 기억남지 않는다. 사진으로 남기는 것에도 내가 느낀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다른 사람들은 희미해져가는 찰나를 어떻게 남기는지 궁금하다. 흘러가는대로 두는 것이 더 아름다운 추억인지 그 순간에 남아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찰나의 의미인 것인지.
나는 찰나 속에서 영원히 살고싶다.

Tree_오월오일

18 7

2024/10/29
tuesday, am 11:22 | 29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2일차
"찰나" 키워드를 보고 처음 떠올렸을 때는 "아 첫눈에 반하면 그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찰나에 강렬함이 첫눈에 반하다라는 말을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처음 보면서 심장이 마구 뛰거나 그 사람이 하는 말 말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사실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른 찰나의 경험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린 20년 넘게 꽤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가정에서 잘 놀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까지 오게 되었죠. 물론 사람마다 인생길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저희는 커가는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5살 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몇 명이 그 시기에 기억을 꺼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그 나이 때로 돌아가 다시 생각한다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경험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순간이 그때는 기억이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찰나 속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기억이 사라져서 그 사건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만 남았을 수도 있고 원인은 모르지만 결과만 기억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찰나에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찰나에 순간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보람차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18 6



2024/10/29
tuesday, am 11:51 | 28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2일차
“찰나의 주마등”

삶의 마지막 순간 볼 수 있다는 주마등. 길던 삶이 찰나에 압축되어 스치는 신기하고 기이한 순간. 그 때의 기분은 어떠할까. 두려울까, 황홀할까. 슬플까, 행복할까. 그 삶이 행복했다면 삶의 마지막이 불행일테지만, 그 삶이 지옥이었다면 죽음은 구원일텐데. 주마등을 겪었다는 경험담을 들을 때면 그가 죽기 직전 살아 돌아왔음을 먼저 떠올린다. 삶의 끝에 다다랐을 뿐 정말 죽지 않은 생을. 주마등과 함께 삶의 목적지에 닿았다면 그는 경험담이 아닌 살아온 나날에

대한 후회와 회상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몇 달 전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마주했다. 그는
화가 많고, 고집이 세며, 폭력적이었다.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장례식에서
서로를 탓하고, 죽어버린 그를 원망하기
바빴다. 그는 주마등을 보았을까. 그는
주마등을 통해 삶의 전성기를 보았을까, 삶의
불황기를 보았을까. 찰나의 선택과 운명이
이어진 삶을 돌이키며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을까,
타인의 죄를 꾸짖고 있을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매일 묻는다. 수많은 질문은
감정을 싣고 하늘에 오른다. 그것은
그리움일지도, 원망 혹은 미움일지도 모른다.
대답하지 않는 하늘에 질문으로 답한다.
사후의 시간을 또다른 '삶'이라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떠난 이
세상엔 언젠가 떠나야 할 삶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청춘일지 모를 우리의 시간들. 찰나
혹은 평생처럼 느껴지는 이 삶의 순간들.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 우리의
주마등 속엔 어떤 조각이 쌓이고 있을까.
여전히 산 자는 묻는다.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또 내일에 대해. 바라건대 나의 주마등
속에 후회만은 남지 않기를. 미워하고
사랑하며 끝내 최선이었다 말할 수 있기를.
나의 내일과, 그렇게 이어진 매일이 꼭
그러하기를.

☺ 20 ⋯ 8



2024/10/29
tuesday, pm 12:04 | 28읽음
서정원(심리학과)

#2일차 키워드 '찰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찰나의 순간을
마주한다. 다른 순간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겠지만, 제대로 부호화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결국엔 기억이 휘발되고 잊혀 잘못된
기억으로 남을 뿐이다. 사진, 글쓰기, 그림
등으로 순간을 기록해야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정보가 미래에까지 유지되고
그래야 인출, 즉 과거 회상의 정확성도
올라간다. 나는 어떻게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까? 내가 글을 자주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으로 남긴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것 같다.

어제의 '멸림' 키워드와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나는 작년 겨울 20대로 구성된
사람들과 동유럽 여행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첫 여행지 눈 오는 부다페스트의 어느
식당에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을 때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녀는
교대에 재학 중이라고 말했고, MBTI는
ENFP라고 소개했다. 1년 6개월간
군부대라는 새장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많이 좁아진 상황에서 나와
MBTI도 거의 반대고, 예상치도 못하게 교생
실습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또래 여자애는 처음
봐서 흥미로웠다. 밥을 먹고 나서는
부다페스트 거리를 걷다가 눈이 소복이 쌓인
크리스마스트리와 오페라 극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집단생활이 주를 이뤄
자유분방함보다는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는
곳에 오래 일하다 와서 그런지 나는 혼자만의
여행보다는 어떻게 조원들이 행복한 여행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찍어줘야
그들이 만족할지를 고민하며 다녔다.
—군대라는 환경은 '나'를 위한 사고방식을
억제했다.— 반면에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성격의 그녀는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었다. 나는 크리스마스트리에서부터
억압된 내 무의식 속 정체성을 그녀에게
투영했고, 그녀를 '이상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행 둘째 날부터는 그녀의 활기찬
모습을 매번 사진으로 담게 되었다. 세체니
다리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 탔던
메트로에서 내리던 그녀를 담아낸 사진과

부다성에 올라갈 때 신나서 뛰어올라오는 그녀를 담아낸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 사진은 내가 먼저 메트로에서 급하게 내려서 찍은 사진이라 흐릿한데, 자연스러운 미소와 메트로에서 내리는 그 순간을 담아낸 것이 만족스러웠다. 두 번째 사진은 노란 전조등이 중세 시대 건물을 환히 밝히는 공간에서 신나서 뛰어 올라오는 모습을 자연스레 담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쓰면서 생각한건데,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글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사이인 사람을 찍은 사진 이야기를 하며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음침해 보이지는 않을까? 개인 일기장에만 남겨야 할까? 충분히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줄곧 글을 써오며 해소해 왔는데, 찰나의 순간이 기억에 오래 남기에 글이 잘 써진다는 이유로 거의 1년 넘게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걸까 생각하게 된다. 다음 키워드부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써봐야겠다.

18 7

로임이 쉬워진다!

2024/10/29

tuesday, pm 12:10 | 29읽음

김미란

[좋은 책을 발견하는 '찰나'의 순간]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다.

좋아하는 단어: 책, 독립서점, 존경할 수 있는 어른, 배움, 사랑, 좋은 날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지만 오늘은 아직 시험이 남은 관계로 '책과 독립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려고 한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사람은 나 밖에 없겠지..?

나는 책을 좋아한다. 좋은 책을 발견하고, 그 책 속에서 지금까지는 생각지 못한 혹은 나의 가치관과 많이 맞닿아있는 문장을 보면 그 찰나의 순간 행복과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 있다.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감탄한 이야기에 나를 결합시키는 것' 이라고 말이다. 나는 내가 감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 순간 나라는 작은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교보문고나 알라딘과 같은 큰 서점도 가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독립서점'이다. 나 혼자 외딴곳에 숨겨진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독립서점은 서점 주인의 취향이 묻어난다. 어느 날 서촌에 있는 '책방 오늘'이라는 독립서점을 가게 되었다. 책을 하나씩 천천히 보는데, 너무나 내 취향인 책들이 많아 보는 내내 행복했다.

뭘 사야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버렸다. 서점 주인 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전혀 죄송하실 거

없고, 충분히 보다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도 돼요.” 라고 말씀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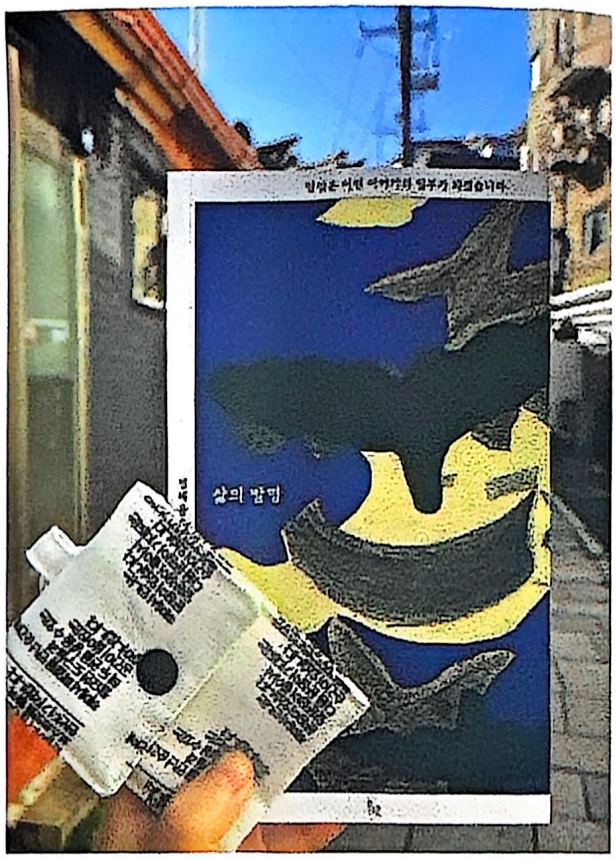
이후 서점 주인 분께서는 따듯한 커피를 내려주시고, 함께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책들은 서점 주인 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밑줄 긋고 코멘트를 달아두었다. 단순히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밑줄을 긋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펼쳐놓은 것이다. 많은 손님들이 직접 읽고, 코멘트를 달아둔 이 책을 살 수는 없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

이 책방에서는 독서모임도 진행하고 있었다. 작가님을 직접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독서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말하길,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 했을 뿐인데 마치 열 권을 읽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나도 꼭 언젠가 이 책방모임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안은 채, 정혜윤 작가님의 책과 책을 읽을 때 밑줄 긋는 몽땅 연필을 담을 수 있는 작은 파우치를 사서 서점을 나왔다.

좋은 책을 발견한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행복해진다. 그러한 찰나의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

책의 단 한 페이지가, 한 문구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기도 한다. 그랬던 경험이 있기에 그 힘을 믿는다. 좋은 책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



20 9



2024/10/29
tuesday, pm 12:41 | 29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2일차

수업 끝.

생각보다 수업이 일찍 마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2층인지 3층인지 잘 모르겠지만, 창가 자리에 앉아 초록 창을 켜본다.

외풍이 들어오는지 생각보다 춥다.

얼어붙은 손을 뒤로한 체, 검색창에 ‘ㅊ’, ‘ㅏ’, ‘ㄹ’, ‘ㄴ’, ‘ㅏ’를 차례대로 써본다.

오래된 노트북인지 그런가? 작은

검색만으로도 내장 팬이 열심히 돌아간다.

'어학사전'을 눌러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찰나 刹那

명사
1.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2. (기본의미) 불교 지극히 짧은 시간.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발췌.

75분의 1초.

약 0.013초.

무언가를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 마음속으로 이건 생각보다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들은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진은 충분하지 않다. 사진은 시각적인 이미지만 담을 수 있기에. 그래서 난 동영상을 좋아한다. 과거의 찍었던 동영상을 보면 찰나의 순간이 길어진다. 마치 이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물리법칙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좀 더 생각해 보면 '찰나'는 본질적으로는 나에게 있다. 아무리 사진과 동영상으로 '찰나'를 담아보지만 이들은 그 기억의 감정을 촉발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느낀 '찰나'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는 이성적 공감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짧은 순간인 '찰나'들이 쌓인 경험은 결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아쉬웠던 찰나들이 생각난다. '좀 더 그 순간을 느껴볼걸'과 같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답게 울긋불긋 물들인 가을 단풍 사이, 아직 남아있는 초록초록한 잎들. 시험 후에도 도서관에 나와 머리를 싸매며 과제를 하는 대학생들. 모두 각자의 주어진 임무 앞에 최선을 다고 있다. 오늘 도서관에서 만난 또 하나의 찰나를 마음속에 세겨본다.

20 10



2024/10/29
tuesday, pm 12:51 | 31읽음
강하늘(심리학과)

#2일차 나의 '찰나'

'찰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라고 한다.

'찰나'라는 말을 읽고 나의 인생 속 찰나의 순간을 찾고자 사진을 훑어보다.

너무 많은 찰나를 간직한 나의 삶을 보고 문득 나의 삶 속에 '찰나의 순간'이 깃든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은 찰나의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에 찰나의 순간에 피는 벚꽃과
여름 찰나의 순간에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 찰나의 순간에 올려다본 하늘이
겨울 찰나의 순간에 내리는 눈들을

혹시 이 글을 읽은 누군가가 '찰나' 순간을 고민하거나 자신의 삶에 반짝이는 순간을

찾고있다면 당신은 이미 매일 매순간
찰나같은 빛나는 삶을 살고있는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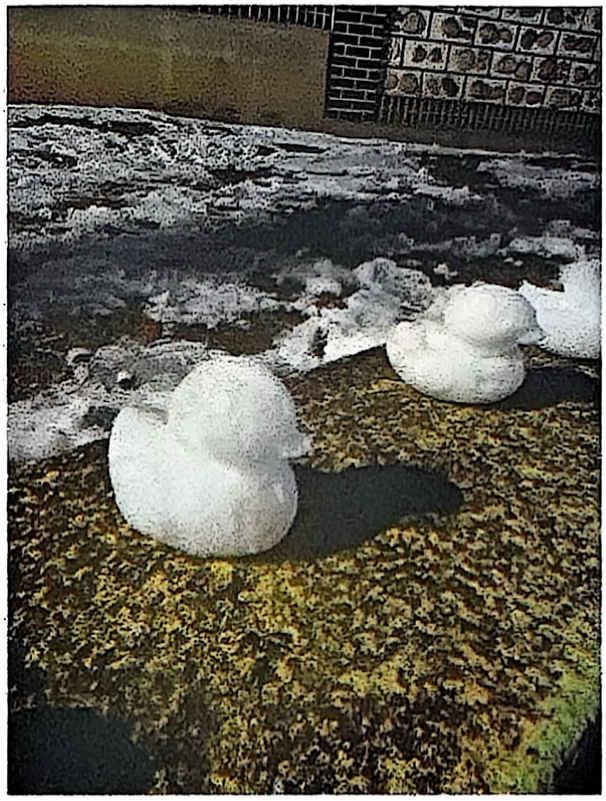
제가 생각하는 '찰나'는 삶 그 자체입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멋진
찰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21 20

2024/10/29
tuesday, pm 1:10 | 27화음
한주연(미디어스쿨)

#2일차
찰나
저에게 찰나의 순간이라 하면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쯤
이였었을 까요. 2살 터울 친언니와 항상
붙어다니던 그 시절이 였던 것같네요 . 아마
초등학생 저학년 때 있었던 일 인 것같습니다.
저희 집 앞엔 큰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4개지만 그때는 그 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밖에 없었고 신호도 매우 짧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이였던 저와 제 언나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젊고 체력도 좋아서 달리기가
쌩쌩 했었죠. 언니와 제가 집에서부터
문방구를 향하기 위해 그 큰 신호등을
건넜어야만 했었고 그 신호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초록 신호등에서 빨단
신호등이 바뀌는 그 찰나.
깜박깜박 불이 전환되는 그 찰나의 순간. 저의
언니는 누구보다 빠르게 저보다 긴 팔과 긴
다리로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못
넘어갔고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지켜보기만 했었죠. 이상하게 그 어린시절엔
무단횡단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신호등을 기다리는건
힘들긴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희 언니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빨리 넘어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였겠어요. 저는 안간다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신호가 너무 길었어서
그 당시 체감상으론 5분 기다리는 것만큼
길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라는 언니의
말과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였고
그렇게 발걸음을 떼고 중간까지 도착했을 때
어디서 나타난건지 모르는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저를 향해 다가오고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 그 찰나에 몸이 굳어졌고
그 찰나에 멀리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정신차리라는 신호로 다급하게 불렀던
것같습니다.
저는 굳어져있던 몸을 다급하게 움직여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었고 심장이 매우
떨렸지만 너무 순식간이였기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찰나로 인해 저승의
문턱을 넘어갈뻔 했습니다.

18 8

2024/10/29
tuesday, pm 3:17 | 29읽음
박시연(사회학과)

#2일차
나는 매일매일을 빠짐없이 일기에 기록한다.
하루 중 그저 지나보내는 작은 찰나의 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다 밀린 일기를
왕창 쓰고 나면 비로소 느낀다. 내게 허락된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다.
기록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찰나의 기억들을 섬세히 기록하고 있노라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기억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찰나의 순간들로 힘겹고
외로운 시기도 버틸 수 있고, 고된 기억으로
남은 찰나의 노력들은 나를 더욱이나
단단하게 만든다. 찰나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서로 모이고 모여 억겁의 시간이
되고, 그렇게 모인 시간으로 나는 성장한다.
지금도 놓치고 있는 찰나의 순간들이 있다.
오늘도 난 기록을 통해 이 소중한 조각들이
내게 스며들도록 하고 싶다.

22 11

2024/10/29
tuesday, pm 3:50 | 28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2일차 #찰나

#영원을만들어내는찰나

산 위의 노을

태양이 지는 하루 끝자락엔 노을이 피어나고,
세상의 온기가 지는 한 해 끝자락엔
산 위에도 노을이 퍼진다.

기온이 훅 내려앉는 그 순간마다
잎새들은 붉그스름하게 타오르며
잠시 머물다 사라질 찰나의 빛을 담아 둔다.

붉꽃이 가장 붉게 타오를 때가 있듯이
잎사귀들도 마지막 붉꽃을 일으키며
강렬한 빛으로 산을 물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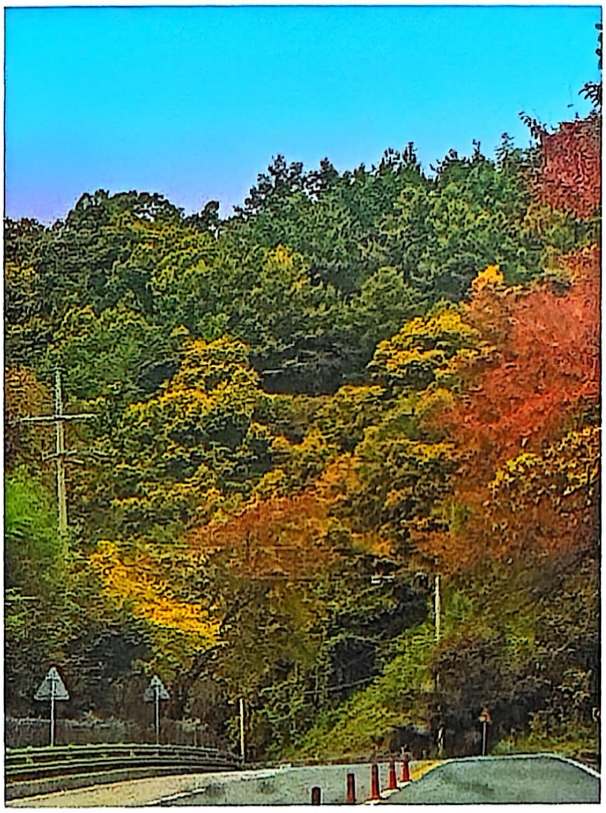
마치 타오르던 색들이 흩어지고 남은
잔잔한 재의 여운처럼,
노을은 추풍 속에 옅게 흩뿌려진다.

그리고 모든 붉꽃이 사그라진 자리엔
새하얀 고요가 살며시 내려앉아
생명의 재를 조용히 품는다.

어쩌면, 산이 품은 노을은
봄을 틔우기 위한 계절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찰나가 영원을 만들어내는 순간.

———
오솔길을 거닐며 발에 채이는 낙엽을
바라보다 가을 찰나에 피고 지는 단풍이
영원히 반복되는 계절의 시작을 틔우는
거름인 것 같단 생각에 시를 지었습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17 12

2024/10/29
tuesday, pm 5:29 | 22읽음
김경환(화학과)

#2일차
오늘은 라이팅 챌린지 2일 차를 맞이하여 '찰나'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떠올리면, 오랜 시간이 대비되어 함께 생각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긴 격리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마주했던 하늘이 떠오릅니다.

오랜 시간 사방이 막힌 공간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밖으로 나선 날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그 하늘은 유난히 붉고, 유난히 높고, 유난히 맑고, 유난히 자유로웠습니다.

함께한 모두가 그 찰나의 하늘을 보며 더 감탄하고, 마음속에 더 잘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찰나의 하늘은 잊고 있던 자유를 다시 일깨워주는 듯했습니다.

17 5

2024/10/29
tuesday, pm 6:12 | 22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2일차
늦가을의 어느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익숙한 장소였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악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우리는 차 한 잔을 놓고도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머물렀다. 마주 앉아 있긴 했지만, 우리 사이엔 수많은 단어와 감정들이 잔잔한 파도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말을 꺼내기엔 너무 늦었고, 침묵하기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짧은 순간, 찰나의 눈맞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던 긴 밤의 대화들, 소소한 일상 속 웃음소리와 함께 만든 추억들이 그 짧은 찰나 속에 밀려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했던 오해와 실망, 반복된 다툼과 상처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잠깐의 눈맞춤 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어쩌면 이 관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걸 상대방은 알았을까. 이별을

말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카페에서 나와 각자의 길로 돌아선 후에도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처럼 일렁였다. 우리의 이별은 비록 찰나였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내 마음에 남긴 상흔은 오래도록 아리게 남았다. 이별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짧고도 길게 한 사람의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짧았던 그 찰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회상될 순간으로 남았다.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가져다준 깨달음과 여운은 어쩌면 그리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16 6



2024/10/29
tuesday, pm 6:20 | 23읽음
정우현(철학과)

#2일차

저는 찰나의 순간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 어떤 사람을 마주할 때 항상 마음이 두근대곤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마주하면 기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쌓다 보면 가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찰나를 이기지 못해 화를 내기도 했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어느 순간 저는 편협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취향에만 맞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갈등을 도망치고 싶은 찰나를 이제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라도 안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새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보단 안 좋은 점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말이 정답인 줄 알았고 제 주관만 믿고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내 편견과 주관을 내려놓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점을 더 보려고 노력하며 찰나의 순간들을 이겨내려 합니다. 그렇게 한발짝 찰나의 순간들을 지나쳐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용기를 낸 찰나입니다.

15 6



2024/10/29
tuesday, pm 6:26 | 24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2일차 #찰나
학술 동아리에 담당 교수님이 찾아오셨다. 동아리에서 전시회 발표 작품을 만들어서 내는 기회가 있으니 참여하라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면서 동아리에 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참여할거지? 라고 물어보셨다. 바로 나가겠다고 얘기해버렸다. 이 찰나의 선택이 나의 앞날을 크게 좌우했다. 작품 제출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다. 시험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거의 일주일 만에 전시 작품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나가겠다고 한 것인지 고민도 됐다. 일만 벌여놓고 정작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1학년 때 발표했던 자료가 생각났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다시 만들어 제출할 수 있었고, 다행히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예전에 냈던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낸 게 금방 제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새롭게 작품을 내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경험들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다. 또 고민하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무작정 붙잡기보다는 앞으로는 순간의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결단력을 기른다면, 언제든지 중요한 순간에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6



2024/10/29
tuesday, pm 6:34 | 28읽음
박현민(심리학과)

#2일차 #찰나

나에게 '찰나'란, 일명 영화 <인사이드아웃>에 나오는 노란구슬과도 같다. 가장 좋아하는 노란구슬 하나를 뽑아보자면,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가장 노랗게 빛나고 있는 노란구슬이다.
7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네덜란드로 5박 7일 여행을 가게 되었다. 첫 해외여행이었으며 가장 친한 친구 두 명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만난 친구 두 명, 선생님 한 분까지 총 6명이서 꽤나 긴 여행을 함께 하게 되어 무척 설렜던 기억이다.
물론 여행하는 내내 행복하였지만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있다. 로스테르담에서 '에라스무스 다리'에서 노을을 구경하기로 계획을 짰던 날이었다. 우리는 큐브 하우스도 구경하고 market hall에서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은 뒤 에라스무스 다리에 가게 되었다. 생각보다 일몰 시간이 빠르게 다가와 노을이 예쁘게 지는 모습을 보려면 급하게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리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었는데, 다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 한국과는 다른 새로운 건물들이 너무나 예뻐 보였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하나가 다 행복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리를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널 때, 우리가 건너는 순간마다 초록불이 켜지는 것이다. 마치 센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너는 순간인 걸 알고 켜지는 것처럼,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누군가를 첫눈에 반하면 후광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 나는 이 장면 속에서는 모든 게 슬로우모션으로 느껴졌다. 선선한 바람 속에 따스했던 햇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우리밖에 없다고 느껴졌던 순간, 다같이 웃으면서 달리던 것까지. 나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꼭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다.
행복은 우리 곁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의 찰나를 기억하면서, 가끔은 꺼내보면서 힘든 하루들을 견뎌내는 것이다. 항상 행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행복하기를 목표로 한다.

21 5



2024/10/29
tuesday, pm 7:07 | 2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2일차

'찰나'라는 주제를 보고 마크툽의 '찰나가 영원이 될 때'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담아 영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음악을 들을 때 주로 멜로디에 집중하며 가사보다는 음악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이 곡을 듣던 중, 마지막 부분의 '시간을 넘어 빛이 닿는 세계의 바깥까지 함께 너의 깊은 미소의 황홀 속 일렁임은 영원과 이어질 거야'라는 가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가사는 순간이 어떻게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글로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 느낀 찰나의 여운은 글이 지닌 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에게 감정적 깊이를 부여하며, 순간의 찰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글' 하면 한강 작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녀의 작품은 섬세한 감정과 깊이 있는 서사를 통해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우리나라 서점을 찾는 독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문학적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저 또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고 싶어 여러 번 구매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품절 상태로 인해 구매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전자책으로 예약을 해두었고, 그녀의 작품을 읽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책을 읽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으로 남아 제 남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좋은 글이 주는 감동은 순간의 찰나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어떤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얻게 될지 기대하며, 읽고 나서 느낀 감정을 이후의 주제들을 통해 글로 녹여내며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1 6

2024/10/29
tuesday, pm 8:16 | 24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제게 가장 강렬했던 찰나의 순간은 "좋아하는 축구 선수와 사진을 찍은 순간"입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러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이제 저의 찰나의 순간인 "좋아하는 축구 선수와 사진을 찍은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FC의 경기가 끝난 후, 저는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상혁 선수와 사진을 찍기 위해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수님은 제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분 먼저 찍어드리고 찍어드릴게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저와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3분도 안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이렇게 자세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강렬했죠.

저는 이후에 이 선수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남들에겐 별일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찰나의 순간은, 이 팀을 더 좋아하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절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20 7

2024/10/29
tuesday, pm 8:29 | 25읽음
은용준(사회학괴)

#1일차
마음의 문이 열렸던 순간은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이었다. 처음엔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내가 가진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었다.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작은 창이 되었다. 그 창을 통해 다른 시각과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이는 나를 더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생각의 문을 조금씩 열며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도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망설이게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있을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설렘이 앞선다.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 열림은 매일의 작은 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세상도 자연스레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리라 믿는다.

18 3



2024/10/29
tuesday, pm 8:29 | 30읽음
은용준(사회학괴)

#2일차
어느 여름밤, 해변에서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별똥별 하나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은 정말로 찰나였다. 몇 초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별이 떨어지는 궤적은 눈에 선명하게 남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그려진 빛의 흔적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지는 무언가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계획과 기대 속에서 보내지만, 정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짧은 순간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삶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찰나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어떤 찰나는 기억 속에서 멈춰 우리의 감정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짧고도 강렬한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가끔씩 상기될 때마다 우리를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찰나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스며든 철학이 아닐까 싶다.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더 많이 담기 위해, 매일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21 8



2024/10/29
tuesday, pm 8:40 | 24읽음
김미도(일본학과)

#2일차
살다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현실은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도 그저 앞으로 나아간다.나는 "찰나"라는 키워드를 보고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에 "인생이란 연속되는 찰나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때 그랬다면...' 하고 과거를 돌아보거나 '언젠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미래를 그린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어쩌면 나도 그 속에 머물렀는지 모른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보면, 가끔은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고, 넘어지기도 하며, 그러다가 새로운 길을 만나 헤매기도 한다.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가면 어느샌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생이란 그러한 찰나의 연속이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 때마다 일어서며,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여정이 곧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모두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19 6

2024/10/29
tuesday, pm 8:41 | 26읽음
이예림(청각학전공)

#2일차

찰나는 시간을 단위로 나누어 셀 수 없는
순간의 매력이 있습니다. 찰나라는 말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찰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돌아보면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웃음, 뜻밖의 선물,
밤하늘의 별처럼 잠시 빛나고 사라지는
순간들이 그런 찰나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찰나를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찰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찰나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 냄새, 온기를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경험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찰나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에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20 7

2024/10/29
tuesday, pm 9:05 | 22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나는 누군가의 찰나에 꽤나 큰 영향을 받는다.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문장이 내게 영감이
되어주고,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단어가 내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찰나' 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다. 누군가에겐
0.1초, 누군가에겐 평생의 기억. 나에게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진 날이 누군가에겐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테고, 누군가에게
찰나의 순간이 나에겐 너무 소중해서 놓을 수
없는 순간으로 다가올 거다.
시간이라는 게, 의미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르고 상대적인지라 우린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실망한다. 나에게 너무도
대단한 무언가가 남에게는 그저 찰나의
순간이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걸 나도 잘 안다.
다만, 나는 내가 누군가의 '찰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 난 마음이
편해졌다. 누군가의 찰나를 내가 정의하려
하지 말고, 나는 나의 찰나를 살아가고, 그는
그의 찰나를 살아가게 하자. 그의 찰나가 내게
또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찰나가
그에게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찰나' 속에 누군가의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16 7

2024/10/29
tuesday, pm 9:18 | 27읽음
최오영(심리학과)

#2일차

여러분들은 운명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원래 믿지 않는 편에 속했는데요. 오늘
나눌 경험 이후로 운명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글을 읽다보니
나의 인상깊은 찰나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때는 대학입시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입시전형 중 하나였던 적성고사를 보러 어느

대학교에 갔었어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때라 손소독과 체온 확인을 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섰죠. 강의실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당시엔 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문
앞에 적힌 번호를 일일이 보며
찾아다녔습니다. 건물 구조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공간감각도
잃어버리고 저마다 강의실을 찾아가는 같은
입시생들 사이에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계자 명찰을 매고 있던
지나가던 한 남자분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사장(강의실)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여
따라가게 되었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떨리죠?
네 ㅜㅜ 떨리네요 ㅜ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봐요!
감사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어색하지 않게 계속 눈을
마주치며 응원도 해주시더라고요.
중간부터는 다른 분께 안내받게 되어서
더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나긴 적성고사를 다 마치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아까 왔던 길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까 그
장소에서 그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났다기 보다는... 건물 속에서
시끄럽게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과 저 사이에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반가웠지만 사람도 많고 시끄러운 탓에
가벼운 목인사를 하며 지나가려 하던
“찰나”에 그분이 걸음을 멈추고 이번엔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저에게 “잘 봤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답하니
저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꼭 학교에서
다시 보자고 인사한 뒤 각자의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시험 긴장 때문인지 그분 때문인지 심장이
콩닥거림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길 중에 그 길이었고, 하필 그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이
동시에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냐며
혼자 설레하면서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존댓말이었다가 반말로 인사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조금의 친분도 없는 이 공간에서
작은 인연을 만든 것 같아 특별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운명 같은
”찰나“였다고 느꼈어요. 아주 짧은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도 켜진 듯
주변 소음은 작게 들렸고 그분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요. 아까 ”찰나“를 계산하여
시각화시킨 글을 보았습니다. 전혀
체감되지도 않을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저때는 저 순간을 모든 신체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보니 어쩌면 내가
주의집중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그
길이감이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글에 그 현장감이 얼만큼 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상상해도 정말 운명같은
만남이었네요.

그때도 궁금했었지만 지금 글을 쓰면서도
문득 입시중인 여고생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선배는 과연 무슨 학과였을까요?

”찰나“를 떠올리며 설렜던 추억회상을
마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 16 ⋯ 6



2024/10/29
tuesday, pm 9:38 | 24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2일차 #찰나

[열일곱 번째 접시]

중간고사가 막 끝난 때입니다. 다들 시험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찰나, 는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보기 전까지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다 시험 전 가방에 넣을 때, 마지막까지 보는 그 찰나를 잊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떤 한 부분이 생각이 안 나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그 순간 딱 떠올라 뇌를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 역시 오래 기억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다 겪게 되는 찰나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깊게 인상을 남기는 장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소중해진다는 것도 함께 덧붙이며,
마지막으로 모두들 시험 고생하셨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6 6



2024/10/29
tuesday, pm 9:47 | 22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일차
#2일차 #찰나
'찰나', 찰나라는 표현은 종종 책에서 많이 보고 왠지 모르게 기억이 남는 단어인 것 같다. 단어 자체가 왠지 모르게 아련한 느낌을 준다. 담긴 뜻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나?
찰나 라는 키워드로 나에 대한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고민을 해보니 나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그 찰나를 찍는 것을 좋아한다.

그 순간 찰나에 느껴지던 공기의 온도와 냄새 햇빛 무엇보다도 감정들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 그 찰나를 기억하고 싶을때면 나는 곧바로 카메라를 꺼내 찍는다. 그 이유는 같은 찰나에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찰나로 해석하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기억하고 싶고 꺼내보고 싶은 그 찰나를 찍어서 상대방에게 그날의 우리는 이런 순간을 보냈다고, 최소한 나는 이렇게 그 찰나를 보았다고 보여주고 싶다.

그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너 이렇게 좋은 찰나들이 있었어' 라고 되새겨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 나는 자주 갤러리를 가서 옛날에 찰나들을 들추어본다. 그럴때마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친구와 가족을 만날때 그 옛날에 찰나들을 꺼내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다. 난 그런 찰나도 좋아한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어떤 찰나를 담는 것을 좋아하나요?

14 5



2024/10/29
tuesday, pm 10:07 | 23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2일차
한 때 우주를 동경했다. 지구를 넘어 아득한 곳, 밤하늘을 말이다.

어느날 그곳에서 거대한 별의 죽음이후 또 어느날 태어난 우리들은
그 별의 아이라던데.

나는 왜 빛나지 않을까?
별의 파편의 찰나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모두는 왜 다를까?
같은 재능이라도 왜 우위가 있을까?

나의 열등감도 내 인생의 찰나일지도 모른데
아니, 나라고 인식되는 나조차
우주의 시간에서 찰나의 한 순간인데
나는 왜 사사로운 감정에 잠식되는가.

내 생명이 찰나일지언정
내 육체가 밤하늘처럼
칠흑으로 물드는 날이온다면.
언젠가 무조건적으로 오는 날에
영혼적인 안식으로
나는 다시 진정한 별이 될까?

18 6

2024/10/29
tuesday, pm 10:29 | 22읽음
김준호 (콘텐츠IT / 20195138)

#2일차
찰나.
찰나. 순간의 순간,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찰나라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의 미소,
창가에 부딪혀 순식간에 사라지는 빗방울,
커피잔에 피어올랐다 흩어지는 하얀 김.
우리의 일상은 이런 찰나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종종 '찰나'를 덧없고 허망한
것으로 여긴다. 붙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영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아닐까.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일 년 중 잠깐만
피어나기 때문이다. 일렁이는 호수 위로
비치는 달빛이 신비로운 것은 구름 한 점에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개가 경이로운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도 모두
찰나였다. 첫사랑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꿈꾸던 합격 통지를 받은 그 순간,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그 순간. 비록 짧은
찰나였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룬다.
그래서 찰나는 마치 보석과도 같다.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고, 순간적이지만 영원히
기억되며, 쉽게 지나가 버리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삶이란 결국 이런 찰나들의 연속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각의 찰나를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또 하나의 찰나를
살아내고 있다.

16 4

2024/10/29
tuesday, pm 10:50 | 26읽음
임은송 (경영학과 20213029)

#2일차
“찰나”라는 키워드는 시간의 덧없음과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종종 바쁜 일상에 쫓겨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곤 한다. 작년 한
여름날의 오후,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순간의 대화가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이후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 특히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좋았던 찰나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간직하기
위해 꾸준히 영상과 사진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사진이나 영상을 돌아보면

희미해졌던 그 찰나의 상황이 내 머릿속에서 다시 영화처럼 재생되는 기분이다. 오늘은 대만 여행에서 찍었던 필름을 현상했는데 까먹고 지냈던 대만에서의 추억들이 몽글몽글 떠올랐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면 두고 두고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이러한 찰나의 순간들을 통해 삶의 깊이를 느끼고, 매일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찰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선선한 바람,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등은 모두 찰나의 순간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행복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남는다. 결국, 찰나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의 한 조각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15 ⋯ 9



2024/10/29
tuesday, pm 10:53 | 30min
김명빈 (미디어스쿨)

고개가 숙여진 #찰나

고개가 한없이 숙여진다.

강의실 특유의 쿰쿰하고 정체된 공기는
수면 가스가 들어있는 것인지
나른함이 스멀스멀 찾아와 눈꺼풀을 지긋이
누른다.

잠깐 눈 감았다 뜬 것이라 생각했건만
어느새 강의 자료의 필기 내용은 낯설고
교수님 목소리는 아득히 먼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뻑뻑한 눈을 애써 떠보이며
무거운 머리를 버티느라 고생한 목을 든 순간,
아 벌써 수업 끝나는 시간이구나. 깨닫는다.

노트북을 눈 앞에 둔 또 다른 나.
잠깐 쉬었다가 하려던 찰나였건만.

팔짱 끼느라 저릿한 손과
한참 앉아 있기만 하느라 차가워진 발.
부스스한 머리카락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인 안경까지.
까매진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푹 잔 사람의 모양이었다.



#2일차

21 12

2024/10/29
tuesday, pm 11:00 | 27읽음
박세진(중국학과)

#2일차 #찰나

사람의 첫인상은 30초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첫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텐데, 찰나에 가깝다는 사실이 놀랍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얼굴, 말투, 행동을 본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걸 좋아했다.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공통된 대화주제가 있다. "알바 처음 해보세요?" "몇살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뉜다.
어색해하지만 정성껏 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친해질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다른 대화 주제를 꺼낼 수 있다.
단답을 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일적인 대화만 주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고 역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친화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대화가 수월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은 찰나이지만 그럼에도 찰나에 머무르지 않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다.

18 19

2024/10/29
tuesday, pm 11:27 | 20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찰나

'찰나의 행복으로 평생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 첫 줄이다. 고등학교 때 읽은 '찰나의 행복'이라는 여행사진집을 읽고 감명 받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마음을 녹여내서 만든 제목이었다.

"내 꿈은 이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웠다. 희망 직업을 써내라는 숙제를 받을 때마다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일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다. 중학교 매학년마다 꿈이 달랐다. 그래도 비슷한 결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세상은 여느 때처럼 꿈을 물어왔다. 이번 숙제는 대학이 달렸기에 그 무게가 달랐다. 이번 꿈은 뭘로 하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답을 찾기 쉽지 않았다. 곰곰히 생각해봤다.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DSLR카메라를 가져 맘껏 다루게 됐다. 길고양이를 보러 갈 때, 친구들과 벚꽃 놀이를 할 때, 졸업 사진을 찍는 날에, 학교 축제 날 사진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내가 행복한 순간들엔 늘 사진이 함께했다. 사진은 찰나 그 자체다.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몇 천 분의 1초, 찰나의 순간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미디어스쿨에 오게 됐다.

다시 오늘, 대학교 3학년이다. 꿈과 현실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시기가 참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길이 생기겠거니 했지만 길은 만들어야 생기는 거였다. 오죽하면 '대학교 사망년'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니 다들 비슷한 걸 느끼는 시기인가 보다. 이제는 사진이 나의 길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럼에도 난 꾸준히 행복한 순간을 찰나에 담을 거니까!

15 8



2024/10/29
tuesday, pm 11:30 | 21읽음
황윤정(광고홍보학과)

#2일차 #찰나

미스터리
수많은 순간 속, 아주 짧은 시간. 찰나의 순간이 결정짓는 것들이 있다. 뱉은 말의 후회가 되기도 하고 반짝이기도 한다.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유는 모르겠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사람에게선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뇌에 박힌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은 생생하다. 첫눈에 반했다거나, 나에게 불편을 끼쳤다거나, 이런 것과는 관련 없다. 그냥 한 순간에 들어와 잊히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진다. 잊을 수 없던 찰나의 순간이 추억이 되어버린다. 이따금 다시 그때의 추억을 곱씹으며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또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까? 왜 나의 눈에 들어왔을까?

17 6



2024/10/29
tuesday, pm 11:35 | 25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2일차 #찰나

[나를 자꾸만 머무르게 하는 찰나의 순간]

<찰나가 모여 순간이 되고, 순간은 모여 인생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세월 속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거라, 우리 곁에 머물다 점점 옅어지곤 하죠.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사라진다.' 했나요? 일상 속 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 전에, 소중한 흔적을 남겨볼까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기록하는 모먼트. 첫 '모먼트'의 시작을 들려드리게 된 저는 000입니다.>

내가 만든 '모먼트'라는 라디오의 오프닝 멘트이다. 매달 이 멘트로 라디오가 시작된다. 인상 깊은 오프닝 멘트가 뭐가 있을까 머리를 쥐어짜다가, 모먼트... 순간... 순간... 찰나? 하고 뚝딱뚝딱 썼었다.

수많은 찰나가 모여 우리를 이룬다. 어떤 찰나는 너무 소중하고 그리워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은가? 자꾸만 그곳에 있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리운가 보다.

라디오처럼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여러분의 소중한 찰나는 언제였나요? 그
순간은 왜 여러분을 자꾸만 그곳에 머무르게
하나요?

16 5



2024/10/29
tuesday, pm 11:36 | 26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2일차 #찰나

살필 찰 아름다울 나.
아름답다는 뜻은 '나답다' 래요.
나 다울 수 있게 나를 살피는 것.

본래 찰나의 뜻은 아니지만요.
찰나의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이, 찰나를
찰나로만 느끼지 않게 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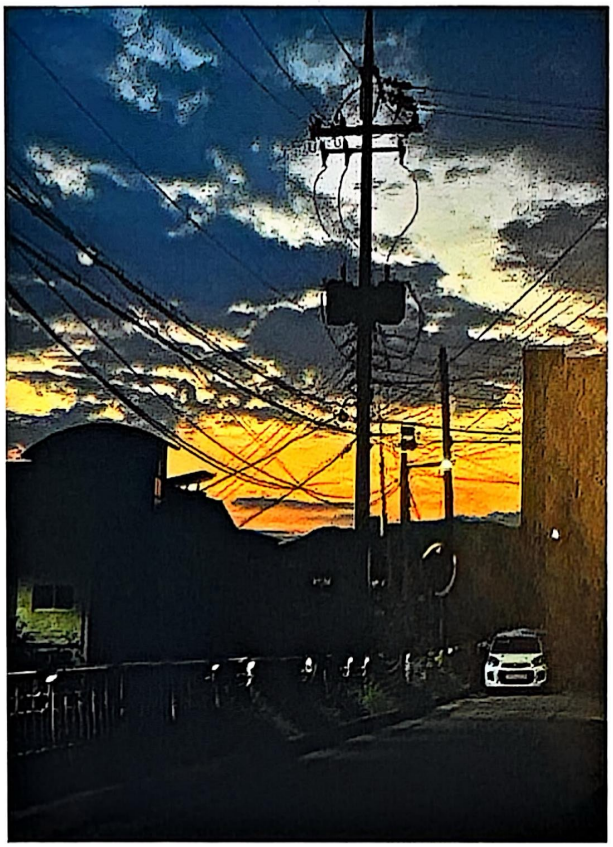
찰나의 순간을 아끼고 살피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끼는 방법과 같네요. 우린 우주의
찰나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라며.

18 5



2024/10/29
tuesday, pm 11:39 | 23읽음
지소영(간호학과)

#2일차 #찰나



찰나의 순간.

우리는 때로 찰나의 순간에 중요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 짧고도 스쳐 지나가는 찰나
속에서 우리 두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 0.1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거나 그에
대한 호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순간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시작되기도
하고, 중요한 거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찰나의 인상이

좋지 않다면,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찰나의 순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6 4



2024/10/29
tuesday, pm 11:47 | 22읽음
권영하(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일차 #찰나

인연은 찰나 그 순간에 시작된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든다. 찰나의 미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느껴지지만, 찰나의 어색함 속에서 특별한 감정이 싹튼다. 시간이 흐르면서 찰나의 순간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함께 나눈 찰나의 웃음은 마음의 양식이 되고, 찰나의 눈물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든다.

때로는 찰나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인연의 한 부분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찰나의 연속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인연은 함께하는 찰나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게 된다.

어떤 찰나에는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인연은 이렇게,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찰나의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연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결국, 인연이란 찰나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 모든 찰나의 인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5 4



2024/10/29
tuesday, pm 11:48 | 19읽음
이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제목: 찰나가 반복되면 흑역사

찰나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다. 머리에서 숫자를 세기도 전에 일은 끝난다. 하지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반복재생이 되면 그 순간은 더이상 찰나가 아닌 강렬한 한 사건으로 남는다. 어릴 적 그런 경험을 했다. 그 찰나 때문에 몇 년을 앓았다.
정말 사소한 순간이었다. 내가 머리에 파마를 하고 간 날이었다. 뒷 문을 여는 순간, 반 아이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반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동시에 나를 쳐다보는 찰나가 공포로 다가왔다. 그 뒤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미용실을 갔다오는 날이면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벗질 않았다.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 찰나의 순간이 내게는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순간으로 되었다.
항상 그랬다. 창피했던 찰나는 영원한 순간이 되었다. 왜 내가 잊고 싶은 찰나는 스쳐지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나에게 남아있을까. 내가 상처받고 슬프고 화나는 찰나는 왜 쉽게 떠오를까. 이러한 찰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기를 쓰는 방법이다. 일기를 쓰게 되면 슬프고 아픈 찰나의 앞뒤에 좋고 행복한 찰나들이 붙어

하나의 일상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나는 좋지 않은 찰나에서 벗어나 마음이 후련해진다.

15 4



2024/10/29
tuesday, pm 11:58 | 23읽음
이나영

#2일차 #찰나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다. 바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 수 없다'란 제목의 유투브 영상인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읽고 있을 분들과 마찬가지로 '엥?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영상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느려진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는 것은 1차원인 셈이다. 재미있지만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기도 하다. 즉 우주의 첫 탄생, 빅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단면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물질은 시공간 상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므로, 공간상에서 상대속도가 0일 때,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즉 사진을 보는 나의 입장에서(4차원의 존재가 우리를 지켜볼 때)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며,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보는 단면의 위치가 변화하며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우주의 세계이지만, 나는 이런 영상을 보면 늘 마음 한 켠에 안도감이 생긴다. 그럼 우리의 찰나는 4차원 세계의 누군가에게는 이미 정해진 결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과거이자 현재, 미래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면, 이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우리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같이 느껴진다. 정답이 없는 의문들을 마주치면 우리의 존재도, 찰나의 순간도, 살아가는 방법에도 정답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17 4



2024/10/29
tuesday, pm 11:59 | 22읽음
(알 수 없음)

#2일차
찰나,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여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된다.
사람들이 짧은 시간이더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찰나에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15 4

2024/10/29
tuesday, pm 11:59 | 31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2일차
수는 내 이름 부르기를 좋아한다
나에게 영어 지문을 읽어주던 목소리로
C언어 읽는 법을 알려주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어루만지기도
하다가 달려 와 지현 두 글자를 와락 껴안는다

줄곧 나는 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예뻐 한 적
없는데도

내 이름이 못 갖춘 문장이라
긴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수의 낭독도 짧다

포옹처럼
처음 나누던 눈인사처럼

우주의 관점으로 인간은 4초를 살고
죽는다는데
나는 수에게 4초 동안 영원히 읽히는 단어로
빛나다
별이 되고 싶어지곤 했다

17 4



2024/10/30
wednesday, am 12:08 | 47읽음
이덕영

#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찰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글을 통해 그 짧은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찰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앞으로도 스스로의
찰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을 붙잡아 보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좋은 찰나의 순간들로
채워지길!

※ 김양선 교수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며칠간 제가 키워드를 제시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이덕영(일송자유교양대학)

24 0



2024/10/30
wednesday, am 7:59 | 43읽음
이덕영

#3일차 키워드 : 쫄깃
오늘의 키워드는 '쫄깃'입니다. 보통 음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지만,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인생의 쫄깃한 순간들,
긴장되고 팽팽했던 경험들을 떠올려보세요.
혹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쫄깃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쫄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2 0



2024/10/30
wednesday, am 8:49 | 32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3일차
'쫄깃'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이었다. ㅈ특히
고기를 사랑하는 나로서 고기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쫄깃함은 잊을 수 없다. 내가 먹은 수
많은 고기 중에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흑돼지 오겹살이 기억이 난다. 나는 삼겹살도
좋아하지만 오겹살에 그 쫄깃한 껍데기 부분
때문에 오겹살을 더 좋아한다. 제주도에서
먹은 흑돼지 오겹살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생고기여서 그런지 껍데기 부분이 적당히
쫄깃했고 살코기에서는 육즙이 팡팡
터져나왔다. 고기에 소금을 약간 올려 먹었던
그 순간을 회상하니 입에서 침이 고인다. 이
식당에는 냉면이 없었다. 대신 등치미 국수가
있었다. 살얼음에 나오는 동치미 국수라서
그런지 소면이여도 상당한 쫄깃한 면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면과 갓 구운 오겹살과
같이 먹으면 그냥 환상 그 자체다. 생각도
하기 싫다. 왜냐하면 배고파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쫄깃'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험적

의미의 쫄깃이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할머니 친구분들과 중국에 있는 장가계와 원가계를 갔다 온 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엄청 길고 큰 침식 암벽들이 있었고, 이걸 보려면 산 절벽에 있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엄청 위험한 곳에 위치한 길이었지만 옆에 난간은 내 기억으론 크고 튼튼한 느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길 중간에 스카이웨이처럼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높은 산에서 바닥을 통해 밑을 내려다 보니 그냥 온 몸에 쫄깃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 때 그 황홀했던 풍경을 잊을 수 없는 내 추억으로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쫄깃'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준 느낌인 것 같다. '쫄깃'에 대해 생각해보면 쫄깃함을 느낌과 동시에 행복해 하던 모습의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그냥 순수하고 진솔하게 내가 느꼈던 일들을 글에 적는다.

21 14



2024/10/30
wednesday, am 9:16 | 29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3일차
저는 "쫄깃" 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의 "쫄깃" 을 떠올렸습니다. "쫄깃" 에 맞는 음식은 막국수였습니다. 제가 면 음식 중에서 특히 막국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막국수가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막국수를 먹으러 가서 막국수를 먹는데 그때의 "쫄깃" 함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쫄깃" 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제가 막국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낀 경험입니다. 저는 원래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친구들은 다 떡볶이 먹을 때 순대 혹은 콜팝이나 피카츄(돈까스) 같은 튀김 음식을 위주로 먹었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집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오셨습니다.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입 정도로 먹고 순대를 먹을려고 했는데 떡볶이를 한 입 먹은 순간 "쫄깃"함을 느껴 떡볶이 또한 좋아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겪은 경험이 "쫄깃"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22 12



2024/10/30
wednesday, am 9:20 | 30읽음
은용준(사회학괴)

#3일차
“쫄깃”한 순간을 생각하면, 바로 대학 면접 전날 밤이 떠오른다. 준비는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면접 날 아침, 심장이 쿵쿵거리며 내 안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던 그 순간.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의 시간은 마치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긴장과 기대가 엇갈린 그 ‘쫄깃한’ 순간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한다.

음식에서도 “쫄깃”한 기억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먹은 떡볶이가 그랬다. 처음 먹어본 쫄깃한 떡과 매콤한 소스의 조화는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떡을 한입 베어 물 때마다 느껴지는 쫀득함과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매운맛은 그야말로 감각의 축제였다. 그 쫄깃함은 맛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남아,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든다.

"쫄깃"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다.

20 8



2024/10/30
wednesday, am 9:38 | 30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저는 겁이 많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혼자 상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쫄깃한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만 걱정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의 오늘 일과를 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줬을 일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꼭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며, 쫄깃한 시간을 보냅니다. 막상 친구들은 10번 중 9번, 아무렇지 않았다며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는 꼭 이 답변을 보고서야 잠에 듭니다.

또 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윗 사람이 이를 마음에 안 들게 생각할까 봐 걱정을 크게 합니다. 사실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고쳐지지 않는 저의 성격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남들보다 더 쫄깃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20 7



2024/10/30
wednesday, am 9:55 | 29읽음
유채원(일본학과)

#3일차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순간이 제일 심장이 쫄깃하다.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무서운 마음에 쫄깃하면서도 신이 난다. 막상 떨어지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거움만이 남는다. 그런 쫄깃함이 없다면 나는 놀이 기구를 그렇게까지 즐겁게 타지 못할 것이다. 즉, 놀이 기구에서 심장이 쫄깃한 것은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쫄깃함이다.

음식에서의 쫄깃함을 뽑자면, 가장 최근에 먹은 넓적당면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 마라탕, 떡볶이 등 여러 음식에 잘 어울리는 당면이다. 입안에서 퍼지는 쫄깃함이 음식을 먹는 재미를 더해준다.

20 7



2024/10/30
wednesday, am 10:25 | 30읽음
김미도(일본학과)

#3일차

어떤 수업에서였는지 예전에 "쫄깃쫄깃하다"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음식 식감이 쫄깃하다"는 "모찌모찌(もちもち)"나"시코시코(しこしこ)"정도가 될 수 있는데, 긴장했을 때나 조마조마한 상황에 놓였을 때 쓰는 "심장이 쫄깃하다"는 일본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라 의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원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되도록 "심장이

두근두근하다(心臓がドキッとする)"라고 번역을 했다.이런 점에서 언어는 참 흥미로운 학문이다. 각 나라의 언어만의 고유한 표현이나 문법이 있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점이 매력적이다.

25 12

2024/10/30
wednesday, am 10:27 | 32일음
김도은(광고홍보)

#3일차

내 주위는 예전부터 일이 많았다.그렇다보니 뭔가로부터 도망쳐야할 때와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늘 있었고,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마음 속의 불안 덩어리로 남아 쫄깃함을 선사하는 중이다.

그다지 남 앞에서 이야기 할 만한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모두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쫄깃'이라는 주제를 본 순간 어김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롤러코스터 같은 생의 굴곡은 내 근본을 이루면서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날을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으로,그 속 쓸리게 만들 객체가 내 기분이든 위기든 주위 사건이든 상관 없었다.따라서 난 항상 대비를 해야만 했다.어쩌면 성격이 쓸 데 없이 예민해진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첫 일은 6살 때였다.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그날 따라 속이 좋지 않았다.그래서 몰래 우유를 조금 남긴 뒤 그대로 새지 않게 입구를 접어 통에 넣었다.그런데 얼마 후,선생님이 고함을 질렀고 난 얼어붙었다.그러면서 그녀는 "누가 남겼어!!!!"라는 말과 함께 주위를 한 없이 고요하게 했다.반 아이들은 그 순간 일제히 내 얼굴을 모두 쳐다봤고 선생은 아무말 없이 내 손목을 강제로 붙들고 건너 반으로 끌고 갔다.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는 중간 복도에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결국 넘어가 우유를 남긴 죄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그리고 다른 반 아이들이 둥글게 감싸져있는 그 속에서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채 그 남긴 우유를 마셔야했다.다 마시지 않으면 때린다고 했다.그 일에 대한 여파로 몇년 전까지는 생 우유를 입에도 안댔다.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분노가 오른다.한 때는 그들에게 고소라도 하고 싶었다.그러나 이미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인 시효도 지났을 게 확실해서,난 그 생각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매를 들고 협박했으니 특수협박죄와 내 손목을 강제로 자국날 정도로 잡고 끌고 등도 때렸으니 폭행죄 성립이다.특히 아동을 향한 범죄라 조항은 추가로 확인해봐야겠지만 공판이 열렸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법 적용을 두고 가중 처벌 받았을지도. 대강 해당사항은 이러하다.하지만 지금 와서 무엇하리?다만 그 선생 이름이라도 기억했으면 아쉽진 않으련만.따질 수가 없어 답답하고 억울하다.그러나 복수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꼴이라 그저 마음으로만 남겨두고 있다.그리고 실은 이것이 내가 현재 법을 공부하는 이유에도 속한다.나 같은 사람 더 만들고 싶지 않아서.죄를 따지지 못하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다.좀 오글거리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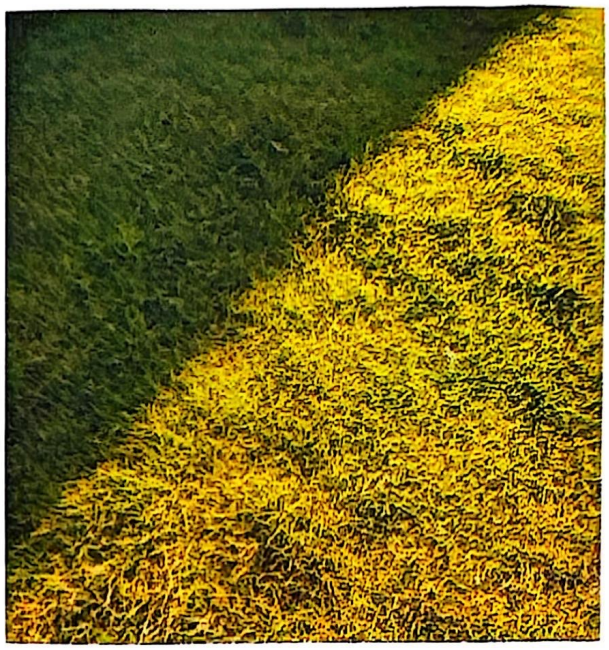
그 외에도 화장실 문 발로 차이기,나오는데 책상으로 찍기,죽여버리겠다 어느 학교 다니냐 협박 당하기,운동 못한다 멱살 잡히기,좀 개인사적으로 들어가면 집에서 깜빡 잠들어 30분 동안 아버지 문 못

열어드렸다고 목검으로 때리려했고 그것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친 일 등 나열하고자 하면
뭐 끝도 없다...참 이렇게 쓰고 보니 별 일 다
겪었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독자들에
나의 불행함을 자랑하거나 전파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어느 책에서 본 구절인
"인간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할 수록 강해진다".그 한 마디가
나를 다시 일어서도록 만든 것
같기에...아무나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니지만
또 세상에서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서 이야기해도 괜찮을 듯
싶었다.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그렇다.더 이상 운명 탓 내 탓은
그만두려고.고민하고 탓 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없잖은가.

저번 1일 차 글에서 '열림'를 주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학우들이 응원의 말을
남겨줘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우선 너무나도
고마웠다.하루를 시작하고 또 보내느라 한창
바쁠텐데 이렇게 따스한 말들을
보내줘서.그리고 내가 선택한 외길 공부가
결코 허울뿐인 소망이 아니구나 깨닫게
해줘서.아직 세상은 살만 하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그 때 그냥 날
놓아버리지 않기를 잘했다고 계속
생각한다.그래 내가 포기해버렸으면 이런
온기도 경험해보지 못했겠지?

쓰다보니 항상 길어진다.그만큼 하고픈
이야기가 적지 않지만 뭐가 됐든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만 줄여본다.



25 24



2024/10/30
wednesday, am 10:52 | 32읽음
전수현(법학과)

#3일차

인생에서 수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가장
강렬한 기억에 남아있는 쫄깃한 심정에 대한
2023년 12월 일본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23년 12월 말 나는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이하 A) 1명과 나와 같이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이하 B) 1명과 함께 총 3명이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갔다. 마지막 날에
교토에서 공항으로 가야 했기에 우리는
4일차 저녁을 먹기 전 내일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을 미리 알아보았다. 나는 변수에
대비하여 2시간 내지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여유롭게 갈
생각이었다. 숙소에서 교토역까지 30분,
교토역에서 공항까지 1시간이다. 10시 50분
비행기였기에 우리는 8시 15분 차를 타고
가려고 교통편을 본 뒤 술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였다. 7시에 알람이 울렸다.

부스스 일어나 눈을 비비며 창문에 커튼을
걷고 준비를 시작한다.
다음날 아침 준비가 끝날 무렵 확인차
교통편을 다시 보니 8시15분 차가 없어지고
8시 50분 차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A는
일본에 더 남고, 나와 B만 공항으로 출발한다.
8시 10분에 출발한 우리는 8시 50분 차를
타기 위해선 걸으면 안 됐기에 열심히
캐리어를 들고 역으로 뛰어갔다. 뛰어가면서
급행열차를 예매하고 역에 30분에
도착하였다. 2번째 난관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열차를 예매하면 QR코드가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그 코드로 티켓 발매기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야 한다. 허나 아무리 찍어도
없는 티켓이라고 뜨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우리는 직원에게 물어보고자 했지만
일본어를 못 하는 이유로, 우리가 아닌
파파고가 직원가 대화했다. 겨우 해결하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시 10분 도착, 카운터가 마감되었다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부랴부랴 뛰어가
한국인 직원에게 물어보았는데 직원들끼리
무전하며 바삐 움직이기에 그 시간 내
심장박동이 200이 넘었던 것 같다. 다행히
아직 화물은 마감하기 직전이었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화물칸이 마감되었다.
출국심사까지 마치고 나왔을 때 10시 45분,
미친 듯이 뛰어 비행기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이륙하나 싶었지만,
우리 뒤로도 승객들이 2팀 정도 더 타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23 10



2024/10/30

wednesday, pm 12:06 | 33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3일차 #쫄깃
가끔 스크린 속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현실에서는 느끼기 힘든 쫄깃함을 안겨준다.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영상임을 알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는 쫄깃함에 사로잡힌다.
갑자기 무서운 게 튀어나오는 영상들이나
안전장치 없이 바위 끝에서 사진을 찍거나
높은 곳에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건널
때처럼 무섭고 위험한 상황 속 배경의
영상들은 심장이 쫄깃해지다 못해
내려앉는다.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있는 느낌이 들면서
쫄깃한 순간에 매료된다. 아무래도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는 것
같다. 물론 무서운 영상들이 주는 자극이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이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쫄깃한 음식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젤리랑
껌이다. 근데 난 젤리랑 껌을 자주 사 먹지
않는다. 내가 잘 사 먹는 쫄깃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마라탕이 생각났다.
마라탕을 처음 먹었을 땐 말랑말랑한 식감의
분모자가 맛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재료를
담을 때 분모자를 많이 넣었던 것 같다.
그렇게 질리도록 분모자만 먹다 보니 어느
순간 분모자가 먹기 싫어졌다. 대신 요즘
빼놓지 않고 넣는 재료인 중국당면이
쫄깃하고 맛있어졌다. 새삼 생각해보니
마라탕 재료에 떡이나 만두처럼 내가
선택하는 마라탕 재료엔 쫄깃한 식감의
재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쫄깃한 식감을
좋아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새로운 자극에 대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싶다.

23 9

2024/10/30
wednesday, pm 2:35 | 33읽음
서정원(심리학과)

#3일차



내가 가장 사랑하는 LP. 오스트리아 빈의 황금홀에서 카라얀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1987년 신년음악회 연주 실황이 고대로 녹음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금일 4시부터 5시 방송을 맡게 된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클래식파트 43기 서정원입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저번주에는 너무 추워서 코트를 꺼내야할까.. 생각했는데 이번주는 초가을 날씨라 선선한 정도네요. 가을을 보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가지 않아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을과 어울리는 클래식 곡들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브람스 교향곡 1번 4악장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

나는 학교 자치기구인 음악감상실에서 DJ 활동을 하고 있다. 부스 안에 있는 수많은 LP와 CD중 DJ가 마음에 드는 곡을 선곡해서 1시간 동안 청중에게 들려주는 시스템이다. DJ는 클래식, 팝, 가요 파트 중 하나에 속할 수 있으며, 나는 클래식파트라서 클래식을 위주로 틀고 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주 클래식을 접해왔기에, 희귀한 LP가 가득한 이 공간은 신세계였다.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들, 번스타인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들, 칼 뵘,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게오르그 솔티, 조성진까지. 다 내 마음대로 선정해서 들을 수 있다니..! 청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잔뜩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5악장. 그 외에도 좋은 곡이 참 많은데... 이 곡들의 공통점은 내 심장을 아주 그냥 쫄깃하게 만들고, 소름 돋게 한다는 것이다. 차이콥스키의 비창 1악장을 듣다보면 한 사람 인생에 담겨 있던 환희, 기쁨, 절망,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다 보면 감격스러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리고 대망의 말러 교향곡 2번의 마지막 악장... 나는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였고 지금은 반 정도 불가지론자인 사람인데, 이 곡을 듣다보면 반드시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연옥과 천국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음감실에서 경험하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 좋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음악감상실에서 클래식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방송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곡도 준비해 보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한 번 들려서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24 19



2024/10/30
wednesday, pm 2:38 | 35읽음
강하늘(심리학과)

#3일차
나의 '쫄깃'의 기록

꼼장어라는 음식을 아는가?
먹장어의 지방어이며 얕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다.

숯불 위에 소금간이나 매운 양념한 바른
꼼장어를 올리면 크기가 줄어들면서 천천히
익어간다.

내가 초등학생일 당시 부모님께서는
고깃집을 하셨다. 1층에는 고깃집, 옥상을 낀
4층에는 집이 있는 주택가에서 지냈을 적.

오빠랑 나 남동생 중 한명만 내려와보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전화가 들리면 서로 가고
싶어서 가위바위보를 하곤 했었다.

항상 가위를 내는 오빠와 남동생을 이기기
위해 '처음은 주먹 !'이 나의 필승
공식이었다.

4층부터 1층까지 3번의 난간을 돌아야하고
다시 올라오는게 힘들고 귀찮기도 할텐데
나는 내려가는 걸 좋아했다.

후다닥 샌들을 발에 걸치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의 심부름과 함께 입에
잘 구워진 꼼장어 한개를 넣어주셨다.

한 손에는 심부름과 입에는 꼼장어를 씹으며
신나서 총총대며 계단을 올라가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먹었던 어린 나에게는
약간 맵지만 쫄깃쫄깃거리던 것은 단순한
꼼장어가 아닌 추억인 것 같다.

함께 듣던 노래는 추억을 코에 잡힌 향기는
어느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고 한다.

이번 '쫄깃'이라는 주제는 식감에도 어느
순간의 추억을 담아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나에게 '쫄깃'이란 단순한 식감이 아닌
어릴적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요소가
되었다.

그 요소로 내가 정했다.
나는 그 사실이 좋다.



P.S. 오늘 길을 걷다. 세잎클로버를 봤어요~
세잎클로버의 뜻처럼 이 글 보신분들도 나의
옆에 아래에 가끔은 위에? 어디에도 있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랄게요

26 22



2024/10/30
wednesday, pm 3:15 | 35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3일차
"쫄깃"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였을 때, 최근에 경험한 가슴이 쫄깃쫄깃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 제게 소중한 사람의 생일날이 있었습니다. 기쁜 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축하해 주고 싶었지만, 함께 생일을 즐길 수 없었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교수님이 시험일정을 더 빠르게 잡아주셔서 생일을 함께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프라이즈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있어야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변수를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판을 먼저 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같이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하고, 시험을 보고 춘천에서 시간 맞춰 서울로 가서 눈앞에 짠 나타나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 생일자에겐 시험기간이 겹쳐 생일에 만나기 어렵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며 아쉬워하다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서프라이즈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대망의 생일 당일날! 기차시간이 생각보다 빨라 시험을 빠르게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기차시간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자마자 펜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시험을 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는 택시콜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수락을 기다렸고 다행히 늦지 않게 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한숨 놓은 줄 알았지만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약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 생각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시간 맞춰 서프라이즈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장소로 빠르게 가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잡은 약속은 없었고, 서프라이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무언가 몰래 준비하고, 행동하면 무슨 일을 해도 긴장이 되고,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 같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쫄깃함을 느끼는 건 기운이 쉽게 빠질 수 있으니 적당히 경험하는 것이 몸에 좋을 것 같다.

22 11



2024/10/30
wednesday, pm 4:37 | 31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3일차 #쫄깃
#표정이쫄깃하다

왜 "쫄깃하다"라는 단어를 긴장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걸까? 원래는 음식의 질감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긴장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생각해보니 쫄깃한 음식은 끊어질 듯 말 듯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긴장된 순간의 심리적 압박감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마음이 단단히 조여오면서도 언제 풀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쫄깃한 질감과 닮아 있어서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느끼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장이 쫄깃하다"고 표현하게 된 것 같다.

그렇다면 "표정이 쫄깃하다"라는 표현은 어떨까? 예를 들어, 웃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표정을 지을 때 "표정이 쫄깃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이 표현은 억지로 웃음을 참으려다가 결국 웃음이 터질 뻔한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농담에 나는 표정이 쫄깃해졌다.”라고 하면, 단순한 웃음 이상의 긴장감과 아슬아슬한 상황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쫄깃하다”는 단어는 표정의 미묘한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묘사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지 출처:무한도전

24 22



2024/10/30
wednesday, pm 5:53 | 26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3일차
“심장 쫄깃한 새벽의 미스테리“

나는 공포나 호러 장르의 영상을 즐기지 못한다. 칼, 총, 주먹이 오감에 따라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피. 귀신인지 모를 낯선 존재의 갑작스러운 등장. 괴성이 오가는 싸움터, 누군가의 처절한 울부짖음. 작가 혹은 감독의 예술적 의미가 담긴 인위적 장면이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큰 탓에 난 청춘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심장이 쫄깃하다 못해 쪼그라들어 없어지는 기분. 때문에 공포 영화를 우연히 보는 날에는 밤에 잠들지 못했다.
그 이유에는 영상 속의 일들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나는 살면서 귀신이란 존재를 여러 번 보았다.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아니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었다. 그 중 제일 심장 쫄깃했던 경험이 있다.
내 방은 현관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이다. 방을 나오면 복도가 길게 놓여 있고, 그 끝에 거실이 있다. 거실 옆에는 안방이 있는데, 거실로 가는 복도에서 안방 내부를 볼 수 있다. 어느 날, 새벽 세 시쯤, 방에서 자던 나는 잠에서 깨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고 보니 혼자 있는 방이 너무 고요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거실로 가던 길에 우연히 안방을 보게 됐는데, 성인 여자로 보이는 체격의 사람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난 자연스레 엄마가 자고 있다고 인지했고, 마저 거실로 나갔다. 거실 바닥에는 동생들이 누워있었고, 난 복도를 보며 바닥에 엎드려 누웠다. 그런데 어디선가 뉴스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아나운서의 단호하고 깔끔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리 맡에 소파가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아빠가 누워있었다. 그런데 아빠는 잠들어 있었고 휴대폰은 아빠 얼굴에서 한 뼘 정도 멀리 엎어져 있었다.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리다 보니 의자에 앉아 있는 엄마를 보았다. 소리의 출처를 알고 나서 다시 복도를 바라보며 누웠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은 동생 둘과 부모님, 그리고 나 뿐인데 모든 구성원이 거실에 있다면 안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난 새카만 복도를 바라본 채로 굳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 난 분명 웅크려 자고 있는 여성을 보았다. 그럼 그건 귀신일까?
오만가지 생각이 들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금방이라도 정체불명의 존재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을 습격할 것 같았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작스럽고 괴기스럽게 말이다.
결국 밤을 새웠고 그 동안 내가 상상했던
갑작스럽고 괴기스러운 습격은 없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우리 집에 내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이 든다.

21 8



2024/10/30
wednesday, pm 6:03 | 34읽음
최오영(심리학과)

#3일차

방금 한 학우분이 작성한 "쫄깃"이라는
단어를 상황보다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로워서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식에 쫄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좋아합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쫄깃하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무척 긴장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았던
'끊어질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마냥 신체에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를 적당히 활성화
시켜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죠. 긴장이란
단어에 불쾌감을 대입한 것은 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흥미로운 일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냥 불쾌한 감정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내가 그 상황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긴장되는 것이라고 시선을 돌려보면 그것은
더이상 불쾌함이 가득한 긴장이 아니라 설렘
가득한 기대가 되는 거니까요.

타인의 글을 읽으며 제 생각과 관점을
바꿔보는 시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처음 라이팅챌린지를 참여하며
기대했던 바를 경험한 것 같아 더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
)

1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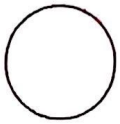


2024/10/30
wednesday, pm 7:19 | 26읽음
이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요즘 내 친구들은 심장 쫄깃하게 살아간다. 한
친구는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일의 효율이
올라간다. 유독 집중력이 높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일을 몰아서 해야 결과가 좋아서
몰아서 한다. '데드라인'이라는 말처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이지만, 그만큼
결과가 좋아 포기할 수 없다. 나도 동일한
유형이다. 이상하게 미리 노트북을 열면
생각이 안나는데, 마감일이 닥쳐올수록
효율이 올라간다.
또 다른 내 친구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심장 쫄깃하게 살아간다. 직장 상사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 친구를 대했고, 친구는 직장
상사의 기분을 살피느라 심장이 쫄깃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 번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나는 현재 학생과 사회인 그 사이에 있다.
사회인이 된다는 것만큼 존경스럽고 멋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인이 되는 건
쫄깃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의미려나. 내
심장도 덩달아 쫄깃해지기 시작했다.

21 7



2024/10/30
wednesday, pm 7:23 | 29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3일차
오늘 나는 운동을 하루 쉬었습니다
집에 걸어가는 길에 장을 볼까 하다가 사과
값에 놀라 도로 내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만 천원짜리 순대국을 포장하는
것에는
어쩐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 남자애들은 시끄럽고
집에 가면 아침에 내가 벗어놓은 옷들이
뒹굴고 있겠지요
이제는 당신이 조금도 궁금해 할 리 없는 나의
숱한 일상들

당신은

오늘 무얼 하셨나요
누굴 만났나요
나는 가끔 궁금해요

9로 시작하는 전화 번호를 누를 때면
불쑥 내가 생각나지는 않는지

검은 사람들중 노란 탈색 머리가 보일 때면
아직도 그렇게 나를 떠올리는지

그러다 여느 날 어느 강의실에서
우리가 준비 없이 마주칠 때면
당신도 나만큼
쫄깃해지곤
하는지

22 8



2024/10/30
wednesday, pm 8:23 | 26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3일차
쫄깃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떡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래떡과 백설기, 꿀떡 인절미 떡 등등
다양한 떡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쑥떡을 가장 좋아하는 것같아요. 특히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보면은요. 항상 계산대 입구
근처에 떡들이랑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파는 떡들이 엄청
쫀득 쫀득 쫄깃 쫄깃해서 입에서 사르르
녹더군요. 어쩔 땐 식감이 젤리 같기도 하고 ,
껌 같기도 한
쫄깃한 식감이예요. 저는 이번 '쫄깃' 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쫀득' 이라는 키워드가 연관되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가 알아본 결과 ,
"쫀득하다"는 탄력이있고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쫄깃하다"는 씹히는
맛이 있고 더 단단하고 쫄깃한 탄력이 있는
느낌으로 잘 씹히면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
질기는 질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키워드를 통해 상황마다 어떤 단어를 쓸지 한
번씩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에는 다양한 어휘표현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세밀하고 다양한
표현력을 전달하여 아주아주 풍부하게
소통할 수있다는 것이 매력이 있는 것같다고
느껴졌어요.

19 7



2024/10/30
wednesday, pm 8:56 | 20읽음
이나영

#3일차 #쫄깃

담력이 작은 내가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은 놀이기구를 타거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특별한 경험을 할 때 뿐만이 아니다.
건너편에서 타야 하는 버스가 곧 도착할 때, 아슬아슬하게 과제를 제출했을 때, 하다못해 촛불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켤 때도 데일 것 같은 불안감에 심장이 바짝 쪼그라들곤 한다. 그럼에도 나는 쫄깃해지는 감각을 주기적으로 즐기는데, 바로 영화관에 가는 것이다.

영화관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를테면 영화관에 중독되는 방향제를 몰래 비치했거나, 두 배로 재미를 느끼고 영화에 몰입하게 하는 최첨단 의자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다. 신기하게 집에서 시청하면 그저 그랬을 영화도 영화관에서 관람하면 늘 색다르다. 두 눈 가득 담기는 큼지막한 화면에는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미가 잘 담기고, 좋은 스피커는 잡생각을 단절시키고 귀를 사로잡는다. 짧다면 짧은 두세 시간 동안 영화 속의 세계관에 다녀온 느낌이 들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 요즘 영화관이 가격이 많이 올라 너무 아쉽지만, 영화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상에서의 짜릿하고 쫄깃한 경험이다. 앞으로 또 어떤 영화가 나를 설레게 할 지 기대된다.

+ 저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영화관에 줄기차게 드나들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어떤 영화를 보고 심장이 쫄깃한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요~

15 8



2024/10/30
wednesday, pm 9:09 | 26읽음
황윤정(광고홍보학과)

#3일차 #쫄깃

타임어택
과제 마감 1시간 전, 마음이 다급해진다. 빨리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몸은 따라 주지 않는다. 자꾸 침대가 아른거린다.
과제 마감 40분 전, 더 급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편안해진다. 현실을 파악하고 낙담한 것 같다.
과제 마감 20분 전, 다시 용기가 난다. 끝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속도가 붙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과제 마감 10분 전, 가능성이 보인다.
과제 마감 1분 전, 쫄깃한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긴 1분이 시작된다.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다. 몸의 감각에 맡긴다.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고 혹시나 잘못 누를까 봐 마우스를 세심하게 만진다. 숨조차 쉴 수 없다.
제출 완료를 누르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린다.
다짐한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해야지.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 또 반복하고 있다.

15 9



2024/10/30
wednesday, pm 9:29 | 21읽음
정우현(철학과)

#3일차

내 인생에서 쫄깃했던 순간들은 항상 다급했던 순간들이다. 수업이 3분 남았는데 택시에서 내려 강의실로 뛰어갔던 경험 같은 것들 말이다. 생각해 보면 항상 다 지각할까

봐 다급했던 기억들이 매우 쫄깃했다. 공연에 늦을까 봐 빨리 지하철을 갈아타기도 하고, 과제를 내려고 하는데 마감기한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전전긍긍한 적도 많다. 이런 쫄깃함들이 과연 좋은 경험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 항상 아슬아슬하게 출발하고 늦을까 봐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의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들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다. 늦지만 않으면 되지 같은 마음가짐이 방해 요인이었다. 완벽주의 때문에 일을 미루고 늦지만 않으면 된다는 결과론 적인 생각이 항상 쫄깃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8 9

2024/10/30
wednesday, pm 9:44 | 22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아이디어 0, #쫄깃 함 100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하루.

노트북 앞에 앉아 의미 없는 마우스질만 몇 시간 째.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빈 문서 창과 피피티 화면만이 방을 밝힌다.

쫄깃쫄깃한 심정과 달리 자판 위 손가락은 평온하다.

"그냥 하지 말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다.

검색 창에 RISS를 검색하고

RISS에 또 다시 검색하고...

이 행위를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이 과제도 끝나있겠지?

하지만 끝을 보기 전까진

쫄깃함은 끝나지 않을 거다...



#3일차

15 11



2024/10/30
wednesday, pm 9:44 | 22입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3일차

#쫄깃

나는 사실 '쫄깃'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 이 '쫄깃'이 어디에 쓰일때인지에 따라 다르다.

오늘도 마침이 단어와 알맞은 쫄깃한 쭈꾸미 볶음을 먹었다. 이런것이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쫄깃함이다. 쫄깃거린다는 표현을 들을때 저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설렐 정도로 쫄깃 하다는 식감 표현을 좋아한다. 하얀 쫄깃한 하얀 모찌떡 안에 알갱이가 없을 정도로 잘 갈려진 팥 앙금과 안에 과즙이 많은 시원한 딸기가 들어있는 딸기 모찌야 말로 내가 쫄깃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기분 좋은 이미지이다.

쫄깃이라는 것은 항상 좋게 느껴지지 않을때가 있다. 바로 심장이 쫄깃할 때이다. 사실 심장이 쫄깃하다는 것은 너무 그 심정과 감정을 잘 표현한 말 같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앞 둘때나 면접을 기다릴 때나 심장이 쫄깃하다. 그리고 90도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에 앉아서 출발해서 점점 기구가 느려질 때 심정이 쫄깃하다. 이때 만큼은 심장이 모찌떡이 되어서 누군가 내 심장이 되어버린 모찌떡을 새게 쥐었다 폈다 하면서 두근거릴때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내 튼튼했던 심장이 하찮은 이런 모찌떡이 되어 버릴때면 내가 너무 약하고 보잘 것 없어보여서 싫기도 하다. 그래서 이 쫄깃한 상황이 올 때면 나도 모르게 도망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난 안다 계속 도망쳐서 좋은 결과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쫄깃함을 즐기려고 한다.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런 쫄깃함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15 5



2024/10/30
wednesday, pm 9:47 | 23입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3일차 #쫄깃

[열여덟 번째 접시]

오늘의 단어는 어감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발음해보면, 뭔가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생긴 것도 보면 발음했을 때 나오는 소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두 글자가 각각 발음과 모양이 잘 맞는 듯 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쫄깃한 식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먹었던 과일 통조림 (후르츠 칵테일) 중, 하얗고 반투명한 네모의 무언가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몰랐지만 이제 그게 코코넛젤리 (나타데코코)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코팜 음료수에 들어가있는 젤리의 정체도 바로 이것입니다. 더불어 버섯, 회, 문어, 오징어 등을 좋아합니다.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이라, 언젠가 불호인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어 다같이 즐기게 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8 5



2024/10/30
wednesday, pm 9:56 | 22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3일차 #쫄깃한마음 #젤리

안절부절하고 약간 아찔한 마음, 쫄깃하다.
또는 아주 크게 숨을 들이마셔
가슴이 시원해질 때 느껴지는 두근거림이,
쫄깃하다.
치아로 입술 안쪽을 깨무는 습관이 있는데
잘못해서 세게 깨물면 헉! 가슴이 쫄깃하다.

금세 쫄깃하게 날뛰는 내 마음은
젤리인 것 같다.

적당히 차갑고 따뜻한 주변의 온도가
나를 유지시켜준다.
차가울 땐 질긴데 따뜻할 땐 너무
말랑해지니까
나를 쫄깃하게 해주는 일들이 좋다.

형체를 유지하기위해 오늘도 쫄깃쫄깃.

16 4



2024/10/30
wednesday, pm 10:15 | 22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3일차 #쫄깃 #집밥

[쫄깃한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가에
관하여]

쫄깃한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그중에
제일은 당면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흰색
절편! 가래떡도 좋다.

당면은 국물이 있는 음식에 추가해서 먹는 게
정말 진짜다. 국물을 한껏 빨아드린 당면을
한입 가득 넣고 먹는 행복이란! 도파민이
팡팡 터진다. 엄마가 해준 닭볶음탕에 들어간
당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닭볶음탕을 먹을 때 가끔 당면탕이 되곤한다.
당면탕이 되면 당면을 많이 많이 먹어 다시
닭볶음탕이 되게 한다. 당면 흡입기,,,

요즘은 잘 안 먹지만 학생 때 종종 엄마가
떡을 사 왔다. 가위로 삼등분해서 조미김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다.
가래떡도 좋은데 기름이 반들반들 발라져
있는 간간한 절편을 사랑한다. 엄마가 떡 한
팩을 사 오면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곤 했다.
빨리 집 가서 집밥을 먹고 싶다....
이번 연도부터 야금야금 살이 쪄서 요즘 정말
돼지(...) 같은데 이제 보니 살찐 이유를 알 것
같다

살이 안 찌는 쫄깃한 음식은 없을까?

14 7



2024/10/30
wednesday, pm 10:17 | 23읽음
권영하(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3일차 #쫄깃

"쫄깃"한 느낌은 긴장감이 가득한 순간을
말한다. 스릴러 영화는 이런 쫄깃함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린다. 이야기가 예측할 수 없이
진행되면 손에 땀을 쥐게 된다.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이 적과 마주할 때,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진다.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긴다. 영화의 음악과 조명도 긴장감을
더한다. 갑작스러운 소리나 어두운 화면은
숨겨진 비밀을 암시한다. 결국, 스릴러
영화는 우리를 긴장하고 호기심 가득한

세계로 이끈다. 이런 쫄깃한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14 4



2024/10/30
wednesday, pm 10:26 | 23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3일차
마음이 쫄깃한 상황에 처한 각각의 인물들을 그려내보았습니다. 모두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야기 1: "사라진 계약서"
고등학교 선생님인 지훈은 신입 교사 시절부터 어렵게 성과를 쌓아 이번에 드디어 상장 수여식에서 공로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 표창의 주요 근거인 '특별 교육 프로그램 계약서'를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진 것이다. 모든 학교 문서 보관실과 본인의 책상 서랍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표창 수여식은 불과 몇 시간 뒤, 지훈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초조한 마음에 주변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두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다.

이야기 2: "주인공 없는 무대"
연극 동아리의 열혈 회장 수아는 오늘 오후 5시, 교내 연극제에서 주연을 맡아 데뷔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주연 배우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수아는 그동안 연습해 온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떠올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수아는 자신이 주인공 대사를 외우고 무대에 서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급하게 준비한 대사와 연출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극의 막이 오르고, 수아는 주인공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혼자만의 사투를 벌인다.

이야기 3: "마지막 열차"
유럽 여행을 꿈꿔온 영수는 생애 첫 해외여행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스위스의 낯선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야간 열차의 플랫폼을 헷갈리게 된다. 기차는 단 10분 뒤에 출발할 예정이며, 늦으면 그날 밤은 역에서 지새야 할지도 모른다. 한참 헤매던 중 옆자리 승객이 말한 '3번 플랫폼'이 떠오르는데, 기차역의 안내판은 어쩐 일인지 2번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 촉박하고, 두근대는 심장을 안고 영수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간다.

14 5



2024/10/30
wednesday, pm 10:38 | 18읽음
홍다연(정치행정)

#3일차
이번 주제를 고민하면서 “쫄깃”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쫀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후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내 두 단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하여 확인해보니 '쫀득하다'는 음식물이 끈기 있고 졸깃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쫄깃하다'는 씹히는 맛이 차고 질긴 느낌을 갖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궁금증은 단순히 언어의 차이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이 쫄깃해지다”라는 표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심장이 쫀득해지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어색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쫄깃”과 “쫀득”은 비슷한 감각을 전달하지만, 그 뉘앙스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쫄깃하다”는 주로 어떤 음식의 씹는 질감이나 탄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며, 긴장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감정적으로도 잘 어울린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쫀득하다”는 주로 끈적이고 밀착되는 느낌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떡이나 찹쌀 같은 식감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두 단어의 사용이 각기 다른 감정을 이끌어내고, 특정 상황에서의 적절한 표현은 우리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쫄깃”과 “쫀득”의 차이는 단순한 의미의 차이를 넘어, 우리의 문화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12 6



2024/10/30
wednesday, pm 10:45 | 16읽음
이예림(청각학전공)

#3일차

쫄깃함이란 말은 단순한 식감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입안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탄력과 탄성은 경험과 감정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쫄깃한 식감은 음식이 단순히 부드럽거나 바삭한 것과는 다른, 씹을수록 깊어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떡, 면, 고기류 등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쫄깃함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식감을 통해 우리는 음식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식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쫄깃한 음식은 준비 과정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전분을 사용하는 반죽은 반죽을 치대는 과정에서 적절한 탄성을 만들어 내어야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또한 쫄깃한 식감을 잘 유지하려면 익히는 온도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길이 많이 가는 과정 덕분에, 쫄깃한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맛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11 3



2024/10/30
wednesday, pm 10:45 | 23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3일차
열리다, 찰나는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생각났지만
오늘 주제 쫄깃은 어떻게 써야할 지 막막했다.
그러다가 문득
'쫄깃쫄깃 오동통 농심 너구리~'
멜로디가 생각이 났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오늘은
내가 너구리를 먹는 레시피 공유글로
하려한다.

1. 냄비에 물을 컵으로 1.5잔 준비하고
다시마랑 후레이크 투하!
2. 불 올리고 라면 스프 넣다가
3. 물이 끓어오르면 계란을 두 개 넣고
4 노른자 터트리기 (반숙 싫어해서;;)
5. 이제 드디어 면 투하하고
6. 살짝만 익히다가 찬물로 반컵붓고

불끄고 냠냠하기..













+사실 오늘 쫄깃에 대한
어원에 대한 탐구 글을 쓸까했지만
쓰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기다 마침 오늘 저녁으로
너구리를 먹어서 너구리로 결정!

17 11

2024/10/30
wednesday, pm 11:01 | 19읽음
박시연(사회학과)

#3일차
오늘은 학교에서 모의토익시험을 봤다.
모의시험이니까 별로 부담이 없었다. 시험을
보고 청명하고 맑은 가을밤 누비며
돌아오다보니, 다가오는 수능 시험이
생각났다. 동시에 그간 수없이 많이 치렀던
시험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다.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시험을 보기 직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쫄깃한 느낌. 누구나 한번쯤
느껴보는 것이지만 아무나 느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쫄깃할 정도로 긴장된다는
것은, 이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반증이니까. 어찌보면
쫄깃하다는 건 정말 고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쫄깃해진 마음, 마냥 나쁜건 아니다.
시험을 보기 직전 그 쫄깃함을 느껴본
사람에게 브라보 한마디 나직이 말해주고
싶다. 이번 중간고사에도 이 쫄깃함을 느껴본
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15 7

2024/10/30
wednesday, pm 11:04 | 16읽음
김경환(화학과)

#3일차
오늘은 라이팅챌린지 3일차를 맞이하여
'쫄깃'이라는 표현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가깝다', '맵다'와 같은 표현을
들으면 1km, 스코빌 지수 등의 구체적

수치로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쫄깃'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어떤 단위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식품의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는 몇 가지 글은 있었지만, 쫄깃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쫄깃함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만약 이러한 단위가 있다면 식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탄성력, 씹힘성 등은 측정할 수 있지만, 이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쫄깃함을 나타내는 단위가 개발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디.

11 4



2024/10/30
wednesday, pm 11:08 | 15읽음
(알 수 없음)

#3일차
쫄깃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떡볶이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최근 위염으로 인해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쫄깃쫄깃한 떡볶이가 정말 먹고 싶었다.
그러나 위염 때문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하니, 평소처럼 매운 떡볶이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 나으면 쫄깃쫄깃한 밀떡볶이를 제일 먼저 먹고 싶다!

13 5



2024/10/30
wednesday, pm 11:12 | 16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나는 쫄깃한 음식은 좋아하지만, 쫄깃한 순간은 좋아하지 않는다. 쫄깃한 떡도, 타피오카 펄도, 면도 모두 없어서 못 먹는 나지만 심장이 쫄깃해지고 덜컥 겁을 먹게 되는 순간은 상상만으로도 괜한 불쾌감이 든다.
그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색다른, 내가 좋아할 쫄깃한 순간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 쫄깃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분 좋은 날 발걸음이 땅에 착 붙었다 떼어지는 게 쫄깃한 날도 있었다. 타자를 치는 온갖 키보드가 내 손에 맞아 떨어질 때 느껴지는 쫄깃함도 참 좋아한다.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꽤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조금만 방향성을 바꾸어보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된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하루하루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보다 멍청하다는 뇌를 하루하루 속여가며 더이상 뇌를 속이지 않아도 정말 행복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12 5



2024/10/30
wednesday, pm 11:15 | 14읽음
임은송 (경영학과 20213029)

#3일차

<쫄깃한 순간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은 쫄깃해져 가네.

작은 도전 앞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하지만 함께라면 그 긴장감도 즐겁다.

손에 땀을 쥐고, 숨을 죽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믿음,
쫄깃한 순간들이 우정을 깊게 해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그때,
함께 웃고, 함께 뛰어넘는 그 짜릿함.
일상 속 작은 모험들이 쌓여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가는 걸.

이제는 알겠어, 쫄깃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니,
앞으로도 쫄깃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자.

시집이라는 건 손도 안 대던 제가 올해 초 친구의 추천으로 시를 접하게 되고 친구와 만날 때면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한 후 짧은 시를 창작하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다듬어지지 않은 시이지만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시 창작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경험 역시 저에겐 너무 쫄깃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12 4



2024/10/30
wednesday, pm 11:17 | 18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쫄깃

10월 초에 있던 일이에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가게 됐어요. 공연 시간이 7시라 그 전까지 더현대에서 팝업스토어 구경도 하고 아이파크몰에도 방문해서 점심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공연장으로 갔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공연이었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도 좋지만, 그 사람 자체로서 정말 사랑하게 되었달까요. 아무튼 공연에 흠뻑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진행 중이었거든요. 문득 생각보다 길어진 공연에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기차표가 떠올랐어요. 다음날 수업이 있었기에, 끝나자마자 제일 가까운 시간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가수가 공연이 끝나간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코레일 어플을 켜서 기차 시간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쿵. 막차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 마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리는 빨간 모래시계가 떠있었어요. J력을 발휘해 빠르게 시간을 계산했어요. 여기서 용산역까지 버스타고 30분, 지금 당장 나가도 아슬아슬하다는 판단이 서버렸던 거죠. 눈물 나게 아쉬웠지만 통금 시간이 생긴 신데렐라라가 된 것처럼 집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답니다. 앵콜곡을 듣지 못해 슬펐지만 어쩌겠어요.

공연장을 나오니 저 같은 사람이 몇몇 서있었어요. 어플로 버스 시간을 보니 30분이 걸린다고 나왔어요. 버스를 타면 기차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역에 도착할 예정이라 버스는 패스. 택시를 보니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나왔어요. 얼른 카카오택시를 잡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택시를 잡으면 빈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왠지 빈차를 타버리면 카카오택시 기사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갈아타진 못하고 그냥 기다렸답니다. (그도 그렇지만 어플 택시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기다리던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께 "혹시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10시 5분 기차라서요..."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기사님께서는 사명감을 발휘하셔서 지름길로 빠르게 운전해주셨어요. 길이 뻥 뚫렸을 땐 부아앙 엔진소리가 들릴 정도로 과속하셔서

심장이 쫄깃해져 '그냥 안전하게 가달라고 다시 말씀드릴까' 고민도 했지만, 네이게이션 도착 시간을 보니 이대로면 기차 시간보다도 10분 일찍 도착해 여유가 있었어요. 결국 택시는 기차 시간 10여분 전에 도착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역으로 뛰어갔어요.

택시 기사님의 사명감 덕분에 저는 무사히 기차를 타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다음날 수업도 출석하고요. 평소엔 '놓치면 걸어가지 뭐', '다음 거 타지 뭐' 하는 마음을 가지는 편이지만, 서울에서 돌아가야 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더욱 심장 쫄깃한 경험이었답니다.

11 8



2024/10/30
wednesday, pm 11:24 | 16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쿱

#3일차

예측 불가능한 일을 선호하지 않는다.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기에 순간 마주치는 경험들을 외면하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가오는 것을 계속 피해가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알고보니 그 걸음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였을 수도 있기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 무료했던 내게 오랜만에 느끼는 쫄깃한 감정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기로 한 나의 발전들을 응원해주길!

나침반-한로로

12 4



2024/10/30
wednesday, pm 11:27 | 16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3일차

'쫄깃'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베이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이글의 쫄깃함을 노래하는 시를 써보았습니다.

베이글의 성벽

낙엽을 따라 살짝 그을린 갈색,
푸른 하늘 아래 부드러운 윤기가 은은히 감돈다.

황금빛과 밤색이 어우러진 껍질,
빵 속 깊이 숨겨진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

마침 빵집 앞을 지나던 회사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베이글을 담아간다.

한 입 크게 베어 문 순간,
베이글의 둥근 성벽은 무너져 내린다.

꽁꽁 감춰둔 비밀의 시작,
바삭한 외곽이 허물어지며 쫄깃한 속살이 드러난다.

한 번의 침공에 열려버린 고소한 성 안쪽,
입안 가득히 함락된 맛의 왕국이 펼쳐진다.

13 7

2024/10/30
wednesday, pm 11:38 | 16읽음
박세진(중국학과)

#3일차 #쫄깃

보드게임을 떠올려보면 할리갈리, 루미큐브, 부루마블 등과 같은 익숙하고 대중적인 보드게임이 생각난다.

루미큐브는 쉽게 설명하면 각각의 14개의 패를 가져와 모든 패를 없애야 이기는 게임이다. 차례가 돌아왔을 때, 패를 낼 수 없다면 하나의 패를 더 뽑아야 해서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다. 상대가 패를 내면서 내가 생각한 수대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될 때 짜릿함을 느낀다.
상대방이 갈팡질팡하거나 패를 다시 되돌려 놓을 때면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경우로 승리를 예상할 때면 심장이 쫄깃해진다. 상대방에게 표정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상대에게 내가 가진 패를 들킴으로써 패배할까봐 쫄깃한 것이다.

비슷한 경험으로, 청소년기 잠을 자야 할 새벽에 몰래 핸드폰을 한 경험이 있다.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며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는 시간이 정말 재미있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깨는 소리가 들리면 슬며시 눈을 감기도 했다.

나에게 쫄깃함이란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들킬 수도 있다라는 상황으로 두근거리는 것을 어떤 자극에 흥분해서 두근거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당시에 나는 흔들다리 효과(어떤 용어가 맞을까)를 경험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쫄깃한 순간을 즐기는 것 같다.

12 6



2024/10/30
wednesday, pm 11:58 | 21읽음
지소영(간호학과)

#3일차 #쫄깃

'쫄깃'함 은 단순히 질감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긴장감, 호기심 등 넘치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쫄깃한 것들'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자극합니다.

쫄깃한 것들은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쫄깃한 장난감을 주물럭거리며 즐거워하고, 쫄깃한 간식을 씹으며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에게 쫄깃함은 단순한 감각 경험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는게 아닐까요?

어른들에게도 쫄깃함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떡볶이 같은 쫄깃한 음식을 먹으며 순간의 만족감을 느끼고, 스릴있고 쫄깃한 순간들을 지나며 삶의 생동감을 느낍니다. 쫄깃함은 일종의 치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쫄깃'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심리적 의미와 경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4



2024/10/30
wednesday, pm 11:59 | 25읽음
박현민(심리학과)

#3일차 #쫄깃

쫄깃쫄깃.. [쫄깃하다] 어감부터 단어의 생김새또한 뭔가 단어가 귀엽다. 뜻은 식감을

뜻하지만, 심장이 잔뜩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는 기분이 드는 걸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글은 참 매력적이다.

최근에 가장 쫄깃했던 기억이 있다. 시험 전날 친구들과 함께 언제나 그렇듯 새벽까지 공부를 한 뒤 집에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직접 필기를 하여 정리를 한 번 해놓은 상태였고, 외우듯이 적었다기보다는 한눈에 잘 보이도록 옮겨놓았다고 볼 수 있었다. 시험기간이었기에 시험-공부-시험-공부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피곤함의 극치를 도달한 상태였다. 아쉬운 마무리였지만 다음 날(사실상 당일) 시험도 봐야 했기에 마음이 편치 못 한 상황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다.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침대에 앉았다.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라 좋아하는 수면잠옷을 입고 전기장판을 따뜻하게 틀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푹신한 이불을 덮고 앉아있었다. 공부가 아쉬웠던 마음을 채우려고 '아 한 번만 보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패드를 들었다. 몇 시간 뒤를 위한 알람도 열심히 맞춰놓고 필기를 해놨던 노트를 천천히 읽었다. 정신장애..-
눈 떠보니 시험 시작 30분 전. 그냥 잠들어버린 것이다. 충격을 받고 스스로를 원망할 새도 없이 화장실로 달려갔다. 누구보다 빠르게 양치만 끝낸 뒤 옷을 아무거나 주워입고 뛰어다녔다. 5분만에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로 달려가는 동안이라도 길에서 필기를 볼 생각에 아이패드를 건들이니 전원이 꺼져있었다. 몇 시간 전.. 필기 본다고 켜놨던 게 꺼지지도 않은 채 그냥 배터리까지 전부 소진된 것이다. 충전기를 꽂았으나 1퍼센트의 배터리로는 어림도 없었다. 시간은 23분 전, 강의실까지 15분 전에는 출발해야 했고(평소에 수업 기준이니 시험인 상황에는 최대한 빠르게 가야 했다) 두 가지 고민을 빠르게 했다. 첫 번째,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필기를 빠르게 읽고 강의실까지 달려간다. 두 번째, 길 가는 동안 필기 보는 것을 포기하고 강의실에 빠르게 가서 충전을 해본다(충전 콘센트가 불확실함)
후자를 선택했다. 충전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 베팅을 한 것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강의실로 뛰어갔다. 다행히 충전을 할 수 있었고 필기를 어렴풋이 읽으면서 뇌에 정보를 쏟아내려고 노력했다. 결국 마지막에 눈 마주쳤던 약물 용어는 앞 글자만 생각날 뿐.. 시험지를 받으니 머릿속은 새하얗게 되어버렸다. 망했다는 생각만 가득하여 착잡했다.

그렇게 나의 쫄깃은 이날만큼은 귀엽지 않게 되어버렸다..

13 4



2024/10/31
thursday, am 12:13 | 36읽음
이덕영

#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쫄깃'에 대해 생각해보니 어떠셨나요? 음식부터 인생의 순간까지, 다양한 '쫄깃' 이야기가 오갔네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당한 쫄깃함이 있어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16 0



2024/10/31
thursday, am 7:44 | 44읽음
이덕영

#4일차 키워드: 잊혀지다
오늘의 키워드는 '잊혀지다'입니다.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이나, 잊혀지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나요? 혹은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나요? 잊혀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글을 써 봅시다.

21 1



2024/10/31
thursday, am 8:31 | 36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4일차
오늘도 키워드에 맞는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잊혀지다" 키워드에 맞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데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이야기는 제가 중요한 것을 잊고 난 이후 다시는 "잊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입니다. 우선 저는 평상시에 기억력이 좋지 않아 한 번 이야기해준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야 기억을 합니다... 올해 8월달에 있었던 이야기 입니다. 병원을 가는 날이였는데 잊어버려 병원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병원 가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다행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였다면 병원에 가지도 못해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특강이 있거나, 시험기간, 봉사, 병원 등 중요한 일정들을 "잊지 않을려고" 바로 핸드폰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하면 기억하기가 쉽고, 일정을 까먹지 않아 정말 편리하네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21 12



2024/10/31
thursday, am 8:45 | 27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4일차
“잊혀야 하는 기억”

살기 위해선 잊어야 한다. 삶 속엔 행복과 희망이 있지만 불행과 절망도 있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행복한 기억보단 불행한 순간이 뇌리에 깊게 박힌다. 기분 좋은 햇살, 날

반기는 친구 혹은 가족의 얼굴, 산책 나온 강아지, 뛰어노는 아이들. 그런 것들보단 비에 젖은 양말, 날 상처입게 한 전애인, 차에 치인 비둘기, 시끄럽게 우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을 것이다. 때문에 삶 8할이 행복하고 무난했더라도 나머지 2할의 불행으로 삶 전체가 우울하다는 기분을 받기 쉽다. 물론, 8할이 불행일지도 모른다.
본인이, 혹은 그 삶을 바라보는 타인이 그렇게 느낄지도 모른다. '아 내 삶은, 저 사람의 삶은 불행하구나' 하고.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한 불행의 수치를 매길 수 없다. 연인을 잃은 마음과 친구를 잃은 마음 중 무엇이 더 아플까? 부모를 잃은 마음과 형제를 잃은 마음 중에는? 사람마다 상황따라 판단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정하는 내 삶의 불행 수치가 가장 타당한 값이다. 그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영혼이 느끼는 무게감일테니까. 그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힘듦을 이겨낸 이들의 조언도 심심찮게 찾아보았다. 누군가는 매일 같이 운동을 해라, 또 누군가는 감정이 닳을 때까지 슬퍼해라,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 웃으라 했다. 힘듦을 이겨내는 방식은 제각기 다른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잊는다는 것. 기억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함으로써 잊어버리고, 감정을 쓰다 결국 비워내는 방법들이었다. 망각은 날 아프게 했던 것들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행복한 것들은 그리 쉽게 잊으면서 왜 불행한 것들은 마음에 쌓고 사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움켜쥐고 살다니. 그건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때문에 우리는 잊어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삶을 위해.
나의 지독한 버릇은 문제를 곱씹는 다는 것이었다. 왜 누군가는 날 싫어할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사람은 나에게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을까. 나는 누군가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그 사람은 날 상처줄 이유가 있을까. 이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언제쯤 힘든 하루가 끝날까. 관성처럼 남은 삶에 대한 갈망, 이건 사랑일까 미움일까. 끝도 없는 질문을 매일같이 했다. 그렇게 묻다 보면 답이 나올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답이 삶을 불행하게만 여기는 나에게 나름 살아갈 이유를 줄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놓친 건 깨달음을 주는 현자도 언제나 질문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상은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었다. 무수히 많은 단어와 그것들의 연결이 무한대로 이어져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삶이었다. 난 묻는 동안 그 무엇도 잊지 못했다. 힘들던 순간은 더욱 또렷해졌고, 스쳐갈 수도 있던 것들이 마음 깊이 자리잡았다. 이제야 깨닫지만 잊지 못함으로 내 삶은 더 아팠다. 오늘의 행복에 웃기보다 어제의 불행에 울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이제야 후회된다.
그렇다 해서 그저 잊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잊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 말이다. 상처를 쥐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잊으라 하면, 도리어 그건 상처를 후벼파는 일이다. 그러한 말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보다 힘들어 하는 나를 잘 아는 게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당한 이유와 따듯한 위로로 마음을 달래는 편이 좋다. 나는 그 답을 사랑이라 믿기로 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상대의 모진 말은 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모든 사랑은 제각기 다른 형태지만 그 형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만난 이들은 그저 나와 사랑의 형태가 달랐을 뿐이라고. 그러니 더 이상 상처받기 전에 서로의 행운을 빌고 멀어지자고. 어찌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사랑해서 떠나고, 사랑해서 상처주는 것이 인간 관계라니. 그러나 이건 그저 나에게만 합리적이기만 하면 된다. 잊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수많은 노력 끝에 잊어가는 과정에 올랐다.
되짚고 곱씹기 보단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중이다. 살기 위해 잊는 것이 서글픈 날도
있지만 그 또한 잊히겠지. 아픈 기억에 안녕을
고한다. 그러나 그 기억들의 행운을 빈다.
아팠지만 그 또한 내 삶의 일부였으므로.

19 8



2024/10/31
thursday, am 8:48 | 27읽음
은용준(사회학괴)

#4일차
어렸을 때는 모든 기억이 평생 남아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잊혀져가는 얼굴들, 목소리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래전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던 음식의 맛, 방과 후 뛰놀던
동네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은 세월 속에서
흐릿해져 갔다. 기억의 저편에서 사라져가는
순간들은 내게 종종 그리움으로 남아
아련하게 떠오르지만, 매번 손에 잡히지 않는
허무함도 함께 따라왔다. 무엇이든 끝없이
간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순간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히 다가왔다.

그렇지만 잊히지 않으려 애썼던 순간들도
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삶의 방향을
바꿔 준 책 한 권, 도전을 결심하게 했던 말
한마디. 이러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이 남아 나를
지탱해 준다. 잊혀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런 마음 덕분에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 잊혀지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현재를 잘 간직하자

19 7



2024/10/31
thursday, am 8:57 | 33읽음
김도은(광고홍보)

#4일차

순간 잊히고 싶었다.왜 그랬을까? 그냥 받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잊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라고 발언했을까?'

오늘로 4일 째.오전 8시를 밝히는 매일의
글쓰기 주제가 날 머쓱하게 만들어버렸다.난
예전부터 틀렸다거나 옳지 못한 것에
불편함을 느껴왔어서 강박에 가까운
교정의사를 가지고 있다.아무래도 맞춤법을
고되게 외웠던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날
질책하는 게 틀림 없다."바르지 못한 것은
고쳐야 돼,그래야 혼란이 생기지 않아"라고
말이다.그렇다고 이미 쓴 댓글을 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운다는 것도 좀 그런
일이라 언뜻 답답했다.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 '잊혀지다'는 이중피동
형태이다.여기서 피동이란 동작,상태의 주체
또는 객체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인데,분석해보자면 원 뜻을 가진
동사'잊다'의 어간 잊-에 피동접미사
이히리기 중 히,거기에 -어지다 라는 서술형
종결어미 표현이 결합된 형태이다.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잊히다'에 이미 수동의
의미를 가진 '히'가 있어서 '-어지다'가
필요없다는 것이다.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수 많은 매체들에서는 아직도 해당
표현을 오용하고 있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 있고 헷갈리기 쉽다고
생각한다.솔직히 맞춤법은 시험 준비인이나
관련자가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기가 귀찮기도 하다.

어쨌든 첫 문단에서의 잊히고 싶다는 말은 "괜히 나 혼자 유난 떠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어 순간적으로 후회했다는 뜻이었다.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남들의 뜻하지 않은 반응을 걱정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분명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아무리 봐도 눈치 볼 이유가 없는데도?

글을 적어내리다 이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내가 아까의 행위에 대해 눈치를 봤던 이유 및 잊히고 싶었던 이유가.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여나 눈 밖에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나였다.어떠한 대상이 틀리고 올바르지 못하다 해도, 알아채 눈에 담았다 해도 그것을 정정할 능력과 권한은 없었으면서.그럼에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하는 나였기에 학창시절 괜시리 범생이 짓 한다고 애들한테 한 소리 들었었다.지금 보니 이유가 웃기고 어이없다.

또 하나의 요인을 추측해본다면 '튐'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이다.물론 요즘에는 이 튐도 개성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마음껏 드러내라는 말이 나온다지만...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튐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사회는 경직돼있다.공동체의 통일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약하지 않다.그렇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어쩌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튐을 기피하게 된 걸까?그 근원은 바로 조상들의 식생활과 관련 있다고 한다.

하필이면 왜 갑자기 다른 많은 요인 중 '식'인가.왜냐하면 식생의 주가 되는 재료인 벼의 재배방식 때문이다.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품이 든다.물을 대는 것부터 시작해서(관개) 싹인 모를 심고(이앙) 자라는 도중에 벌레 먹을까 봐주어야 하며 최후에는 곡식인 쌀을 얻기 위해 추수 및 타작(벼 베기와 낱알 털기)을 해야한다.해당 과정은 다른 여러 곡식들에 비해 까다롭고 규모가 있어 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사람들 간에 호흡이 중요했다.말 그대로 여기서 '돌발 행동'이나 '이견'을 냈다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긴 커녕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는 뜻.따라서 이런 농경 풍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었기에 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이제 농사를 짓지 못해 길거리에 나와 앉는 시대는 지났다.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복지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설령 내 몫의 일을 다 해내지 못해도 배를 곯지 않게 해준다.말 그대로 더이상 튀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목숨을 잃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다.게다가 이 '베풂'에는 차별이 없어서,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급식카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시킨다.물론 제도의 부족한 홍보 문제로 인한 미신청 문제 등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논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아무튼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다. 옳은 발언을 했지만 내 소심한 성격과 한국사회 특유의 이견을 배척하는 풍조가 만나 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주변의 반응을 걱정했다.마치 충언을 한 뒤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과거의 누군가 처럼.그러므로 더더욱 생각한다.아니라고.내가 틀리지 않은 게 맞으니 소신있어도 된다고.그리 맘을 다잡으며 오늘도 새 하루를 연다.



19 17

2024/10/31
thursday, am 9:00 | 28읽음
유채원(일본학과)

#4일차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양날의 검이다. 안 좋은 일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이면 잊히니 좋다. 아무리 끔찍한 기억일지라도 드문드문 기억나게 되었고, 몇몇 일들은 미화까지 되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강의를 듣다가 엄청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날 밤에 그 일을 곱씹으면서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아마 내가 여태까지 한 실수를 다 기억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트라우마로 가득 찰 것 같다.
떠나간 이들의 기억이 점점 잊히는 것은 싫다. 예를 들자면, 나는 할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사진이 거의 없는 탓에 누군가 나에게 그의 얼굴을 묘사해 보라고 하면 문장 끝에 온점이 아닌 물음표가 올 것이다. 목소리 또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대충 낮은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어딘가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남아있다면, 할아버지가 이런 목소리였냐며 놀랄 것임이 틀림없다. 잊고 싶지 않은데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18 8

2024/10/31
thursday, am 11:36 | 26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4일차
저는 자주 깜박합니다. 어머님이 심부름시키셔서 갈 때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어.. 내가 뭘 살려 했지?' 하며 어떤 심부름을 했는지 어머님께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1분 전만 해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아 내가 뭘 하려 그랬는데 뭐였지?' 탄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한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물어봤을 때 "내가 저번에 너랑 있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 계속 물어보았는데 친구가 "너 내 말은 듣는 거냐?"라고 해서 친구도 저도 상처받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잊는 건 아프고, 힘들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 빨리 잊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 캘린더 메모 칸에 키워드를 적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일기 형식처럼 그날 일과 내가 느낀 감정을 적습니다. 또한 미팅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듣자마자 바로 캘린더에 들어가 일정을 적어 둡니다. 그 외에도 기간 내에 해야 할 것을 적거나, 오늘

일정을 적기도 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애매하게 시간이 남을 때 알람을 맞춰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알람을 못 들어 약속에 늦거나 못 가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메모에만 너무 의지하게 되니 기억하려는 노력을 더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암기력이 떨어져 공부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한 번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기억을 잊지 않게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18 7



2024/10/31
thursday, pm 12:27 | 23읽음
전수현(법학과)

#4일차 잊혀지다

'잊혀지다'라는 표현은 나에게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그 관계를 유지했던 행동과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진 않을까. 하지만 이 또한 철없던 시절의 걱정이었던 것 같다.
내 주변 관계를 인생의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나와 안 맞는 사람, 때론 맞아도 연락이 뜸하여 멀어지며 잊혀지는 관계, 다양한 관계가 인생에서 이어진다. 어렸을 때는 모두와 친구를 하기 위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잊혀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표현했던 것 같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보람도 느끼며 감정을 배웠었다. 지금은 들어오는 관계는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가는 관계는 겸허히 보내는 성격이 되었다. 그래야 내가 상처도 덜 받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서도 끊어진 관계의 실을 보며 다시 붙이려는 친구도, 태워버리는 친구도, 끊어진 실을 보며 자책과 책망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세상에는 나와 이어질 수 있는 실의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다. 끊어진 실을 다시 묶는다 한들 전처럼 될 수 없을뿐더러, 매듭이 엉키고 실이 엉켜 나중엔 끊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反)의 말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 헤어지는 관계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친구들에게 넌지시 위로를 해본다. 행복하기도 바쁜데 그런 관계까지 신경 쓰면 행복할 시간이 줄어들기에.

잊혀지고 싶은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잊혀지고 싶을 만큼 흑역사도 없고, 그 또한 추억이고 그 기억이 없다 한들 지금의 삶보다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창피한 기억일지라도 지금은 술 한 잔의 안주가 되어 친구들끼리 가볍게 얘기할 수 있기에 모든 기억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18 6



2024/10/31
thursday, pm 12:38 | 26읽음
김경환(화학과)

오늘의 라이팅챌린지 프로젝트는 "잊혀지다" 입니다.

"잊혀지다"라는 말은 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이나 부끄러운 순간들을 잊고 싶어 하지만, 다른 때에는 내가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잊혀진다'는 표현이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잊혀지고 싶은 입장을 먼저 떠올려보면 저는

잊힐 권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떠올려 보면 저는 지방 소멸 문제가 떠오릅니다.

잊혀진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잊히기 위해, 혹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무엇이 잊혀지는지는 세월이 흘러야 알 수 있으니까요.

17 6



2024/10/31

thursday, pm 1:01 | 28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4일차
'잊혀지다'에 대해 생각해보니 과거에 대한 추억이 많이 떠올랐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주셨던 내가 있던 반의 담임선생님들이었다. 나는 종종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셨던 담임선생님들을 모두 회상하곤 한다.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총13분이 계신다. 왜 13분이냐면 고2 때 담임선생님이 1학기만 하시고 바뀌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회상해보면 오래된 기억 속에 계신 분일수록 이름은 기억이 나지만 얼굴이 가물가물해진다. 특히나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의 얼굴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나의 첫 학교 생활을 함께 시작해주신 분이라 잊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내 머리 속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있다. 얼굴 형태만 유일하게 온전히 기억날 뿐 자세한 외모와 목소리가 많이 잊혀졌다. 아쉬운 마음에 지금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건 나머지 담임선생님분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거의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한 분씩 회상할 때 마다 잊혀지고 있던 그 때의 추억들이 되살아 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언제 난 20살이란 어른이 되어버린 거지 하며 혼자 놀라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나의 절친들이다. 고등학생 때 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해주고 지냈던 때가 가끔 그리워지기도 한다. 각자 붙은 대학으로 흩어지고 누구는 재수를 하며 서로 얼굴을 보기 쉽지 않다. 그나마 DM으로 만난다. 절친이라서 그런지 얼굴을 못 본지 오래되도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러다 보면 대학 오기 전 나와 친구들이 세웠던 잊혀진 계획들이 떠오르게 된다. 방학에 부산에 가기로 했는데 다들 바쁜 삶을 사느라 모두 잊고 있었기도 했다.
솔직히 나는 '잊혀지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 나의 추억 중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잊혀지면 난 기억해내지 못하는게 너무 답답하고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잊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잊고 싶지 않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 사진이다.
(출처 : 네이버)

18 12



2024/10/31
thursday, pm 1:41 | 33읽음
김미도(일본학과)

#4일차

우리집은 사남매다. 사남매 중에 나는 둘째인데, 여느 형제가 대부분 그렇듯 항상 "동생이니까 양보해", "누나니까 잘 해줘", "언니니까 네가 챙겨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 나는 어렸을 때 오빠에게 많이 맞았다. 한 번은 오빠가 나를 벽시계에 단져 머리에 흉터가 남았고, 언제는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가 찌그러지고 머리에 엄청 큰 혹이 생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다. 아침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기전 아침밥을 차리고 먹고 있었는데, 오빠가 일어났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면서 때렸다. 어머니는 평소에 오빠를 많이 신경쓰셨다. "오빠는 항상 동생들한테 배려해서 자기 속 마음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거야."라고 자주 말씀 하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무이유도 없이 때리는데 배려? 엄마는 날 안좋아해. 오빠만 좋아해. 라고 어릴 적에는 생각했다. 오빠가 아무리 날 때려도 이유가 있어서 그럴거라는 엄마. 나는 어머니께 잊혀진 존재인가보다."너 때문에 오빠가 저렇게 된거야" 나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22 10



2024/10/31
thursday, pm 2:02 | 27읽음
김미란

#4일차

[잊고 싶지 않은 언어들]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다. 나는 그렇다. 순간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영감들을 적어두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나는 일상에서 많은 배움과 영감을 얻는다. 배움과 영감을 얻는 곳은 다양하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번에는 책에 대해 썼으니 이번에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에게는 종종 잊고 싶지 않은, 기억해야 할 것 같은 단어들을 듣거나 포착한다.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다. 교수님은 단순히 교과서 너머의 지식을 넘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주셨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잊어서는 안 될, 기억해야 할 언어들이었다. 나는 적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하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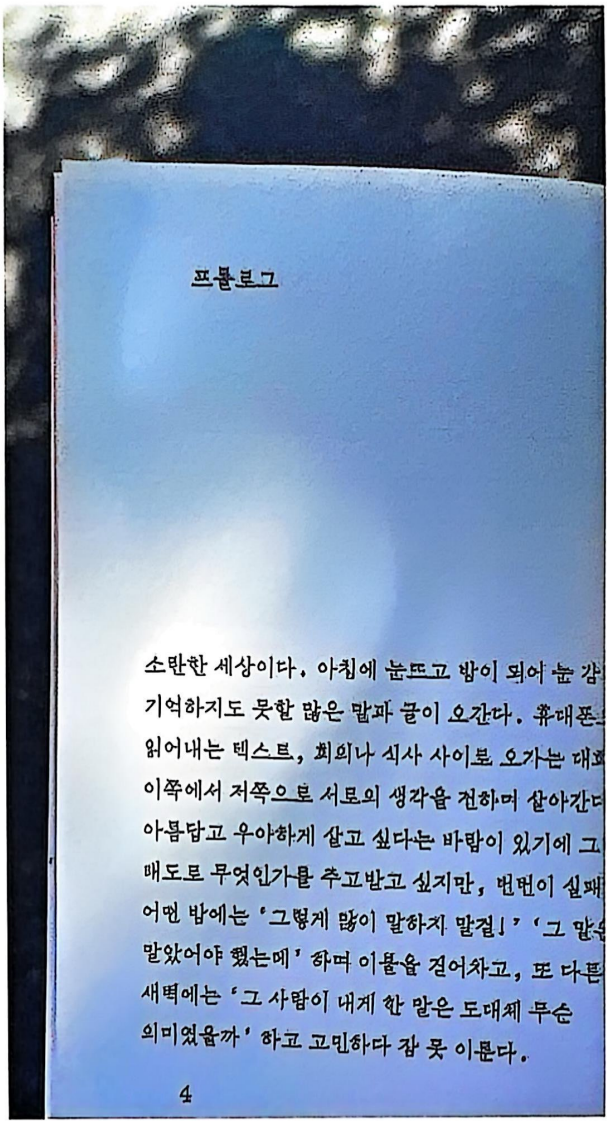
어느 날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장애는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또한 언제든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사회이다. 그 차별 받는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언어였다. 나는 적었다.
이 수업을 들을 때면 무언가를 적을 때가
많았다. 단순히 '외우세요.', ' 시험에
나옵니다.'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는
수업보다 나는 이러한 수업이 좋았다.

나는 일상에서 오고 가는 사소한 언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 좋은 스승이 해주는
언어에 집중한다. 그 언어에서 또 어떤 잊지
못할 말들을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끔은 노래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따듯한 언어가 오고 가는 순간을
듣고자 한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다.

앞으로 더 다양한, 지금껏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언어들을 듣고, 잘 포착할 수 있길 소망한다.



18 7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2024/10/31
thursday, pm 2:52 | 25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4일차 #잊혀지다
#잊혀진마을
#소양강댐수몰지역사람들의이야기

여러분, 혹시 춘천에 댐 밑으로 가라앉은
잊혀진 마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춘천 동쪽의 대곡리와 신평리 같은 마을들은
소양강댐이 건설되고 강 아래로 잠기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고향과 추억이 물결 아래
잠긴 그 시절, 마을사람들은 슬픔과 상실감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죠.

마을의 땅은 물에 잠겼지만 그들이 함께
바라보던 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남아 그 시절
고향의 모습과 추억을 품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그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하늘에 남은 마을의 노래

물결 속에 잠긴 마을, 잃어버린 집들과
푸르던 들판 위에 묻힌 어제의 시간들
하지만 밤하늘의 별빛은 아직도 여전해
그때 우리가 바라보던 빛나는 하늘

(후렴)
땅은 물결 아래 잠들었지만 하늘은 그대로야
그 시절 우리가 보던 별빛이 여기 있어
별빛 따라 흐르는 그날의 이야기
여전히 하늘 위 고향에 남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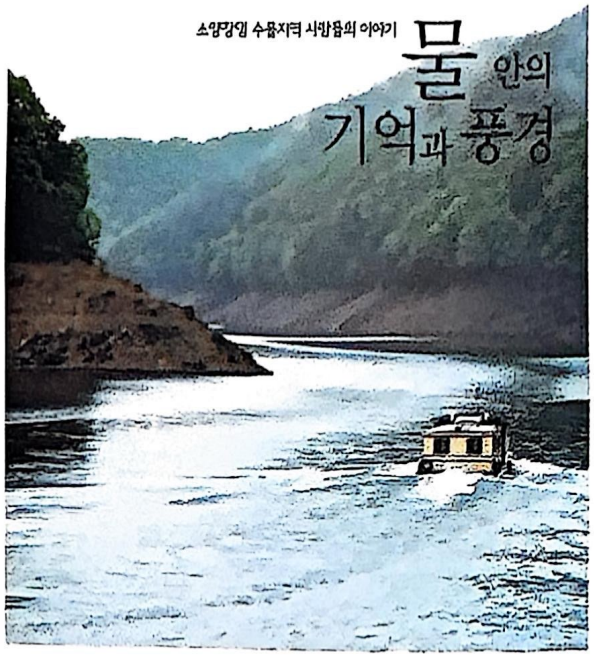
저 달빛에 실려오는 옛 고향의 숨결이
물결 속에 감춰져도 여전히 들려와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흩어져도
그 밤하늘의 고운 별은 여전해

(후렴)
땅은 물결 아래 잠들었지만 하늘은 그대로야
그 시절 우리가 보던 별빛이 여기 있어
별빛 따라 흐르는 그날의 이야기
여전히 하늘 위 고향에 남아 있어

물 아래 사라진 길과 잃어버린 시간들
하지만 하늘은 그때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꿈과 이야기를 별빛으로 비춰
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우릴 지켜봐

(후렴)
땅은 물결 아래 잠들었지만 하늘은 그대로야
그 시절 우리가 보던 별빛이 여기 있어
별빛 따라 흐르는 그날의 이야기
여전히 하늘 위 고향에 남아 있어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 여전히 보이는
그 시절의 별들이 우리와 함께해
물 아래 잠든 마을, 하늘에 남은 우리의 고향



이미지 출처:



물 안의 기억과 풍경
cc-archives.or.kr

이미지 출처를 클릭하시면 소양강댐 수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9

2024/10/31
thursday, pm 2:54 | 30읽음
최오영(심리학과)

#4일차





영화 [코코]를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고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도 하고 두 번째 사진처럼 할머니의 모습인 핵심 인물 '코코'와 그 옆에 서 있는 꼬마 주인공 '미구엘'이 함께 부르는 'Remember me' 장면도 유명합니다.

저는 '잊혀지다'를 보자마자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안 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적진 못하지만, '미구엘'이 현실세계와 사후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험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안에서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신의 제삿날, 살아있는 이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려두며 기억해준다면 잠시 잠깐 유령의 형태로 현실 세계에서 갔다 올 수 있는데요. 극 중 의문의 캐릭터 '헥터'는 현실 세계에서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아서 현실 세계에 갈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의 세상'에서도 무시 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기억해주는 이가 없으면 '죽은 사람의 세상'에서도 영영 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점에서 '잊혀지다'라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더군다나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기억되고 싶은 존재여도 그것은 노력으로만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한 편으론 이미 던져진 주사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기억해주지 못하면 괜히 서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키워드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4일차에 벌써 영화 추천만 2번 드리게 되었는데,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간접적인 경험과 그 안에서 통찰을 얻게
만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면
추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4일차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

+ 사진은 네이버 영화 정보에서 스틸컷을
가져왔습니다.

24 14



2024/10/31
thursday, pm 2:56 | 26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4일차 #잊혀지다

[열아홉 번째 접시]

사람은 가장 먼저 고인의 목소리를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빠진 자는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먼저
떠나가신 분이 있다면 떠올려보십시오.
목소리가 기억나십니까? 얼굴, 체형, 추억
등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목소리는 음성
녹음본 등이 없다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곱게 빻아진 가루가 되어
아주 작아질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곤 합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생각하는 것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렴풋이 떠오르고,
언젠가는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잊혀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더디게 잊히고 싶어
추후에 있을 우리의 장례식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죽음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

19 7



2024/10/31
thursday, pm 3:06 | 25읽음
박시연(사회학과)

#4일차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나는 부모님
세대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기에 옛날 8-
90년대 시절의 가요들도 즐겨 듣는다.
개중에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다. 도입부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가사가 있다.
찬란하면서도 아쉽고 허전한 늦가을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쓸쓸한 분위기와 아련한
멜로디를 지닌 이별 노래이다. 공교롭게도
오늘의 키워드가 '잊혀지다'였기에 이 노래가
떠올라서 언급을 해보았다.
춘천과 서울을 잇는 경춘선에는
망우역이라는 역이 있다. 그 한자를 풀어보면
근심을 잊는다라는 의미이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항상 꽉 잡고 있는 근심과 우려를
놓아주자. 그들에게 잊혀질 기회를 주자.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언젠가, 내일이라도,
어차피 우리는 또 그들을 찾을테니 말이다.
잊혀질 때 비로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망우'를 하게 되면, 잊혀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 떠오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심이 잊혀지면, 그들이
떠올라 우리에게 재정비를 할 기회와 힘을
준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도한 걱정과
근심이 잊히도록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18 7



2024/10/31
thursday, pm 3:50 | 23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4일차 #잊혀지다

잊혀지다 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해보니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고 싶지 않았던 사람, 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라는 대사가 떠올랐다. 영화 <너의 이름은>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이다. 시골에 사는 여고생 미츠하와 도쿄에 사는 남고생 타키가 서로 몸이 바뀌는 현상을 통해 서로의 다른 삶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와 운명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다. 혜성이 1200년 만에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운석이 미츠하의 마을에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운명을 바꾸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서로를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라는 말도 인상깊고 어디선가 만난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름을 묻는 장면도 인상깊었던 영화이다.

최근 동아리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영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전날의 기억을 잃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소녀 마오리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평범한 소년 토오루가 등장인물이다.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잃어 사랑이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고백을 반복하는 두 소년, 소녀의 가장 슬픈 청춘담을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말로 전해 들으며 줄거리를 알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이런 애절한 사랑 이야기들은 항상 슬픈 것 같다. 단순히 이별을 겪는 것도 슬픈데 기억을 잃고 잊혀지는 사랑은 더욱 애절하고 슬프게 느껴진다. 이런 영화를 보고나면 상실의 슬픔을 넘어서 기억의 소중함과 사랑의 본질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종종 소중한 순간들을 잊게 하는데 기억을 한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의 연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8 8



2024/10/31
thursday, pm 5:04 | 22읽음
홍다연(정치행정)

#4일차
잊혀지다'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재개봉한 영화 '너의 이름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평소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 편이어서, 이 영화는 처음 상영될 때 극장에서 관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OTT를 통해 집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시청할 당시 새벽 즈음이었는데,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인 '황혼의 시간'을 관람하던 시점과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점이 겹치며 더욱 극적인 효과를 주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은'은 일본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두 주인공, 타키 타치바나와 미츠하 미야미즈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서로의 꿈이 연결되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삶에 전환되어 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지만, 그들의 의사소통은 점차 줄어들고 결국 중단됩니다. 타키는 미츠하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찾기 위해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지만 기억 상실로 인해 그녀의 이름이나 마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타키와 미츠하의 타임라인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들은 미츠하의 가족이 대대로 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았고, 혜성 재앙이 이 신비한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타키와 미츠하는 산허리의 황혼의 순간에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알아봅니다. 각자에게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시간이 그들을 따라잡고, 다시 각자의 시간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주인공은 스쳐 지나가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다시 찾으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계단에서 재회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잊혀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스스로 잊으려 노력하더라도 정말로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노래 가사 하나를 통해 되살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천천히 잊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잊혀진 소중한 기억을 사진이나 노래등을 통하여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은 스스로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8 5



2024/10/31
thursday, pm 5:33 | 23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아무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기억이 잊히곤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의 기억은 이미 잊혀,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들에게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줘!" 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기억을 토대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점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저희도 이처럼, 지난 시절들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잊히는 기억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를 돌이켜보니 정말 몇 개의 기억만 남고, 대부분은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기억들을 남기고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도 일기로 그 일을 다시 접하면 너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또 몇 년 전 일도 일기를 보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잊히는 기억이 너무 아까워, 일기로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돌아봤을 때 그 시절 나의 고민, 나의 추억 등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싶습니다.

18 7



2024/10/31
thursday, pm 6:17 | 25읽음
서정원(심리학과)

#4일차
음.. '잊혀지다'가 아닌 '잊히다'가 맞는 표현이죠. 저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잊혀지다'가 잘못된 표현인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이중피동을 배웠을 때 알게 되었죠. 그때는 왜 '잊혀지다'가 어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키워드 관련해서는 아이디어가 샘솟았는데 이번 주제는 바로 떠오르는 내용이 없네요. '잊다'가 아니라 '잊히다'이니까 피동사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서 나를 잊는 존재는 나를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제가 누군가에게 잊히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영화 <비포 선라이즈>처럼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때문에 '팔로워'로 묶여 있는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습니다.

sns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한 번 좋아했다가 감정이 식었고 친구가 된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남녀 간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연을 끊었습니다. 원래 블로그도 서로이웃이었고, 친한 친구들만 있는 sns 부계정도 팔로우 되어 있었고, 전화하고 만나서 떠들면서 재밌게 노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를 끊는 과정에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뜨거운 장맛비가 내리던 여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중인데요, 글을 쓰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기억은 잊거나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랑 똑같이 순간과 감정을 기록하는 친구였는데요. 지금 그 친구 블로그에도 제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이팅 챌린지 비스무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를 잊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연을 끊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정말로 저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요, 연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다급하게 느껴졌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이곳저곳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아쉬운지 모르겠네요. 정말 잘 통하던 든든한 친구였는데 좋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계는 파국으로 갔습니다.

또 이 이야기네요. 지금 음악감상실인데요, 클래식 부원이 조명을 낮춰서 감성적인 재즈랑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계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도 흘러 나오구요. 새벽이 아닌데 이런 글이 써진 건 이 환경 탓..이라고 변명을 해 봅니다.

뜨거우면서 차가웠던 여름이었네요.
#여름이었다

17 9



2024/10/31
thursday, pm 7:12 | 19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4일차
#잊혀지다

잊혀지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슬프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가 다른사람에게서 잊혀졌다는 것 을 슬퍼한다. 그래서 죽음이 슬펐던 적이 있다.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가? 물론 나의 가족들은 마음속에 기억하겠지만 내 기억을 품은 누군가도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내 존재는 정말 내가 살았던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잊혀졌다는 말을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죽음이 두렵기 보다는 내 존재가 점점 잊혀진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밖에도 우리 모두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때쯤 내 친구들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싶었으면 하지 않는가? 나만 그런 것인가? 나를 잊었다면, 그만큼 내가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슬퍼질 것 같다. 특히 지금의 나의 나이대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이없이 노력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의 쓰임이 되기 위해서 나라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평가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잊혀지다 라는 표현은 더욱 슬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혀진다, 잊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망각이라는 동물이라는 말도 있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면 된다.

15 4



2024/10/31
thursday, pm 8:04 | 21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쿱)

#4일차
잊혀지다
저에게 있어서 잊혀진다는 것은 왜이리 잔인하고 슬프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평소에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질까봐 내심 걱정도 하는 것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는 마련인데,
저희가 하는 이 라이팅 챌린지도 몇 십년뒤엔 잊혀지겠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들 중에
고등학교 때의 기억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조금씩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고 느껴져요. 현재의 저는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있지만 이또한 몇 년뒤엔 서서히 잊혀지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중한 물건들을 잘 못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 것도 아닌 물건들에게 의미부여를 해서 더더욱 못버리게 만드는 것같아요. 저는 물건들을 보며
기억을 회상하고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는 것에 매우 진심인데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 위해 올해에 제 핸드폰 용량을 1TB로 일부러 기종을 바꾸었답니다.
잊혀진다는 것에 왜이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7 6



2024/10/31
thursday, pm 8:51 | 19읽음
강하늘(심리학과)

#4일차

'잊혀지는 건 어떤 기억일까?'
처음 키워드를 읽고 고민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잊고싶은 기억과 잊혀지는 기억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잊고 싶고 어떤 기억이 잊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내가 고민끝에 내린 답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남겨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힘든일도 슬픈일도 잊혀지기 전까지 나를 괴롭히다가 내가 잊을때야 나를 놓아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하는 걸 좋아한다.
버스 안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도☀
목을 스치며 불어가는 바람도
언젠가 만날 친구, 지인들도 모두 다 다양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

내가 사랑하는 게 많아질수록 잊지 않을
거라는 걸, #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이 글을 읽고 어디부터 마음을
주는 것이 좋을지 마냥 어렵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부터 마음을
주는 것을 도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밝은 햇살이 언젠간 빛칠 거라는 걸
시원한 바람이 언젠간 불어올거라는 걸
길가에 고양이를 언젠간 마추칠거라는 걸
나도 당신도 알고있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주다보면 어느새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P.S.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한림대 경영관 근처
단풍나무에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A Thousand Years' 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오늘을 잊지 않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알려주세요!

16 5

모임이 쉬워진다!



2024/10/31
thursday, pm 8:51 | 23읽음
지소영(간호학과)

#4일차 #잊혀지다



"잊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얼마 전 고인이 되신 김수미 선생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슬픔이 아직 생생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많은 순간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기억도, 슬픈 기억도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듯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벗어나고 싶은 고통은 서서히 완화되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싶지 않은 슬픔과 애도의 감정까지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움과 애도가 조금 더 오래 남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18 6



2024/10/31
thursday, pm 9:39 | 22읽음
정우현(철학과)

#4일차

잊히는 것들은 대개 마음속에 고이 모셔놨던 소중한 것들이었다. 생각해 보자. 잊혔다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잊혔다는 것을 인지할 만큼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잊히고 마음속에 모셔둔다는 것은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몇 년 전에는 이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다. 소중한 이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가 의혹을 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잊힌다고 해도 다시 생각나면 이어지는 게 인연이다. 마음속에 모셔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다만 살다보니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이다. 한때 나에게 최고로 우선이었던 사람들도 서서히 잊혀간다.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잊히는 인연은 고스란히 마음에 새겨두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는 삶은 발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17 5



2024/10/31
thursday, pm 9:54 | 21읽음
김준호 (콘텐츠IT / 20195138)

잊혀지다. 그 말 속에는 슬픔과 위로가 동시에
깃들어 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 때로는
가장 괴로운 고통이고, 때로는 가장 달콤한
구원이다. 사랑했던 이름이 누군가의
입술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추억의 색채가
바래져 간다.

오래전 편지들은 먼지 쌓인 서랍 깊숙이 묻혀
잊혀진다. 한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흐릿해지고, 그들과 나눴던
대화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흘러간다.

하지만 잊혀진다는 것이 언제나 슬픈 것만은
아니다. 아픈 기억들,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시간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듯 잊게 만든다.

때로는 나 자신조차 잊혀지길 원할 때가 있다.
지나간 실수와 후회, 스스로를 괴롭혔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잊혀짐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결코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깊은 곳에 묻혀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꿈결처럼 떠오르는 기억들.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조용한
증인들이다.

잊혀진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17 5



2024/10/31
thursday, pm 10:20 | 20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4일차
대다수의 사람은 죽음으로 잊혀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 현세에서도 회자된다.
그들의 지식, 작품등
그들의 정신이 깃든 무언가를.

애매한 재능을 가진 범재들은
자신의 어중간한 재능을 인정하고
현실에 타협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마저 잊혀간다.

그렇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고유의 색을 잃은 채,
본연의 빛이 바랜 채
내가 영원히 잠든 순간
타인에게 내 영혼은 잊혀지고
내 육체는 흩어져 흩뿌려질 것이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의 일부분이 남겠지
오늘도 나는 그들의 파편을
보고 듣고 쓰고 느끼며
그들의 재능을 받아들일뿐이었다.

14 7



2024/10/31
thursday, pm 10:24 | 21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잊혀진다는 표현을 보니 되려 한 기억이
떠오른다.
이미 희미해진 초등학교 기억 속에서 딱 하나
명확히 기억 나는 순간이 있다. 나는 잊혀질

사람이니, 나를 하루 빨리 잊고 더 많은
사람을 기억하며 넓은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한 선생님. 선생님의 성함만
기억나고 얼굴 조차도 흐릿한 지금, 그 말 한
마디는 여전히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을까? 어떤 관계를 맺었건 모두 마음
한 켠 작은 구석에나마 남아있고 싶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 선생님은 학년이 끝나는
방학식 날 우리에게 당신을 잊으라고 하셨다.
1년간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을 챙겨주신
선생님을 빨리 잊으라니. 반 전체가 웅성댔던
기억이 난다.
뒤에 붙는 말은 그랬다. 나는 클만큼 컸고,
앞으로 새로 보고 느낄 것도 너희보다
적을테니 기억은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보게 될 너희는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얼른
없애라고.
청개구리처럼 그 시절 대부분의 기억은
흐릿해졌는데 선생님에 대한 기억만 진하게
남아있다. 소중한 제자들이 더 넓은 시선을
갖길 바라며 말의 뜻도 제대로 몰랐을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을 남겨준 선생님이
그리운 저녁이다.

15 6



2024/10/31
thursday, pm 10:35 | 23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4일차
삶의 한 부분을 강제로 도려낸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거라고 주변에서는 말했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매일 그 사람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추억이 담긴 장소들, 둘이 함께
보던 영화 그리고 좋아하던 음식들조차 나를
그 사람에게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도 지나치기 어려운 함께였던
시간들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의식중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 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현듯 손이 휴대폰을 향하는 것을 멈추고
나면, 그때마다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실감이
났습니다. 가끔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내가 느끼는 이 그리움과 공허함이 그
사람에게도 남아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혹은 이미 새로운 삶에 나를 잊은 채로 적응해
가고 있을까?
나 스스로도 나아가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오고,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조언했고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그 사람을
잊으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 함께 나눈 웃음,
서로에게 기대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남아, 다른 무언가로 쉽게 대체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
자책하게 되고, 나 자신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내 인생에 주었던
무게와 의미가 있었기에 그 흔적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잊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추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성장시켰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잊기 힘들었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6



2024/10/31
thursday, pm 10:36 | 24읽음
이예림(청각학전공)

#3일차

'잊혀지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놓치고 마는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삶 속에서 소중했던 순간들이나 특별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조금씩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마치 안개 속에 묻혀가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 잊혀지더라도, 그 기억이 남긴 흔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이렇듯 '잊혀진다'는 것은 곧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를 바라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경험들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미묘하게 영향을 주며, 때로는 삶의 지혜로 남아 다가오는 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잊혀지다'는 단어는 단순히 사라짐을 의미하기보다, 우리 안에 새로운 형태로 남아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6



2024/10/31
thursday, pm 11:03 | 24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잊혀진다 기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꽉 찬 폴더들이 노트북 속에 쌓이는 동안
내 존재는 점점 더 퇴각한다.

마감에 쫓겨 채워지는 빈 문서들은
오히려 내 일상을 비워낸다.

하루를 끝내고 나면,
남는 건 제 시간에 마무리한 과제와 아직
마감기한이 남은 과제,
다크써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피곤한 나
뿐이다.

어느 순간 뒷전이 된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떠오르면
문득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갈아넣고 있는 걸까?"하는 생각이 든다.

내일은 발표, 그 다음날은 조별과제, 그
다음날은 리포트, 퀴즈, 과제 ...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내
모습에 자조 섞인 웃음이 나면서도
오롯한 내가 잊혀지지 않고 단 하나의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다시 과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지만 나는 잊혀지기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하다.



#4일차

17 8



2024/10/31
thursday, pm 11:27 | 20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잊혀지다
만약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어떨까? 세포에서 사람의 몸을 한 순간부터 뱃속에 있을 때와 태어난 날의 분위기까지 모두 말이다. "내가 그랬었나?" 라던가,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말의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모두가 전부를 기억하는 세상이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일 것이다.
어쩌면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새로운 앞날을 보고 산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평생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이따금씩 흑역사가 생각나면 몸부림치며 이불을 팡팡 차는 나에겐 더욱 힘든 세상일 것이다.
내가 잊은 일을 다른 사람이 기억할 때가 있다. 나에겐 잊어버린 시간이지만 기억해 말해줌으로써, 잊었기에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13 12



2024/10/31
thursday, pm 11:32 | 23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4일차

잊고싶지 않다. 계속해서 머리 속에 그려지면 좋겠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향이나 형새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시간에 나만 멈춘 듯이 살아가는 느낌. ...어느새 나는 그날의 순간들이 희미해져 가는 걸 느낀다. 손에 쥐어졌던 따스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귓가에 맴돌던 목소리도 점점 흐릿해진다. 무언가를 애써 붙잡으려 해도 이미 시간은 너무 멀리 가버린 듯하다.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서 떠다니는 잔상들만 나를 남겨진 과거 속에 묶어둔다. 이대로 이 순간들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다. 그래서 가끔은 시간을 거슬러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날의 향기를 붙잡아 보려 한다.

너의바다-호피폴라

14 4



2024/10/31
thursday, pm 11:40 | 19읽음
황윤정(광고홍보학과)

#4일차 #잊혀지다

건망증

까먹었다
방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까먹었다
분명 중요한 일이었는데
불안하다
초초해진다
뭐였지?

아, 기억났다

14 4



2024/10/31
thursday, pm 11:41 | 19읽음
박세진(중국학과)

#4일차 #잊혀지다 #배신당한유언들
#스포일러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죽는다."

만화《원피스》에서 나온 명대사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사람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면 현존하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 책 밀란 쿤데라의 '배신당한 유언들'의 한 부분을 소개하려 한다. 프란츠 카프카가 자신의 서적을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집행유예관은 서적을 불태우지 않고 그의 책, 편지, 심지어는 일기까지 모든 글을 남겼다. 만약 카프카의 모든 서적을 다 불태웠다면 그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현재의 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은 이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 것은 쉽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따금 죽은 이의 뜻을 따르는데, 이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쿤데라는 카프카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카프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어서도 사람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현존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를 떠난다고 해도 내 마음 속에 그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한다면, 언제나 현존해 있을 것이며 언제나 사랑할 것이다.

13 13



2024/10/31
thursday, pm 11:57 | 20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4일차

너와의 시간이 점점 흐릿해져.
처음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

아직도 용기가 부족해서

네 이름을 다시 부르기조차 어려워.
이젠 정말 네가 있었는지조차 헷갈려.

잊혀져 가는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글을
써보았습니다.

12 5



2024/10/31
thursday, pm 11:57 | 21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4일차 #잊히다

:잊히다는 '이치다' 라고 발음한다.

나의 추억이,
나의 사랑이,
나의 고통이,
그 기억들이 잊히고 또 잊힌다.

숨을 몇번 내쉬냐는 질문에
나는 무의식의 숨쉬기를
불편한 의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 기억들이 잊힘에 질문을 던져,
그 기억들이 이치임에 질문을 던져,
불편한 숨쉬기를 한다.

그러니 잊힘은 이치로 둘 것.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에 고통스러워하지 말
것.

하지만 우리는 결국
불편한 숨쉬기를 알아버리니까

말랑한 뇌에 공기를 담아둔다.
곧 온몸이 말랑말랑

이제 하나씩 넣어 두어 깨지지않게

누구보다 개운한 공기를 마시는 우리들

14 4



2024/10/31
thursday, pm 11:59 | 19읽음
이나영

#4일차 #잊혀지다
종이가 찢겨지다,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당신에게 잊혀지다.
분명 앞의 두 문장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잊혀진단 표현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고치고 싶지 않다. 잊다, 잊히다. 이런 올바른
표현들과는 또 다른, 어쩌지 못한 슬픔이 짙게
묻어나는 글자 같이 느껴진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무언가를 잊는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두려운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잊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잊히는 것에 서러움과
절망을 토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겹겹이 쌓인 발음도, 네 글자로
표현할 만큼 커진 슬픔이 어느 누구의 탓도,
의지도 아니기에 야속히 흘러가는 시간에게
탓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나 노래에서도
'잊혀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나에게는
무척이나 슬프고 아름답게 들린다.

잊혀진다는 사실 불완전한 표현이지만,
그렇기에 그 대상이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다.
다시금 한글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며,
'잊혀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소소한
논쟁거리로서 종종 등장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겼다.

+)
예빛, 기다린 만큼 더

이 노래가 유독 '잊혀진다'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누군가를
어렴풋이 떠올리며, 감상에 젖어보시면
좋겠어요.

15 3

2024/10/31
thursday, pm 11:59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4일차

어떤 글들은 차마 지나칠 수 없어
간직하게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자꾸만 매만지게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 앞에 서면
나는 또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나의 변변찮은 문장들을 끌어안고
잊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 나의 글들을 잊어 버리고 싶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도 나는 또 아무런

한 없이

나의 한 많은 글을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문장들이
잊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곁에 오래토록 머물렀던 어느 무언가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13 5



2024/10/31
thursday, pm 11:59 | 21읽음
박현민(심리학과)

#4일차 #잊혀지다

'잊히다', '잊혀지다'.

완전히 잊는다는 게 가능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이 겪는 모든 경험이 기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누군가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잊힌 기억들의 조각들도 보이진
않더라도 말이다.

잊는 것을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난다. 가끔
여렴풋이 생각니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전학생으로, 단짝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친구의 어머니께서
깨찰빵이나 브라우니를 직접 해주시던 걸
먹어본 것도 생각나고 함께 파자마 파티하던
것도 생각난다. 친구의 짝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고백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운 기억만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어떻게 보면 잊혀진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어떤 글을
봤었다. 둘뿐일 것 같던 소중한 사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서
인간관계로 크게 흔들리지 말라고. 씁쓸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 친구와의 기억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다. 어린 나에게 소중한 감정을 알려준
친구야, 고마웠어. 보고 싶다 가끔

 14  4



2024/11/01
friday, am 12:23 | 32읽음
이덕영

#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잊힌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글 속에서 각자의 상실과 회복이 잘 느껴졌어요. 지나간 기억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17 0



2024/11/01
friday, am 8:14 | 43읽음
이덕영

#5일차 키워드: 가방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가방'입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나요? 소중한 책, 노트북, 이어폰, 텀블러 등 우리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어쩌면 추억이 담긴 가방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의 책가방, 여행 때 메고 다닌 백팩, 알바 갈 때 에코백... 여러분의 가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8 0



2024/11/01
friday, am 9:16 | 25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5일차
키워드 "가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방"을 보면 책 가방이 생각이 나네요. "가방"은 우리가 과거의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현재의 대학교를 다니면서까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방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전공책, 영어책, 필통, 작은 우산, 약, 버즈, 이어폰, 테블릿 PC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가방"에 맞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 기념으로 부모님께서 네셔널지오그래픽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무거웠던 가방을 자리 앉은 그대로 풀었습니다. 가방을 풀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하다 집 앞 정류장에 도착해 자연스럽게 몸만 움직이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방을 두고 내렸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오자 마자 엄마가 "가방"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들이 있었고, 심지어 지갑까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버스에 가방이랑 지갑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가방이랑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어느 방면으로

가는 몇 번 버스를 탔는지 이야기 한 후 회사에서는 분실물들을 확인하시고, 네셔널 가방에 지갑이 있고 지갑 안에 저의 학생증이 있으니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랑 같이 버스 회사에 찾아가서 분실물이 있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름을 적어 다시 찾아갔습니다.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방"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쓰고 동생이 갖고 싶다고 하여 넘겨주었습니다.

19 10



2024/11/01
friday, am 9:21 | 28읽음
김도은(광고홍보)

#5일차

What's in my bag?_가방과 나와 매일들

한 동안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콘텐츠가 있다.이름하야 '왓츠 인 마이 백',가방에 평소 어떤 물건을 넣고 다니는지 하나 씩 살펴보면서 소개하는 형식의 영상을 말한다.그럼 두 말 않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필자의 가방과 관련된 잡다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본인의 애착 가방 종류는 주로 팔 걸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등 뒤로 메는 가방,즉 배낭이다.배낭은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타 가방에 비해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이것저것 챙기고 다니는 '보부상(짐을 많이 지니고 다니는 이를 지칭하는 말,조선 시대 방랑 상인인 보부상에서 유래)'에게는 안성맞춤이 아닐 수 없다.굳이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너무 짐을 많이 넣었을 경우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척추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인데,의사들이 거북목이 심한 환자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챙기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나 역시 한 때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가방 밑이 헤지고 틀어진 경우도 있었고 허리와 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했었다.무게를 달아보니 8kg 언저리였다.몸도 가방도 멀쩡할리 없다.

차치하고...아무튼 내 회색 애착 배낭의 내용물은 통학인 특성 상 날마다 짐이 달라진다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싶다.그날 듣는 강의에 따라 단순히 교재의 종류가 많을 때와,교재는 적은 대신 극단적인 과제량 탓에 노트북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그래서 따지고 보면 평균 5일 기준 중량은 엇비슷한 편인 것 같다.

또 비상용 책을 갖고 다닌다.공강 사이 빈 긴 시간인 '우주공강'을 견뎌내려면 소위 폰질만으론 한계이기 때문에 책 읽기 처럼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거리도 없다.대표적으로 요즘 읽기 시작한 책은 김태욱 수사관이 쓰신 '검찰수사관 바이블'과 임은정 검사님이 쓰신 '계속 가보겠습니다'이다.개인적으로 두 분은 내가 특히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어른들이라 저서 역시 흥미롭게 읽고 있다.대략적인 내용은,전자의 경우 검찰수사관이 하는 직무와 활동부서,구조 등을 소개하는 것이고 후자는 비교적 타 기관에 비해 폐쇄적인 분위기였던 당시의 검찰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정의를 위해 여성 법조인으로서 고군분투한 일화를 담고있다.두 저서 모두는 그 자체로 개개인의 일대와 사회나 다름없다.

오늘도 나는 학교에 오고,또 간다.장장 왕복 3시간 30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앞으로

거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그러다 가끔씩 너무 힘들 때는 이 순간에도 내 처지보다 온전치 못한 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한다.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나를 매번 싣고 다니시는 시외버스 기사님들과 거리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미화원 분들께도 감사하려고 한다.나 혼자 살아지는 인생이란 없다는 걸 모두가 알기에.

사람 한 명을 기르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 처럼,나는 회색 책가방 속에 그 날 있을 강의와 하루와 또 사회를 둘러멘다.그것들은 나를 키워주었고 키우는 중이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낼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종점 근처라도 가 있으리라'그렇게 믿어보며 하루를 다시 걷는다.

언제가 될 진 모르지만 확실히 가방을 메는 어떤 내가 있을 것이므로.

20 15

2024/11/01
friday, am 10:04 | 22살대
박시연(사회학과)

#5일차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때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건 가방 속 물건들이 아니었나싶다. 초등학교 때에는 캐릭터가 그려진 알림장과 큼지막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얇은 노트,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는 무선 공책과 순수한 추억들을 꾹꾹 눌러담은 일기장과 악보를 쓸 수 있는 오선지.. 우리 학교에서는 오카리나를 배워서, 작은 박스에 담긴 빨간색 오카리나를 항상 가지고 다녔던 기억도 난다.
중학생이 되면 가방 안 내용물은 확 바뀐다. 초등학생 시절 애용하던 핑크색 캐릭터 공책들은 가지고 다니면 놀림받는다고, 유치하다고 버리거나 집 창고에 넣어버리고, 그것들은 해야할 일들을 적을 수 있는 작은 노트로 바뀐다. 깎아서 쓰던 연필 자루들은 중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받은 고급 샤프 하나로 바뀌고, 학원에 가져갈 수학 문제집들과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교과서와 자습서들로 바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가방의 무게가 확 무거워지고, 어깨의 짐도 확 무거워진다. 가방 속에는 이런저런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집들이 가득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가방을 들고 나갈 때 가져간 것들을 다 공부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무겁게 들며 유난을 떨었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가방 속 물건들이 간소화되었다. 아이패드와 노트북만을 챙겨 다닌다. 백팩을 메는 날도 많지만 작은 미니백이나 에코백같은 가방을 드는 날도 많아졌다. 오늘은 내 가방 속 변천사를 이야기해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방만큼 내 삶의 변화를 잘 드러내주는 것도 없다. 칠칠맞은 나를 항상 챙겨주는 가방만큼

고마운 것도 없다. 나는 가방과 함께
성장해왔다.

17 9



2024/11/01
friday, am 11:21 | 22읽음
전수현(법학과)

#5일차
[가방]

가방이란 것에 대한 첫 기억은 초등학교 때
입학 선물로 부모님, 외조부모님,
친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등 많은 분들께
언제 이리 컸냐며 가방을 여러 개 받았었다.
허나 나는 그땝부터 물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기에 괜찮은 가방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동생에게 줬던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 입학할 때 부모님께서 가방을
사주신다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다. 어느 날
부모님 친구분들과 밥을 먹는 일이 생겨
나갔었다. 한 삼촌이 학생은 가방이
중요하다며 내게 가방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사히 받고 새 가방과 함께 다음
날 등교하였다. 중학교 남학생, 한창
자전거를 좋아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나도 자전거에 빠져 자전거로 20분 거리인
학교를 등교했다. 그날은 시험이 끝난 뒤
방학식을 하고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나서였을까, 두 손 놓고
타겠다고 까불다가 결국 넘어졌다. 헌데
오른손이 안 움직여 집에 오는 길에 있는
정형외과에 들렸다. 쇄골에 금이 갔단다. 발
깁스 이후로 하는 팔 깁스. 호기심 많을
중학교 남학생에게는 아픈 것보다 그저
재미있었던 것 같다. 넘어짐과 동시에 가방이
쓸려서 못 쓸 지경이 되었다. 1년 만에 가방을
교체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그대로 쭉 이어 썼다. 학교가
담장 하나 두고 집 바로 옆이기에 가방을 들고
다닌 기억이 별로 없다.
잊고 있던, 하지만 재밌었던 추억의 일부를
이번 키워드를 통해 꺼내보았는데 역시
재밌다.

17 2



2024/11/01
friday, am 11:36 | 22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5일차
키워드가 '가방'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가방들이 모두
생각이 났다. 나의 첫 책가방은 트랜스포머
가방이었다.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교회
집사님이 신발주머니와 선물해주신
가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트랜스포머
디자인 때문에 눈에 너무 띄고 가방도
직사각형의 느낌이라 책 이외에는 넣는 것이
살짝 불편했다. 그래서 이후 다른 가방을 사용
할 때 트랜스포머 가방은 새 책 받을 때만
사용했었다. 두 번째는 회색 키플링
가방이었다. 디자인은 키플링 로고에 고릴라
한 마리 달려있는 투박한 느낌이었지만 난
처음 느끼는 가방의 느낌을 느꼈다. 항상
고릴라 입에 고릴라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때도 기억에 남는다. 세 번째 가방도
키플링이다. 외할머니가 중국 갔다오시면서
면세점에서 사주신 가방인데 두 번째 가방과
다 똑같지만 디자인이 더 화려한 느낌이었다.
이 두 개의 키플링 가방은 모두 동생에게
물려줬다. 고등학생 때 갑자기 이 키플링
가방을 매고 학교 가고 싶던 때가 있어서
작지만 그걸 매고 갔던 기억도 난다. 네 번째
가방은 데상트 가방이다. 외할머니께서
중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 때 당시
데상트 가방 중 최신이었던 가방을 사주셨다.
지금까지 맸던 가방 중 공간이 야무지게
많았던 가방이었던 것 같다. 생활 방수도

되었어서 비가 올 때 마다 나의 종이 책들을
지켜주었던 고마운 가방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가방을 바꿨을 때는 대학 와서 바꿨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닌 데상트 가방이
6년 동안 써서 너무 낡은 나머지 쓰기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 가방을 버릴 땐
솔직히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지금의 나의 가방은 그냥 외할머니
캐리어 살 때 같이 온 사은품 가방이다. 이
가방과 함께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나중에
함께 끝내려고 한다.

가방이란 나와 삶을 같이 살아온 친구같은
물건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나의 가방들을
떠올리면 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 같다.
가방은 생명력도 길어서 그런지 내가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서 물려주게 되는 것
같다. 그럼 그 가방은 그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방은
이제 무엇인가 넣어 놓는 의미 이상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쌓을
가방과의 삶의 스토리도 궁금해진다!

여러분도 가방과의 깊은 추억이 있나요??

17 8



2024/11/01
friday, pm 12:27 | 25읽음
김준호 (콘텐츠IT / 20195138)

가방.
첫 등교 날 메고 간 책가방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반듯하게 정리된 새 책들과
반짝이는 필통, 아직 한 글자도 쓰이지 않은
공책들. 그 무게는 곧 시작될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였다.
여행 가방을 챙길 때면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목적지를 향한 기대와 떠남의
자유로움을 담아내는 공간. 짐을 싸는
순간부터 여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출근길에 메는 서류가방에는 하루의 무게가
담긴다. 노트북과 서류들, 간단한 화장품과
지갑.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이 가방이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 가방도 챙긴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물건들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보이지 않는 가방.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가득하다.
가방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우리 삶의
동반자다. 그것은 일상을 담아내고, 추억을
간직하며, 때로는 꿈을 싣고 가는 소중한
공간이다.

15 5



2024/11/01
friday, pm 12:41 | 24읽음
김미도(일본학과)

#5일차

가방하니, 초등학생 때 메고 다녔던 무거운
책가방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쓴 더럽고 너덜너덜해진 내
가방. 그 크고 파란 가방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있다. 그 때는 무거워서 들고다니기
싫었지만, 교과서에 그려진 낙서, 시간표를
만들어 붙인 종이. 하나하나 추억이다.
살짝 화제가 달라지는데,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제 무거운
책들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니,
아이들은 아예 가방도 메고 다닐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많을 것이다.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흔히 말하는 어휘력 저하 문제가 이유인데,
디지털 교육이 익숙해지다보니 아이들이
독서를 꺼려하며, 어휘력이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요즘 디지털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 데도 굳이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옛날에 무거웠던 학생들의
가방이 요즘들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을 보며
시대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17 7



2024/11/01
friday, pm 2:40 | 26읽음
김경환(화학과)

#5일차
5일차의 키워드는 가방입니다.

오랜만에 봐야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빙을 매일 들고 다녀야 한다면
이 가방이 나에게 특별할지에 대해 고민도
됩니디. 매일 사용하는 백팩이나 에코백은
일상 속에서 늘 곁에 있어서 편안하고 친근한
반면, 캐리어는 여행의 설렘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평소엔 잘 보관해
두다가 여행이 다가오면 꺼내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여행길에 오른 것 같고,
캐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가방이라도 일상과 특별한
순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참
신기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추억을 담아주는 캐리어처럼,
여러분도 가방에 특별한 추억을 쌓고
계신가요?

18 6



2024/11/01
friday, pm 3:00 | 25읽음
강하늘(심리학과)

#5일차
나는 보부상이다. 아니 정확히는 이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책 한 권을 챙겨도 책
받침대, 손수건, 물티슈, 머리끈 여러 개,
충전기 등 가방이 터질 듯이 욱여넣었다.

그러게 몇 년, 몇십 년을 욱여넣다가 결국
먼저 터지게 된 건 나였다.

올해 8월 여름.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찾아와 3개월을 침대에서 지낸 것 같다.

일어나는 것도 앉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누워있을 때도 찾아오는 통증에 어느 하나
쉽게 되지 않았다.

3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고 몇백만 원의
치료를 받고 나서야 혼자 침대에 누워 그런
생각을 했다.

욱여넣어 무거워진 가방은 무엇을 위해 들고
다녔는가.
정말 그 가방이 나를 위해 무거웠던 걸까.

이제는 책 한권 넣은 가방 하나 들기도
힘들어진 초라한 나만 남았는데.

학교를 좋아하는 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었고 취미였던 기타도 치고 싶었고
노래를 들으며 밤 산책을 하고 싶었다.

2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처음에
반복하던 '할 수 있다. 괜찮아진다.'는 말은
'할 수 있나. 괜찮아질까.'라는 불안이
되어갔다.

불안을 떠오르는 순간이 많아져 '괜찮아'라는

기대를 기대하지 않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는 다시 앉고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짧고 나에게는 길었던. 3개월이
지난 지금에 나는 가방을 채우지 않게 되었다.

습관적으로 하나 더 넣으려는 물건을
바라보며 나에게 물어본다.

"정말 필요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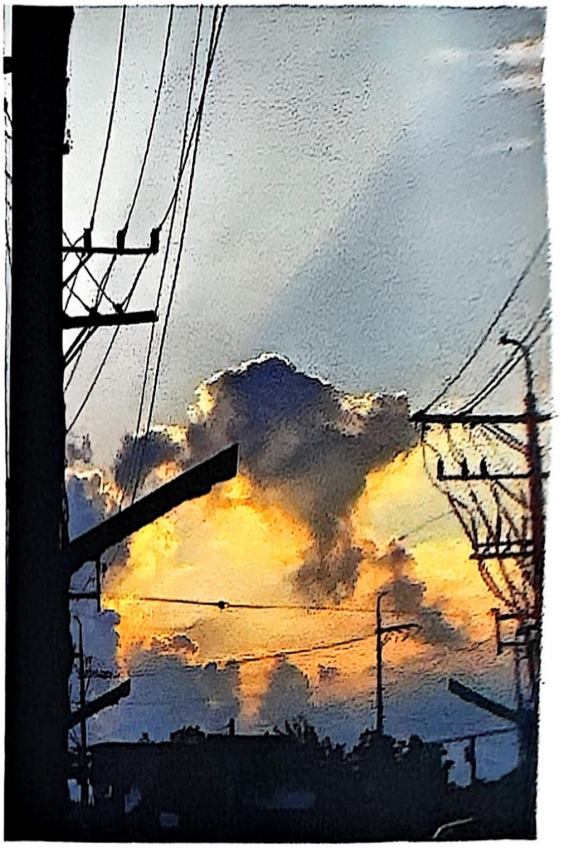
그렇게 채운 가방 안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긴 하지만 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전과 달리 공간이 생긴 나의 가방을 들며
생각한다.

나의 가방 속 공간의 일부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필요한 순간 지퍼를 열어
가방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꽉 찬 가방에는 나를 위한 공간도 무언가를 더
넣을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나에게 '가방'이란 나를 위해 비워두는
것이다.



2024년 9월 30일 오후 5:41
p.s. 내가 좋아하는 하늘을 밖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던 날에 하늘!

18 8

2024/11/01
friday, pm 3:06 | 23읽음
최오영(심리학과)

#5일차

각자의 패션에 있어서 가장 힘을 준다거나,
특히 애착이 가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생활용품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패션
포인트로도 못지 않게 쓰이는 것이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어서 그런걸까요, 명품 가방을 찾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글을 읽으며 가장 인상깊었던 댓글은

코인이 쉬워진다!

그날의 기분따라 키링을 다르게 맨다는 한 학우분의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가방을 좋아해서 그날 옷 무드나 날씨에 따라서 가방을 달리 매고는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가방에 특히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큼이나 외출할 때 필수품이니까요. 무엇보다 저의 소중한 물건들이 담겨있다 보니 제 곁에 없으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ㅎㅎ. 항상 제 옆에 두거나 타인 눈에 잘 안 띄도록 두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글에서 가방이란 책가방, 여행가방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 또한 그 두 주제의 글을 읽을 때 추억여행도 하고 설렘을 느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 7



2024/11/01
friday, pm 3:14 | 22읽음
정우현(철학과)

#5일차
가방이란 나에게 필수품이다. 누구한테나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시절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가방을 메고 싶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올라갈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이쁜 가방을 골랐다. 가방은 매년 나에게 있어서 항상 함께하기에 든든한 친구였다. 항상 함께하는 친구인데 당연히 이뻐야 2년 이상을 메고 다닐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패션에서 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가방이 이상하면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방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일리 아이템이다. 나는 가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가벼운 가방을 선호하며 적당한 수납과 나일론 재질을 선호한다. 많은 걸 한꺼번에 들고 다니기 싫어해서 노트북 가방을 따로 들고 다니기도 한다. 색은 항상 검은색을 사며 무조건 가벼워야 한다. 실제로 나는 옷, 신발, 가방, 머리 등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다닌다. 불편한 게 세상에서 제일 싫기 때문이다. 매일 메는 가방 하나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믿기 때문에 나에겐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이다.

16 10



2024/11/01
friday, pm 4:39 | 26읽음
이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악용한다. 2014년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전원 구조였다가 다시 구출 중이라는 등 잡음이 가득했던 구조 과정에서 결국 아이들은 바닷속으로 잠겼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잊혀질 거라는 심보일까.
이태원 사태가 2주기가 되었다. 진상규명을 원하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수상한 낌새가 여럿 있었지만 어느 순간 덮이고 잊혀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목에 몰려들어 깔려 죽었다. 그 자리에 방문한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만, 사실은 당시 통솔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숨이 꺼져가는 길목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나도 이제는 할로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앞에서 소리치는 한 어머니가 있다. 아들이 억울하게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지만, 본인이 했던 처벌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
어머니의 외침은 따뜻했던 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한 가을에도 계속 되었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온다.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며,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잊으려고 하면 잊기 쉽지 않고,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기 쉽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의식하면서 기억을 놓지 않고
어딘가에 적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하며, 전해줘야 한다. 잊혀지지
않도록.

17 4

2024/11/01
friday, pm 4:59 | 25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5일차
가방
가방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적어도 가방을 살면서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유치원 시절 부터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 프리랜서 등등
다양한 직종 상관없이 가방의 종류는 수도
없이 다양하기에 누구나 한 개쯤은 소장
하고있을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필요하고 가치있고 유용한 물건인
가방은 저에게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 가방은 거의 보부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있는 정도 인데요.
제 가방엔 물티슈, 휴지, 비닐봉지(혹시나
쓰레기가 급하게 생길 때를 위한) , 우산 ,
생리대, 작은 간식들 , 보조배터리 ,
안경, 나무젓가락, 빨대, 림밥 등등 항상 미리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어쩌다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있고 실제로 필요했었던 경험들을 직접
몸소 겪어봤기에 저는 항상 가방에 이러한
물건들을 구비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가방을 보았었던 주변
지인들은 보부상이라고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가방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장점들과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가방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19 6

2024/11/01
friday, pm 6:10 | 27읽음
유채원(일본학과)

#5일차
대학생의 가방. 사실,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조금 비싼 가방을 샀었다. 새로운 가방은
크로스백도 가능하고 그냥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작은 손잡이도 있는 가방이었다. 그런데
막상 크로스백으로 매니 어깨가 아프고,
손으로 들으니 팔이 아픈 것이었다! 겉보기는
참 예뻤으나 앞서 말한 점 때문에 들기가 점점
망설이게 되더니, 결국엔 그 가방을 집에 고이
보관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의 가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쇼퍼백을 들고 다닌다.
가방 안의 것들. 내 가방 안의 단골손님은
필통, L자 파일, 여행용 휴지, 물, 가글, 치약과
칫솔, 화장품 파우치, 지갑, 버즈이다. 필요에
따라, 노트북과 노트북 충전기,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챙기기도 한다. 그리고 밥을 못
먹을 상황을 대비하여 조그마한 간식거리를
챙기기도 한다.

16 7



2024/11/01
friday, pm 6:41 | 28읽음
홍다연(정치행정)

#5일차
'가방'이라는 주제를 보고 제가 가진 가방들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가방을 총 3개로 고등학생 때부터 사용했던 배태제라는 브랜드의 백팩, 쇼핑몰에서 구매한 중간 사이즈 가방,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방들 중 가장 많은 스토리를 담고있는 저의 배태제 백팩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합니다.
이 가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구매한 가방입니다. 가방 안에 카라멜 초콜릿을 잔뜩 담은 어느 날, 초콜릿이 책들에 짓눌려 가방 속에 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가방 안에서는 한동안 초콜릿 냄새가 진동했고, 세탁 후에도 내부에는 갈색의 초콜릿 형태가 남게되었습니다. 이후 그 가방을 버려야하나 고민했지만 20살이 되고나서 다시 새로운 가방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가방을 메고 고등학교에서의 3년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짐들을 담아넣고 다니다보니 어느새 지퍼에 달려있던 끈들이 하나 둘 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가방의 큰 부분들에 달린 끈들이 모두 떨어져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방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메고 다니는 이유는 가방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입니다. 또 내부가 그리 깔끔하지 못하고 약간의 흠집이 난 상태이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고 다니는 저의 백팩은 저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저의 역할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제 가방과 무척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가방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되도록 오랜 기간 동안 메고 다니고 싶습니다.

18 8



2024/11/01
friday, pm 7:44 | 24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어머니 #가방 에 들어가신다.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오신 어머니의 가방은
손에 딱 달라 붙은 것처럼
집에서도 어머니만 졸졸 따라다닌다.

주름진 손에서 가방이 떨어지는 순간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실 때이다.

그 가방은
유행이 지난 탓에 촌스럽고,
오래돼서 겉 가죽이 너덜너덜하고,
지퍼가 고장나서 닫히지도 않는다.
저 혼자 자립하지도 못해
속에 있던 서류더미를 토해낸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간 사이
엎어진 서류를 대충 그러 모으면
가방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그 속엔 어머니가 장 봐온 음식과 주전부리,
어쩔 땐 간절히 찾던 물건이 발견되기도 한다.

제대로 된 멋들어진 가방 하나 없이
있는 거라곤 다 낡아 빠진 가방이지만
어쩐지 우리 집 전용 도라에몽 주머니 같다.

우리 집 도라에몽 어머니는 낡은 가방

하나만으로도
누구보다 씩씩하게 오늘을 가득 채워 오신다.



#5일차

21 8

2024/11/01
friday, pm 8:17 | 22위덤
박지영 (경제학과)

#5일차
"가방에 담은 마음"

나의 걱정과 불안을 담는다.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남는 곳 없이 차곡차곡 쌓는다. 가방을 뒤적이는 손이 잠길 만큼 끝도 없이 붓는다. 다칠까 싶어 넣어둔 데일밴드, 일기 예보와 관계없이 늘상 챙겨둔 우산, 추워예 떨지 않으려 담은 담요... 이것들의 사용 횟수를 손에 꼽는다. 그럼에도 가방을 가득 채운 것은 나의 두려움.
기대와 설렘을 담는다. 예쁜 풍경을 찍을 미니 카메라, 길고양이의 마음을 살 고양이 간식, 우는 아이의 마음을 달랠 작은 사탕...

이것들은 가방을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방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들뜬다. 그 들뜸이 가방을 가볍게 한다.
가득 찬 가방을 메고 떠난다. 그 무게는 무거운 듯 가볍다. 이 가방은 짐이자 소풍 바구니이다. 어딜 가더라도 준비되어 있다. 가끔 어깨에 가해지는 무게가 버겁지만 괜찮다. 난 준비되었고, 준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견딜 이유는 충분하다.

20 6

2024/11/01
friday, pm 8:44 | 20위덤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5일차

저한테는 가방이라는 것은 어느순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저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방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주는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벽돌이라도 가방에 넣고 다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 모르는 순간을 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밖에 나갈때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제가 계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가방에는 최대한 상황을 대비 할 수 있는 물건을 넣고 다닙니다.

손바닥 만한 파우치에는 인공눈물, 작은 꼬리빗, 립밤, 틴트, 조그마한 거울, 구강 스프레이, 머리끈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파우치에는 위생용품, 물티슈 등등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챙기는 저의 파우치 입니다. 두루마리 휴지도 혹시몰라서 챙기고 다닙니다. 이것을 보고 웃겨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항상 제가 지니고 다녀서 득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선 이어폰과 유선 이어폰 둘다도 항상 가방

안에 있습니다. 여분에 충전기도 들고 다니고, 혹시몰라서 펜과 작은 수첩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샤프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모를 위험한 상황 때문에 뾰족한

글을 적어 놓고도 벌써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의 중요한 물건들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닐때는 마음에 안정을 느낍니다. 이런 저같은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부리기도 하더라구요. 저는 보부상 답게 예쁜 가방을 보아도 이 가방이 충분히 물건이 많이 담기는지를 고민합니다. 작은 가방이 아무리 예쁘고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이여도 사기는 꺼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방은 저한테 든든한 존재입니다. 가방은 또한 사람의 찰나의 임시 보관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만남을 하고 온 날에는 그날 찍은 인생네컷을 넣고 이것저것 사서 가방에 넣고 집에 올때까지 까먹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면 그날에 재밌었던 순간들 설렜던 순간들의 조각들이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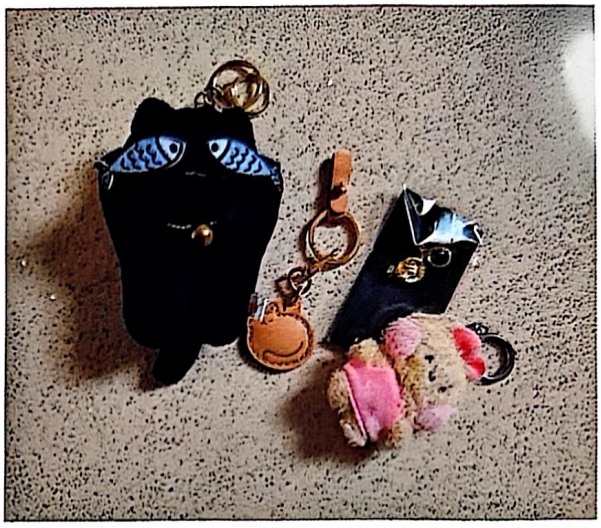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물건이 무엇인가요?

17 6



2024/11/01
friday, pm 9:03 | 23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5일차
오늘의 주제 가방에서 연상으로 키링이 즉각적으로 떠올랐다.
나에게는 다양한 키링이 있다.



우측부터
라인프렌즈의 미니니 시리즈중 '초니니'라는 캐릭터 키링

관현악 금관악기중 '호른'의 미니어쳐 키링

가죽 공예로 만든 고양이 모양 키링

아트박스에서 보자마자 즉흥적 소비로 방울단 검은 고양이 키링

각각은 누군가에겐
예쁜 쓰레기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것들을 살 때에 담긴 스토리는
잊고 싶지 않은 찰나들이다.

키링들을 나열하니 드는 생각은
요즘들어 급 키링이 부상한 이유가 무엇일까?
뉴진스가 불러온 y2k 감성때문일까

또 하나의 쉬워진다!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뉴진스가 데뷔하고부터
키링 붐이 생긴 것 같다.

사실 나는 키링이 거추장스러워서
불과 약 1년 전만해도 키링을 달지 않았었다.
초니니 키링을 단 것을 시작으로 키링을
하나 둘 사 모은 것 같다.

단조로운 가방에 '나'를 표현하기 위한
남들과 다른 내 취향의 덕질로
나의 가방에는 오늘도 키링이 달려있다.

18 9

2024/11/01
friday, pm 9:45 | 23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저는 가방 욕심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옷이나 신발에는 욕심이 없는데, 유독
가방에는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쇼핑을
하다가도 예쁜 가방을 보면 꼭 하트를 누르게
됩니다.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사더라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방을 사서 모은 건, 가방에 대한
저만의 추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마음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의 나의 가방 욕심을 나도 알고
있었지만, 못 고치고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조금 더 사랑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은 요즘 들고 다니지
않았던 가방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알고 있던 제모습도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반성할 거리를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20 7



2024/11/01
friday, pm 10:12 | 22읽음
서정원(심리학과)

#5일차
내 가방이 인격을 가진, 형법이나 헌법 등의
법전이 적용되는 존재라면 나는 지금쯤
징역살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무기징역으로.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내 가방은 항상 내동댕이쳐진다. 가방은 내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와야 하고, 여기서 내
말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내동댕이친다고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 침대로
내동댕이칠 때도 있다. 그럼 감사해야지.
푹신하게 떨어졌네. 내 가방은 행복추구권이
없다.

<헌법 제 1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9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 가방은 늘 고문받는다. 내용물이 꽉
찼는데도 내가 더 넣으려 하면 어떻게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전공책 두 권에
노트북 하나, 독서대 하나 넣으면 꽉 차지만,
이 사람은 여기다 전공책을 한권 더, 물통,
겉옷까지 넣으려고 한다. 그러다 무리해서

넣다가 찢어지기라도 하면 말도 없이
버려진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 가방에 달린 끈 하나를 가위로
잘라버렸다. 도대체 뭐 하러 달린 건지
모르겠는 끈이었다. 버클이 달려있었는데,
추정컨대 가방을 멜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벨트를 매듯이 앞으로 메게 하려고 있는
끈이었던 것 같다. 쓸모없었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잘랐다. 다음부터는
쓸모 있게 태어나도록 하렴. 그래야 잘릴 일
없지.

가방을 의인화했더니 뭔가 소중히 대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
(과장섞인 글입니다)

18 13



2024/11/01
friday, pm 10:15 | 19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5일차
가방은 저에게 제2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옆으로 매고 다닐 수 있는
포켓 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조그마한
간식을 넣어 입이 심심할 때 먹었고, 가끔
예쁘게 생긴 나뭇잎을 주우면 넣는 용도로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어린이집 가방을 맨날 들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방에 자,
조립해서 음식 만드는 지우개, 연필뚜껑을
끼운 에쁜 연필 등을 넣은 휘황찬란한 필통과
알림장을 넣고 다녔답니다. 거기에 항상 가방
옆에 물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공책들과 필기구를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보온병에 물통을 자주
들고 다녀 수업 시간마다 홀짝홀짝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를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고3 때는
수능특강 책을 다 들고 다녀서 아주 튼튼한
백팩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가방 없이 못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땐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나갈
일이 별로 없어 가방이 제 소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수업들
변경되었을 때는 수업자료들을 다
프린트하고 다녀서 L자 파일에 프린트물을
넣고 필기구도 넣어 다닐 수 있는 숄더백을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탭,
노트북, 필기구 등 이것저것 다 넣고 다녀서
백팩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나갈 때마다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 이제는 가벼운 약속이 잡혀도 가방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무언가 놓고 온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몸에 일부처럼 항상
챙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글을 쓰면서
저에게 가방이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7 6



2024/11/01
friday, pm 10:21 | 23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5일차 #가방

[스무 번째 접시]

가방은 우리의 인생에서 뗄 수 없는
물품입니다. 12년간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고,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옆이나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아마
후에도 어딘가를 갈 때 꼭 함께 다닐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방, 하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2년
전 압사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충격적인 참사였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간, 압사 사고
예방이 한창일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매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나니 가방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항상 무거운 짐을
묵묵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나의 생명까지
끌어안고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전과 다르게 짐이 들어 있지
않아 날씬할 때도 든든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항상 같이 다니며
함께 낡아가는 가방을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때로는 구명조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9 7

2024/11/01
friday, pm 10:24 | 23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5입차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을 담는 용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매일 가방에 필요한
물건을 담으며, 그 안에 우리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긴다. 출근길엔 노트북과
다이어리, 여행길엔 여권과 카메라, 학교에선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가방 속을 채운다.
가방의 크기와 모양, 색상은 각자의 개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가방은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얼굴이자, 어디를 가든 내 곁에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이다.

여행-볼빨간사춘기

17 7

2024/11/01
friday, pm 10:49 | 21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5일차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로 먹방을 보거나
연예인들이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오늘 키워드를 보자마자
학우분들께 제 가방에 있는 물건들, 다시
말해서 왓츠인마이백을 글로나마 적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1. 러쉬 고체 향수
향에 민감하다보니 제 몸에서는 무조건 좋은
냄새가 나야만 하는 강박증 아닌 강박증이
있는데요, 한창 향수를 뿌리고 다니다가
우연히 언니가 쓰는 고체 향수를 빌려서 써
보았는데 꽤 오랜 시간동안 손목에서 발향이
나더라구요. 또 분사형인 향수보다 간편하게
손가락 끝으로 스윽 바를 수 있다보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 그
날 바로 매장에 달려가서 구매한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스트레스 받을 때 혹은
우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후다닥
가방에서 고체 향수를 꺼내어 손목에 바르곤
혼자 킁카킁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흐흐.

2. 200ml 물
가지고 다니는 물병을 본 사람들 모두 "너무
한 입 컷인데? 정수기 찾아다니는 게 더
불편하겠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가방이
무거운 게 싫다보니 최대한 작고 가벼운 걸
택하고 있어요. 치약과 칫솔 등의 생필품들은
떨어지고나서야 아차! 하며 급하게 사는데
물은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배송시켜주고 있답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또 헛기침을 자주 하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어요.

3. 손 소독제
처음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샀지만 이제는 손 소독제를 바르는 그 작은 재미에 푹 빠져 손 소독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향과 디자인, 텍스쳐의 손 소독제를 하나씩 모으며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가는 기쁨도 크더라구요. 때론 상큼한 과일 향이 나는 소독제를 바를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엔 은은한 허브 향이 나는 소독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손 소독제를 바를 때마다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덕분에 손 소독제 바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4. 간단한 간식
도라에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방에 항상 간단한 간식을 구비해놓는 편이에요. 초콜릿부터 젤리, 견과류, 에너지바, 풍선껌까지 다양한 간식들이 가방 속에 준비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고 있어요. 어쩌면 진짜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배가 고프거나 기운이 떨어질 때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스스로도 든든하게 느끼곤 한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가방에는 어떤 필수템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다들 어떤 특별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시나요~?

16 7



2024/11/01
friday, pm 11:07 | 20읽음
박세진(중국학과)

#5일차 #가방

오늘의 가방은 무겁다. 1박2일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1박2일 여정에서의 무게는 가볍지만 무겁다.

춘천의 자연을 돌아본다. 마음이 뻥 뚫리는게 기분이 좋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교수님께서 저학년 때 춘천 여행을 추천해 주셨는데 4학년인 지금에서야 춘천의 진가를 알아봤다.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작아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다.

가방엔 여행을 위한 옷, 썬글라스, 화장품 등이 있다. 오래 걸으면 무거운 이 가방은 현실의 무게인 것처럼 짊어진다. 춘천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그 무게를 잠시 내려 놓았다. 참 평온하다.

17 6



2024/11/01
friday, pm 11:09 | 21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5일차 #가방
#가방의품격

내가 원하는 가방의 첫 번째 조건은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다. 기기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긁히지 않도록 각각 따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작은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도 필수다. 자잘한 물건들이 가방 속을 떠도는 건 별로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사실상 가방의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또 방수 기능은 필수 중의 필수다. 비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소중한 전자기기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수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다. 물에 잠기는 순간 내 통장도, 학업도, 일도 위태로워진다. 물을 막아줄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멋지고 편리해도 내

가방 후보에서 가차 없이 배제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가방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

17 11



2024/11/01
friday, pm 11:18 | 21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5일차 #가방

고등학교 시절에 사용하던 책가방이 여전히 쓸 만해서 가방을 새로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고등학생 땐 교과서, 체육복, 물, 파일, 문제집, 필통을 넣고 다녔던 책가방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노트북, 아이패드만 챙겨서 다니게 되었다. 난 예전에도, 지금도 책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는 것보단 앞으로 메고 다닌 적이 많다. 책가방을 앞으로 메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내 손과 팔을 책가방에 얹어서 편하게 폰을 볼 수 있다. 또 책상이나 지하철에 앉을 때 가방을 끌어안고 기대어 자는 것도 편하다. 가끔 수업시간때.. 고등학생 시절에는 교과서와 체육복으로 가득 찬 가방을 베개 삼아 졸곤 했고 지금은 노트북을 세로로 넣고 가방 문을 닫아 튼튼한 베개를 만들어 끌어안고 졸곤 한다. 앞으로 메는 게 습관이 된 걸까, 지금은 책가방을 다른 곳에 내려두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메고 안고 있는게 더 편해졌다.

한 번은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러 갔는데, 지하철에서 내려 주변을 구경하다가 목도리, 머리끈, 머리핀, 머리띠, 장갑, 키링,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을 2천 원부터 판매하는 매장을 발견했다. 들어가서 구경하던 중 그때 당시 갖고 싶었던 복슬복슬하고 부들부들한 털가방을 5천 원에 팔고 있었다. '5천원에 내가 갖고 싶던 가방을 살 수 있다니!' 라는 생각으로 바로 가방을 사버렸다.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다닐 때마다 조금씩 가방에서 털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 정도밖에 쓰지 못한 가방인데 털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나선 그 가방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보들보들한 가방을 원했지만 보들보들한 털이 오히려 신경 쓰이는 가방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가방은 아직 집 어딘가에 있는데 생각난 김에 다시 확인해보고 버리든가 해야겠다.

15 6



2024/11/01
friday, pm 11:35 | 20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나에게는 애착 가방이 있다.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강원도로 이사하면서 할머니가 입학 선물로 사주신 뉴발란스 책가방. 연결된 것 마냥 매일 가지고 다녔더니 이제 저 가방이 아니면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 가방을 바꿀 수가 없다.
어깨 쿠션도 가방 형태도 이미 제 역할을 못한지 오래인 저 가방이 왜이리도 좋은 건지 초등학교 내내 할머니 손에 자란 내가 할머니 품을 떠나며 받은 선물이라 괜한 마음에 놓아줄 수가 없는 건지, 보부상인 나에게 여기저기 수납할 주머니가 많아 놓아줄 수가 없는건지.
매년 엄마가, 친구가 어깨가 너무 아파 보인다며 가방을 바꾸라고 이것저것 추천해주는데 괜시리 거부감이 들어 올해도 미루고야 말았다. 만약 새로운 백팩을 사게 된다면 그 땐 어떤 매력의 가방을 찾게 될까? 그 때가 되어서야 내가 지금의 백팩을 놓지 못한 이유를 알 듯 싶다.

16 7



2024/11/01
friday, pm 11:36 | 27읽음
지소영(간호학과)

#5일차 #가방



오늘의 글 주제인 '가방'이라고 하면 흔히 명품 가방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도 최근에 명품에 대한 제 관점을 정리해본 적이 있어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통 명품 가방이나 벨트, 시계 같은 아이템들이 삶의 성공 지표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의 방식에서는 그 무엇보다 경험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무'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볼 때, 돈이나 명예보다 '진정한 나를 찾는 일'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토대로 내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며, 스스로를 행복하게 돌볼 줄 아는 능력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던져놓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부딪히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사람의 실루엣을 조금씩 조각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인생은 더 흥미롭고 기대되는 여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과 새로운 시도를 애정합니다.

결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방'은 단순히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채워줄 '경험의 가방'입니다. 그 속에 쌓이는 경험들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20 9



2024/11/01
friday, pm 11:46 | 18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5일차

나는 먼지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가방을 꺼냈다.

어, 엄마가 쓰던 가방 같은데? 속으로 생각해본다.

체크무늬 천은 사립학교 교복을 떠올리게 하고, 진한 갈색의 낡은 가죽 끈은 가을의 낙엽을 생각나게 한다. 맨 앞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눈에 띈다. 색이 바랜 금장 디테일이 조명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다. 오래된 가방에 어떤 것이 들어 있을지 궁금해하며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본다. 어라, 작은 종이가 손에 잡힌다. 누렇게 변하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다. 무슨 내용일까? 나는 종이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본다.

어느 정도 맞추고 나니, 이건 편지 같다. 순간, 이걸 다 맞춰도 될까 하는 고민이 스친다. 결국 나는 종이 조각들을 다시 모아 주머니에 넣어두고, 엄마를 부른다.

이건 내가 상상해본 이야기지만, 가방은 단순히 짐을 담는 도구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가방은 추억을 담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 조용히 곁을 지키며 그 흔적을 남긴다. 크고 작은 스크래치, 시간이 빚어낸 바랜 색, 지워지지 않는 얼룩, 다소 흐트러진 모양새까지. 이 가방이 다녔던 곳, 만났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얽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이 만들어진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자국을 없애고 새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버리고 새 가방을 산다. 하지만 나는 가방과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해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둔다. 그렇게 하나둘 쌓여 가는 가방은 어느새 공간을 차지하며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하나둘 쌓인 가방들 사이에서 문득 생각한다. 언젠가 그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고 속에 담긴 추억들을 다시 들여다볼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복잡한 마음과 함께 잠시 내버려두지만, 그 모든 자국들은 결국 나의 한 조각임을 알고 있다. 언젠가, 그 속에 묻어둔 기억들을 마주할 준비가 된다면, 그때 다시 천천히 풀어볼 것이다.

17 7



2024/11/01
friday, pm 11:48 | 18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5일차 #사랑과가방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글방글 빵실빵실
가엾게 바라보아도 방울방울한 눈동자로
가득히 나를 바라보는 아빠

내게 가득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가방이었다.

-예승이가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가방.
7번방의 선물에서 아빠가 예승이에게
가방을 선물할 때가 기억납니다.
겉보기에 샛노랗고 촌스럽던 가방은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던
그 마음.

16 5



2024/11/01
friday, pm 11:51 | 19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2일차 #가방

[보부상의 마음]

언제나 가방에 짐이 한가득이다.
새내기 때는 꾸민다고 크로스백에 토트백
같은 것도 들고 다녔지만, 언제부턴가 검은색
백팩만을 들고 다니게 됐다. 짐이 점점
많아져서.

언젠가부터 노트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장소를 이동할 때면 항상 가방 안에 가지고 다녔다. 노트북만 담을 수 없다. 노트북 충전기와 ssd, 마우스, 여분의 usb들을 담은 투명 파우치를 넣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다음은 필통, 핸드폰 충전기를 넣는다. 이게 가방 몸통에 들어가는 최소 물품이다. 앞주머니엔 삔과 머리끈, 리뉴와 안경이 담긴 안경집, 기름종이, 립밤, 옆 주머니엔 헤어롤과 지갑, 에어팟, 섬유탈취제, 이클립스, 양치 도구, 인공눈물 정도 넣어놓는다. 여름엔 모기약... 도 넣어놓았다.

요즘엔 가방이 너무 무거워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다. 하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물건들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썼을 때의 쾌감! 갑자기 내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필요로 해서 빌려줄 때의 뿌듯함 때문에 자꾸만 보부상이 된다

여러분은 보부상인가요 가벼운 주머니(?)인가요?

15 6



2024/11/01
friday, pm 11:52 | 20읽음
황윤정(광고홍보학과)

#5일차 #가방

가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물건이 담겨 있다. 좋아하는 물건, 자주 사용하는 물건, 없으면 절대 안되는 물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에 각자의 취향이 담긴다.
취향이 듬뿍 담긴 만큼 소중하다. 물건 하나가 없어지면 슬프고, 가방이 더러워지면 속상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전부이다. 하지만 매일 매는 가방이라 소중함을 까먹는다. 아무 바닥에 던져 놓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

17 6



2024/11/01
friday, pm 11:58 | 19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가방

8년 쓴 가방을 버렸다. 원래 물건을 잘 버리는 편이라 이따금씩 집이 분주해보일 때면 물건을 다 끄집어내 정리하곤 한다. 8년 쓴 이 배낭도 버려진 물건들 중 하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중학교 3학년 때 용돈을 모아 사서 고등학교 때까지 책가방으로 잘 사용하던 기억이 난다. 매일 변하는 기분처럼 취향도 변했기에 성인이 된 후엔 손이 잘 가지 않아서 더 버리기 쉬운 마음이었다.

내 마음엔 가방이 여러 개 있다. 마음속 감정들을 차곡차곡 가방 속에 정리해두었다가, 생각에 꼬리를 물다 가방속에 무언가가 떠오르면 가방을 끄집어내 우르르 쏟아낸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마음이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도 된다. 버릴 건 버리고 오랜만에 만난 물건은 반가워 펼쳐도 본다. 무사히 정리를 마쳤을 땐 뿌듯함이 가득하다.

내 마음 속 가방들도 온통 끄집어내 정리를 시작했다. 애써 무시해왔지만 역시 쌓아두면 병이 되는가보다. 미안한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마운 마음은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커가면서 왜 점점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 8년 전에 산 가방처럼 묵혀두기 전에 용기를 냈다.
마음 가방 정리를 무사히 마쳤다.

15 8



2024/11/01
friday, pm 11:59 | 21읽음
이나영

#5일차 #가방

가방이라는 주제를 보니 한동안 유행하던 '왓츠 인 마이백' 챌린지가 생각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검은색 백팩.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지 탈탈 털어보았다. 몇 개의 화장품들이 담긴 작은 천가방, 내 취향이 가득 담긴 분홍색의 귀여운 보조배터리와 분홍색 충전선, 큰 맘 먹고 알바비를 모아 구매한 보스 헤드셋, 기념품으로 받은 볼펜, 작아서 몰래 먹기 좋은 m&m 초콜릿. 그 외에도 다회용 인공눈물, 휴지, 알콜스왑, 상비약, 핸드크림, 필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작은 노트, 갤럭시탭, 굴러다니는 아주 작은 포스트잇, 선물로 받은 카드지갑, 반납일이 며칠 안 남은 얇은 책, 뭔가 특별한 걸 샀는지 버리지 않은 구겨진 영수증까지••• 크고 작은 물건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었다.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갈 때마다 등이 축 쳐지고 묵직한 게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도 가방 사이즈가 작아 한 번 정리했던 건데, 이제 다시 물건을 버릴 때가 된 걸까?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애정이 담겨있고, 그 때의 추억이 담겨있고, 어쩌면 미래의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오늘도 어마어마한 짐을 차마 정리하지 못한 채, 조용히 가방 문을 닫고야 만다.

16 4



2024/11/01
friday, pm 11:59 | 25읽음
박현민(심리학과)

#5일차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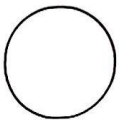
일명 '보부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다. 항상 짐을 한가득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불리는 것인데, 왜 나는 항상 짐이 많은지를 모르겠다. 자 이제 하나씩 꺼내보면서 생각해봐야겠다. 일단 가방의 크기와 상관 없이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다.

<가방 속>
-지갑
-에어팟
-쿠션(화장품)
-이클립스(캔디)
-파우치(손거울, 핸드크림, 립밤, 파우더, 인공눈물, 립펜슬, 틴트 한두 개, 향수 소분용기..)
-간식...(초콜릿)

이렇게 적다보니 파우치가 무거운 이유가 있구나 싶다. 하지만 다 필요한 것들...이다. 학창시절 때도 그랬던 것 같다.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큰 백팩을 들고 다니니 주머니 이곳저곳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두고 다니는 것이다. 즉 "혹시"병인 것이다. 혹시 몰라서 챙기는 것들. 주변이서 '혹시 이거 있는 사람?' 하고 물어봤을 때 없는 게 없다면서 꺼내주는 희열감이 짜릿하다. 마치 도라에몽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다.

늘 나의 가방은 무겁겠지만 '아 맞다_'하고 탄식하는 것보단 무거운 짜릿함이 똘다.

17 6



2024/11/01
friday, pm 11:59 | 26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5일차
가끔은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가방 안엘 보면 없어

나는 지금 계산대 앞이고
가방 안에 지갑 안에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이내들을 다 기억하고 헤아리고 챙기는 게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가 봐

그것들이 나는 다
너무
벅찬가 봐

그래서 볼펜도 지갑도 에어팟도
공결 신청서도
이렇게 다 떠나 버리나 봐

나를

18 6



2024/11/02
saturday, am 12:09 | 29읽음
이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요즘 칙칙한 가방에 귀여운 키링이 대롱대롱
달려있다. 칙칙하고 꼬질꼬질한 가방에
귀여운 키링 인형이 달려있는데, 그 키링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아마 힘든 삶에 조금의
힐링 요소가 아닐까 싶다. 나도 가방에
노트북과 각종 책, 필기도구를 가득 담아 힘든
시기에 키링을 보고 힘낸다.
맨 앞주머니에 달린 인형은 오리 인형이다.
공정무역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오리인데, 직접 만들다보니 똑같이 생긴
오리가 없다. 동생의 오리는 미간이 좁고
부리가 동글동글하다. 그리고 나의 오리는
머리도 부스스하고 부리도 넓적하다.
바보같이 생겼지만 난 그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든다. 나만의 오리이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쿼카가 달려있다. 마치 우리 아빠를
닮았는데, 생일선물로 받아서 가방에 같이
달고 다니고 있다. 아빠가 날 지켜주시는 것
같다.
맨 위에는 뱁새 인형이 있다. 모루 실을 직접
구매해서 같이 뱁새 인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나와 같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얼굴이 점점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

다들 힘든 삶에 위로를 받고 싶어 달고
다니는게 아닐까 싶다. 조만간 위로가 되는
존재를 하나 더 달지 않을까 싶다.

17 9



2024/11/02
saturday, am 12:51 | 45읽음
이덕영

#5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가방 이야기 덕분에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가방에
담긴 하루가 여러분만의 색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잘자요~~

21 0



2024/11/04
monday, am 8:14 | 43읽음
이덕영

#6일차 키워드 : 꿀팁
오늘의 키워드는 '꿀팁'입니다. 학점 관리 꿀팁, 시간 관리 꿀팁, 자취생 생존 꿀팁... 대학생활에는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소소한 꿀팁들이 가득하죠. 여러분만의 특별한 꿀팁이 있나요? 직접 터득한 생활의 지혜, 또는 꿀팁 따라갔다가 실패한 웃픈 경험까지, 여러분의 꿀팁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 0



2024/11/04
monday, am 8:43 | 30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6일차
저는 친구에게 들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꿀팁" 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는 공모전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주변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모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친구랑 같이 합니다. 학교생활 하면서 공모전이나 비교과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정말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여러 특강을 들으면 학점을 채울 수 있다" "이 공모전 해서 수상하면 그게 경력이 된다" 등등 친구는 선배들에게 들은 학교생활 "꿀팁"들은 항상 저랑 친구들에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 저도 한 번은 친구에게 받은 "꿀팁"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특강, 공모전이 있다면 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저에게 아직 "꿀팁"은 없지만,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친구가 알려준 "꿀팁"이자 저의 "꿀팁"입니다.

18 14



2024/11/04
monday, am 9:00 | 28읽음
유채원(일본학과)

#6일차
학교생활과 대외활동.

제가 드릴 학교생활 팁은 매우 진부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한림대 홈페이지를 하루에 1번씩은 꼭 방문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꽤 얻을 것이 많습니다. 여러 이벤트(특강, 공모전 등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습니다.
대외활동 팁. 저는 매일매일 올콘, 링커리어, 캠퍼스픽 이 3가지 대외활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특히, 올콘이 공고가 제일 많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이트만 보는 것보다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보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올콘에는 없던 활동이 링커리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1365나 vms 같은 자원봉사 사이트에도 들어가 봅니다. 본인 전공 혹은 흥미와 일치하는 봉사활동을 발견하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18 9



2024/11/04
monday, am 9:21 | 23읽음
김미도(일본학과)

#6일차

나에게 꿀팁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솔직히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 하는 것이 없고, 살면서 터득한 지혜도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쓸데없는 꿀팁일 수도 있겠지만, “외발 자전거를 잘 타는 꿀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발 자전거는 초등학생 때 탄거라,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서 써보겠습니다 ㅎㅎ

우선, 외발 자전거에 올라타는 법은
[외발 자전거에 올라타는 법]
1.먼저 페달 한쪽을 밟고, 자전거 기울인다.
2.자전거 안장에 엉덩이를 걸친다.
3.처음에는 벽을 짚으면서 빠르게 올라탄다.
4.이때, 무섭다고 허리를 굽히면 안된다.
올바른 자세로 타야 넘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타기만 하면 안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발 자전거 앞으로 나아가는 법]
1.처음에는 양손을 들어올려 균형을 유지한다.
2.그 상태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3.이때, 정말 과감하게 나아가야한다.
안그러면 넘어진다.

돌아가실 때에는 허리만 돌리는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야합니다. 처음부터 내리막길은 위험합니다. 되도록 평지를 타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외발 자전거 타는 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지말고 나아가는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처럼요...

17 14



2024/11/04
monday, am 9:42 | 27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6일차
저는 학교를 다니고 나서 선배를 잘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알바도 안 하고 학교에서 공모전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해서 돈을 벌어 사는 선배였습니다. 지금 이 라이팅 챌린지도 그 선배 덕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제 노트북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 등을 더욱 알기 쉽게 해준다면서 노트북을 잠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사이트 들어가는 북마크를 순식간에 노트북 상단에 설정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던 방식이 있어 적응이 살짝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트북 화면 상단에 북마크를 저장해보세요!
또 다른 꿀팁은 비 오는 날 성심병원 쪽에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꽤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심 병원 주차장이라는 곳이 성심병원에서 학교로 올라오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1층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가다 계단이 있는데 반 층만 내려가면 바로 CLC 1층 가는 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편하게 CLC를 갈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은 큰 장점은 오르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 삐질삐질 흘리며 올라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릴 꿀팁은 학점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비록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학점은 2학점이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꽤 큰 학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민지성 한림연단' 강연을 듣는 것

입니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인데 이 특강을 14번을 들으면
2학점을 줍니다. 한 학기 당 6번의 강연이
있으니 1년 + 1학기 동안 이 특강들을 들으면
2학점을 받는 것 입니다. 저는 현재 9번의 이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듣고 2학점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기 보다는 다음에 들을
특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연자로 오시는 분들이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정치
평론가 진중권 , 시인 나태주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만큼 퀄리티 있는
강연입니다. 2학점도 듣고 내 삶 속에서
교양과 지식도 쌓고 너무 좋은 특강입니다.
학교에 홍보 문구 적힌 것들을 몇 번 보긴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참에 알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에겐 꿀팁도 많지만 다른 이의 꿀팁은
사용해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소한 경험이긴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비비빅 아이스크림으로 팥죽
만들기"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우유와 비비빅을 같이 끓이면 맛있는 팥죽이
된다는 꿀팁 알려주는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로 실행했더니 냄새는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팥죽 맛은
맞는데 설탕을 그냥 쏟아 부은 팥죽
같았습니다. 너무 나도 달고 먹으면 뭔가 당뇨
올 것 같은 맛?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 먹긴 했습니다만 한 번
먹으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겐 또 다른 많은 꿀팁들도 있지만 3가지
정도만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팁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쪽지 보내주세용!

17 21



2024/11/04
monday, am 10:23 | 28읽음
전수현(법학과)

#6일차
[꿀팁]
저는 몸무게가 60이었는데 음주 문화를
받아들이고 난 뒤 95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은 먹으면서 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어떻게 체중을 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단기간을 잡고 있지 않았기에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도 하였죠. 군대에서 23키로를 감량하고
현재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꿀팁은 체중 감량의
꿀팁입니다.

1. 혈당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 액상과당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당이 높은 음식들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과는 달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과당이 흡수되면 인슐린의
분비도 없고, 따라서 렙틴의 분비도 촉진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공복 호르몬의 양이 식사
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포만감도 못
느끼게 된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세포에서 더
쉽게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단기간에 끊기 힘들다면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혈당은 식사 후에 30분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닌, 30분 산책할 시간이
없다면 집안일, 청소 등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겨울에는
산책하기엔 추워서 집안 대청소를 주로
했었습니다.

2. 식단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바나나, 우유

등)은 SNS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먹어봤는데 계란과 샐러드가 가장 포만감도 좋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높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은 일반 식도 드셔도 됩니다.
중식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학생으로 점심 먹고 활동량이 있는 분들이기에 드시고 싶은 음식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석식은 18시 전이나 19시 전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원래 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반 공기 정도 먹고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폭식 및 과식을 하게 되었다면 16시간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 쌓여 있기에 공복 시간 동안은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3. 운동
운동은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같은 5KM여도 이 거리를 걷기 힘든 사람이 걸으면 도움이 되지만, 쉽게 걷는 사람이 걸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단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추가로 더 빼고 싶으면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과 효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사람의 체형마다, 체질마다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 물어보셔도 됩니다.

16 10



2024/11/04
monday, am 10:32 | 23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6일차 #꿀팁

꿀꿀할 때 꿀Tip!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선택에 있어 느린 편이라
자책해서 꿀꿀 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저는 재밌는 걸 주로 보거나 잠을잤어요.그렇게하면 그냥 지나가졌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기보다 회피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다시 꿀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기위해
자책할 일이 생기면 왜 그랬는지 첫 시작부터 훑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작, 중간과정, 결과를 보며 원인을 적습니다.
이렇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되고 해결할 수있는 것도 명확해져
안좋던 기분이 돌아옵니다. 그저 불안하기만 했던 마음도
잔잔한 바다처럼 바뀌고요.
그리고 그걸 행했을 때 행복하고 자신감있는 내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ㅡ초조하고 주눅들고 불안한 모습이 꽤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리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말이 필요했을 누군가,
우리는 언제나 요동칠 수 있는 바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아주 험난할 때도 있고 아주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바다이니까
작은 물고기가 되어 물에서 헤엄도 쳐보고 흘러도 가보고 맘껏 해보는 것이 어떤가요?

제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기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렸고
저처럼 헤매는 누군가도 이글을 보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 8

2024/11/04
monday, pm 12:00 | 39읽음
김도은(광고홍보)

#6일차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학년 2학기로,총 팀플 23번과
20번 조장을 맡았던 비운의
행운압니다(아직도 안 믿김).그리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걱정돼
말씀드리자면 맹세코 단 한 번도! 자진해서
조장 활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가위바위보와 교수님 호명과
랜덤뽑기의 저주)

자 자

그럼 이쯤돼서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들어가죠.
조별과제 팁 들고 와봤습니다.

그 전에...,사실 조별과제 팁이라는 건 없을
지도 모릅니다.쉽게 말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중요) 교수님이 주신 과제를 마치시면
됩니다.아주 간단하죠.하지만 조장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께선 아실 거에요.말
처럼 호락호락 하하호호 하지 않는다는
걸,소위 '빌런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있죠.

실은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갈등 퇴치
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로젝트의 기획과
구성,진행과 관리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의 보다 더
나은 조장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조언이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분량 때문에
세 가지만 준비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조장은 정보통이다

예를들어,강의 공지사항을(이하 공지) 매번
확인해 새로운 공지가 뜨면 캡쳐하여
단톡방에 공유합니다.이때 중요 사항이
있다면 공지기능을 활용해서 고정해두면
편리합니다.그리고 어떤 교수님께서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시기
때문에(도대체) 문의드릴 사항은 스마트
리드의 쪽지 기능이나 메일로 컨택해야
하는데요,만에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답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그럴 땐 당황하지 않고 좋은
표정으로 당장 행정실(학과 교학팀)에 달려가
전공이라면 어느 수업 무슨 교수님 수업이라
말씀하시고 연락드리고 싶다 하면 바로
연결해주십니다.추가로 프로젝트 상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은 경험 상 다음
공지사항에 반드시 올라오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참 쉽죠

2.빌런은 살살 달래고 잠수는 과감히
제외한다

어쩌면 모두가 조별과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라 생각하고,실제로도 팀이 와해되어
망해본 경험으로(본인 조장은 아니었음)
말씀드리자면!역시 이번에도 답은
간단합니다.갈등과 분란의 징조가 보인다
싶으면 먼저 나서서 현 상황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합니다.그 원인이란 의견차이나 단순 갈등이 대부분이므로 여러분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그들을 설득하고,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그러나 답을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모른 체 하며 잠수를 타는 조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무슨 잠수 보존의 법칙인지 잊을만 하면 출현해 텐션감을 yuji시켜줍니다

답답하죠...할당된 업무를 마쳐야 모두가 편할텐데요.게다가 잠수 조원은 여러번 카톡아이디로 언급을 해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에 카톡 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수집해 최후통첩용으로 쓰기도 합니다.경고죠.현재 당신에게 할당된 과제는 이러이러한데 확인 하셨는가,답변이 계속 없으시거나 참여하시지 않으면 과제명단에서 제외하겠다.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그럼 열에 여덟은 꼬리를 내리고 죄송하다 하며 합류하고,나머지 둘은 그냥 끊습니다.다시 보니 기개가 장난이 아니네요.쓰다보니 생각나서 화납니다...릴랙스

3.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

조장이 1차적으로 과제를 골고루 할당하면 대부분 조원들은 각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십니다.먼저 감사를 표합니다.또 어떤 분은 능력이 출중하셔서 금세 과제를 끝내기도 하고 시간이 남는다며 도울 거리를 찾으시기도 합니다,이땐 과제가 대부분 매우 빨리,높은 완성도로 끝납니다.교수님의 칭찬은 덤이죠.와 진짜 최고의 조원 가뭄의 단비 종강하면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은 분이죠.감탄한 나머지 일잘러의 비결을 여쭤보면 그들 역시 웃으며 조장을 여러번 해봤다고 답합니다....그 뒤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순전히 자기 일만 해서는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일이 매우 많을 때가 해당되죠.(공모전 여러개 동시참가 또는 제작물 여러개 만들어야 하는 경우)좀 ggondae 같은 발언일지 몰라도 이때만큼은 본인 할당량을 끝냈다고 해서 모른 체 해주지 말아주십시오.플리즈(답을 안하더라고요)하지만 조장이 왜 있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죠...추가작업이 어렵다거나 개인일정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과제수행 조차 어렵다면 조장이 언제라도 커버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걱정 노노입니다...보살이 된 비결입니다.잠수 안 탄게 어딥니까 오히려 좋아

글을 늘 버스에서 쓰다보니 중언부언 이랬다저랬다 해서 딱히 팁이란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쓰다보니 괜히 잘난척 한 것 같아서 찔리지만(저도 일잘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근 4년 간의 시간이 헛된 것 같지 않아 뿌듯하기도 하네요.쌓은 경험은 어디에선가 반드시 쓰이더라는 걸 알아서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1 28



2024/11/04
monday, pm 3:45 | 30원용
서정원(심리학과)

#6일차
#6 '꿀팁'
학교에 다니며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에는 치킨, 삼겹살, 보쌈 정도이다. 하지만 가끔 양질의 미디움 레어로 적당히 익은 스테이크를 먹고 싶지 않는가? 고된 하루를 마무리 한 나에게 근사한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은가?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기와 온도계 두개만을 가지고 원하는 굽기 정도의 스테이크를 굽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전에 고기를 굽는 여러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3cm 두께의 소고기를 가장 최적으로 굽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
-팬 프라잉-
1. 고기 겉면의 핏물을 키친타월로 닦고 소금을 뿌린 후 냉장고에 넣고 표면의 수분을 날린다.
2. 이후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후라이팬을 기름을 넣고 170도 이상 예열한 후 고기 투하
3. 통상 1cm당 2분씩(여기서 버터, 올리브유의 경우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이 기름들은 추천x) 한 면당 30초씩 뒤집어가며 굽는다. 3cm 두께의 경우 통상 6분 정도 걸린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오면 고기가 타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선 불을 줄이거나 가열되지 않은 기름을 넣어 온도를 낮춘다.
4. 보통 콧볼에 힘을 줬을 때 손으로 만진 느낌 정도가 미디움 레어인데, 익힘 정도는 고기의 상태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온도계를 넣는다. 여기서 심부 온도가 52도정도가 되면 불을 끄고 허브류, 무염버터 등을 넣고 아로제한다.(아로제는 고기에 향을 입히고 균일하게 익히기 위한 과정이다.)
5. 이후 구운 시간만큼 레스팅하고 커팅한다.
보면 알겠지만 팬 프라잉 방식은 변수가 많아서 고기를 최적으로 굽기 쉽지 않다.

-리버스 시어링-
1. 고기에 간을 하고 온도계를 꼽은 후 100도 정도로 예열해놓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심부온도 52~54도 부근까지 굽는다.
2. 목표온도에 도달하면 예열해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면을 1분씩 지지고 꺼낸다.
오븐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레스팅 과정은 따로 필요 없다.
리버스 시어링 방식은 집에 에어프라이기와 온도계만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굽기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다.

이외에도 저온의 기름에 푹 담가 오랫동안 익히는 '콩피', 그리고 '수비드' 방식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고기의 풍미가 좋아지지만 기름 처리가 번거롭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기 겉표면의 수분감을 완벽히 없앨 수 없어 시어링 시 마이야르 반응을 최고로 끌어내기 어려워 감칠맛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레시피와 유튜브 영상만 참고하여 취미로 요리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간다. 지금은 8관에 거주중인데, 조리실에서 자주 밥해먹는다. 고기를 굽는 더 자세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정 수준에서, 자취생 수준에서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리버스 시어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기름 튀김도 적고, 굽기를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설거지 거리가 적다.

16 7

2024/11/04
monday, pm 3:55 | 27읽음
박시연(사회학과)

#6일차
학생분들이 정성스럽게 써주신 꿀팁들 저도 너무 써보고 싶네요. 꿀팁은 쓰라고 있는 것이죠! 저만의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입니다. 뭔가 해야할 일이 있을 때, 물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일을 이뤄내기 위한 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동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할 때 낭비하는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무의미하게 릴스나 유튜브 시청으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할 일을 조금씩이라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해야할 일들을 빠른 속도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하면 굳이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저는 가계부를 작성하고, e북을 감상하고, 과제까지도 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담긴 피피티나 메모를 반복해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화천으로 평화보훈 현장견학을 가는 버스 안인데요. 이렇게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풍경을 보면서 쓰니 좀 더 머릿속 하고싶은 말들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제가 무엇인가 해낸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꿀팁이라도 나누어드리고 싶어서 글을 끄적여보았습니다. 제 노하우를 전수하려니(자투리 시간 활용은 원래도 유명한 팁이긴 하지만요)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해낸 인물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15 10

2024/11/04
monday, pm 4:35 | 24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6일차
요즘엔 콘서트, 공연, 뮤지컬 들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티켓팅이 필수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저만의 티켓팅 꿀팁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티켓팅 사이트는 인터파크티켓, 예스24, 멜론 티켓, 티켓 링크 등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터파크티켓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모든 티켓팅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필수예요. 못해도 티켓팅 최소 하루 전엔 회원가입을 완료 해 주시고 요즘엔 티켓 되팔이 논란 때문에 무통장 입금을 막아두는 공연이 많으니 카드나 계좌 연결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기가 많은 공연의 경우 서버 다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티켓팅 당일이 되면 적어도 티켓팅 시작 10분 전에는 로그인을 한 상태로 대기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와이파이와 데이터, 모바일과 PC 모두 성능은 비슷했던 것 같아서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접속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티켓팅 시간이 돼서 버튼이 예매하기로 바뀌면 침착하게
약관 동의->날짜->회차 시간->보안 문자 입력->좌석->예매하기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고 접속이 느리거나 하얀 창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절대 새로고침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이미 예매된 좌석입니다라는 창이 뜨면 근처 비슷한 좌석은 다 예매 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뒷 자리를 예매하시는 게 좋아요. 3열을 선택했는데 이미 예매된 좌석일 경우 재빨리

7열 쪽을 클릭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56초 쯤부터 버튼
연타하는 게 빨리 접속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시겠다거나
긴장되시면 정각에 빨간색 버튼으로 바뀌고
나서 클릭하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결제 창에서 튕긴 적은 없었는데
만약 튕기셨다면 최대한 빨리 재접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 주셔야 해요!

저는 절대 손이 빠른 편도 아니고 티켓팅 꿀팁
같은 것도 따로 찾아 본 적 없었는데 박효신,
홍광호, 조승우 공연 모두 4열 이내로
예매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긴장하지 말고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침착하게
하나 하나 버튼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은 극의 전체 무대
구성이나 퍼포먼스를 보고 싶으시면 중앙열,
특정 배우나 넘버를 보고 싶으시면
사이드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뮤지컬을
많이 본 편은 아니여서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모두 즐거운 문화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 12



2024/11/04
monday, pm 4:59 | 고함용
김도희(영어영문학과)

#6일차 #꿀팁
#class101

Class101은 취미부터 실무까지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드로잉, 공예, 요리, 코딩, 그리고 부업
준비까지 여러 주제를 다뤄서 원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CLASS101+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약 2만원으로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볼 수 있다.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 패키지로 보내주기도
해서 시작도 간편하고.

수업을 들으면서는 강사or다른
수강생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 어려운 부분은
강사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어서 독학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거나 스킬 업이 필요할 때,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데 초기 투자비용이
걱정될 때 유용한 플랫폼이라 대학생들한테
특히 추천해주고 싶다.

광고 아니예요~!!!

12 8



2024/11/04
monday, pm 5:03 | 고함용
한주연(미디어스쿨)

#6일차
꿀팁
여러분들의 꿀팁의 글들을 읽고 정말 너무
신기하고 다양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 꿀팁이 이렇게 전무하다니
감탄스럽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꿀팁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음. 저는 발표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발표 꿀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합니다만
저는 항상 발표할 때 이러한 방법들로
이겨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번 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너무 떨려서 심장이 쿵쾅대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자기세뇌를 합니다.
" 저 사람들은 다 나한테 관심없어! 발표하는
날 안 볼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아닌 세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발표하면서 나에게 주목을 안할
것이라는 조금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번 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있는 청중들의 얼굴을 보지마시고 맨 뒤
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청중들과의 아이컨택 등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만 긴장이 될땐
너무 두렵고 무섭기 마련인데요.
그럴 땐 멀리보는 시선처리로 더 넓게
청중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벽을 둘러보면서 발표를 하면
긴장이 매우 감소할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 꿀팁이였습니다.

17 8



2024/11/04
monday, pm 5:06 | 22읽음
강하늘(심리학과)

#6일차
숙면"꿀팁"

오늘은 좋은 잠 주무셨나요?
'나는 잘 잔다!'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없는
잠을 못 자는 분들을 위한 저만의 꿀팁 을
공개합니다!

1. 깨끗하게 씻는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씻어야죠
이때! 꿀팁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어느새 노곤노곤한
자신을 발견할지도??

2. 자야하는 곳은 깨끗할 것!
깨끗이 씻었으니 깨끗한 곳에 누워야겠죠?
침대, 바닥, 소파 어디든 일단 깨끗하게~~

3. 자기 전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당신

머릿속으로 '우주'를 떠올려보세요~
'내 뇌엔 우주가 있다~ 있다~' 하다보면 많던
생각들이 팽창하는 우주의 끝을 향해서
멀리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4. 핸드폰을 하느라 자지 못하는 당신

아마 가장 많은 유형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핸드폰을 던져버리세요
그냥 침대든 의자든 어디든 핸드폰을
던지세요 핸드폰은 숙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답니다!

'내가 못 자는 건 다 너 때문이야!!'하는
마음으로 폰을 거침없이 던져버리면
오늘부터 당신도 숙면 1일차

⚠ 주의⚠
핸드폰이 고장날수도 있으니 푹신하게
이불을 깔고 던지세요

15 20



2024/11/04
monday, pm 5:52 | 24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6일차
"인생 꿀팁, 진리"

'세상엔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 우린 그것을 자주 잊고, 때문에 자주 힘들어한다. 진리는 태초에 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쌓인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이 일맥상통하는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알아챘을 때 그것은 비로소 진리가 된다.'

삶은 속된 말로 '억까의 연속'이다. 성실한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으나 보상받지 못하고, 나태한 천재는 속도 모르고 하늘로 솟구친다. 평범해지는 건 꽤 어렵고, 그렇다고 특출난 개성도 없는 듯 하다. 언제나 모순이 존재하고 정답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느낀 인생은 그런 것이었다.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 고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몇몇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이 글로 몇 가지 나만의 답을 적어볼까 한다.
나의 첫 번째 답은, 불규칙이 규칙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로 정립하기 어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개념 하나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선 몇 십줄, 혹은 몇 백줄에 달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규칙, 즉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 전혀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그 어딘가 닮아 있는 세상의 구성품들. 예를 들어 나와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살아온 시간도 공간도 인간관계도 각자 독립적으로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를 공감한다. 언젠가 한 번쯤 겪어본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듯 다양한 불규칙은 그 안에 규칙을 내재한다. 그것이 이 세상이 굴러가는 하나의 규칙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순간 상처받기 때문이다. 불규칙이 규칙이 되려면 각각의 규칙이 동등하게 존재해야 한다. 한 쪽이라도 낮아지면, 낮아진 규칙이 옅어져 묻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내가 닮아 있다는 것과, 너와 내가 다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나의 두 번째 답은 내 삶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회의와 권태로 매일을 살았던 적이 있다. 그 때는 모든 것이 버거웠고 삶의 그 무엇도 아름답지 않았다. 너무 쉽게 삶의 끝을 말했고, 뱉은 말을 다시 곱씹으며 내가 내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나서 알았다. 그 모든 순간이 삶에 대한 애정이었음을. 죽지 못해 산다는 말, 죽는 게 두려워 말았다는 말.. 거짓이라 단정하진 못하나, 그 말들은 빛나던 내 삶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더 닮았을 거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꽤 큰 힘이다. 다음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도 서린 악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로 단단해질 것이라 믿는다.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삶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 글은 내 삶을 통해 얻은 답 중 일부이다. 다시 말해 내 나름의 인생 꿀팁인 셈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고통을 감내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문장이 있다면 공유해주면 좋겠다. 나의 글도 여전히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15 9

2024/11/04
monday, pm 7:31 | 23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오늘은 저의 시간관리 꿀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 친구들에게 '시간관리를 잘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시간 관리를 잘 한다고 느끼긴 합니다.

저는 친구와의 약속이나 회의가 생길 경우, 아이폰 기본 달력에 먼저 일정을 작성합니다. 시작 시간뿐만 아니라, 끝나는 시간도 넉넉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다음날 일정을 정리합니다. 시간 계획표처럼 하루를 정하는데요. 몇 시에 일어날지, 몇 시부터 씻을지 등등 정말 세세한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을 관리합니다. 이러면 제 일정을 잊거나 착각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12 8

2024/11/04
monday, pm 7:33 | 29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6일차

항상 후회하지만..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꿀팁!
과제하기 싫을 때, 집에 왔는데 씻기 싫을 때!
눈을 딱 감고 다음으로 미뤄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미루기! 회피하기! 저는 이 방법으로 꽤나 길게 버텨왔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분들은 평소처럼 무탈하게 계획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하지만 가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하루쯤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보세요. 지친 몸으로 일을 겨우겨우 끝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에요!!
모두모두 화이팅 모든 일에 행운을 빌어요

So nice-루시

14 11

2024/11/04
monday, pm 7:44 | 20읽음
박서현(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써 생각 정리를 하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주터 생각이 많아질 때 정리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이유는 잠을 못 잤거나 어떠한 걱정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꿀팁: 잠을 푹 잔다
잠을 푹 자면 좋겠지만 만약 푹 자지 뭇한다면 유튜브에 '잠자기 전 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나레이션을 따라 하다보면 어느새 자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꿀팁: 생각 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걱정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장에 나열해보세요.
마인드맵을 그리며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걱정이 아닐 겁니다.

이 두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꿀팁: 정면돌파하기
그냥 밤을 생각과 함께 뜬 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정면돌파하세요. 걱정했던 것 보다 일이 쉽게
풀릴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기 때문에 마지막 걱정은
태초의 걱정보다 몇배의 걱정일 것입니다.
다들 이 꿀팁을 반영하여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13 8



2024/11/04
monday, pm 7:50 | 23읽음
정우현(철학과)

#6일차

정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성격 급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꿀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버스를 남들보다 일찍 타는 방법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버스로 등 학교를
했습니다. 특히 하교를 할 때 고등학생들로
버스는 미어터졌는데요. 버스 인원이 다 차서
집에 못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써먹었던 저만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버스가 올 때 버스를 유의주시 해야 합니다.
버스를 관찰하다 보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있는데요. 버스가 속도를 줄일 때 많이
관찰하다 보면 어디에 설지 대충 예상이
갑니다. 사람들은 폰을 하거나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버스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합니다. 저는 이때 남들과 달리 제일
먼저 타기 위해 버스 번호부터 확인한 후
버스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 속도가 줄여질 때
어디서 멈추겠다를 파악하고 거기에 섭니다.
이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버스를 일찍
타게 됩니다. 100%는 없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85%확률 이상으로 2,3번째에는 타게
될 수 있습니다.

2. 배달비 아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꿀팁들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보통 3000원 이상의 고가의 배달비를
내야 하는데요. 쿠팡이츠는 대기업답게
무료배달비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음식을 좋아하여 자주
시키는데 배달비만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쿠팡이츠는 매달 7900원으로
배달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맛이 없거나 늦게 오면 환불과 동시에
3000원 쿠폰이 발급 가능합니다. 쿠팡
로켓배송, 무료반품 혜택이 있으며
쿠팡플레이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8000원에 이런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공짜라고 생각됩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진짜
유익한 어플이기에 추천합니다.

12 8



2024/11/04
monday, pm 8:32 | 19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6일차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쯤은 누군가와 싸워
본 적이 있죠? 저의 꿀팁은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입니다. 꿀팁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여기서 잘
싸운다는 말은 단지 이기고 지고를 떠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에서 감정을
표출하지만, 이성을 잘 잡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서운함을 느끼면 최대한 빨리 말한다.

모든 싸움에는 시작이있죠. 저는 문제의 발단은 서운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죠. 괜히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굳이 말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근데 제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운함이 눈덩이같이 커져 한 번에 다 쏟아붓게 돼서 금방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꼈을 땐 바로 말하기 힘들다면 생각을 정리하고 바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2. 서운함을 가볍게 표현해 보자.
정말 심각한 게 아니라면 장난스럽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옷 스타일이 너무 맘에 든다고 말했는데 친구가 옷 스타일이 너랑 안 어울린다고 하였을 때 "나..이 옷 맘에 든다고 했는데..누가 안 어울린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생각나겠다~ 에효"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면 보통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그 행동이 싫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3. 미래를 생각해 보자.
만약 서운하거나 이미 화가 난 상태이면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우 내가 독립도 하지 않아서 맨날 집에서 봐야 한다. 그럼 이 관계는 끊기 힘들죠. 이렇게 한 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말을 꺼내는 겁니다.

4. 화를 내고 싶다면 우아하게, 귀엽게 하라!
화가 나면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생각 없이 말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와 차분하게 앉고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내면서 '나는 우아하다'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만약 너무 화가 나 다 쏟아부어 버리고 싶으면 용체를 사용합니다. "너가 먼저 이렇게 해서 화나게 만들었자나용!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할거예용!"처럼요.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웃기기도 하거나 없어서 잠깐의 주의 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은 최대한 나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저의 꿀팁 공개였습니다.

13 8

2024/11/04
monday, pm 8:40 | 22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스트레스 해소 꿀팁 -기록편!

나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기록이라는 방식을 활용한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줄 알고 무조건적으로 양보만 했던 때가 있었다. 물론 갈등을 피할 수 있고,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음은 명확하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되려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 방식을 통째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어 시작한 게 기록이었다.
속에 속상한 마음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 속상함을 전달하기 보단 나만 볼 수 있는 일기장에 오늘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에 대해 털어놓는다.

형식도 방식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자투리 종이에 적어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된다. 적고, 마음을 풀고, 잊으면 그만이다.
처음엔 이것도 어색할 수 있으나 속에 끓인

서운하고 안 좋은 마음을 어딘가에 털어놓는 것 만으로 무언가 해소되고 편안할 수 있음을 알게될 것이다.

11 7



2024/11/04
monday, pm 8:54 | 27읽음
최오영(심리학과)

#6일차

저는 자기 직전 커피를 마시거나 과한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면 밤에 숙면을 잘 취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숙면 에 대한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잠에 드는 순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누울 자리에서 침구를 정리한다.
-작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도 옷을 얇게 입고 잘수록 체온을 올리고자 칼로리 소모를 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신체는 잠에 들면 체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서늘하게 자다보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추워서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자신이 덮고 잘 침구가 엉켜있진 않은지 확인하여 다리부터 덮으면서 자연스럽게 누워보세요.

2. 大자로 눕는다.
-잠을 청하는 여러가지 자세가 있지만 깊고 질 좋은 숙면을 위해서라면 옆으로 눕거나 손을 위로 올리고 자는 등의 자세는 신체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우선 大자로 누워보세요! 이렇게 잠들어 본 적 없어서 어색한 분들도 그냥 일단 누워보세요!!

3.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쉰다.
-우리 몸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인 심호흡인데요.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빠른 호흡은 우리 심장과 뇌에 운동과 긴장을 유발시키는만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과한 심호흡보다 차분한 심호흡을 추천드립니다. 심호흡을 하며 그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코로 나오는 작은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해보세요.

4. "잠든다는 것"에 집중하기
-신체가 안정화 되었다면 이제 진짜 잠들 차례입니다. 다른 생각을 떠올리지 말고 내 머릿속을 검은색으로 채워보세요. 만약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내일로 미루자를 마음 속으로 외치고 다시 검은색 바탕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숨을 쉬면 호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듣다보면 아주 작고 귀엽습니다. 저는 가끔 호흡에 집중할 수 없을 때는 귀에 스폰지를 끼우는데요, 정말정말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꿀팁의 알맹이입니다. 호흡하는 소리가 마치 ASMR처럼 느껴져요.

위 과정을 겪다보면 저는 늘 잠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자극에 의해 깨어도 2번 혹은 3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 꿀팁이 꼭 수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

18 12



2024/11/04
monday, pm 9:20 | 26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6일차

바쁜 한림인을 위한 간단 건강한 한 끼 꿀팁

매 학기마다 쏟아지는 과제, 눈 깜짝할 사이 다가오는 시험 기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까지! 대학생이라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경우, 가끔은 밖에서 사 먹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결국 식사를 챙기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요리도 번거로워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쉽고, 그러다 보면 통장은 어느새 '텅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한 식사 준비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취생이나 기숙사생에게 유용할 거예요.

1. 전날 미리 준비하기
하루 전날 재료를 미리 다듬어 두면 아침에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요. 특히, 조리가 간단한 음식에 이 방법이 유용하죠. 예를 들어 오버나잇 오트밀, 요거트볼, 그리고 치아씨드 푸딩 같은 메뉴가 있어요. 저는 특히 치아씨드 푸딩에 요거트를 추가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오버나잇 오트밀: 오트밀에 우유를 넣고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해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한 끼입니다.

-요거트볼: 요거트에 그래놀라와 과일을 넣어 만들어 두면, 다음 날 아침에 숟가락만 들고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치아씨드 푸딩: 치아씨드를 물이나 우유, 요거트에 섞어 냉장고에 넣어 두면 치아씨드가 충분히 불어요. 여기에 과일, 그래놀라, 꿀을 더하면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씨드는 아침에 먹기 좋답니다.

2. 한 번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준비하기
주말에 장을 보고 나면 식재료를 바로 냉장고에 넣기보다, 적당히 손질해두면 주중에 훨씬 편리해요. 예를 들어 양상추 같은 샐러드 재료는 씻어 말린 후 키친타올과 함께 보관하면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 다른 채소들도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숙주는 채반이 있는 용기에 물과 함께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유튜브에서 본 꿀팁도 있어요.

단백질도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해요. 닭가슴살, 삶은 달걀, 구운 두부, 익힌 새우 등을 주말에 미리 준비해 두면 주중에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데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또, 드레싱이나 자주 사용하는 소스는 미리 만들어 작은 소스통에 담아 두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시판 소스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작은 소스통은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할 때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중에 건강한 한 끼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즐겨 먹는 한 끼는 샌드위치인데요, 종이 호일 위에 빵을 놓고 손질해 둔 양상추, 채소, 단백질을 올린 뒤, 만든 소스를 뿌리고 빵을 덮어 간단하게 말아 먹습니다. 혹시 양 조절이 어려워 너무 두꺼워져도 종이 호일로 감싸면 먹기 편하답니다. 또, 샌드위치를 싸기 어렵다면 또띠아를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익숙지 않아 재료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바쁜 주중에도 시간을

아끼면서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배달 음식이나 비싼 외식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요 방법, 한 번 시도해 보세요!

--

아래 위 방법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한 끼를 만들어 먹었는지 참고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첨부해보았어요!



16 18



2024/11/04
monday, pm 10:08 | 21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6일차 #꿀팁

[스물한 번째 접시]

제가 아는 소소한 꿀팁 두 개를 적어보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없애기 / 유튜브 재생바 조절하기 입니다.

광고가 나올 때 ALT 키를 누르면서 오른쪽에 있는 상하좌우 키들 중 좌우를 한 번씩 번갈아 눌러주면 광고가 제거됩니다. 사실 ALT 키를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인데요. 창 전과 후를 왔다갔다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숫자를 누르면 해당 영상의 특정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틀고 숫자 5를 누르면 해당 영상의 절반 부분으로 재생바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생활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팁, 이것이 바로 진정한 꿀팁이 아닐까, 합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3 11



2024/11/04
monday, pm 10:34 | 10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6일차

'꿀팁'

나는 종종 인생 꿀팁을 좋아한다. 예민도가 높은건지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해야할때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일이 많다. 스트레스에도 취약하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높아질때 도움이 되는 삶의 꿀팁들을 좋아한다.

인간관계:
1. 저 사람은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내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와 행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 소비를 한다. 그냥 저 사람은 그랬구나 하고 끝내는 게 좋다.

2. 사람한테 상처와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는 전재를 깔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게 된다. 그 영향으로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을 해도 큰 상처를 받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 또한 상대방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많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나와 다른 환경, 주변 사람들 그리고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니 함부로 나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지 말자.

생각이 많고 불안할때:

1.내가 지금 당장 바꾸거나 해결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자. 해결 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 물론 걱정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동적으로 쓸데없는 걱정이 든다. 그럴때마다 내가 이것을 고민을 해서 바뀌고 나아지는 것은 아예 없으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자고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 생각이 많을때는 30분만 땀나게 운동을 하자. 실제로 땀나게 운동을 하면 나오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다. 정말 귀찮아도 한 번 집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땀나게 30분만 뛰어본다든지 운동을 한다. 그리고 와서 깨끗하게 싯고 앉아서 30분 타이머를 맞추고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글로 쓴다. 실제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정리를 해주는 좋은 수단이다.

다들 자신만의 생각 정리 꿀팁들이 있나요?

13 8



2024/11/04
monday, pm 10:44 | 19읽음
박세진(중국학과)

#6일차 #꿀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물화 그리는 꿀팁을 적으려 한다.

1. 선명하고 각도가 잘 나온 인물 사진을 찾는다.
2. 인물의 비율을 파악해서 연필로 눈, 코, 입, 귀의 위치를 간략하게 표시한다.
3. 쓱쓱 그린다.
4. 0.5mm 펜으로 테두리를 따라 그리고, 세세한 얼굴 부위는 0.3mm 펜으로 덧그린다.
5.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운다.
6. 수채화로 색을 밝은 부분부터 채운다.

인물화 그리는 법에 대해 간단히 나열을 했다. 사실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만 해도 2번부터 어려웠던 것 같다. 얼굴 비율을 생각해 위치를 잡아도 모양이 비뚤어지기 십상이었다.

그래도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없이 잘 그려질 때가 있다.

비슷한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낀다. 글도 처음 서두가
어렵지, 막상 작성하다 보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내가 그림과 글을 사랑하는
이유이다.

인생에 있어서 꿀팁도 중요하겠다. 그렇지만
꿀팁을 잘 기억해서 활용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
믿는다.

13 18



2024/11/04
monday, pm 10:53 | 26일용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6일차
꿀팁이라는 주제로 나는 꽤 고심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쌓아온
많은 정보 중에서 70여명의 사람에게
소개할만한, 공유할만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 떠오른 생각
꿀팁 즉 자신이 잘 아는 지식 공유는
위키이지 않을까?
우리 70여명의 팁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그것이 한림대 위키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다시 내가 알고있는 팁중에서
여기에 소개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다이소 물건 추천이 떠올랐다.

1. 마데카21 테카 솔루션 수딩 미스트 토너

200ml 미스트, 병풀추출물 함유된 토너인데
골고루 분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토너임에도 바디 미스트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현재까지 5번 누적 구매를 했고,
매일 샤워후 물기제거하고 바로
얼굴포함 전신에 뿌리는데,
바디로션만큼의 보습에
압도적 성능은 아니지만
빠르게 뿌리고 최소한의 건조함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는 사용해서
나처럼 바디로션 바르기 귀찮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가격은 5000원이다.
동국제약, 코스맥스가 판매, 제조업체라서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춘천 명동점 기준 1층 화장품 코너
맨 밑칸에 있다)

2. 강아지 배변 패드

강아지 배변을 산책을 통해서나
화장실에 용변을 보도록 훈련시켰다면

상관없지만 우리 집처럼 배변 패드를
사용하는 집은 다이소 배변 패드를 추천한다.
타 구매처의 배변 패드는 생각보다
값이 비싸고, 배변 패드 자체도 금방
써버린다. 그렇기에 적당한 퀄리티와 착한
가격으로 다이소 배변패드 추천한다!
가격은 5000원
(춘천 명동점 기준 아마도 2층??)

3. 치간 칫솔

치간 칫솔은 양치질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시원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이소에 다양한 크기
(예를들면 sss사이즈 등)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대체적으로 10개 묶음에 2000원 정도한다.
(춘천 명동점 기준 아마 3층??)

나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서
나처럼 품질대비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에게
이 꿀팁을 추천한다.

16 11

2024/11/04
monday, pm 10:58 | 18읽음
김경환(화학과)

#6일차
꿀팁이라는 단어를 보자 지금껏 접한 많은
정보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꿀팁이라해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했다가 낭패를 본 기억도
생생합니다. 모든 꿀팁이 자신에게 맞는 옷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팁이란 정보를 접했을 때,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이 꿀팁이 나에게도
꿀팁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짜 꿀팁은 타인의 조언을 참고하되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14 6

2024/11/04
monday, pm 11:00 | 21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6일차
자취생 n년차로서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 과일 오래 보관하는 법

바나나: 바나나는 빠르게 숙성되는 과일 중
하나인데, 특히 줄기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많이 발생해 주변 과일까지 빨리 익게
만듭니다! 바나나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이 가스 방출을 막아줘 숙성 속도가 느려지고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사과: 사과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보관하면 다른
과일도 빨리 숙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금방 물러질 수도 있어
사과는 냉장고 속 다른 칸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2. 음료 빨리 차갑게 만들기

여름에 음료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아 불편한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음료수를 빨리 차갑게
만들고 싶다면 젖은 종이타월로 병이나 캔을
감싼 후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종이타월이
차가운 공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음료가 빠르게 냉각됩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리면 손 시리게 차가운 음료를 바로 즐길 수 있어요.

3. 옷 구김 쉽게 제거하기

이건 친구에게 전수받은 방법인데 집에 스타일러 혹은 다리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꿀팁이랍니다!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 수증기를 이용하여 옷 구김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에 수증기를 가득 채운 후 옷걸이에 걸린 옷을 욕실 안에 잠시 두어보세요. 수증기가 옷 구김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급하게 구김을 없애야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5. 쓰레기통 냄새 없애기

쓰레기통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쓰레기통 바닥에 신문지나 커피 찌꺼기를 깔아두면 좋습니다! 신문지는 습기를 잘 흡수해서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해주고, 커피 찌꺼기는 악취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신문지나 커피 찌꺼기를 교체해 주면 쓰레기통이 훨씬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6.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갈 때

방금도 사용한 방법인데요, 가끔씩 머리카락으로 인한 물막힘 뿐만 아니라 치약, 비누 찌꺼기 등으로 인하여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과탄산소다를 가득 채 운 종이컵 한 개와 뜨거운 물을 준비하신 후 과탄산소다를 세면대에 부은 후 천천히 뜨거운 물을 흘러보내면 미묘하게 막힌 세면대가 뻥 뚫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6 10

2024/11/04
monday, pm 11:23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6일차
저는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싶다면 비컴(BECOME)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는 헬스 관련 프로그램, 수업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공모전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현재 저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챌린지 형식의 헬스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이 챌린지를 통해 렉센터에서 한 달간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날 외에도 자주 운동을 하러가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 수업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전과 관련된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20점에서 30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는 학기가 끝난 후 장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는 누적되지 않으며, 한 학기 동안 쌓은 포인트만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왔고,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컴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식을 쌓고, 장학금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1 5



2024/11/04
monday, pm 11:28 | 21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프로 알바러의 피크타임 대처 #꿀팁

알바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들어하는
"그" 시간
바로 <피크타임>이다.

어디 안 힘든 알바가 있겠느냐만,
특히나 햄버거 가게의 피크타임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버거킹에서만 1년 반, 매니저 제안도 받고
모든 업무를 섭렵했던 사람으로서
나만의 <피크타임 대처> 팁을 전달해보려
한다.

보통, 주문이 한꺼번에 와르르 들어와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페이지 수와
주문 들어오는 소리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나오는 소리에 마음에 다급해지기
마련이다.
거기다 누가 홀에 음료라도 쏟으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다.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 없다.
피크타임의 주문들은 원래 쌓이기 마련이고
-빨리 나가면 좋겠지만-어느정도 밀리기
마련이다,
피크타임 때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된다,

타이쿤 게임 한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해치워가면 된다,
커스텀 메뉴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마라,
천천히 영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실수해도 바로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하면 된다.
실수는 내 잘못이 맞지만 피크타임을 무사히
보내는 것엔
실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동료들은 피크타임에 정신이 없어서
실수해도 이해해준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 너무 겁먹지
말자.



#6일차

12 11



2024/11/04
monday, pm 11:41 | 17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꿀팁

괜찮은 기분이 되는 꿀팁, 저에겐 음악
듣기입니다. 일과를 모두 마친 밤, 책상에
앉아서 플레이리스트를 찾아 유랑하기 바쁜
매일이랍니다. '내취향 플리모음'이라는

재생목록에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넣어두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playlist | 민희진의 음악 취향 vol.2

제목에 이끌려 누르게 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영어가사, 일본어가사, 한국어가사 등 다른 나라들의 곡이 섞여있어요. 그런데도 이질감 없이 흐름이 깔끔해서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랍니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 위로가 필요한 날의 플레이리스트

위로가 필요할 때 들어보세요. 눈물 포인트는 앞에 나오는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 장면입니다.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Playlist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낭만 가득한 잔잔한 캐롤。+° *

벌써 두 달도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2019년에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지만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찾아 듣게 됩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 화려한 트리가 놓여진 따듯한 카페에 앉아 함박눈이 잔잔하게 내리는 밖을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펭귄 줄신이 듣는 겨울 노래
www.youtube.com

글쓰는 과제를 할 땐 집중을 위해 팝송이나 가사없는 음악만 듣는 편입니다. 이건 작년 겨울에 알게 된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제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음악이 좋고 이미지가 귀엽습니다.



[Playlist] 스케이트 보드 타는 고양이 플리 훔치기 | 외힙 R&B

적당히 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주 신나진 않지만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기분일 때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외힙이라고 되어 있지만 빡세지 않고 적당히 신나는 노래들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꽂힌 곡은 Dancing in my room입니다. 취향이 맞는 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Playlist] 꿈이었기에 더 슬펐던 꿈
www.youtube.com

새벽에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인디 장르의 곡이 많지만 마지막은 자이언티인, 제목처럼 꿈과 잠에 관련한 노래들을 모아뒀답니다. 색깔이 다 다른 가수들이지만 주제가 비슷해서인지 통으로 들어도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든 재생목록 속 플레이리스트라 꽤 들어온 곡들입니다. 저와 취향이 맞는 분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듯한 겨울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12 14



2024/11/04
monday, pm 11:46 | 17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3일차

[적립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꿀팁 하면 요즘 가장 생각나는 것은 GS 페이입니다!!
저도 친구에게 추천받은 건데, 아주 유용해 주위에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 학생분들이라면 GS 편의점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 요기에도 공유해 봅니다 저도 다는 모르고 100% 활용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아마 아님) 꼬옥 GS 페이 써야 하는 이유...

1. 하루에 한 번 일정 금액 할인됨
고작 몇 백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된다면!!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더 사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2. qr코드로 결제 적립 한 번에
저는 귀찮다고 앱도 나~~~중에 깐 심한 귀차니즘인데요
번거로운 거 복잡한 거 딱 질색인데 이거는 지갑도 안 가져가도 되고 qr코드 한 번만 찍으면 다 되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3. gs 페이만 적용되는 할인이 있음
상품 가격표 자세히 보시면 gs 페이만 할인되는 제품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못 보고 그냥 구매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속지 말고 gs 페이로 할인받읍시다!!

4. 특정 물품 할인 쿠폰이 가끔 뜸
이건 아직 저도 사용 안 해봤고 친구가 알려준 건데 쿠폰함에 들어가면 특정 상품 할인 쿠폰이 뜨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쿠폰이 있다면 완전 럭키비키겠네용

5. 나만의 냉장고
투쁠원인데 하나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안 써봤는데 친구가 쓰는 거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뭔가 나중에 무료로 먹는 기분이 들어 좋다고 하네요

요즘같이 고물가 정보화시대에선 먼저 알아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요즘 세상에서 가능하냐 묻지만 또 안 한다고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ㅎㅎ 티끌 모아 티끌이라도 기분이라도 좋으면 어딘가요!

여러분도 야무진 적립 할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강추 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 10 ⋯ 8



2024/11/04
monday, pm 11:50 | 23읽음
지소영(간호학과)

#6일차 #꿀팁

제 꿀팁은 학교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헬스 입문'입니다. 간호학과는 과제와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한테 체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헬스를 시작했을 때 단순히 외적인 목표 때문은 아니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시작해야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직감도 있었고요.

헬스 입문에 대한 작은 팁은 눈에 보이는 근육이나 라인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과정 자체를 즐기기 힘들죠. 운동도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동그라미든 납작한 동그라미든, 세모든 하루에 한 번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로 잰 듯한 완벽한 모양만이 동그라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헬스장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흥을 돋우는 것도 좋고, 팀 과제에서 기분대로 행동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분노로 무거운 무게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운동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고, 전보다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운동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안 할 때 오히려 답답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같은 과 친구들도 운동에 입문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에게 단백질 바 같은 작은 선물을 하며 간단한 기구 사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도와줄지도 몰라요.

물론 비용 부담이 없다면 퍼스널 트레이닝(PT)가 가장 좋습니다. 배우면서 단기적인 몸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선생님 없이도 기본적인 기구를 사용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운동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거에요.

저는 운동을 통해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학우분들도 헬스뿐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15 ··· 8



2024/11/04
monday, pm 11:55 | 21일차
최연진(임상의학융계)

#6일차 #꿀팁
누군가에게 팁을 전수해 줄 만큼 잘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대학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한다.

▶Perplexity.ai



Perplexity

만약 챗GPT를 잘 활용하고 있다면 Perplexity도 추천하고 싶다. 퍼플렉시티는 텍스트 기반 인공지능 챗봇으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챗GPT와는 다르게 대화형 식으로 답변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링크를 추가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링크로 들어가서 찾아볼 필요 없이 한 페이지 내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추천해 준 링크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답변이 없다면 결국 내가 직접 검색하고 찾아봐야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다. 이미지나 비디오, 출처도 바로 표기가 되어서 편리하다.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편의성이 더해져 찾고 싶은 주제에 대해 좀 더 빨리 찾아볼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한다.

▶Poe.ai

poe.ai -poe 자료와 정보
poe.ai

이번에도 챗GPT랑 비슷한 플랫폼인데 poe.ai라는

AI 플랫폼도 있다. 이 플랫폼에는 GPT, Claude+, NeevaAI 등 다양한 챗봇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데 내가 Poe.ai를 쓰는 이유는 챗GPT의 유료 버전을 쓰다가 만료되었을 때 Poe.ai에서 마저 이어서 물어보는 것 같다. 비슷한 방법으로 쓰는 다른 ai는 뤼튼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뤼튼보다는 Poe.ai를 더 자주 쓰는 것 같다.

▶FREEPIK
필요한 이미지가 생기면 프리픽에서 이미지를 자주 다운받는다. 찾고 있는 이미지의 사진을 검색하면 이미지가 많이 뜨고 유료인 이미지도 있지만 무료 이미지 중에서도 좋고 쓸만한 사진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다. 유사한 자료도 볼 수 있고 사진의 출처도 복사할 수 있어서 출처를 쓸 때 편하다. 이미지, 아이콘, 동영상 등 디자인이 다양하고 AI 이미지 생성기도 있어서 이미지를 빠르게 찾기 쉬운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추천해 주는 글을 보면 한번 읽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정작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에 3개는 실제로 자주 쓰게 돼서 검색할 때, 챗GPT 유료 버전이 만료됐을 때, 이미지를 찾고 있을 때 빠르게 찾는 팁으로 추천해 주고 싶다.

11 7

2024/11/04
monday, pm 11:59 | 16읽음
이나영

#6일차 #꿀팁

한국 사람들은 '꿀팁'을 정말 좋아한 나머지, 쉬려고 떠나는 여행에서조차 공항 꿀팁, 비행기 좌석 꿀팁, 현지 맛집과 여행지까지 남들보다 더 나은 경험, 최고의 행복을 찾아 헤맨다. 이렇게 보면 행복의 기준치가 참 높은 것 같다. 내가 첫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 넘쳐나는 꿀팁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처음에는 효율과 이득을 위해 이것저것 참고하려고 했지만 막상 혼자 다니는 맛을 알게 된 후에는 남들의 말에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번쯤 봐두면 도움이 될지도 모를 나만의 혼.여(혼자 떠나는 여행) 꿀팁을 나눠보려고 한다.

첫째, 반드시 여유를 가져야 한다. 혼자 떠나는 여행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일행의 기분과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내 취향껏 일정을 짤 수 있다. 언제든 새로운 일을 여행에 추가할 수도, 기존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내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필수이다. 무리한 날은 다음 일정을 줄이기도 하고, 기분이 별로인 하루는 휴식을 취하다 느즈막이 나와서 걸어도 괜찮다. 혼자 하는 여행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인생에서도 자립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앞선다면, 현지인이나 가이드처럼 그 나라(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나는 처음 하는 해외여행을, 그것도 혼자서 다녀오게 되어 그야말로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소매치기를 당한다면, 소통이 안 돼서 국제 미아가 되면••• 온갖 무서움에 겨우 도착한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던 건 투어 가이드를 신청한 덕분이다. 요즘은 해외에 당일치기 혹은 몇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인 가이드가 많이 있다. 나는

'마이리얼트립'이라는 어플을 많이
이용했는데 혼자 여행하기 너무 심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듣고 싶을 때, 현지에
적응하기 오래 걸릴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현지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가이드가 그
나라의 이곳저곳을 데려다 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데, 혼자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안심이 많이 되고 꿀팁들을 많이
전수받을 수 있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문화 등을
직접 배우면서 내가 가진 편견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혼자 즐길 수 있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던
외국인에게 입국심사를 하러 가는 길을
안내받은 기억은 정말 신선했다. 몇개월 뒤 그
분과 한국에서 또다시 만나 춘천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프라하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맛집 동행을 하기도 했고,
오스트리아에서 박물관을 갔을 때 몇 마디
말을 나누며 걷던 언니와 급격히 친해져 숙소
일정도 바꾸고 같이 헝가리를 다녀왔었다.
사람을 어느 정도는 경계하면서도,
평소보다는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한발짝
나서면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런 짧지만 소중한 인연들이
나의 여행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겁을 먹더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면
좁은 나의 가치관에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린다.
단순히 남들이 좋은 곳으로 꼽는 장소에
다녀가는 것보다, 그때 그 장소에서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오는 게
해외여행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13 7



2024/11/04
monday, pm 11:59 | 22읽음
박현민(심리학과)

#6일차 #꿀팁

자취 생활 3년차.. 아직 멀었으나 그래도 혼자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자취 꿀팁을
떠올려 본다.

일단 자취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끼니
해결'이다. 특히나 나처럼 입이 짧은
사람들에겐 가장 힘든 주제이다. 나는
냉동실을 전적으로 믿는다..(이러면
안되는데) 요리를 해서 먹더라도 많은
양이라면 먼저 덜어서 소분해서 얼려두고
먹는다. 파, 양파, 마늘과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는 손질해서 얼려두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만약 본인이
조금이라도 부지런 하다면 밥솥을 사서 밥을
직접 한 뒤 소분해서 얼려두고 먹을 때마다
전자렌지에 돌려먹는 것을 추천한다(햇반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동형 필터 정수기
'브리타'를 추천한다. 페트병으로 물을
사먹는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은근 부담이 되기도
한다. 브리타는 1인 가구일 시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도 필터를 사용해도 괜찮은 점이
좋다.
식재료는 한 번에 사기 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 과일은 시장에서, 꾸준히
구매하는 식재료는 쿠팡이나 이마트몰과
같은 온라인에서 세일 쿠폰을 받아 세일할 때
구매한다. 자주 이용하는 곳은 이마트몰이며,
매주 목요일쯤에 세일을 가장 크게 한다.

화장실 청소는 '발을 씻자'라는 아이템을 꼭
추천한다.. 최고의 아이템..! 발을 씻을 때도
유용하지만, 화장실 청소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최고다..

막상 생각나는 게 많이 없는데, 여러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작은 것들이다.

15 7



2024/11/05
tuesday, am 12:12 | 30읽음
이덕영

#6일차 글쓰기 마갑합니다.
여러분의 꿀팁들이 모여 작은 지혜가
되었네요. 오늘 공유된 꿀팁들로 누군가의
하루가 더 달콤해질 것 같아요. 내일도 새로운
꿀팁을 발견하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18 0



2024/11/05
tuesday, am 7:47 | 35읽음
이덕영

#7일차 키워드: 감기
오늘의 키워드는 '감기'입니다. 콧물과
기침으로 찾아오는 감기도 있지만, 우리
삶에는 또 다른 '감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제 마감 즈음에 걸리는 게으름 감기, 연애를
시작할 때 걸리는 설렘 감기, 이별 후
찾아오는 우울 감기... 어떤 감기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 마련이죠.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또는 지금 앓고 있는 여러분만의
'감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 0



2024/11/05
tuesday, am 8:14 | 36읽음
김도은(광고홍보)

#7일차

오늘도 드디어 끝났구나 일이 너무 많았다

그냥 좀 빨리 오지 그랬어 피곤할텐데

뭐 술?눈치 없는 건 여전하네

야 꼴이 말이 아니잖아 너

에라이 안되겠다

그냥 오늘은

나한테 맡겨두고

푹 쉬어야겠다 너 대로

뒤치다거리는 나한테 맡기시고

약 먹고 잘 쉬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에휴 나 없었으면 진짜 어떡할 뻔 했냐...

제목:감기

19 18



2024/11/05
tuesday, am 8:21 | 24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7일차
저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감기"에 걸렸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험기간 2~3주 전에 감기에 걸려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감기를 낫기 위해 병원을 2군데 가서 진료를 보고 약을 탔지만 이상하게 그때 감기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만큼은 공부가 정말 안 됐습니다. 집에서 며칠 푹 쉬었더니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시험기간에 감기 걸리는 건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경험은 앞에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때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2주 전에 "감기"가 아닌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염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가려고 1번의 공결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지각, 결석을 한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지각을 했습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았고, 화장실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약을 먹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는 아프다는 핑계로 공부를 전혀 안 해서 후회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만약 아프더라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시험 성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 16



2024/11/05
tuesday, am 8:35 | 20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7일차
이번 키워드는 '감기'이다. 그래서 감기에 대한 나의 경험을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감기로 인해 학교를 빠진 경험이 몇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 경험을 나눠보려고 한다.
우선 나는 초등학생 때는 감기로 인해 학교에 못 간 적이 없다. 엄마가 엄청 감기가 심한 것 아니면 학교에 보냈기에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중학생 때는 감기로 인해 한 번 학교를 빠졌었다. 그 "병원 갔다가 학교 가면 안돼?"와 "오늘 학교 하루 쉬고 싶어"라고 말했었다. 엄마는 내가 그 정도의 상태인줄 모르고 진짜 아프면 학교에 우선 가서 조퇴를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래서 1교시 내내 업드려 있었고 구토증상이 생겨서 바로 보건실에 갔다. 보건실 선생님이 열을 재보시더니 "아니 열이 이렇게 나는데 왜 학교를 온 거야?"라고 하셨다. 순간 느꼈다, 나 집에 가겠구나라고. 이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집에 갔다. 이 감기로 인해 그 날 하루만 조퇴를 한 것이 아닌 거의 3~4일 정도를 빠졌었다. 그 정도로 꽤나 오래갔다.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셔서 친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황토침대에서 따뜻하게 온돌로 해놓고 누워있으니 너무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누워있던게 좋았어도 그 날의 그 감기의 느낌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
다음은 고등학생 때인데 나는 매년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하필 고2 때는 맞지를 못했다. 그랬더니 바로 독감에 걸려버린 것이다. 며칠 뒤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나는 독감으로 인해 남들보다 방학을 2일 정도 일찍 시작해버렸다. 하루 동안은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근데 다음 날부터는 회복되는 느낌이 왔었다. 그래도 난 독감환자 이기에 밥도 따로 먹어 대접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상황을 누렸다. 그러다 보니 독감이 완치가

되어있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으론 지금이다. 오늘 일어났는데 목이 상태가 이상했다. 침을 삼켰는데 목이 너무 아파 많이 부어있음을 알았다. 이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서 그런지 침 삼키는 것에 대해 더 힘들었다.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목감기에 대한 그 느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다. 바로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진짜 감기는 증상도 천차만별이라 그냥 넘길 수준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수준도 있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약한 감기를 그냥 넘겨서 더 강한 감기가 온 것 같기도 하다. 모두 아무리 약한 감기라고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그래야겠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14 10



2024/11/05
tuesday, am 10:08 | 22읽음
유채원(일본학과)

#7일차
심한 감기를 앓아 열이 날 때, 어머니께서 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셨다. 사실 나는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줄 때보다, 열이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마에 어머니의 손바닥이 닿을 때가 너무 좋았다. 열 때문에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지는데 어머니의 온기만이 확실히 느껴져서 그랬던 걸까.

본인이 평소 다니는 이비인후과의 약이 잘 맞는다. 1학기 때 감기에 걸렸었다. 문제는, 내가 통학을 하는지라 학교를 마치고 동네 단골 이비인후과까지 갈 시간이 안 났다는 것이다. 밤에야 사는 동네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침에도 일찍 나와야 했기에 시간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춘천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다. 지어준 약을 다 먹었으나, 감기랑 멀어진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주말에 단골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지었다. 2일만에 나았다! 약이 몸에 익숙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났던 걸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15 7



2024/11/05
tuesday, am 11:11 | 25읽음
김미도(일본학과)

#7일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곧 겨울이 찾아오고, 매년 이 시기쯤 되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난다. “감기”라는 키워드로 학우분들이 다양한 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감기에 걸린게 초등학생 때로, 워낙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라, 내가 감기에 걸린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다. 처음에 “감기”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내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년 *겨울방학마다 일본에 있는 학교에 가서 체험 입학으로 두 달동안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가는 시기가 시기다보니, 꼭 독감이 유행해서 매년 한 번씩은 “학급폐쇄”가 되었다. 학급 폐쇄란, 한 학급에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학급 학생들 모두 등교 금지시키는것을 말한다. 학급 폐쇄가 되면, 아이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에 안가도 된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방학이 짧아진다고 절망하는 아이들이 있다. 나는 어디까지나 체험 입학생이 였고, 약속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급 폐쇄가 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나에게 미안해하셨지만 학급폐쇄

덕분에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겨울 방학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어서, 나는 좋았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추억이다.

*참고: 일본은 겨울방학이 2주정도로 매우 짧다. 한국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난다. 때문에, 한국에서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일본은 일주일 뒤면 겨울방학이 끝나있다.

15 8



2024/11/05
tuesday, am 11:39 | 21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저는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입니다. 겨울만 되면 목이 잘 부어오릅니다. 성인이 되고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만성 편도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감기로 알고 지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찬 바람을 마셔도 목이 붓고, 찬 음식을 먹었다 하면 목이 붓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꼭 목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겨울에 감기를 한 번 겪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매일을 감기 같은 편도염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끔은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난 저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을 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면 먼 미래에는 제가 더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 7



2024/11/05
tuesday, am 11:56 | 23읽음
서정원(심리학과)

#7일차
초등학교 때 비염과 천식으로 꽤 고생했었다. 코로 숨을 쉬지 못할 때가 많았고, 천식 때문에 입으로도 숨을 쉬기 어려웠다. 쌕쌕대며 가까스로 숨을 삼킬 뿐이었고, 천식 특성상 감기의 특성도 같이 따라왔다. 어머니가 둘리 사진이 그려져 있는 한의원을 자주 데려갔다. 초등학교 점심시간 이후 한약을 마실 때마다 한약의 쓰고 고통스러운 맛 때문에 자주 게워 냈다. 그래도 먹어야 숨을 쉴 수 있으니 집에서 조미김을 챙겨와서 한약을 마신 후 바로 김을 먹는 요법을 쓴 기억도 난다. 그러나 한약은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한의원의 둘리가 그리 반갑게 다가온 것 같지는 않다. 비염과 천식은 유아기 때 경기로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던 과거력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꽤 취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비염도 천식도 없는 상태이다. 천식이 없으니 감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열거한 증상들은 과거보다 면역력이 세져서 호전된 상태이다. 어떻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이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잘 자고, 잘 먹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꾸준히 운동까지 하면 환절기 질환과 감기에 걸릴 틈이 없어진다.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해야 여러분은 지금 하고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운동해서 생기는 질환들에 의해 일 효율 손실이 발생한다면 —가령 감기에 걸려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거나,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잠이 온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자고, 먹고, 운동하면 되지 않는가? 정말 간단한 방법이다. 꾸준히 번아웃이 오지 않고 살고 싶다면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 식사, 운동을 겸하여 적당히 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6 10



2024/11/05
tuesday, pm 12:15 | 22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7일차 #감기 #병원 #약국 #쌍화탕
#쌍화탕최고

어렸을 때는 감기에 걸리면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갔다. 날이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옮기 좋아, 병원은 기침하거나 코가 막힌 아이들로 가득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증상을 물어보고 나의 목과 코를 살펴보셨다. 그러다 코가 콧물로 가득 차 있으면 콧물 제거기로 노란 콧물들을 빨아들이셨다. 진료 후, 목이 안 좋으면 빨간빛이 나오는 기계로, 코면 하얀 수증기의 약물이 나오는 기계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나와 약을 지으려 1층의 약국에 가면 약사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텐텐이나 뽀로로 비타민을 주셨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이제 마음속에 머무는 추억이 되었다.

이제는 수업과 알바 등 다른 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1~2시간,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더 이상 병원에 잘 가지 않게 되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약국으로 달려가 따뜻한 쌍화탕 한 병을 구매해 마시며 나아지기를 바란다. 실내화 들고 다닐 때는 한약 냄새와 맛으로 쌍화탕을 마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겨울이 되면 꼭 한 박스씩 구매하는 생존 필수품이 되었다. 어느새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온 요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다.

14 7



2024/11/05
tuesday, pm 12:30 | 23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7일차
"친숙하고 아픈 감기"

감기는 꽤 오랫동안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다.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도 그 원인인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운 질병. 자칫하면 목숨마저 앗아갈 수 있는 질병. 그럼에도 감기는 흔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왔다. 감기는 사시사철 계절마다의 이유로 찾아온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감기에 걸린다. 겨울에는 끊이지 않은 찬 바람 때문에, 여름에는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 때문에. 봄, 가을에는 환절기의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우리는 감기에 걸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나, 그렇다 해서 감기를 크게 의식하고 살진 않는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다. 특별히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리만치 건강한 사람도 있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모두 감기를 알고, 살면서 한 번쯤은 감기에 걸려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감기는 친숙하고 아프다. 이 표현은 굉장히 모순적이나, 모두가 이해하는 문장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있다. 앞서 말한 감기의 특징을 떠올리면 우울증과 감기는 깊이 닮아 있다. 우리 나라에선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겪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원인이 제각각이라 치료하기 어렵고, 완치는 더 어렵다.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고 그 끝에 목숨마저 앗아간다. 언제, 어떤 이유로 찾아올지 모르며,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항상 긴장하고 대비하며 살진 않는다. 그래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 그게 바로 우울증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울은 감기와 별개로 인식된다. 감기는 기침, 고열 등의 표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우울은 내면 깊은 곳부터

서서히 잠식되기 때문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울증 환자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우울의 증상은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믿기 쉽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으로는 기억 상실이 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뇌의 신경 연결을 해제하고, 그로 인해 인지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타인은 우울증 환자를 볼 때 '무관심하다'거나, '산만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자신과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을 자주 잊기 때문이다. 우울증임을 인지하고 있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말 혹은 상황에 집중하라는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장 힘든 사람은 우울증 환자 본인일 것이다.

나는 우울이 감기 정도의 무게로 인식되길 바란다. 특히나 우울증을 겪는 당사자가 우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길 바란다. 기침을 한 순간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우울한 생각을 한 순간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언젠가 또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날이 올테지만, 지금 당장 아프지 않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우울증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남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할 것 같고, 현실이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울은 정말 감기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추운 바람이 두고 간 감기처럼, 스트레스가 두고 간 우울. 그 놈은 싹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순간을 지난 것만으로 삶의 조각을 얻은 것이고, 그렇게 쌓인 조각들은 먼 훗날에야 완성된 모양을 드러낼 테니까. 우울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미지의 세계인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최고를 상상하기 보단 최악을 상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의 현재가 우울보단 기대로 얼룩지길 바란다. 그리고 우울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란다. 친숙하고 아픈 우울은 언제고 찾아올테니 말이다.

17 10



2024/11/05
tuesday, pm 12:41 | 26위엽
전수현(법학과)

#7일차
[감기]
저는 정서적 감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방문하고, 때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위기를 감기와 비교하면 감기는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발병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정서의 위기는 나의 정서가 약해진 틈으로 많은 시련들이 들이닥쳐 우울증,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요.
저는 감기 걸린 주변 사람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상담이 필요한 인원들을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과 경청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 그만큼 그 사람이 날 믿는다는 생각도 들고, 공감과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의 감기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기에 경청하게 됩니다. 정서적 위기는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에 안정기에 들 때까지 지지해 줄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억까의 연속이라는 말이 핑소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생각나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물리친다, 일명 가짜 약 효과라 불리는 이 효과는 실제 치료 효과가 없는 비타민을 약이라고 믿게 하고 복용하였을 때 완쾌한 일화가 있는 효과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서적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 딸
누군가에겐 소중한 형, 누나, 동생
누군가에겐 소중한 친구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존재이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감기'에 걸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아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혼자가 힘들다면 주변 친구에게, 그 누구에게도 괜찮습니다. 세상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찾으며 살기에도 바쁜데, 그 시간을 감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면 조금은 슬프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8 9

2024/11/05
tuesday, pm 4:15 | 23읽음
홍다연(정치행정)

#7일차
어제부터 급격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공기가 바로 피부에 닿아 몸이 움츠러들고, 어느새 감기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저는 비염이 있어서 찬 바람이 불 때면 "아, 이제 비염의 계절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곤 합니다.
저는 그동안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평소 감기에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가장 먼저 실천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내의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만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를 즐겨 마십니다. 티백을 활용한 차는 준비하기도 간편하고,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어 좋아하는 편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동시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날씨가 추워지면 언제나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찬 바람에 아주 민감한 편이라서 날씨가 추워지면 항상 목도리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목도리는 단순히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감기의 주요 원인인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반드시 두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차가울 때 여러 겹을 입고 다녔지만, 작년부터는 레이어드보다는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도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 매일같이 목도리를 착용해왔고, 그 결과로 감기에 걸리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날씨가 특히 추울 것이라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감기 예방에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몸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며 모두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16 7

2024/11/05
tuesday, pm 5:33 | 22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7일차
감기
저는 감기에 대해서 크게 별 생각을 안하고 살아왔습니다.
감기는 흔하디 흔한 질병임을 깨달았었고 저는 항상 감기 걸려도 자연치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물약을 처방받아 저에게 먹이려고 하셨었는데요.
저는 정말 물약을 너무나 혐오했기에 , 죽어도 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때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나아질테니 , 자연치료를 저는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인지 감기에 걸리면 엄청 크게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감기약들을 크게크게씩 구비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본 적이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감기에 걸릴 때 약을 안먹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감기약을 꼭 먹지만 외국에서는 감기는 그냥
넘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약이 몸에 잘 안받을 수있기때문에
안 먹는 것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빨리빨리 민족으로서 감기약을 먹어 하루 빨리 낫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 6

2024/11/05
tuesday, pm 5:39 | 21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7일차
가을이 오면 밖을 보면서 멍때리게 되기도 하고 감성에 젖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는 오색 빛으로 물든 나무들과 무수히 떨어진 낙엽들도 많아 더 센치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을마다 오는 가을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지 짧은 계절이라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지 참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기도 하고, 넋이 나가 있는 사람처럼 멍때리며 늘어져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더 울기도 웃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곱씹고,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빠져 들어서 상처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을감기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따스하고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져 슬픈 것이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을감기에 걸려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16 8



2024/11/05
tuesday, pm 6:12 | 21읽음
강하늘(심리학과)

#7일차

"감기는 '계절'같아요. 감기에 잘 걸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오늘 멘토링하는 중학생에게 감기에 대해 물어보고 들은 답이다.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몸이 아닌 마음에도 감기란 찾아온다.

마음감기는 몸감기와 달라서 기척없이 찾아온다.

분명 괜찮은 것 같은데 또는 분명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약을 먹어야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오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마음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고자 한다.

마음감기 예방편
1. 나에게 질문하기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
나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괜찮으냐고, 오늘은 어땠냐고, 정말 괜찮으냐고, 요즘 웃는 건 힘들지 않냐고 피곤하지는 않냐고 물어본다.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주 여러 번 물어봐야한다.

2. 나 관찰하기
만약, 당신이 요즘 무기력하고 힘이 나지않는 상태라면 자신이 언제 그런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무리속에 있을 때인지 혼자있을 때인지 파악해라. 무리속에 있을때라면 스스로가 많은 약속, 일정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는 않았는지 언제 쉬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혼자있을 때라면 외로움, 공허함이 큰 상태일 수 있다.
혼자있는 시간에 감정이 평생 중 가장 많이 겪어야하는 감정중에 하나이다.
이때를 싫어하고 재미없어 하다보면 계속 메너리즘이 반복될 뿐이다.

혼자있는 스스로를 위한 요소를 만들어라. 취미든, 자기관리든, 공부든 너하고만 있는 그 시간이 공하하지 않게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한다.

3. 휴식
몸감기든 마음감기든 걸렸다면 일단 쉬어야한다. 나의 마음이 아픈걸 눈치챘다면 다른 건 신경쓰지말고 쉬어라. 물론, 바쁜 삶을 사는 대학생들에게 하기에는 힘든말이지만 그렇기에 더 말해주고 싶은말이다.

지금의 너는 앞으로의 너를 위해 쉬어야한다고 말이다.

17 18



2024/11/05
tuesday, pm 8:15 | 21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7일차

아픈 걸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조금 아픈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간다. 상비약으로 버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웬만하면 바로 병원을 간다. 괜히 아픈 거 오래갈 바엔 귀찮더라도 후딱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게 훨씬 낫다!

아플 땐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 입맛이
없더라도 꼭꼭!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다들
아프면 죽을 먼저 생각하는데 죽이 잘
넘어가긴 하지만 금방 배고파지곤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오래전부터 나의 소울 푸드로 자리 잡고 있다.
팔팔 끓는 뚝배기에 국물 한 입을 먹으면
온몸이 치유되는 기분이다. 거기에 고봉밥 한
그릇 말아 싹싹 긁어먹으면 감기가 싹
씻겨내려가는 기분이다.
어쩌다 보니 국밥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을 때 소울 푸드는
무엇인가요?

16 8



2024/11/05
tuesday, pm 8:23 | 21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7일차 #감기
#아플때혼자라는것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건 참
큰 위안이 된다. 어릴 때 감기에 걸려 누워
있으면 항상 바쁜 부모님 대신 할머니께서
옆에서 나를 돌봐주셨다. 그때는 그냥 누워
있기만 하면 됐고 약도 챙겨주시고, 죽도
떠먹여 주시고,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해주셨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하고 든든해서 아픈 게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좋은 것 같단 생각마저 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도 혼자 앓고, 스스로 약
챙기고 죽도 배달시켜 먹어야 한다. 심지어
진료 받으러 가는 것조차 힘들어 진단서를 못
떼고 집에서 다 나을 때까지 혼자 끙끙 앓으며
버틴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힘을 내야 하고 결국엔 나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게 더 서럽다. 누가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게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

아프다는 것도 그냥 혼자 견디고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서럽게 다가온다.

17 8



2024/11/05
tuesday, pm 9:00 | 22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빨리 #감기

겨울만 되면 코 찔찔 흘리며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난다.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탓에 새빨갛게
달아오른 볼과 귀는
감기 걸리기 직전이라는 경고의 빨간 불이요,
엄마의 잔소리 폭탄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었다.

걱정과 타박 섞인 엄마의 분노는
축축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을 즈음
가라앉았었다.

하루빨리 나아서
다시 놀이터를 뛰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마음처럼 빠르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끔은 '감기'에 걸려 엄마의 간호를 받던
시간이 그리워진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듯 휙휙 넘어가버려
그동안 놓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하다.

'감기'는 몸이 쉬어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되돌아보라는 뜻이
아닐까?

삶의 '빨리 감기'를 잠시 멈추고
제대로 나를 돌보라는 '감기'라는 쉼 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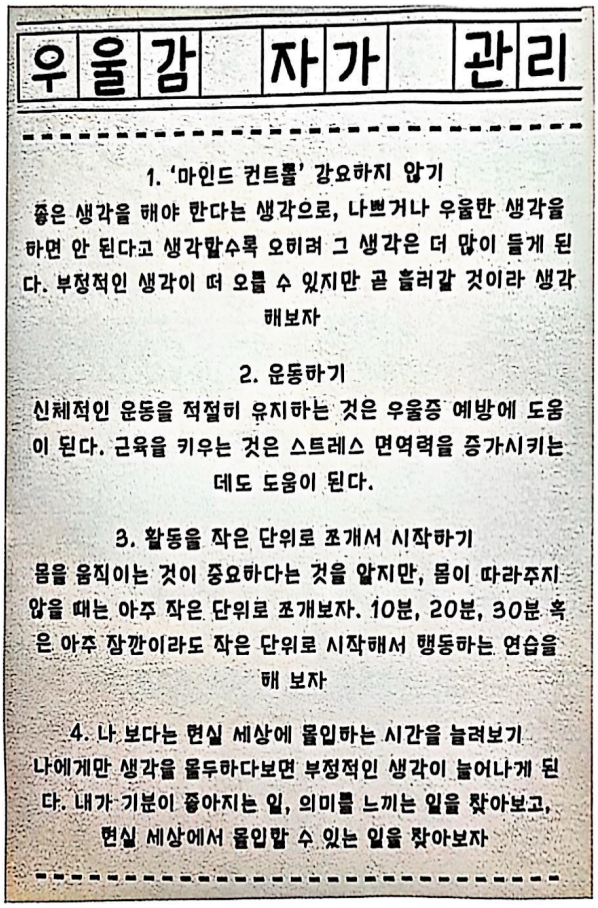


#7일차

17 10

2024/11/05
tuesday, pm 9:02 | 28읽음
최오영(심리학과)

#7일차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말이기도 하고,
라이팅챌린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셨는데요!
저는 전공이 전공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대해 과도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 말에 대해 알고 계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

그래서 저는 "우울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꼭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아니어도 우울감은
당연히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만큼 관리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마인드 컨트롤' 강요하지 않기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쁘거나
우울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은 더 많이 들게 된 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 오를 수 있지만 곧 흘러갈
것이라 생각 해보자

2. 운동하기

신체적인 운동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도움 이 된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활동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작하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단위로
조개보자. 10분, 20분, 30분 혹 은 아주
잠깐이라도 작은 단위로 시작해서 행동하는
연습을 해 보자

4. 나 보다는 현실 세상에 몰입하는 시간을
늘려보기
나에게만 생각을 몰두하다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게 된 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일, 의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보고, 현실
세상에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

꼭 우울감이 아니어도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사진 및 관리방법의 출처는 한림대
카운슬링센터입니다!

20 7



2024/11/05
tuesday, pm 9:42 | 25읽음
정우현(철학과)

#7일차

나는 설렘 감기 중독자다. 연애를 할 때 처음
느끼는 설렘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이
좋은 감기가 나으면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잊곤 했다. 설렘에 중독되다 보니 건강한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다. 나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심리 콘텐츠들을 찾아봤다.
설렘은 곧 연애를 시작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설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며 서로 노력하는 게 진정한
연애라고 보았다. 아직도 나는 설렘 감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설렘만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순
없다는 걸 배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감기가 다 나은 이후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

15 6



2024/11/05
tuesday, pm 9:57 | 21읽음
김경환(화학과)

#7일차

흔히 겪는 콧물과 기침을 동반한 감기 말고도,
우리 삶에는 다양한 '감기'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 감기, 설렘 감기, 우울 감기
등등 그 종류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보니 결국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나아집니다.

마음의 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무거운 마음의 감기가 찾아와 괴롭히지만, 완벽하게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주변의 위로나 작은 즐거움들이 그 순간을 조금은 덜 힘들게 해 줄 뿐, 나아지는건 시간이 지나야합니다.

두 감기 모두 뚜렷한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증상에 대응해서 치료한다는 점이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14 5



2024/11/05
tuesday, pm 10:12 | 21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7일차
약 2년 전 이맘때쯤 친구들과 야외에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지만, 모처럼의 약속이라 두꺼운 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나섰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늦은 저녁까지 웃고 떠들었고, 도심 속 작은 야외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위가 느껴지긴 했지만, 오랜만의 만남에 들떠있는 마음이 그런 불편함을 잊게 해주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이 조금 으슬으슬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콧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기에 걸렸나?" 설마 했지만, 아침이 되니 콧물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았고, 목도 따갑고 몸살이 온 것처럼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정을 미룰 수 없어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고,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감기 몸살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람들 틈에서 일상을 버텨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눈도 침침하고, 코는 막혀서 숨쉬기조차 불편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점심에는 간단히 죽을 사 먹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며 버텼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작은 일들도, 그날은 전부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집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따뜻한 꿀물을 마시며 어릴 때 엄마가 감기 걸렸을 때마다 끓여주셨던 생강차와 꿀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맛이 좋아서 마셨는데, 지금은 그 따뜻함이 온몸을 녹여주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며 문득, 평소에 잊고 지냈던 건강의 소중함이 떠올랐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전에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던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게 느껴졌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며칠 후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는 평소에 느끼지 못한 감사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몸을 더 잘 돌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 7



2024/11/05
tuesday, pm 10:15 | 20읽음
박시연(사회학과)

#7일차
사랑은 감기처럼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감기에 걸리면, 온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목이 아프다가 콧물이 나다가 열이 나다가 춥다가 한다. 할 일을 못한다. 난 너무 바쁘고 해야할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한다.

감기는 그렇게 소리소문없이 찾아와 날
아프고 힘들게 한다. 너무 나를 괴롭히기만
한다. 사랑이 감기처럼 찾아온다는 말은 너무
슬프기만 하다. 누군가는 사랑을 즐긴다고
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걸 어떻게
즐기는거지.. 그걸 왜 즐기지? 그건 감기를
즐긴다는 말이랑 같다.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하겠다.
그 부분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이다. 설레고 떨려서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다는 그런 표현이 나는 싫다.
이성적이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감기 걸리기 전이 몸이
안아프고 컨디션도 좋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저 그런 풋사랑이라도.. 감기가 한 해에
몇번씩도 걸리는 흔한 질병이라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걸릴 때마다 고통스럽다.
감기와 사랑이 다른 점이 있다면 감기는 약을
먹으면 낫지만 사랑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감기처럼,
사랑도 감기처럼, 피해갈 수가 없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갔다가 약 먹고 푹 쉬기' 처럼
사랑에 걸렸을 때 매뉴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다. 아프다. 아파서 죽겠다.

16 8



2024/11/05
tuesday, pm 10:20 | 22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7일차
김윤아의 다 지나간다 라는 노래 가사중

지난밤은 열병에 시달리다
어지러운 상념에 잠 못 들고
괴로운 순간들이면 나도 모르게
기도처럼 읊조리며
나를 다독인다.
다 지나간다.
다 잊혀진다.
상처는 아물어
언젠가는 꽃으로 피어난다.
다 지나간다.
모두 지워진다.
시간은 흐른다.
상처는 아물어 사라진다.

감기라는 주제로 이 노래가 생각났다.
열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를 우울증에 비유하는 것으로.

감기라는 것은 대부분 짧게 앓다가
우리의 면역 시스템으로 곧 치유된다.
마음 속에서 여러 이유로 만들어진
우울감은 금방 치유되지 않는다.

나는 새벽 감성으로 감상에 젖곤 하는데
우울감이 열감처럼 뻗어나갈 때
걷잡을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다들 잘 시간에 어두컴컴한 고요한
새벽에 여러 생각들로
스스로 정신적 자해를 한다.

정답없는 주제로,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한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의문들이
평소에는 내비치지 않다가
나 혼자만 남겨진 어둠 속에서
슬퍼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정상인처럼
내 본연의 슬픔을 지우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을.

그렇기에 나는 아마도 평생을
감기같은 우울감을 달고 살 것이다.
결코 긍정적으로 살 수 없다.
지금 내가 웃고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에
곧 다시 슬퍼질 것을 알기에.

17 6



2024/11/05
tuesday, pm 10:22 | 18읽음
박세진(중국학과)

#7일차 #감기

사랑이란 뭘까.

함께 하면 행복한 것,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간호하다가 본인도 감기가 걸리는 것일까?

내가 해왔던 것들이 사랑이 맞다면 난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됐는데. 다시 연락할 수
있다면, 마주보며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
추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다고 꼭
말하고 싶다.

미안하고 고마웠어. 열심히 살게. 사랑했어 ..
나의 감기가 너에게 옮기지 않길, 남아있는
너의 마음의 감기도 조금은 무뎌지길 바랄게.

15 7



2024/11/05
tuesday, pm 10:34 | 21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7일차 #감기

[스물두 번째 접시]

감기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과 다르게 감기
예방접종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엄청난
종류와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일일이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기
예방접종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가만히 보면 사실 굉장히 대단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적들의 장보를 알고
희석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영리하고도
교묘한 술수라고 느껴집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궁금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싸워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맞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지난 날의 과거들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맞서 싸우기 위해
팔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

15 4



2024/11/05
tuesday, pm 10:40 | 21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6일차
#감기

이제는 겨울이 다가와서 다들 감기에 조심할
때입니다.

재채기하기 시작하고 멈추지 않는 콧물을
닦고 있을때 쯤 우리는 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감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 아 또 감기걸렸나 하고 동네의 약국을 가서 감기약을 사먹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보일러를 틀어서 감기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기가 올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왜이렇게 나약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저도 마음에 감기가 올때면 나는 왜 이런 것에까지 흔들리고 힘들어할까 라며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기는 일반 감기처럼 당연한 것 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보면, 아니면 진정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살아갈때 관리를 하지 않은 몸에 감기가 찾아오듯이 당연히 찾아오죠. 그렇기에 우리는 몸처럼 내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몸이 힘든것보다 마음과 정신이 힘든 것이 더 버티기 힘들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온 감기는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 우울증, 누군가에게 나 요즘 마음이 힘들어 라고 할 용기조차 없어집니다.

마음에 감기 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더 당연시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3 4



2024/11/05
tuesday, pm 10:53 | 23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감기

면역력아, 조금 더 힘내!

이번 학기 시험은 두 개 뿐이었지만 대체 과제가 세 개라 지난 주 거의 매일 4시간 가량 잠을 자다보니 피로가 잔뜩 쌓였다. 그제부터 최소한 새벽 2시 전에는 자야겠다고 다짐한 후 4시간보다는 더 잤는데 왜인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뤄둔 잠이 쌓여서 며칠 더 잠을 푹 자야할 것 같다.

학교 가는 셔틀버스에서도 기절하듯 잠을 잤는데, 집에 오는 차에서도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다. 기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이제 낮 공기가 차다.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눈 뜨니 두 시간이 지나 엄마가 저녁 먹으라며 깨우셨다.

한창 피크민이라는 게임에 빠진 동생이 산책가자며 앉아있던 날 일으켜 세웠다. 배도 부르고 하니 정말 오랜만에 밤 산책을 나갔다. 동네 구경도 하고 마트도 한 번 둘러보고 나왔다. 오랜만이라는 핑계로 롯데리아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고 나왔다. 생각보다 바람이 차서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니 겨울이 온 듯 추웠다.

"감기 걸리기 딱 좋겠다."
"헉, 오늘 글쓰기 주제가 감기야."

어릴 때 걸렸던 감기는 하루만 푹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나았었는데, 이젠 이틀날까지 골골 거리다 나아도 나은 것 같지 않게 피곤함이 오래간다. 오늘 밤 산책이 감기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면역력아, 조금만 힘내줘!

17 14



2024/11/05
tuesday, pm 11:22 | 22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7일차

감기는 첫사랑과 닮은 점이 있어요. 갑작스레 찾아와 일상을 흔들어 놓고, 생각보다 오래 머물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걸리면 신경이 쓰이고 쉽게 잊히지 않아요. 하루빨리 낫길 바라면서도 그 순간엔 모든 게 감기에 집중되는 것처럼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지나고 나면 그리 특별한 기억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감기도, 첫사랑도 잠깐 내 일상에 스쳐 가는 순간으로 남아요. 처음엔 거창해 보여도, 결국 언젠가는 흐릿해지는 것처럼요.

안식처-신인류

13 5



2024/11/05
tuesday, pm 11:26 | 19읽음
이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 감기약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시기는 마치 감기와 같다. 평소에는 씩씩하게 다녀도 모종의 이유로 옮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해 걸리기도 하는 그런 흔한 감기 말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외부에서 걸려오기도 하고,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걸리기도 한다. 그 사람들도 고의든 아니든, 감기 바이러스를 나에게 주었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감기를 줬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관계의 첫 감기는 초등학생이었다. 사춘기가 찾아옴과 동시에 찾아온 감기는, 나의 말수를 줄어들게 만들었고 쉽게 움츠러드는 후유증을 안겨줬다. 사람들은 나를 감기걸린 사람으로 취급하며 멀리했다. 감기는 중학교때로 이어져 점점 심해졌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나는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는건 아닐까 생각했다. 바이러스는 내 주위 여기저기 떠돌았으며, 새로운 반으로 배정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곧이어 걸려 버리고 말았다. 이전에는 툭하면 감기에 걸렸던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지독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루빨리 이 고약한 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낯선 지역의 고등학교가 나에게는 곧 청정 구역이었다. 이 곳에는 감기에 걸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나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가까이 지내게 된 친구들은 다시 감기에 걸리게 했다. 고독하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버텼다. 주변 사람들은 또 다시 날 멀리하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내가 바이러스를 옮겨버릴 것처럼.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원인이라고 단정지으며 날 멀리했다. 바이러스를 준 사람을 원망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당장 벗어날 수도 없기에 이 감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감기가 낫게 되었다.

현재, 나는 다시 감기에 걸렸다. 나에게 감기를 옮긴 사람은 떠나갔고, 내 몸에 남은 바이러스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번 감기는 이전과 다른 것 같다. 가볍고 끈질긴 증상이 날 괴롭힌다. 행복하다가도 이따금씩 화가 나고, 부정적으로 변한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확실한 것 같다. 이제는 감기에 면역력이 생겨 어떤 일이 와도 앓아눕지 않는다. 힘이 들어도 나를 낫게 해주는 음악과, 맛있는 밥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감기는 또 올 것이다. 어떤 형태로 올지, 그 후유증은 얼마나 갈 지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 난 이제 나만의 감기약을 찾았기 때문이다.

15 5



2024/11/05
tuesday, pm 11:29 | 16읽음
박현민(심리학과)

#7일차 #감기

'감기'는 나에겐 정말 가까운 존재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환절기와 추운 날씨엔 언제든 나와 함께이다.

예전에는 목감기만 친하다 생각했으나 이젠 아니다. 코감기부터 종합감기, 각종 감기를 달고 살고 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에도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조금씩 아프긴 하다.

조금은 다르지만 감기를 생각하니 코로나19가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걸려버린 바이러스에, 정말 하루이틀을 앓았던 기억이 있다. 아마 설날 시즌이라서 본가에 내려갔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다. 그때 역시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집에 가서 혹시 모르는 불안한 마음에 자가키트를 한 번 해보고 집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어느 정도 배가 차니 키트가 생각난 것이다, 방에 있던 키트를 확인해 보니, 2줄, 내 인생 첫 두 줄이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혼자 걸리면 조금이나마 마음아 편했을 텐데, 아직 일을 하시는 부모님께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 걱정이 많이 됐다. 아파도 편하게 아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바로 다음 날 자취방 쪽으로 가 병원을 갔다, 시름시름 앓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서 괜히 서럽기도 했다, 원래 혼자 아픈 게 가장 서러운 거라고 하던데, 오랜만에 느꼈다 서러운 감정을.

감기는 어쩌면 나에게 쉬어가라는 적신호일지 모른다. 지금 힘들다, 지쳤다. 그러니 쉬어가라는 의미에서 열이 나고 기침으로 큰 신호도 보내며 코가 막혀 머리가 돌아가는 걸 막는 것이다. 항상 아프고 나면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다. 예전에는 아파도 곁에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덜 했으나, 이제는 이 몸 하나 간수하는 걸 소중히 생각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을 여러 번 갖게 한다.

아픈 건 참 서러운 거다.

12 4



2024/11/05
tuesday, pm 11:42 | 17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7일차 #감기
2년 전 겨울방학에 기침과 열, 코막힘으로 심한 몸살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쉬고 있었다. 남동생도 나와 비슷한 증상으로 아팠기 때문에 같이 거실에서 누워있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갔다가 핸드폰이 할머니 방에 있어서 할머니 방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아빠도 나를 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할머니 방문 앞에서 내가 쓰러졌던 것이었다. 할머니랑 아빠는 쿵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서 쓰러진 나를 일으키며 괜찮냐고 물어보신 거였다. 나는 내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할머니와 아빠가 언제 나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떴을 때 누워 있는 내 모습과 할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는 장면만 기억난다. 얼마나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내가 금방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더 이상 일어나있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하셨고 나는 다시 거실로 가서 누웠다.
엄마는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 다쳤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링거도 맞고 누워서 결과를 기다려보니 코로나에 걸린 것이었다. 코로나가 유행일 때 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걸리고 말았다.
쓰러졌던 이유는 아마 저혈압이라서 그랬던 것 같다.

사실 난 아파도 그냥 집에 있는 약으로 버티는 미련곰탱이이다. 그날도 그냥 감기일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병원에 잘 가게되었다...는 엔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플 땐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다. (아, 그리고 남동생도 코로나에 걸려서 아팠던 것이었다.)

12 3



2024/11/05
tuesday, pm 11:50 | 19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7일차 #감기

첫사랑 바이러스

사랑에 첫 감기가 왔다
얼마나 아플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써 열이난다
뜨겁게 데여서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두면 어느새 열은 떨어지고 오한이 온다
약효는 떨어진지 오래다
앗차 !

난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게 아니라,
나라는 면역을 키워야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면역이 되어 널 무찔렀다.

그리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감기에 면역을 높이기로 했다.

우리 사랑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않게,
오늘도 열심히 굴러가는 백혈구들은
그에게 달콤한 비타민을 선물한다.

14 3



2024/11/05
tuesday, pm 11:59 | 21읽음
이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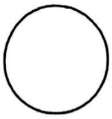
#7일차 #감기

아주 어릴 적 엄마가 장난스럽게 했던 말이 있다.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가고, 안 먹으면 일주일이나 간대." 순진하게도 나는 7일이 일주일보다 짧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약을 먹었다.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배신당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달려가 따졌던 걸 아직도 얘기하시곤 한다.

환절기만 되면 각종 감기에 걸리던 어린 나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 일 년에 한 번 감기를 앓을까 말까 한 건강한 어른이 되었지만 엄마에게는 여전히 챙겨줘야 하는 아이로 보이나보다. 재작년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하는 알바를 하다 된통 감기에 걸렸을 때가 생각난다. 민망하고 죄송할만큼 엄마는 입이 쓰다며 약과 함께 사탕도 꼭 챙겨주셨고, 입맛이 없을 거라며 상큼한

과일을 입에 매번 넣어주셨다. 옛날 엄마의
농담처럼 감기의 유효기간은 꼬박
일주일이었다. 젊었던 엄마의 목소리, 속은
것에 억울해하던 어린 나.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여전한 엄마의 사랑에 눈시울이 괜히
뜨거워졌던 재작년의 겨울이 생각난다.

17 5



2024/11/05
tuesday, pm 11:59 | 20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7일차

생의 계절은 여름보다 겨울에 길고
뭇 사랑은 추위에도 혼자 뜨거운 것이라
나는 긴긴 겨울 너를 앓는 일이 잦았다

뚫린 마음이라 늘 바람이 들었나
그래서 숱한 열병처럼 타오르다 사그라지지
않고
이 사랑은 질병이 되었나보다

사랑도 감염 되는 줄 알았더면
눈 내리는 거리처럼 그냥 너를 사랑할걸
옮지 않으려고 나를 꽁꽁 여미지도 말걸

짙어진 겨울 마음에 소복히 쌓인 너를
눈뭉치처럼 모아 눈사람을 만들어 볼 걸

14 4



2024/11/06
wednesday, am 12:13 | 34읽음
이덕영

#7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감기 이야기를 읽다 보니
저도 공감이 많이 되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한 감기도 있고,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감기도 있네요. 때로는 혼자 앓아야 하는
감기도 있지만, 곁에서 걱정해주는 이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감기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17 0



2024/11/06
wednesday, am 7:48 | 32읽음
이덕영

#8일차 키워드: 덕후
오늘의 키워드는 '덕후'입니다. 어떤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관련된 건 다 모으고 싶고, 더 알아갈수록
빠져드는 마니아...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덕후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돌 굿즈를
모으는 최애 덕후, 게임 아이템을 수집하는
게임 덕후, 카메라 렌즈만 보면 설레는 카메라
덕후, 노트 필기구에 진심인 문구 덕후까지.
여러분은 어떤 덕후신가요? 텅장이 되어도
행복한 덕질 라이프,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6 0



2024/11/06
wednesday, am 10:12 | 26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8일차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빠져 "덕후"가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 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짱구는
못말려'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짱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짱구 만화를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덕후는
아니였어도 짱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였습니다. 키링에 빠져 짱구 키링을 사러 갔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짱구라는 캐릭터를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키링을 사기 시작했는데, 짱구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에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짱구 키링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있을 때마다 편의점에 방문하여 키링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짱구 키링이 나와서 기뻤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짱구 가족들, 친구들을 시리즈별로 전부 다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저는 미친듯이 키링을 사서 결국, 짱구 키링을 시리즈별로 다 살 수 있었고, 중복으로 나온 키링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인생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이즘에 가서 좋아하는 걸그룹을 선택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들은 집에 인생네컷 사진을 전시하는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지금은 걸그룹에 빠져 있어 있어 가끔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봅니다. 키링을 전부 다 모아서 살 시간에 여자 아이돌 굿즈를 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덕후" 까지는 아니여도 저는 지금 걸그룹 "덕후"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4 18

2024/11/06
wednesday, am 10:16 | 24읽음
최오영(심리학과)

#8일차

덕후.

저는 이 단어를 보면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웬지 부끄러워지는 말인 것 같아요. 은밀한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는 기분이라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성향이 아니라 마니아적 성향을 보여주다 보니 어떻게 비춰질지 예상이 가지 않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것을 좋아하고 수집하고 즐겨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것은 "엽서"입니다.
저는 엽서 모으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어딜 가든 소품샵이 보이면 꼭 들어가 봐요. 소품샵도 일종의 "덕후가 가게를 차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품샵을 들어가 보면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공간 특징상 좁고 아기자기해서 제 무드와 잘 맞으면 천천히 둘러보기도 하지만 제 무드와 맞지 않으면 금방 나오곤 해요.
그렇게 선택된 소품샵에서 제 취향을 저격하는 엽서를 발견하면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선호하는 감성이 흔하지 않다 보니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 좋아하는 캐릭터, 멋진 풍경 등 제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엽서들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소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요.
특히 엽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진과도 같아서예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까먹는 일화, 내용, 추억들이 종종 있는데 엽서를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

예상은 했지만 취향을 공유하고 나니 조금은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덕후"와 관련한 많은 주제를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느껴왔던 응집력, 공동체적 느낌, 애정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자주 들어와서 많은 분들의

글을 읽을 것 같아 무척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글도 마치겠습니다 :-)

17 9



2024/11/06
wednesday, am 10:52 | 19읽음
김미도(일본학과)

#8일차

여러분은 보통 "덕후"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덕후를 떠올리시나요? 2023년 마이니치 신문의 가장 많은 오타쿠 분야라는 조사에 따르면 1위는 만화 덕후, 2위는 애니메이션 덕후, 3위는 아이돌 덕후이며, 나머지는 게임 덕후, 피규어 덕후 등 다양한 분야의 덕후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덕후라는 말은 일본의 "오타쿠"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분야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다소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1988년 일본에서 아동 유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이 심한 오타쿠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 오타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덕후임을 인증하는 등 사람들이 자신이 오타쿠라는 사실을 꺼리낌 없이 밝히게 되면서 비교적 예전에 비해 오타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 또한 무언가의 "덕후"인데요. 남들에게 자신의 취미를 밝히는 것은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의 키워드는 "덕후"이기 때문에, 한 번 제 이야기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만화 "도라에몽" 덕후입니다. 저의 필통, 노트북에 붙어있는 스티커, 보조배터리 등에는 다 도라에몽이 있고, 별명 마저 "미도라에몽"일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도라에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재미있어서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 작품 속에 담긴 의미가 깊은 만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도라에몽 작가, 후지코 F 후지오 선생님의 "나에게 있어서, SF란, 사이언스 픽션이 아닌, 조금(少し Sukoshi), 신기한(不思議 Fushigi)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SF 장르가 선생님의 말 한 마디로 흥미롭게 느껴져, 저는 SF라는 장르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SF 장르의 작품 중에서는 특히 건담 시리즈를 무척 좋아서 예전에 용산에서 열리는 건담 행사에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서울에 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덕후는 자신이 그 분야를 좋아함으로써, 평소에 읽지 않던 책을 읽게 되거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열차에 타게 합니다. 물론, 무언가에 지나치게 빠져 주변을 못보게 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에서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15 9



2024/11/06
wednesday, am 11:16 | 26읽음
김도은(광고홍보)

#8일차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덕후'라 불릴 정도로 무언가에 빠져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특히 학창시절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를 서로 이야기할 때 난 조용히 있거나 화제를 돌리기에 바빴다.그렇다고 그땐 좋아하는 분야가 아예 없었느냐?그것은 또 아니다.내 관심사는 또래와는 조금 달랐다.여러가지가 있었지만 매일 저녁 하루를 끝내고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옥신각신하던 주제는 거의 '시사'였다.

그렇다.사실 우리 김씨 가족들은 세상

돌아가는 데에 관심이 많다.내가 초등학교 즈음부터 주위 이야기로 토론을 해왔는데 이때 주제는 사회,전쟁,여성,역사 등등 여러가지이다.대화의 물꼬는 주로 아버지가 트시거나 내가 트는데 토론이라고 해서 꼭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하는 건 아니었으므로,그냥 소위 말해 밥상머리 얘기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화두에 오르는 주제인 '국정농단'에 대해 소재가 많이 나와 요즘 대화가 무척 흥미진진하다.게다가 해당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2항(민주공화국,주권은 국민으로부터)을 유린한 범법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의를 못 참는 가족의 밥상 분위기는 홧홧하게 달아오른다.(정치는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현 사태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책무라 생각한다)그리하여 밥을 먹을 때,차를 마실 때,심지어 컴퓨터를 두들기며 과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조차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화됐다.마치 라디오 처럼 말이다.후에 있을 토론의 소재를 물색하는 시간이기도 하므로 한 눈을 팔아선 안된다.그렇게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하나의 덕후스러운 취미가 있다면 그것은 '추리분석물'을 보는 것이다.그 장르가 애니메이션이든 실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이든 각본에 의해 짜인 예능프로그램이든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그 명단을 꼽자면 명탐정 코난, 히든아이 (폐쇄경로에 녹화된 범죄현장 분석), 여고추리반, 크라임씬(둘 다 예능) 등이 있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일단 재밌다.특히 히든아이라는 프로그램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기에 피의자가 무슨 잘못을 했고 왜 그랬는지,또 이후 어떤 형을 선고 받았는지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 전문가가 설명해주기 때문에 제일 좋아한다.상식이 쌓이는 기분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시험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나로선 어느 혐의가 적용될 지와 후처리가 어떻게 될 지 맞춰보는 복습 겸 실습 시간으로 삼기도 하는데,기행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다.또 기억해 둘 만한 용어나 절차가 나오면 메모장에 적어두기도 한다.혹시 써 먹을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덕후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깊게 빠져있는 분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속성이라 본다.물론 이런 얘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아무한테나 꺼내는 것은 지양하라 하고 싶다.다 떠나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쨌든 관심사 얘기 처럼 늘 즐겁고 계속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란 생각이 든다.

18 18



2024/11/06
wednesday, pm 12:26 | 21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8일차
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무엇인가에 덕후가 되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느 덕후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와 같이 무엇인가에 빠지게 되었다. 그건 바로 영화 '해리포터'이다. 그 전까지 난 그 마법사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 이 영화를 접한 이후 이틀만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두 볼 정도로 푹 빠지게 되었다. 해리포터는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난 시리우스 블랙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다. 그게 시리우스 블랙을 맡은 게리올드만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되는 걸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그래서 이 배우가 나온 영화인 레옹과 에어포스 원 등 여러 영화를 봤다. 더욱 배우로서 멋있었다. 해리포터에 빠진 것인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이어졌다.
가수 중에 내가 빠지게 된 사람은 이문세이다. 아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문세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점점 듣다보니 이문세에 빠지게 되었다. 80~90년대에 나온 노래들이 주이지만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영훈 작곡가가 쓴 이문세 노래의 가사들을 천천치 읽어보면 하나의 따뜻한 시 같은 느낌이 들어 힐링이 느껴졌다. 그 이후 덕후의 삶이 시작되었다. 콘서트를 2번이나 갔다 오고 방송에 이문세가 나올 때마다 꼭 챙겨서 시청했다. 무엇보다 내 핸드폰에 저장된 노래가 이문세 노래밖에 없다, 난 그 정도로 지금까지 과제 할 때나 쉼이 필요할 때 이문세 노래를 틀어놓고 듣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에 대한 덕후가 되었다, 비교적 최근부터 시작된 것인데 20살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 15만원을 지원받고 처음으로 뮤지컬 영웅을 보게 되었다. 그 웅장함과 배우들의 감정적인 노래 실력 그리고 앙상블의 화려함 등이 너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모든 뮤지컬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멋있는 뮤지컬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뮤지컬이 금전적으로 꾸준히 보는 게 힘들다는 현실을 깨닳았다. 그래서 가장 보고 싶은 뮤지컬 2개를 지금 겨우 예매를 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와 알라딘이다. 알라딘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맨 끝 자리를 겨우 잡았다. 그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운이 좋아서 좋은 자리를 잡았다. 이번주 토요일에 보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
내가 덕후가 된 것들에 대해 이번 글을 쓰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빠진 것들로 인해 내 삶의 즐거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도 덕후가 된 영화나 가수 또는 뮤지컬 등이 있나요??

15 19



2024/11/06
wednesday, pm 12:30 | 22읽음
함예원(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축구를 진짜 좋아하게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경기장에서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보는 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스트레스도 싹 날아가는 기분이라, 저는 경기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양한 팀 중에서도 저는 강원FC 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유독 이 팀에 더욱 애정이 갑니다. 강릉, 춘천에서 경기를 챙겨보며 타 지역에 응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사고, 선수들을 기다려
사인을 받는 등 팀 덕질 라이프를 행복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15 6



2024/11/06
wednesday, pm 1:33 | 22읽음
전수현(법학과)

#8일차
[덕후]

덕후란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너무나도 좋아해서 빠져드는
것은 나에게 있어 러닝이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온 것이 러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했었고 전국
대회도 몇 번 나갔었다. 그렇게 수영장을
다니다 보니 '스프린터'라는 수영 동호회의
회장님의 추천으로 동호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고 보니 주말마다
자유수영을, 평일엔 철인 3종을 연습하는
중년층 동호회였다. 부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수영을 다녔지만, 평일엔 부모님은 출근,
나는 등교를 해야 했기에 철인은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허벅지가 두꺼운 걸 보니 달리기하기 좋은
허벅지라고 나를 러닝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다. 그때부터였다, 러닝을 시작한
것이 처음엔 1km, 3km, 5km, 10km
순으로 점점 거리를 늘려나갔다. 처음엔 3km
뛰는 데 30분이 걸렸는데, 이는 경보 정도로
걷는 수준이었다. 점차 시간이 줄어 3km를
20분까지 줄이고 뛰는 거리를 늘렸다.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인지 도통 시간 단축이 어렵다.
첫 10km를 뛰고는 하루를 누워있었다.
무리를 해서일까, 1시간 반 동안 정신력으로
뛰었었다. 쉬거나 지치면 더욱 쳐지기에,
무릎에 무리도 많이 가고 허벅지가 아려오고
허리가 아팠다.

그때부터 러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뛰는
자세, 호흡법, 뛰는 방법, 심폐지구력 증진, 등
유튜브로 하나둘씩 공부하기 시작하며
이제는 오래 뛰어도 상쾌함만 있을 뿐 통증이
없다. 처음에 1시간 반 걸린 10km가 이제는
45분 정도면 뛸 수 있다.
중학교 때는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주말마다
계속 뛰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
학업이라는 핑계로 러닝을 그만두었다. 21살,
인생 최대 몸무게를 달성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기에 무릎에 적응시키며
나에게 맞는 최적의 자세로 뛰었다.
매일 10KM씩, 영하 10도에 눈이 오는
날이든, 폭우가 내리는 날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핑계 없이 정진해나갔었다.
(하지만 이는 곧 객기, 어렸던 나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에서 이렇게
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운동도 쉬어야 근성장이 되듯이 러닝도
쉬어야 허벅지가 회복되고 내일 더 잘 달릴 수
있게 된다. 30분, 고작 30분, 무려 30분,
생각하기에 나름이지만 하루 30분 24시간
중에 30분만 뛰어도, 체력 증진, 다이어트,
폐활량 증가, 등 많은 유익함이 있다.

러닝하기 좋은 장소는, 30분 정도 걸어가면
공지천도 있고, 학교 뒤쪽으로 나가면 소양로
산책길이 있습니다. 삼거리 기준 소양2교를
통과해 우두교로 돌아오게 되면 7KM정도
되는데 운치 있고 노을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산책길, 러닝코스가 됩니다. 만약 산책
코스를 찾고 계시다면 한 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제 하루도 고생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7 7



2024/11/06
wednesday, pm 3:01 | 24읽음
유채원(일본학과)

#8일차
나는 아이돌 덕후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샤이니다. 2021년 2월부터 계속 좋아하고 있다. 이전에도 아이돌을 좋아한 적이 있었지만 샤이니만큼 오래 좋아한 아이돌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기에. 샤이니 멤버들이 다 배울 점이 많지만, 나는 특히 키와 종현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다.
1달 전, 팬사인회에서 키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 '나'를 믿었지, 내가 '잘할 거'를 믿지 않았어. 경험하면 배울 테니까. 실패하면 내가 배울 거라는 걸 아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에 도전하는 그를 본받고 싶다.
나는 마음이 착잡할 때마다 종현이 진행했던 라디오를 듣는다. ('푸른밤, 종현입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이다.) 그 라디오는 생각의 바다와도 같다. 따뜻한 물이어서, 들어가면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그런 바다. 라디오를 들으며 잔잔한 생각의 물결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새 착잡한 마음이 사라진다. 그의 따스한 생각들을 배우고 싶다.
두 번째 이유, 유대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콘서트가 있기에. 콘서트를 갈 때마다, 아티스트와의 유대가 더 견고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이도 더욱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2시간 이상을 서로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즐기니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콘서트에 대한 추억을 조금 풀어보자면, 올해 5월에 있었던 콘서트를 말할 수 있겠다. 콘서트 중에 태민이가 "여러분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뭔지 알아요? 다 미소 짓고 있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저 말을 듣자마자 나는 '샤이니 멤버들도 다 미소 짓고 있어요.'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를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관계는 참 적기에 더욱 소중하다.
나는 평생을 샤이니 덕후로서 살아갈까 한다.

마지막으로 푸른밤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의 말 하나를 써볼까 한다.

달리기를 할 때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세가 넘어지기 바로 직전 자세거든요. 앞으로 고꾸라지기 직전의 도약. 그니까 불안함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불안함이 날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19 9



2024/11/06
wednesday, pm 3:15 | 25읽음
서정원(심리학과)

#8일차
오늘 키워드가 덕후라서 다행이다. 다들 어떤 것 하나쯤에는 푹 빠져있지 않은가? 그래서 글 쓰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클래식에 푹 빠져있다. 이전 키워드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클래식 덕후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야 말겠다. 조금 전에 음악감상실에 들려서 부원 한 명이 러시아 범죄조직 관련해서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노래 몇 곡을 추천해 줬다. '러시아' 하면 현재는 전쟁이 가장 많이 생각나지만, 전쟁 이전 상황에서 유머로 표현해 보자면 '불곰국' 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러시아 불곰이 보드카를 들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라. 강렬하고, 빨갛고, 볼셰비즘 성격이 짙은 보드카를 들고 있는 불곰. 그리고 이에 어울리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소련 시기를 보낸 그는 나라의 탄압 아래에서 정권 친화적인 음악을 많이 썼다. 하지만

교향곡 5번은 달랐다. 이 곡은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붉은 정권에 친화적인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1936년 1월 그의 오페라 곡 '므펜스크의 맥베드 부인'을 관람하던 스탈린이 공연 도중 노골적인 불쾌함을 표시하며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소련지 기관지 '프라우다'는 스탈린의 지령으로 이 작품에 대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어긋나며 지극히 부르주아적이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는 혹평을 실었고, 이후 공연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쇼스타코비치는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혀 스탈린의 대숙청이 이뤄지던 시기에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의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 소비에트 색체가 짙은 교향곡 5번을 작곡하게 된다. 마음은 소비에트에 가 있지 않은데, 살기 위해 쓴 것이다. 이 교향곡의 부제는 "당국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답변"이다.

다음은 교향곡 11번 '1905년'이다. 스탈린 사후 1957년에 작곡된 이 곡은 수많은 악행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배자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된 국민들에 대한 곡이다. 스탈린 사후에 써진 만큼 이 곡은 1905년 1월 9일 제정 러시아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 불리는 학살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곡 시작 후 한층 부풀어 올랐을 때 갑자기 1악장 초반부에서 나온 현악기의 나지막한 선율이 재현되며 분위기가 급변하는데, 멀리서 스네어드럼과 트럼펫 소리가 울리면서 군대의 무력 진압을 예상하게 한다. 곧 스네어드럼이 큰 소리로 튀어나오고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8분음표 위주의 빠른 악구를 키기 시작한다. 이는 여러 성부에 이어지고 겹쳐지며 푸가로 발전하고, 금관악기와 타악기들의 가세로 난폭하게 이어져 유혈 진압의 아비규환을 묘사한다. 스탈린 생전에 이런 곡을 썼으면 그는 아마도 숙청당했을 것이다.

마침 오늘 음악감상실에서 틀 곡을 몇 곡 정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쇼스타코비치 음악으로 소련의 붉은 기운을 느껴봐야겠다.

19 14



2024/11/06
wednesday, pm 3:20 | 22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8일차
"몰입과 덕질 그 사이"

나는 어떤 것에 몰두하는 일이 잦다. 종류나 상황에 관계 없이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사실 나는 내가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유독 한 가지를 파고 드는 성격이라는 걸 깨달았다. 예를 들어 음식 하나에 꽂히면 그 음식을 삼시세끼 몇 일간 먹기도 한다. 가장 오래 먹었던 건 냉면인 것 같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평소에도 면 요리를 좋아했는데 대량 구매를 하고 나니 그것만 계속 먹었던 것 같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일을 하다 힘들면 쉬었다 하거나 나중에 하는데, 나는 일을 하다 말고 자야 하는 순간이 오면 눈을 감아도 머리 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나서 잠이 안 온다. 또 취미생활도 그러하다. 난 한 달 전 취미를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루 인형 만들기를 시작했다.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 이것 저것 만들어봤는데,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루 인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거의 이십 만원 어치는 샀다. 모루 인형만 벌써 스무개 가까이 만들었는데, 아직도 재료가 많이 남았다. 충동 구매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루 인형을 만드는 게 즐거운 거 보면 꽂힌 게 확실한 듯 하다.
이런 나의 성격은 덕질을 하기 최적이다. 내가 만약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에 빠졌다면 아마 지갑에 바람만 들었을 것이다. 컨텐츠와

굿즈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 덕질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다. 그러나 덕질을 할 당시 돈이 많지 않은 청소년이었고, 돈이 없어 돈을 쓰지 못했다. 그 땐 너무 아쉬웠는데 돌이켜보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돈을 썼으면 얼마나 많이 썼을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아득하다.
근데 한 편으로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어린 날이 그립기도 하다. 지금은 바빠서, 돈이 없어서, 피곤해서 열정이 빠진 채 쉬어가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 하고 방학이 되면 나에게 불을 지펴줄 덕질 항목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18 6



2024/11/06
wednesday, pm 4:28 | 21읽음
정우현(철학과)

#8일차

나는 정말 많은 영화들을 봐온 영화 덕후다. 스릴러, 드라마 장르 가릴 거 없이 다양한 영화들을 봐왔다. 어린 청소년기 때부터 친척 형과 매주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행복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취미였던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졌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 스무살에 넷플릭스를 가입하게 됐다. 넷플릭스에서 처음 본건 종이의 집이었다. 지루해도 꾹 참고 하루 종일 종이의 집만 봤다. 결국 시즌 5를 다 보고 그 이후부터 브레이킹 배드를 시작해 다양한 드라마를 봤다. 다시 나는 영상물 시청에 빠져들어 사람들의 추천 영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 동안 400편 정도를 봤다.

영화를 400편 정도 쉼 없이 보다 보면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즐기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영화 속의 시대 배경,그 인물에 대한 감정에 이입을 해야 하는데 디테일적인 사실을 모르면 즐기기 어렵다. 영화의 지식 전달 한계를 느끼고 지식이 알고 싶어진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니 다양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를 볼 때도 다양한 관점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영화,독서는 그래서 나의 빠질 수 없는 취미가 되었다.

좋은 문화생활을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행복이다. 예술을 즐긴다는 것 만큼 아직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건 찾지 못했다. 영화, 독서 등 예술을 즐기며 얻는 이점은 나의 감정에 대한 이해다. 즐기면 즐길수록 감정이 풍부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책과 영화 같은 예술로 당신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다.

영화 추천으로는 한국영화 이끼를 추천합니다!되게 신선하고 재밌어요!

16 17



2024/11/06
wednesday, pm 6:37 | 25읽음
박시연(사회학과)

#8일차
어떻게 나의 이 초라한 글솜씨로 덕후라는 키워드를 글에 녹여낼까 이런저런 화려한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역시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덕후인 대상을 쓰는 것이 가장 두서는 없어도 휘황찬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동물의숲이라는 닌텐도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동물의숲 덕후이다. 첫 동물의숲은 닌텐도 wii로 하는 타운으로

놀러가요 동물의숲이었다. 시작은 오빠가 아빠랑 용산에 가서 사온 게임칩 하나였다. 동물들도 너무 귀엽고,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것과 돈을 갚는 것(?) 모두 중독성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 3학년 여름, 시험 끝난 날 집에서 공허한 마음에 뭘할까 하다가 오빠랑 닌텐도를 켰다. 전에 샀다가 당시에는 흥미가 없어서 그만두었던 튀어나와요 동물의숲을 다시 시작했다. 솔직히 큰 기대 안하고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다. 이후 미션을 하나하나 클리어해가며 알게 되었는데, 마을을 꾸미는 것도 엄청나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있었다. 동물의숲으로 알게 된 상식도 알게모르게 있다. 친절한 동물주민들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들은 내게 큰 행복과 위로와 사랑이 되어주었다. 생일이면 자기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고 말해주는 주민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비싸게 팔리는 곤충들을 채집하고 마스터가 만들어주는 커피 한잔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 초라한 상점이었던 너굴상점이 촌장인 나의 노력으로 콩돌밤돌 백화점이 되었을 때도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직도 중학교 3학년 여름을 생각하면 동물의숲에 미쳐있던 기억이 난다. 주민들에게 받는 편지들도 내겐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었다. 난 동물의숲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한다. 완전 전문가 덕후다. 하루종일 이야기할 수 있다. 덕후란 그런 것 같다.

15 10

2024/11/06
wednesday, pm 8:25 | 18읽음
홍다연(정치행정)

#8일차
저는 '덕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짱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자주 즐겨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저 가끔씩 우연히 볼 때가 있을 뿐, 애니메이션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짱구 가족들이 함께 나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어, 짱구라는 캐릭터가 어떤 매력을 지닌 인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짱구 캐릭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던 제가 짱구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단순하고 귀여운 외모뿐만 아니라, 짱구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유대감과, 짱구 특유의 엉뚱하고 귀여운 행동들이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짱구 캐릭터를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일상 속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짱구 테마로 바꾼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을 주었고, 점차 짱구 관련 제품들을 하나둘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뿐만 아니라, 노트북 배경화면,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노트와 같은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을 짱구 테마로 바꿔갔습니다. 그렇게 짱구의 모습이 점점 제 주변을 둘러싸게 되자, 그 캐릭터는 마치 제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지만, 이제는 짱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짱구의 가족들—짱구의 엄마인 혜리, 아빠인 철수, 그리고 동생인 짱아—와의 관계도 제가 짱구 캐릭터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진지하면서도 때때로 웃음을 자아내는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짱구가 보여주는 천진난만하고, 때로는 엉뚱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짱구는 결국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짱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와 그 캐릭터의 매력은 점점 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짱구와 그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제품들을 일상 속에서 자주 보며,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작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짱구와의 만남은 단순히 하나의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답니다.

14 6



2024/11/06
wednesday, pm 8:40 | 19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8일차
저의 머릿속에서 덕후를 정의해보면 하나에 오래 깊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 덕후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노래도 하나에 꽂히면 1주일은 계속 그 노래를 듣다가 어느 순간 질려서 잘 안 듣게 되기도 하고요. 마라탕같이 인기 있고 대중적으로 맛있는 음식도 일주일에 연속으로 3번은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엔 당기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덕후'라는 말은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애 초기 서로 좋아서 불타오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설렘이 가득 차고, 계속 연락하고 싶고, 매일 같이 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쭉 만나다 보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가 너무 편해져서 설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진 않죠.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기억 속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연애 초기처럼 덕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깊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깊이와 시간이 달라져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죠. 은은하게 좋아하는 것을 남기는 것도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글을 쓰면서 저의 머릿속에 덕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써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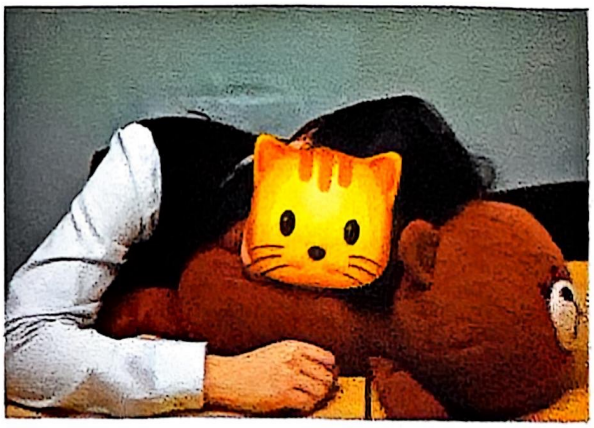
14 5



2024/11/06
wednesday, pm 8:53 | 20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8일차
중학교 1학년 때 카톡, 라인 등 여러 메신저가 생겨났을 때 나는 카톡보다 라인을 더 선호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카카오프렌즈보다 라인프렌즈가 더 친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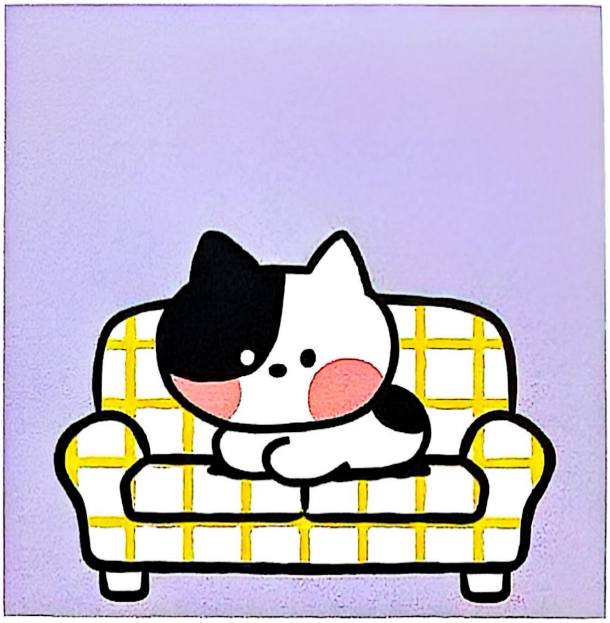
현재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얼굴이 '라이언'이라면 라인프렌즈의 대표 얼굴은 '브라운'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브라운 인형을 산 것을 시작으로 브라운 덕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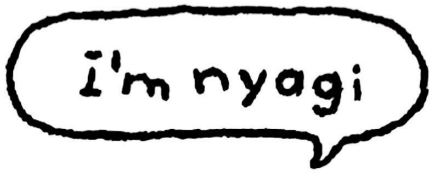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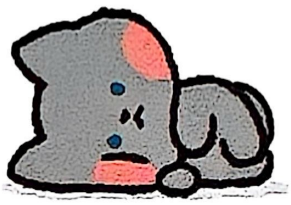
갈색 곰인데 입모양이 비대칭인 것이
특징이자 매력이다.

그렇게 브라운을 좋아하다가
몇 년전 라인프렌즈 세계관의 확장판인
'미니니월드'의 제니니를 좋아했는데
미니니월드의 초기 캐릭터들은
라인프렌즈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더 작고 귀엽게 그리고 작명도
브라운을 브니니, 샐리를 샐리니와 같이
앞글자에 니니를 붙여서 짓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작년에 뉴 미니니의 새 오리지널 캐릭터가
나오면서 회색 고양이 '냐기'에 매료됐다.
참고로 뉴 미니니 시리즈의 캐릭터들은
기존 미니니월드의 작명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냐기 라는 이름으로
기존 니니와는 다른
특이한 이름이 있는 것이다.



제니니





냐기

이렇게 갈대 같이 라인프렌즈
최애 멤버가 바뀌었지만
나는 라인프렌즈 덕후이다!

16 8



2024/11/06
wednesday, pm 9:17 | 19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8일차
덕후
저는 덕후라는 키워드를 초등학생 졸업하는 즈음 쯤에
알게 된 것같습니다. 그 시절부터 좋아하는 것들이 참 다양했었고 지금까지도 다양합니다. 저는 첫번째 로 슬라임 덕후 였습니다. 슬라임 또는 액체괴물이라고도 불리죠. 저는 항상 줄여서 "액괴" 라고 불렀습니다. 슬라임이 그 당시에 엄청 유행이였었고 슬라임이 모든 문구점에 인기대란이였었습니다. 기억에 남는건 아이유 슬라임이라고 , 모형 진주알들을 넣어서 촉감이 좋고 예쁜 슬라임이 대유행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료들을 친구들과 같이 사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반 아이들과 쉬는시간에 조물딱 조물딱하기도 하고 학원가서도 ,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 슬라임 덕후였었기에 인터넷으로 까지 수제 슬라임들을 주문하여 더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원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재료를 대체할 만한 재료는 없을까? 하며 저는 저대로 나름 연구도 했던 것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였고
왜그렇게 슬라임에 빠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덕후로서의 삶이 제 삶에 너무나도 큰 만족도를 주었었고 긍정적인 영향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임을 잘 만들고싶은 욕심에 영상들을 찾아보고 검색하는 이러한 과정이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준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5 8



2024/11/06
wednesday, pm 9:26 | 18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8일차 #덕후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 거의 모든 장르를 섭렵해왔다. 넷플릭스에는 더 이상 볼 애니가 없고, 무협,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일상물 등 다양한 웹소설도 빠짐없이 즐겼다. 그러다 '덕후'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일본 작품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건 만화책과 전개가 조금 다르네'라고 비교하며 보곤 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보다 보니 이제는 스토리 흐름과 결말이 자연스럽게 예측되고, 클리셰들은 너무 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시선이나 색다른 전개가 있는 작품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 주인공의 성장 서사가 뻔한 경로를 따라가면 금방 흥미를 잃고, 작위적이거나 단순히 클리셰를 반복하는 전개에는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 이제는 기존 장르의 틀을 깨면서도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을 보여주는 작품에 끌린다. 하지만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아 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기분이다.

14 7



2024/11/06
wednesday, pm 9:48 | 22읽음
강하늘(심리학과)

#8일차

나는 다꾸 '덕후'였다.

시작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의 "너 이거 알아?"였다.

새로 알게 된 일기를 쓰는 방법과 꾸미기에
나는 그대로 다꾸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친구랑 대량구매로 천장이 넘는 스티커를
사거나 보기가 좋은 종이, 배경지,
떡메(두꺼운 메모지), 마스킹테이프를 정말
계속 샀다..

그렇게 20살.
정신을 차려보니
'서일패(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한복판에
서있는 나의 모습과 일본에서 양 손 가득
다꾸용품든 자신을 발견하였고 지갑은 텅
비어있었다...

그렇게 다꾸에 쓴 비용만 몇백만원을 넘기게
되었다.

그때 '아~~뭔가 잘 못 되고 있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번쩍들었다..

몇년 동안 쓰지 않고 쌓아놓은 스티커,
편지지, 엽서 그 외 등등을 보며
'나는 다꾸가 아니라 이쁜걸 모으는 게
좋았던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21살이 넘어가는 여름에 다꾸용품
구매를 그만두었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곳에 모아 놓은 것들을 팔기 시작했다.

사이트에 올린 물건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고 팔리지 않은 것들은 주변에
나눠주거나 거침없이 버렸다.

사실 버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정말 많이 좋아하고 몰두 했어서인지 버리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버리기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나의 책상 밑 서랍에는 미쳐 다 버리지 못한
다꾸 용품이 쌓여있다.

'언제쯤 다 정리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몇 년간 방치해 둔 스티커
하나를 쓰레기통으로 보낸다..

17 8

2024/11/06
wednesday, pm 10:17 | 20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8일차
#덕후

나는 요즘따라 덕후들이 부럽다. 무난하게
흘러가는 인생에 행복과 설레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덕후가 되는 것이다.
무언가 인생에서 열심히 덕질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취미도 별로 없어서 더 그렇게 느낀다.

나도 한때 덕후였다. 어렸을때 케이팝이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나는 팝송을
좋아하고 , 케이팝은 노래라고 생각도 안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때
같은 반 친구가 어떤 여자 아이돌을 영업하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그
아이돌 주제만 나오면 웃음과 말이 많아졌다.
수업시간 쉬는 시간이면 종종 그 아이돌
영상을 틀어주고 같이 어디를 갈때는 아니 그
멤버가~ 이러면서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다가 나도 어느순간 그 여자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케이팝에서 보지 못한 여자아이돌이였고
너무 실력이 좋았으며 다들 예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웃기고 털털하고
무엇보다 가수에 역할을 정말 잘했었다.

퍼포먼스나 노래를 너무나 잘하고 내가

생각하는 여자 아이돌의 이미지를 깨 준
그룹이였다. 나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이돌을
파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이였다. 웃을일이
없고 힘들때 팬계정에 바로바로 올라오는
활동영상 그날 올라온 예능 영상이
올라온다는 생각에 그것을 기다리고
설레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나는 처음으로 팬클럽에도 가입해보고
앨범도 사서 모았었다. 내 방에는 그 아이돌의
사진과 포스터가 걸려있었고 내가 학원을
갔다오면 나의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책임져
주었다. 그때를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작은
일에도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돌을 파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까지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우습게 보거나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덕질을 하고 나니 오히려 열성적으로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그렇게
좋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좋아하던
아이돌은 활동이 뜸해지고 완전체로 활동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으면서 나의 덕후의
기질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더욱이 아이돌이 아니여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덕후들은 그 작은
것으로도 하루종일 설레고 행복하다. 생각이
많고 걱정도 많은 요즘 나는 더욱이 덕후가
되고 싶다.

15 6



2024/11/06
wednesday, pm 10:38 | 20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8일차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스티커 모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보이면 꼭 사서 모으고 싶어지죠.
스티커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제 소소한
행복과 설렘을 담아낸 조각들 같거든요.
새로운 스티커를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렘은
정말 특별해요. 디자인이 예쁘거나, 색감이
제 마음에 쏙 들면 일단 사서 모으고 보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스티커들을 보면
저만의 작은 우주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하나가 모이면서 제 취향과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제일 최근에 구매한 스티커는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오수입니다)
어떤 스티커는 너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간직하게 돼요.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손에
닿는 곳에 두지만, 막상 아끼고 아끼다 보니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스티커들을 보고 있으면 제 취미와 감정이
작은 조각들에 담겨 쌓이는 느낌이라서 그
자체로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스티커 덕후로서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기쁨을 찾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으는
재미와 그 속의 이야기가 제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13 5



2024/11/06
wednesday, pm 11:21 | 19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쿱)

#덕후 의 방은 무한 증축 중



케이팝 덕질도 어언 15년째.
자각하지 못한 순간부터 내 마음의 방이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 이젠 도대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만큼 불어난
마음의 방엔 각각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 시작은 특정 아이돌이었다.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면 그들의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옷과 헤어 메이크업, 앨범 패키징, 굿즈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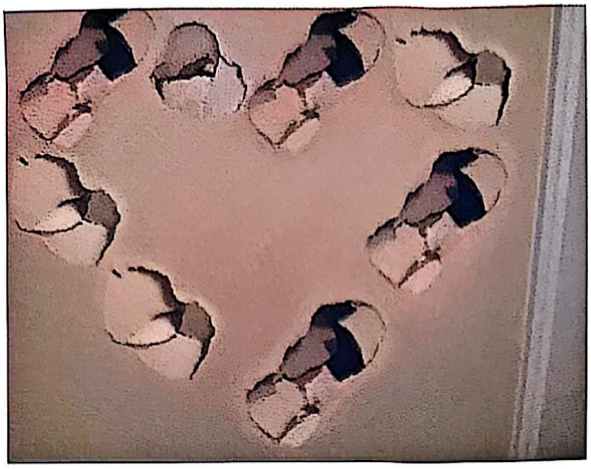
원래도 예술 계열에 흥미를 보이던 나였건만
케이팝은 그야말로 "종합예술" 그 자체였다.
음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이 세계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술의 전당이고 루브르 박물관이다.

그렇게 영역을 넓혀 내 삶의 일부분이 된
'좋아하는 것들'은
주변을 내 색깔로 물들어 가는 과정을 즐거이 지켜보게 한다.

((요즘 내 사랑의 색깔은 녹색이다,,
내 생활반경이 온통 녹색 아이템으로 가득해서 아주 행복하다.))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친다.
그 에너지는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레 전해진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 역시도 그저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난다.
마음의 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내 열정이 새로운 공간을 채워가는 동안
나는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8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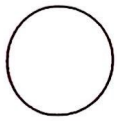
13 7



2024/11/06
wednesday, pm 11:25 | 18읽음
정선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나는 수많은 덕질을 거쳐 기록에 정착했다.
어느 순간 기록 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데, 하루하루 보내며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으고,
여기저기서 나누어주는 스티커를 모으고,
사진을 찍어 프린트해 붙이고, 작게 남긴
메모를 찢어 다이어리에 붙인다.
어찌 보면 쓰레기고, 기록 덕후인 나에게는
소중한 다꾸템. 지금껏 꽤 많은 덕질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남고, 그게 내
추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점에서
이번 덕질이 참 맘에 든다.
영수증을 모으고 여기저기 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아마
기록 덕후..

13 6



2024/11/06
wednesday, pm 11:26 | 18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8일차
저는 사람을 덕질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어릴
때는 배우 김남길 님을 좋아했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 지금도 김남길 님이
출연하는 작품은 꼭 챙겨 보고, 중학생 때
부터는 인피니트의 장동우라는 래퍼를 정말
좋아해서 팬미팅도 따라 가고 팬 계정도 몇 년
동안 운영해서 장동우 님이 제 계정을 아실
정도였어요. 덕질을 통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
사랑인지 배우며 클 수 있었다는 것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저 자신을 덕질하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평생 데리고 살
사람도 결국 나니까 나는 어떤 걸 잘 하는 지,
무얼 좋아하는 지 고민하고 알아 가는 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저는 하루에 한 시간은 꼭 운동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 천국의 계단을 가장 좋아해요.
노래는 밴드 실리카겔 앨범을 제일 많이 듣고
집에 있는 것보단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더
즐거운 것 같고 최근 여행지 중에는 포항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것들 전부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된 제 취향인데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새롭게 쌓일 내
취향은 어떤 걸지, 그것들을 통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을지 기대 돼요.

저는 항상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덕질해왔어서 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었는데, 스스로를 좋아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니까 그토록 좋아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시절 오직 그 때에만 좋아하고 덕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봐요. 더 미련이 없는 이유도 그 때의 내가 그 사람들을 있는 힘껏 사랑해서인 것 같아요.

15 8



2024/11/06
wednesday, pm 11:27 | 16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8일차 #덕후

[스물세 번째 접시]

덕후, 특정 관심사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덕후들에게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들이십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보면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시는 학문에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전해주려 노력하십니다. 특정 학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 속에 하나로 스며든 사람들인 교수님들께서도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덕후들이 알려주는 정보야말로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빠진 만큼,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장 손에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덕후들 사이에서 새로운 덕후들을 양성해내는 덕후 생산 공장 체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4 6



2024/11/06
wednesday, pm 11:31 | 19읽음
박세진(중국학과)

#8일차 #덕후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좋아할 때는 어떤 순간에 확 끌리기도 하고,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 내 일상을 차지한 유튜버가 생각난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끝내고 집에 왔더니 언니가 티비를 보고 있었다.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슈퍼마리오 카트 영상이었는데 3시간 짜리 영상을 나도 모르게 앉은 자리에서 다 봤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게임도 못하고 웃길 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었다.

매일 영상을 보면서도 구독하지 않았는데 빨간 마스크 영상을 보고 무서워서 구독했던 기억이 난다. 트위치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덕질을 시작했다. 나는 한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니 팬카페도 가입했다.

이 분은 정말 매력이 많았다. 일단 방송이 클린한게 마음에 들었다.(클린하다는 것은 욕을 안 쓴다는 것이다.) 게임은 잘 못하지만 입담이 좋았고, 얼굴 자체도 웃기게 생겼고, 옷도 자기 같은 것만 입고. 기타도 잘 치고 손도 예쁘셨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반복되는 학교 야자, 학원, 입시에 치여서 정신이 없음에도 팬카페는 한달에 한번씩 들어갔다. 유튜브 영상은 보지 않았지만, 너무 보고 싶을 때는 계획했던 공부를 70% 이상 달성하면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았다. 어쩌면 내가 힘든 고등학교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준 것 같다.

입시가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서 유튜버

영상만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다. 모두가 아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전세계로 번지게 된 것. 어쩔 수 없는 재해인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 시기였다.

길고 긴 덕후의 덕질은 이제 끝났다. 사생활 논란이 퍼지면서 내가 알던 유튜버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다. 나는 이 캐릭터와 사람을 동일인물로 보았고, 거기서 오는 괴리가 서글펐다. 이미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이 경험 덕분에 다른 연예인을 덕질할 때는 이것을 조심한다. 그래서 과몰입 하지 않고 일상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가족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따스함을 느꼈고, 소속감을 느꼈다. 그래서 감사하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13 10

2024/11/06
wednesday, pm 11:31 | 23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쿱

#8일차

덕후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 같아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만의 열정과 세계가 속에 가득 차 있죠.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몰두하고, 작품 속 작은 설정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깊이 빠져들게 되요 . 굿즈 하나 얻는 것도 이들에겐 단순한 물건 이상이라, 마치 우주를 탐사하듯 새로운 발견을 한 기분이죠. 또, 서로 같은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통하고, 마치 같은 행성에서 온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요.

덕후들은 그 열정을 원동력 삼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남몰래 좋아하는 마음! 다들 무언갈 좋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시길 바라요

Child-mark

15 6

2024/11/06
wednesday, pm 11:41 | 17읽음
김경환(화학과)

덕후라는 단어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덕질의 대상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아이돌을, 또 누군가는 스포츠를, 혹은 문구류를 덕질하며 그 속에서 큰 즐거움을 찾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해?"라는 질문은 정말 수많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자, 그 자체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매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생각만으로도 즐겁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를 고르기 힘들 만큼 고민이 되곤 합니다.

저는 아직 팅장이 될 정도로 깊이 빠져본 덕질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좋아하는 분야가 두루두루 다양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다재다능한 덕후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8일차

12 5



2024/11/06
wednesday, pm 11:42 | 18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8일차 #덕후

나는 나 자신을 덕후라고 여긴 적이 없다. 덕후는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꾸준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나는 하나의 주제를 오랫동안 좋아하지는 않는다. 다만, 3개월 정도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작은 덕후'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이 글을 써본다. 방금 떠오른 표현인 '간헐적 덕후'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나의 간헐적 덕후 연대기를 풀어보려 한다.

<간헐적 덕후 연대기>
1. 도서 시대: 제로니모 책 시리즈
2. 대드라마 시대: 로코 드라마
3. 영화 시대: 해리 포터 영화
4. 넷플릭스 시대: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와 시간여행물

[도서 시대: 제로니모 책 시리즈]
덕후 연대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업 후 종종 부모님을 기다리며 학교 도서관에 머물곤 했는데, 그때 '제로니모의 환상 모험'이라는 책을 만났다. 이 책의 알록달록한 삽화와 빛나는 책등은 지루하던 어린 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고른 책이었지만, 나중에는 시리즈를 모두 읽기 위해 일부러 도서관에 가기도 했다. 이 시리즈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새로 들어온 책이나 인기 있는 책을 보려고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아마 이때부터 모험 판타지물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대드라마 시대: 로맨틱 코미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취침 시간이 늦어지자, 가족들과 함께 저녁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2016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한국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들은 지금의 로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는 모두 로맨틱 코미디였고,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일주일 드라마 스케줄표까지 만들어 본방 사수를 했다. 그때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들을 여기 적어본다:

태양의 후예, W, THE K2,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구르미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역도 요정 김복주, 도깨비 등등.

이후 2017년까지도 이 기조는 계속되었다. 볼 드라마가 고갈되자 예전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특히 이종석과 지성의 연기를 좋아했다. 이종석의 '학교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닥터 이방인', '피노키오'를 밤새워 보았고, 지성의 '킬미, 힐미'도 정주행했다. 이렇게 나의 간헐적 덕후 연대기에서 가장 긴 '드라마 시대'가 지나갔다.

[영화 시대: 해리포터]
영화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더 이상 볼 드라마가 없어 영화로 넘어갔던 것 같다. 이 시기의 중심은 '해리포터'였다. 해리포터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한 번도 극장에서 본 적이 없고, 시리즈의 첫 영화인 마법사의 돌은 내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영화도 2016년 전에 개봉했으니 말이다. 어느 순간 중학생이 되자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총 8편으로, 각 영화가 120분이 넘어 관람에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그 당시 동생과 주말마다 편의점 팝콘을 들고 영화를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모든 영화를 본 후에도 다시 첫 영화를 돌려보며 좋아했다. 그러던 중 운 좋게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갈 기회가

생겨 최애 캐릭터의 지팡이도 구매했다. (참고로, 그 지팡이는 해리의 대부인 시리우스 블랙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리포터에 대한 열정은 점점 줄어들었고, 덕후라기보다는 적당히 흥미로운 것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넷플릭스 시대: 포스트 아포칼립스물과 시간여행물]도 있지만,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져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이처럼 나의 간헐적 덕후 연대기에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다. 하나의 주제에 깊이 빠지는 것보다는, 짧지만 강렬하게 몰두해본 경험들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덕후라 하면 끝까지 파고들고 모든 것을 완벽히 아는 사람을 떠올리곤 하지만, 나는 잠깐씩 깊이 빠져들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는 자유로운 덕후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무엇에 빠져들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설렌다. 간헐적 덕후로서의 삶이 나는 참 좋다.

☺ 15 ··· 10

모임이 쉬워진다!



2024/11/06
wednesday, pm 11:47 | 21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덕후

나를 덕후라고 말할 수 있는 덕질 대상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품샵이고, 하나는 레드벨벳이다.

첫 번째로 소품샵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원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을 좋아한다. 그런 나에게 딱 맞는 장소를 한 두 군데 우연히 방문하다가 '이거다!'하고 딱 꽂혀서 여행을 갈 때면 그 지역의 소품샵을 먼저 싹 찾는다. 다른 사람들이 맛집을 찾는 것처럼 나는 소품 맛집인 소품샵을 열심히 찾는다. 고등학생 때는 용돈이 한정적이라 소비를 많이 하진 못했다. 그러다 스무 살에 코로나를 맞아 성인이 되면 꼭 혼자 여행을 떠나리라는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다. 참고 참다 2022년 1월, 부산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혼자 여행도 처음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곳만 잔뜩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다. 광안리 쪽에 소품샵이 모여있는 길이 있다. 만약 나처럼 귀여운 물건들을 좋아하는 편이라면 추천한다.

두 번째로는 레드벨벳이다. 레드벨벳은 2014년 행복으로 데뷔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어린 나의 귀에 노래가 좋아 뮤직 비디오를 여러 번 감상했던 기억이 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등학생 땐 물질적으로 많이 살 수가 없었기에 덕질에 소비를 하기 보단 노래와 소식만 열심히 찾아보고 들었다. 2018년 피카부로 컴백했을 때 학교 석식 시간에 교실 티비로 뮤직 비디오를 봤었던 추억이 생각난다. 2019년, 나는 고3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2019년에 열린 팬들의 마음에 쏙 들어 레전드로 회자되는 콘서트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속사가 레드벨벳만 콘서트 라이브

음원이나 비디오를 풀어주지 않았기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콘서트를 꼭 갈 것이다. 꾹꾹 참아오던 나의 덕질 소비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사라져 강제로 잠잠하다, 2022년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 했다. 하지만 멤버 3명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콘서트는 취소되었다. 내가 티켓팅한 첫 콘서트였는데 일정 자체가 사라져서 너무나도 아쉬웠다.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던 2023년, 레드벨벳이 드디어 다시 콘서트를 열었다. 유명 안무가인 최영준이 맡아 진행된 콘서트였다. 그동안의 한을 풀듯 서울에서 열린 이틀 모두 참석해 정말 행복했다. 취소표를 잡아 무대 바로 앞 3번째 줄에서 멤버들을 봤는데 새삼 실제로 존재한다는 실감도 났다. 레드벨벳은 워낙 음악성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수록곡 맛집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던 공연이었다. 올해 8월엔 10주년 기념 팬 콘서트가 열렸다. 중학교 1학년이던 때부터 대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활동을 쉬지 않고 달려온 레드벨벳은 나의 학창시절을 온전히 함께해 더욱 의미가 크다. 벌써 10년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멤버들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실 아이돌에겐 마의 7년이라는 말이 있다. 계약기간인 7년이 지나면 해체되거나, 인기가 떨어져 자연스레 개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레드벨벳은 개인 활동과 더불어 10년째 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10년이 아주 평탄하게 이어져 왔을리 없다. 나만 해도 10년동안 그 속엔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부딪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팀을 지키고, 음악을 함께 하며, 팬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된다는 말을 당연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음악과 멤버들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예쁜 것을 좋아하는 나는 레드벨벳 앨범의 디자인에 매번 취향을 저격 당했다. 앨범의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이미지만 보아도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덕질을 하면서 슬프거나 좌절될 때 위로도 많이 받고 기분도 나아지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 나의 취향에 딱 들어맞은 소품샵과 레드벨벳은 세상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좋아할 것이다.

"11월 26일" 데뷔 10년 만에 아이린 솔로 앨범이 나옵답니다... ^_^ 한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끼리, Band!



14 13



2024/11/06
wednesday, pm 11:57 | 19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8일차 #코알라 #덕후

코알라 덕후

침대에 햇살이 포근하게 비춰
나른해진 상태에서,
코알라의 부드러운 팔랑 털과
동그란 몸집을 보면 기분이
말랑 말랑
보들 보들

코알라는
유약한 것이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건 곧 애정으로 변한다.
이는
말랑하고 동그랗고 보드럽게 자라나고

아주 커져서는,
털 끝부터 닿기 시작해 온 몸을 부드럽게
한다.

이제 무엇을 보아도 마구 샘솟는 애정에,
난 덕이 후한 진정한 덕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14 4



2024/11/06
wednesday, pm 11:59 | 18읽음
박현민(심리학과)

#8일차 #덕후

그들은 나의 전부였다.

나의 10대을 찬란하게 해주었던 그들은 정말
나의 전부였다.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덕심'이라고 하는 덕후로서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듯한 감정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것을.

늘 그렇듯 첫 만남은 미지근한 온도부터
시작됐다. 내가 좋아하던 아이돌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관심이 적은 사람들을 세어보는
게 빠를 정도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받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너 이 아이돌 좋아해?'라는
질문보다 '너 (그룹에서) 누구 좋아해?'라는
질문이 당연시될 정도로 말이다. 미지근한
온도는 점차 빠르게 올라갔으며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졌다. 그 누구보다.

조용한 새벽에도 그 어떤 것보다 내 심장을
설레게 했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게 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에 심장이 뛰었으며,
어떤 것보다 나를 단숨에 행복한 감정이 들게
해주었다. 새벽에 이어폰을 끼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면,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정말 너무 좋아서 목소리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죽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나의 하루는 그들로 인해 돌아갔으며, 맛있는 거, 행복한 걸 보면 그들이 생각났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항상 안 아프길 바랐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하루를 살아갔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나를 안아줬고, 같이 비를 맞아주던 존재였다. 그들 덕분에 나의 감정의 폭은 넓어져갔고, 깊어만 갔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할 감정을 알게 된 것에 행복하다.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렇게 뜨거웠고 나의 뜨거운 마음을 맘껏 표현할 수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튼, 나의 청춘이 되어줘서 고마워

14 3



2024/11/06

wednesday, pm 11:59 | 17읽음

이나영

#8일차 #덕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이 '덕후'라고 말할 정도까진 아니라고 한다. 왠지 덕후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야 하거나, 남들보다 쏟는 시간과 관심이 아주 많아야 한다는 자격이 붙은 느낌이라서 그럴까? 하지만 무언가에 쉽게 덕후가 되어보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혹자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재미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나도 이 말에 격하게 동의한다. 소소한 행복과 좋아하는 것, 사소하더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야 한다. 내가 즐기는 취미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 내 취향은 타인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 올때면 카페를 찾아가 빗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향을 좋아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하는 것, 심심할 때 유튜브에서 아무 단어나 집어넣어 플레이리스트를 검색해보는 것도 나만의 취향이자 습관이다. 그걸 좋아하고, 자주 한다면 나는 일종의 덕후가 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조성진의 피아노 소리와 크로와상 샌드위치 덕후모드이다. 모두 좋아하는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자이언티 -내가 좋아하는 것들

16 5



2024/11/07

thursday, am 12:00 | 18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8일차 #덕후
'덕후몰이상'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비주얼 측면에서 단순히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닌, 팬들을 끌어모으는 흡인력 등 특별한 마력이 있는 멤버를 말한다. 보통 확신의 입덕몰이상, 덕후 몰이상 등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남녀노소를 홀리는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개인적으로 '덕후몰이상 아이돌'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땐 뉴진스 하니가 떠오른다. 처음엔 뉴진스 멤버 민지 덕분에 뉴진스를 알게 되었다. 그러다 점점 하니를 좋아하게 됐는데, 예전부터 연예인 중에 표정 연기를 잘하는 멤버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음악방송에 출연하여 춤추고 노래 부르는 모습과 표정 연기가 제일 눈에 띄는 멤버가 하니어서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다가 도쿄돔에 가서 푸른산호초 노래를 부르는 하니를 보고 더 좋아진 것 같다. 뉴진스가 도쿄돔에 갔다 오고 나서는 확신의 덕후몰이상은 더더욱 하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덕후'는 특정 문화나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덕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이돌의 덕후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여자
아이돌들의 음악 듣기에 관심이나 감정이
있는 것 아닐까 싶긴 하다.

14 3



2024/11/07
thursday, am 12:08 | 23읽음
이덕영

#8일차 글쓰기를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덕후 이야기를 읽으며 즐거웠어요.
덕후의 세계는 끝없이 깊어지고, 빠져들수록
더 재미있죠. 그 열정과 집중력이란... 지금도
어딘가에서 덕질 삼매경에 빠진 친구들이
있겠죠?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덕질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길 바래요.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취향존중! 덕질존중!

17 0



2024/11/07
thursday, am 8:02 | 30읽음
이덕영

#9일차 키워드: 빛나다
오늘의 키워드는 '빛나다'입니다. 빛나는
것은 단순히 밝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빛났던
순간이나, 스스로 빛나고 있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나요? 혹은 반짝이던 무언가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빛나는 순간과 그
감정을 글로 풀어보세요.

14 0



2024/11/07
thursday, am 8:53 | 29읽음
김도은(광고홍보)

#9일차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은 늘 긴장과
함께한다.그래서 무대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에 담긴 중압감에 혹여나 실수하진
않을까,손에 땀을 쥐기 마련이다.하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마침내 모든 무대가
끝났을 때 터져나왔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는 순간을 특별함으로 빛낸다.그것은
무대를 선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것이다.

작년 이맘때 쯤 나는 우리학교 중앙 동아리 중
하나인 한림극회에 소속되어 1년에 한 번
있는 큰 공연인 '우수동아리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상금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였어서 역할 배정 오디션 또한 엄격히
치뤄졌고,운이 좋게 배역을 따는 데
성공했다.베르너 퇴트게스,내게 대사가
처음으로 주어졌던 역할이면서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말 그대로 안티테제이자 메인
빌런이었다.그렇기에 대사량은 매우 많았고
팀에게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밖에
없었으므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대사를 달달 외우고 멍이 들어가며
동선 연습에 몰두했다.(쓰러지는 장면
때문에)

어느 날은 바뀐 동선을 늦게 통보받아 혼선이
생겨 어영부영되기도 하고 팀원이 주말 아침
연습에 늦어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솔직히 조금
곤란했고 이게 맞을까? 싶었다.그래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힘들었지만 보낸
시간만큼 땀방울은 빛나고 있었다.

공연날이 되었다.본공연 4시간 전 모든
리허설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문제가
생겼다.공연 효과음 재생에 문제가 생겨
효과음(총소리)을 아예 음원에다 붙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맙소사.이러면 동선도 동선이지만
원래는 작중에서 내가 총을 총 5번 맞아가며
대사를 해야하는데,총을 맞는 타이밍을
알아서 맞춰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혼란으로 가득찬 머리를
가다듬기 무섭게 우리는 바로 타이밍 맞추기
연습에 돌입했다.그렇게 3시간이 사라졌다.

"한림 극회 나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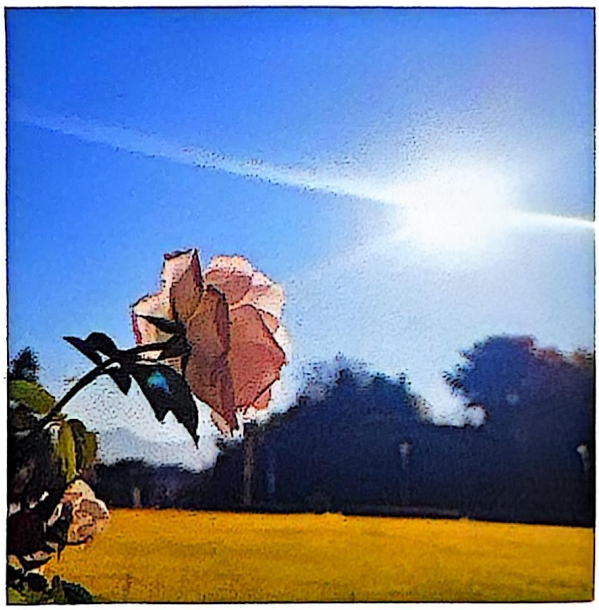
무대 매니저가 우릴 부르자 팀원들은 모두
손을 모으며 외쳤다."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난 속으로 '실수 안하게만
하자'라고 굳게 마음을 장착했다.드디어
무대의 막이 오르고 공연은 순조롭게
시작됐다.비록 내가 중간에 너무 이른
타이밍에 나온 나머지 스포트 라이트가
꺼져있었지만(내 대사는 바로 다음
장면이었다) 기지를 발휘해 '주인공을 몰래
취재하는 첩보기자'같은 구도를
연출했다.자세를 낮춘 채 수첩을 끄적거리고
관객과 표정으로 소통하려 했다.다행히
성공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자
주인공이 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총을
쏴야하는 순간이 왔다.장면이 하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은 보지 못했지만,소품 총을 놓칠
뻔 했던 것 같았다.다행히 주인공은 총을 곧게
잡고 그녀를 절망에 빠트린 악인에게 연달아
총을 쏘기 시작했다.그리고 동시에 무대
아래의 스탭들은 모두가 지켜보며 내가 과연
'타이밍을 맞출 지'확인하고 있었다.아마 그
순간 난 아무 생각과 걱정이 없었던 것
같다.그저 이 역할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와,음악에 효과음을 입혔으니 그
라인을 따라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날
던졌다.놀랍게도 모든 5번의 타이밍은
정확하게 맞아들어가 기자 베르너
퇴트게스에게 비참한 죽음을 선사하며
무대는 막을 내렸다.

5초 간 이어진 정적.난 순간 내가 잘 못했던
건가 하며 불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곧
사방에서 눈부신 조명이 켜지며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아
이거였지.이렇게 빛나려고 몸과 시간과
노력을 불살라가며 우릴 던졌던
거였지.공연을 마치고 내려오자 공연
총괄이었던 동아리 연합회장님이 '몇 년 동안
본 공연 중에 가장 인상깊었다"라고 평을
남겨주셨고,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여기로
공연 보러 늦게까지 남은 게 후회되지
않았다.너무 좋았다'라며 내게 악수를
청해왔다.그 뒤 관객이 쏟아져나오고
어벙벙한 상태로 수십명과 악수를 한 기억이
난다.그때의 영광과 설렘,안도는 내 가슴에
차오르며 그날 밤을 더더욱 빛나게 했다.

지금도 난 그때를 생생히 기억한다.비록
이제는 졸업반이 돼 자취를 그만둬
극회생활을 하진 않지만.대사도 얼마나
연습했으면 아직도 기억날 정도니 말
다했다."속보!카타리나 블룸.흉악한 범인
괴텐을 숨겨주다?"로 시작한 내 첫 한마디는
앞으로도 추억 속 서랍장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빛나는 순간은 늘 기억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19 21

2024/11/07
thursday, am 9:20 | 23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9일차
처음 '빛나다'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노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라는 영화 국가대표 ost인 butterfly라는 노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니 응원의 메세지 같았다. 용기를 내지 못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세상 밖으로 나오렴. 세상이 너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게 너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렴" 이라고 말해줄 것 같다.
그리고 '빛나다'에 대해 생각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떠올랐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빠이다. 아빠는 교회에서 올 여름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의 총책임자를 맡았었다. 200~300명 규모의 전교인 수련회인데 아빠는 기획부터 모든 방문할 곳의 예약을 하셨다. 가끔 내가 아빠를 도왔기에 얼마나 노력하시고 애를 쓰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끝나고 모든 교인분들이 만족해 하실 때 나는 아빠다 너무 빛나보였다. 거의 혼자 다 하셨다는 것을 알고있기에 더욱 빛났다. 그리고 빛나보인 사람은 엄마이다. 예전에 포켓몬 띠부띠부씰이 많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나는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 포켓몬 빵을 몇 개 받은 적이 있었다. 솔직히 이 전까지 띠부띠부씰을 뜯었을 때 흔하고 중복되는 포켓몬만 나왔다. 그러다 엄마가 우연히 하나를 뜯으려고 하셨다. 뜯기 전에 엄마가 형광등에 비춰보았다. 희미하게 무엇인가 보였다. 엄마는 "저거 꼬리 아니야?"라고 하셨다. 수 많은 포켓몬이 꼬리를 가지고 있기에 딱히 기대는 안 했다. 그 순간 엄마가 뜯은 걸 동생이 보더니 "뮤 다!!"를 외쳤다. 순간 모두가 얼음이 됐다. 그리고 바로 시세를 보니 5만원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추억하기 위해 팔지 않기로 했다. 진짜 극악의 확률을 뚫고 뮤를 뽑은 엄마가 너무 빛나보였다. 그 당시 몇 안되는 사람만이 느꼈던 기분이라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빛난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간다. 미래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8 20



2024/11/07
thursday, am 11:10 | 22워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9일차
키워드 "빛나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빛나다" 라는 건 말 그대로 빛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의 빛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동제 축제 5월 22일날 친구들이랑 주점을 가기 위해 주점 예약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수업이 끝나자 마자 친구랑 같이 맨 앞 줄에 서서 3시부터 6시까지 거의 3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힘들었고,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엄청난 각오로 참았습니다. 맨 앞에 섰고, 여기서 나가기엔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기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 주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점에 자리를 잡고 술이랑 음료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들을 가지고 자리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봤는데 어둡고 달이 너무 빛이 났습니다. 축제 때 달이 너무 이뻐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달만 빛났던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주점에서 보낸 추억들도 하늘의 달과 함께 빛이 났고, 저에게 있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추억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저희 집 반려묘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려묘들은 요즘 제 침대에 자주 올라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열심히

모임이 쉬워진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냥이들에게
잔소리를 열심히 해도 서열 꼴등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려묘들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같은
동작,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
반려묘들은 빛나는 남동생들입니다.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냥이들은 서로 장난
치면서 놀고, 햝아주고, 저한테 놀아달라고
달려오는 모습들이 집사가 봤을 때 정말
귀엽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항상 쫓아오고,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 이불이 어지럽혀져
있고, 침대 위에 올라가면 꾹꾹이를 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묘들에게 빛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18 18



2024/11/07
thursday, am 11:48 | 25읽음
김미도(일본학과)

#9일차

항상 남들은 무언가 좋아하고, 몰두하고,
잘하는 것이 있어서 빛나고 있는데, 나는
그런것이 없어 늘 뒤쳐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번 스스로가 빛난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다. 나는 어릴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학창시절에는 교실 구석에서
친구도 없이 맨날 그림만 그리고 조용한
아이였다. 남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던 나에게 그림은 나의 언어였다. 같은
반 아이들이 간혹 내 그림 가져가서 놀리거나
낙서를 하더라도 나는 자꾸 그림을 그렸다.
수업 시간에 집중 안하고 교과서에 낙서를
해서 선생님께 자주 혼나더라도 나는 자꾸
낙서를 했다. 내가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림 그리는게 좋았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부터는 학교 생활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잘 안그리게
되었다. 그맘때 쯤, 이제 나는 그림 그리는
것에 졸업하고자 어릴 때 그렸던 그림을 전부
버렸다.

어느날 어떤 아이가 우리집에 놀러왔다.
어머니께서 내가 초등학생 때 한 번 놀러온
적이 있다는 아이라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났다. 낯선 사람이라 나는 얼른 방에
도망갔다. 그러자 그 아이는 핸드폰으로
그림을 그리고는 나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언니
덕분에 내가 만화가라는 꿈이 생겼다고 했다.
처음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거지?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어릴 때 그 아이가
집에 놀러왔을 당시 기억이 떠올랐다.
놀아주라는 엄마의 부탁으로 할 수 없이 방에
들여보냈다. 워낙 I 100%인간이다보니,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서, 대충 그림이라도

그려주자, 하고 그림을 그려서 줬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 그림을 받는 순간 요리사라는 꿈을 접고 매일 그림만 그렸다고 한다.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은 '아아 어릴 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내가 남의 꿈을 멋대로 바꿔버렸구나 하고. 그러면서도 묘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구나.'
지금도 그 아이는 여전히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일본 미술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라 해외입국이 어려워, 1년이나 돼서야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1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나를 전혀 못 알아보셨고, 내 이름도 부를 수 없었다.
"나 할머니 손녀야. 그림 그리는거 좋아하는 손녀"라고 설명해도 전혀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할머니..."
그러자 2년 전 중학교 3학년 겨울, 내가 한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날에 할머니께 그림 선물을 드린게 생각이 났다. 나는 그 그림을 찾으려고 할머니 댁 안 이곳저곳을 뒤졌는데도,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떤 파일을 발견했다. 그 파일에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드린 그림이 전부 있었다. 어렸을 때 그림 대회에서 상을 탄 그림도 코팅된 상태로 있었고, 장난으로 그린 낙서도 간직하고 계셨다. 그림을 보면서 한 장 한 장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할머니께는 내 그림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 병실에 그림을 붙이고 말했다.
"내년에도 다시 올테니까, 그 때도 건강해야 해"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좋아했다 라고 하면 과거형 같으니, 지금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 그리는 내 모습은 정말 행복해보였고, 그 모습이야말로 "빛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꿈을 꾸기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그것만큼 값진 것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림 그리는게 좋다.



중학생 때 어머니께 드린 선물용 이모티콘(?) 그림

우리끼리, Band!



고등학생 때 미술 동아리에서 그렸던 그림

20 11

2024/11/07
thursday, am 11:53 | 25읽음
서정원(심리학과)

#9일차
#9 '빛나다'
우리나라에는 9월 말에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고, 구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2m 이상 쌓이는 지역이 있다. 나는 군 생활을 육군 부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향로봉 선점중대에서 지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시야가 탁 트여있는 이곳에선 전방 GOP와 저 멀리 북한 GP, 오른쪽으로는 속초 청초호와 영랑호, 그리고 광활히 펼쳐진 동해바다를 볼 수 있다.

#향로봉의 여명(黎明)-근무지의 추억
오늘은 전역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 지났다고 기억이 많이 휘발됐을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의 기억은 쉽게 잊을 수 없는 듯하다. 군대에서의 '순간'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기에 부호화가 잘 되고, 특별한 기억이기에 인출도 잘 되기 때문이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려서 완전군장 상태까지 만드는 데 30분 채 걸리지 않았던 경험, 행군하다가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던 경험,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훈련 일정이 잡혔는데 상황병을 통해 훈련이 취소됐다고 들었을 때, 그리고 금요일 밤 취식연등 시간에 동기들과 TV를 보며 떠들었던 때가 있다. 그 중 향로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은 오전 첫 근무시에 볼 수 있는 여명(黎明)의 시간부터 시작된다. 첫 타임 근무는 새벽이라 너무 춥고, 다들 자고있는 캄캄한 시간에 일어나 부랴부랴 챙겨 입고 나가 근무를 서야 했고, 근무가 끝나면 남은 밥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른 타임 근무보다 가혹했다. 투입 준비를 마치면 K2C1과 실탄을 챙기고 중대 바로 앞에 있는 위병소에 부사수와 함께 들어가게 되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는 사이 저 멀리 동해바다는 아침 상용박명(civil twilight)을 준비한다. 아침 박명은 저녁의 황혼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붉음에서 보랏빛으로 변하는 황혼과는 달리 여명은 수다 떠는소리만 존재했던 캄캄한 검은색 세계를 서서히 붉게 물들인다. 여명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고, 내게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세상을 다른 색으로 빛내는 여명을 보며 부사수와 함께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자연의 광활함 앞에서 부정적인 대화가 오갈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자연 앞에 압도되고 겸손해졌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 나갔다. 전역 후 떠날 여행을 이야기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이야기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긍정적인 사고를 했다기보다는, 상용박명의 시간부터 나를

비췄던 태양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사고였다고 생각한다.

#향로봉의 여명(黎明)-마지막 아침 박명
오늘은 전역 하루 전이다. 같은 중대
사람들한테 소위 '전역빵'이라고 불리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합법적
폭력행위를 당하고 몸이 성치 않은
상태이지만 한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는데
왜 행복하냐고? 이 기분은 직접 겪어봐야
안다. 바로 전역하는 날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오랜만에 한없이
행복한 상태로 자고 나서 향로봉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한다. 이건 우리 중대
문화였는데, 모든 중대원은 전역자를
배웅하기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서
레드카펫을 깔 준비를 한다. 같은 옷을 입은
그동안 추억이 많이 쌓인 중대원들, 간부님과
함께 나를 배웅해주는 건 매일 아침 근무할 때
봤단 아침 여명이다. 선점중대 입구에서부터
위병소까지 중대원들이 양열로 쫙 서있으면
나는 그 레드카펫을 천천히 지나가며
중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가장
가까이 지냈던 동기에게 정말 고마웠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나서
지상까지 내려가기 위해 소전차를 타고
그리웠던 집으로 갈 준비를 한다. 소전차에서
봤던 여명은 평생 잊지 못한다. 전역하는 나를
비췄던 그 불빛은 지금껏 봐왔던 여명중에
가장 따뜻했다.

19 5



2024/11/07
thursday, am 11:53 | 22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9일차
평소 '빛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빛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화려한 식장, 예쁜 드레스, 예쁜
조명들 때문에 빛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순간을
같이 맞이할 수 있어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에게 빛나 보이는 것 같았다. 이와 다르게
무언가 결실을 얻었을 때 자긍심과
성취감으로 행복해하는 모습도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같다. 운동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가 승리를 만끽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아
행복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해하는 모습,
무언가 이뤄서 행복해하는 모습 전부 다 빛나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가장 빛나는 모습은
따로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닿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 목표는 크게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하거나, 취업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작게는 과제를 기간 내에 마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오늘 저녁 메뉴는
뭘 먹을 것인지 열정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꿈도 많고
도전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기회에 나도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늘 할 일을 적어 목표를
만들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16 6



2024/11/07
thursday, pm 12:21 | 27읽음
전수현(법학과)

#9일차

[빛나다]

저는 '빛나다'라는 말을 들으면 별이 먼저 떠오릅니다. 밤에서 별은 하늘에서 항상 빛이 나죠. 맑은 날엔 더 잘 보이고 흐린 날에는 잠시 구름 뒤로 숨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의 별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이기에 더욱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청년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이 적잖이 보이더군요.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 등과 같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별이기에 아름답게 빛나는 거라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세상은 그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현재도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직은 그 능력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경쟁 사회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경쟁에 치이고, 학업 스트레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그대의 생각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알아요. 하지만 부모님이라는 우리의 별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세상 하나뿐인 별이. 누군가를 믿기 어렵다면 부모님을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우울증은 혼자 앓아서 낫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온갖 시련이 닥쳐도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나아가세요. 밤의 별은 구름으로 가려진다고 해서 빛이 꺼지는 게 아닌 잠시 안 보일 뿐이에요. 시련이라는 구름이 그대를 가려도 그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는 별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 옛 생각에 글을 적어봅니다. 우울증에 대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대는 세상 하나뿐인 가장 빛나는 별이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7 7



2024/11/07
thursday, pm 2:39 | 25읽음
홍다연(정치행정)

#9일차
'빛나다'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한림대학교의 중앙동아리인 한빛 사진회가 떠올랐습니다. 한빛 사진회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로, 다양한 출사 활동을 진행하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아리에서는 각자의 개성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종강총회 때에는 사진 품평회를 열어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단순히 사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빛 사진회의 부원이 된지는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매번 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순간을 공유하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유정 역으로 단체 출사를 다녀온 경험인데, 이 출사는 동아리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한 장소에서 특정 테마를 가지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로 김유정 역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림대 FVI 배구 동아리와 협업하여 진행한 경기 관람 출사 활동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스포츠 사진은 그 특성상 순간의 긴박감과 감정을 잘 포착해야 하는데, 그 도전적인 과제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외부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한빛 사진회 야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해피초원 목장으로, 이번 야유회에서는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부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찍은 사진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빛 사진회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그 사진을 통해 또 다른 감정을 나누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취미를 함께 즐기며 배우는 점에서 정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내년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빛 사진회에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출사를 다니고, 사진을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양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빛나는 순간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18 6



2024/11/07
thursday, pm 7:20 | 22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9일차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의 그림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돈도 잘 벌고, 사랑도 받는 그 삶을 고작 한 두푼 벌어먹기도 힘든 나는 동정할 수 없는 걸까. 공감에는 돈이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도 결국 인간이기에 우리는 삶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나는 그들의 무대 뒤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연예인의 무대 뒤 삶이 주목 받음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이 많아졌다. 덕분에 나도 그들의 세계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스타의 삶. 그 이름처럼 빛나고 화려한 삶. 뽀얀 피부, 반짝이는 화장, 눈부신 장신구, 그 모든 걸 비추는 조명까지. 그들은 우상이자, 꿈이자, 빛이다. 대중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고, 대중이 꿈꾸는 걸 실현시킨다.
그들의 삶은 표면적으로 완벽하나, 실제론 그렇지 않다. 연기, 예능, 노래, 춤... 다양한 분야에서 죽을 힘을 다하고 나면 지칠 법도 하지만, 그들은 결국 웃는다. 스치는 표정은 기사화 되고, 몸짓 하나에 평가가 쏟아질지도 모른다. 항상 긴장과 부담으로 올라간 입꼬리는 모순적이게도 아름답다.
인형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인지도는 끝도 없이 치솟는다. 이름만 말해도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줄줄 읊는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꿰뚫고 있다는 건 애정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소름돋는 일이기도 하다.

팬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찾아오고, 친절을 강요하고, 인기를 협박한다. 과연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인기의 절정을 달리던 많은 스타들은 하나 둘 무너졌다. 빛이 밝을 수록 어둠은 짙었다.
그들은 빛을 받아 반짝였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일 수 없었다.
설리, 종현, 구하라, 문빈... 언제나 삶을 찾아 헤매는 인간이었지만 스타라는 이름으로 왕관의 무게를 견디던 사람들. 이제는 정말 별이 되어버린 그들을 떠올린다. 그 삶은 허울 뿐인 영광일까. 축복일 순 없었을까.
사랑받을 외모, 목소리, 심지어 그 어렵다는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니 운도 갖췄다. 그런 삶을 그저 사랑해줄 순 없었을까. 헐뜯고, 할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누군가로 인해 그들의 심장은 어디까지 떨어졌을까.
사랑받기에 견뎌야 하는 시기와 질투. 능력이 있기에 견뎌야 하는 고됨과 인내의 시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의 시선. 그 안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모든 별들을 들여다 보길 바란다. 그들은 행복해서 불행하고, 찬란해서 고독할테니. 눈부심 이면에 놓인 그림자를 바라봐 주길. 그들의 밤이 좀 더 짧을 수 있도록. 빛을 내느라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부디 밤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어둡길 바란다.

18 6

2024/11/07
thursday, pm 8:06 | 22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9일차

빛난다.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아련하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빛나는 모습을 저는 어느 순간 작아질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반짝 반짝 빛나는데 나는 언제 빛을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 지냈을때 이맘때쯤 친구와 운동장에 나가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하늘이 정말 맑아서 하늘에 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지금의 저는 반짝반짝 빛나고 제가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에 대한 자신감이 옅어져 가던 순간이 오더라구요. 나는 반짝일꺼야 나는 빛날꺼야 라고 결심하고 욕심을 내었던 순간에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자 빛을 내기 위해 밟았던 패달에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마음을 쓰면서 하더니 많이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빛나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는 않습니다. 저의 초라한 모습까지 저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의 초라한 모습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 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고 다그치고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악순화는 어떤 곳으로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묵묵히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장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장하게 쓰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하게 빛을 내는 패달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밟는 것 입니다.

그리고 꼭 밝기는 비교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비교의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나를 우울과 무기력에 몰아 넣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성장했는지를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요.

15 6



2024/11/07
thursday, pm 8:16 | 18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9일차 #빛나다
#안전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전함을 느낀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가로등, 방 안을 채우는 따뜻한 불빛은 불안함을 덜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빛은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예기치 않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도와준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다.

안전은 빛과 함께한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지 몰라 불안하지만 빛이 있으면 주변 상황이 명확해지고 자신감을 얻는다. 작은 빛이라도 공간을 밝혀주며 마음속의 불안함을 가라앉힌다. 빛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16 7



2024/11/07
thursday, pm 8:19 | 30읽음
최오영(심리학과)

#9일차

{어디서 들었는데 감동 받은 명언}

초등고학년: 저학년일때가 좋았지
중등: 초등때가 좋았지
고등: 중등때가 좋았지
대학: 고등때가 좋았지
취업: 학생일때가 좋았지
퇴사: 일할때가 좋았지
노인: 젊을때가 좋았지

이제 눈치채셨나요?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거

다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SNS를 하다가 너무 인상깊어서 저장해둔 사진인데, 오늘 주제인 “빛나다”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하던 때가 좋았지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힘든 과거를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삶은 진행중이고, 힘든 것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추가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 문장이었어요.

세상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긴만큼 우리 각자는 그자체로 가치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겪어보지 않은 삶을 이만큼이나

보임이 쉬워진다!

살아냈고, 앞으로를 잘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할 우리가 진정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요?

23 9



2024/11/07
thursday, pm 8:31 | 23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9일차 #빛나다

Adam Levine -Lost Stars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의 빛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잊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빛을 잃고 싶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냥 어느 순간 세상의 강한 비바람 속에서 빛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다. 빛을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답답했던 마음마저 뻥 뚫어주는 푸르고 높은 하늘,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들처럼 적당한 부싯돌들이 다시 당신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혹시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빛을 잃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당신은 잠깐 번데기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일부러 밖에 나가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주실래요? 당신은 아름다운 나비입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시민 지성 한림 연단-나태주 시인 편' 강의에서 나태주 시인께서 직접 수정하신 시 <풀꽃 1>이 생각났다. 그 시를 적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풀꽃 1(수정된)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렇다.

20 9



2024/11/07
thursday, pm 8:36 | 19읽음
박세진(중국학과)

#9일차 #빛나다

세상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과 서포트를 잘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의 일을 수행할 때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주가 되고, 실제로도 그들의 행위는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돋보이는 주인공인 셈이다.

그렇다면, 서포터는 필요 없는 것인가를 따져보았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서포터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단단해진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6명이 맡았을 때 전원이 모두 프로젝트를 이끈다면 과연 완벽할까? 모두가 돋보인다면 개인의 존재감은 크게 남겠지만 프로젝트의 질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만이 최후에 살아 남는다. 묵묵히 일을 하는 서포터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사람이고 싶다. 세상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원하고, 리더십 향상 책과 강연이 넘쳐 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다.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대표자가 빛이 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도 담겨 있다.

그렇다면 빛이 나는 사람은 빛을 내는

사람일까, 아니면 빛이 나게 도와주는
사람일까. 문득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 어두워져야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듯이 "

15 14



2024/11/07
thursday, pm 8:42 | 26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9일차 #빛나다
빛나다는 말을 보고 펜타곤-빛나리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가사를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좋아했다고, 늘 그래왔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한다. 가사 중 “네가 나의
추억이 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닿기를 바라”라는
부분이 있다. 주인공은 그녀와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없지만 주인공에게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추억이 된다. 결국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되고 “이제야 난 나
사랑 앞에선 늘 빛나리”라는 가사로 노래가
마무리된다. 주인공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게
되는 순간 주인공의 사랑은 빛을 뿜어낼
것이라는 가사의 스토리이다.

빛나리라는 노래가 나에게는 조금 특별한데
중학생 때 학교에 지각 방지 라이브라는
프로젝트로 펜타곤이 온 적이 있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게 온 친구들은 강당에서
펜타곤을 볼 수 있었고 늦게 온 사람들은 강당
입구가 막혀서 들어와서 볼 수 없었다. 난
지각을 하지 않아서 펜타곤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 그때는 학교에 온 남자 아이돌이
누군지 몰랐고 빛나리 노래도 처음 들었는데
왠지 우리 학교에서 무대를 하고 간 이후에
펜타곤의 빛나리 노래가 뜨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4 5



2024/11/07
thursday, pm 8:52 | 24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9일차
빛나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게임 bgm이 생각났다.
燦爛 찬란
燦 빛날 찬, 爛 빛날 란(난)

우울하고 긴박한 듯 하지만
마지막에 찬란했던 나날을
회상하면서 끝내는 느낌인데
Bgm 제목은 찬란이다.

찬란은 빛이 번쩍거리거나
수많은 불빛이 빛나는 상태(狀態)임.
또는 그 빛이 매우 밝고 강렬(強烈)함.
이라는데
그 bgm이 저러한가?라면
음 자체로는 아니고,
그 게임과 관련된 상황을 bgm에서
마치 시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빛나다 라는 상태는
광원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우리가 빛나는 순간,
특히 과거의 영광을..

15 7

2024/11/07
thursday, pm 9:05 | 19읽음
이지혜(광고홍보학과)

#9일차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테니'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명언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보여줬던 기억이 있다.
이 친구와 스터디 어플로 공부할 때도 그 친구의 닉네임은 저 명언이었다. 검색해 보니 미국의 연설가인 'Les Brown'이 한 말이었다. 정말 빛나고 싶었던 고3이었다.
달을 향해 쏘면 빗나가도 별이 된다는데, 요즘엔 달을 향해 쏘기까지 재고 재고 재다가 엉뚱한데 쏘는 느낌이다. 망설임이 크다고 해야 할까?
어른들이 보기엔 새파랗게 어리다할 스물둘이지만 대학에서 웬만한 곳에서는 선배님 취급을 받고 얼마 전 에브리타임 새내기 게시판엔 '22학번 이전'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더라.
아, 나 이제 곧 사회로 나가는 고학년이구나. 3학년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했다.

아직 새내기 때가 엊그제 같다. 성인이라고 머리를 핑크색으로 뒤덮고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 패션쇼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고 주어진 자유를 한껏 만끽했다.
참 즐거웠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수업 직전에 일어나 대충 씻고 제일 편한 옷을 입고 크록스를 질질 끌며 수업에 가고 눈은 동태일 때가 더 많다.
학교에서 각 잡고 제대로 꾸며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멋진 달이 되려다 별도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기분이 자꾸 든다. 별도 충분히 빛나는데 자꾸만 달이 되고 싶어 했다.
반짝반짝 빛나고 싶다.

14 8



2024/11/07
thursday, pm 9:25 | 27읽음
정우현(철학과)

#9일차

당신은 어떤 색의 빛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을 보면 한없이 슬퍼집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감성이 느껴져서요. 별만이 낼 수 있는 그 빛을 동경합니다. 달은 너무 밝고 노랗고 이쁘지만 저는 반짝이는 별이 더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반짝여서 눈 부실 정도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별이 되어 언제나 응원해 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소중한 이들에게 반짝이는 소중한 별이 되고 싶습니다.

소중한 별을 따주기보다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별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우리끼리, Band!



20 8

2024/11/07
thursday, pm 10:22 | 23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9일차
빛나다
저는 항상 빛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또 빛나는
과정을 겪어보고싶습니다. 누군가의 빛이
되어보고싶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빛나본 적이 없던 것같아요. 빛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나고 찬란한 인생을
살기위해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달려가고는 있지만 중간 중간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로 목표가 있기는
한건지 제 자신에 대해 의아함이 생기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을지 끊임없이 걱정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적인
문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빛나고싶은
마음만은 항상 간직하고있으니까요.

16 7

2024/11/07
thursday, pm 10:24 | 20읽음
김경환(화학과)

#9일차

오늘은 햇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강하게 내리쬐고,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이런
날씨는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곡은 더 선명하고 소나무는 더 푸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햇빛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함을 느끼는 한편, 이 아름다운 날씨가 곧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빛나는 햇살 속에서, 저는 결국 좋은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잠시 저를 슬프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오늘의 빛나는 햇살은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 합니다.

.

14 7

2024/11/07
thursday, pm 11:02 | 20읽음
유체원(일본학과)

#9일차
나의 빛나는 기억은 해외여행에 갔을 때이다.
특히, 2018년 12월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갔던 때가 제일 빛나는 기억이다. 가서
알함브라 궁전의 야경 같은 예쁜 풍경들을
보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먹은 기억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대성당을 갔었는데 그곳은 가지각색으로
휘황찬란했다. 마치 별세계에 간 듯한 열흘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2020년 2월의 터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n명일 때 다녀왔다. 그때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다. 안 갔으면, 터키 젤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파묵칼레가 얼마나 멋진지, 아야
소피아가 동서양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 등을
몰랐을 터다. 여행의 기억들은 언제까지나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나의 곁을 맴돌 것이다.



스페인 톨레도 대성당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 야경

우리끼리, Band!



터키 아야 소피아

16 6



2024/11/07
thursday, pm 11:07 | 17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9일차 #빛나다

[스물네 번째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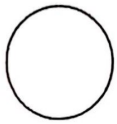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말하고 듣습니다.

너는 빛나는 존재야.

저는 그 말을 믿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단순히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빛나는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친한 사람도 한 번씩 빈말이라도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빛나고 소중한 존재라고들 배웁니다. 그런데 나는 " 그런 " 인간입니까? 겉껍데기는 인간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박사님 등의 인간이야말로 " 인간 " 에 걸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 말을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빛나는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껍질은 인간인 나는 무엇입니까?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2 4



2024/11/07
thursday, pm 11:15 | 16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9일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자체로 늘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무언가가 욕심 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걸 쏟고 싶다는 건 그만큼 나의 삶에 애정이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결국 삶의 태도에서 애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가장 빛난다고 생각해요. 글을 사랑해서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 내려 하고, 언어를 사랑해서 틀려도 서툴러도 다시 읽어 보고, 사람을 사랑해서 후회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곤 해요

이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순간 순간 진심을 다해 임하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할 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무엇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더 스스로의 빛을 잃기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또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나는 이제 막 발광하기 시작했는데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별이었던 사람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그럴수록 내가 사랑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원석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 12 ⋯ 5



2024/11/07
thursday, pm 11:18 | 18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어둠 속에서 #빛나다

전자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만이 나를 감싸는 시간.
어두운 방 안은 모두가 잠들어 사방이 고요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

정적인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 쉬는 듯한 갤럭시 탭의 빛은
-그 이름처럼 우주만큼 넓은-나만의 창작 공간이자 끝없는 상상의 실제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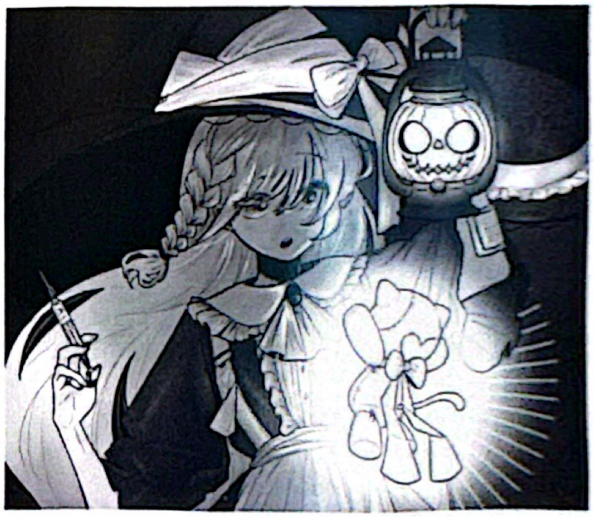
낮엔 과제를 받아 적어주는 필기 메이트였지만
밤엔 내 꿈과 열정을 담아낼 캔버스이기도 하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만큼은 나도 탭처럼 빛나고 있다.
거침 없이 선을 긋고, 여러겹의 색을 쌓으며,
내 손 끝에서 태어나는 창조의 불꽃을 온전히 느낀다.

어둠 속에서도 내 창작의 세계는 찬란히 빛난다.

/

하지만, 마지막으로 창작의 불꽃을 태운 것이 작년 이맘때 쯤이다.
아래 그림이 그 증거이다,,,,,,,,,,,
이후로는 생활에 쫓기느라 바빠 진정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지 못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작년의 나를 뛰어넘는 창작의 불꽃을 빛내고 싶다,,,!!





#9일차

13 6



2024/11/07
thursday, pm 11:21 | 18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9일차
키워드를 보고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한참을 생각해보았어요. 그렇게 골똘히 생각한 결과, 빛나는 순간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찾아온다는 결과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때,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날 밤은 단순히 친구들과의 수다였지만 처음으로 대학 생활에서 나도 함께 빛나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향을 떠나 혼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 사랑니를 빼고 고통이 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누워만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부모님이 당일배송으로 작은 손편지와 약 상자를 보내주셨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울컥했어요. 나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제 삶이 빛난다고 느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별의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산책하자며 불러내었고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는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옆에 있어줬어요. 그 순간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누군가의 암흑 속에 빛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친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봅니다.

13 5



2024/11/07
thursday, pm 11:25 | 14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빛나다

나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1, 2학년으로 코로나로 보내고 미래는 암울하게 느껴져 무기력했다. 단체 활동이 사라졌던 그 때, 나혼자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 휴학으로 작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진로를 정하고 부랴부랴 졸업 전에 뭐라도 해보려는 시도 중이다. 교수님들이 수업마다 꼭 참여하라고 추천하시던 그 비상제를 드디어 처음으로 부스 참여도 하고, 오늘 공연도 보러 가게 됐다.

미디어스쿨 학생들은 특히 열정 있는 친구들이 많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만드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거나, 어도비 툴을

잘 다룬다거나,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
무언가를 이루는 일은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나의 열정은
이도저도 아니게 느껴졌다. 자기 소개서에서,
진로 박람회에서 '직무를 먼저 정해라!'
라고들 말하지만 무언가 뚜렷하게 끌리는
것이 없었다. 뭐 먹고 살지 고민은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만 가득차던 때도
있었다. 역시 사람은 의지가 중요한지,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 일단 닥친
것들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난 후
학교 생활도 풍성해지고 인간 관계도
이전보다 넓어지며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다.

오늘 미디어스쿨 비상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나는 관람자일 뿐임에도
영상과 영화에서 제작하는 학생들의 유머와,
자막과 장면 하나 하나 신경 쓴 느낌이 들어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수능을 위한 공부
이외에, 1년 동안 무언가를 위해 준비한
경험은 어떤 기분일까? 마지막 소감을 말하는
각 팀의 몇 팀장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말이 1년이지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과 팀장이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예상 가지 않는다.

1년 간의 그들의 땀방울과, 또는 남모르게
흘렸을 눈물, 과정의 기쁨까지 모두 껴안아
토닥여주고 싶다. 20대는 아름답다고,
어른들은 좋을 때다 하시지만, 우리에겐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어 마냥 좋다는 말이
야속하게도 들린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있기에 더욱 화려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비상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제작 팀과,
아름다워지기 위한 성장통을 겪는 우리들은
모두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0 8



2024/11/07
thursday, pm 11:55 | 18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9일차 #빛나다

인제의 빛

인제, 그곳의 빛나는 것들은 나를 깨친다
빛나는 햇살
빛나는 눈망울
빛나는 웃음

반짝임은 반사되어 내 동공에 공명을
일으킨다
계곡의 윤슬은 아름답고
친구의 시선은 더 아름답다
빛은 한곳에만 숨어있지 않고
아주 멀리까지 퍼진다
따스함은 발 끝까지 닿아
인제의 밤을 영영 따뜻하게 기억하게 한다.

-
오늘 아침, 강원도 인제에 왔습니다.
춘천보다 더 춥고 산이 많다고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를 가는 버스에서부터
실제의 추위는 체감되지않고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선생님, 같이 동행한 기사님, 인심좋은
밥집 사장님
내 주변의 빛나는 것들이 다른 추억을
가져와줬습니다.
인제는 춥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빛나는
것들을 경험해보시면 따스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제에 맛있는 것도 많구요.ㅎㅎ 다들 놀러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 4



2024/11/07
thursday, pm 11:58 | 17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9일차

어느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작은 집 앞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기 빛나는 별들 보이느냐? 저 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렇게 빛나고 있단다. 모든 이들이 저 별을 보고 희망을 얻고, 꿈을 키워왔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도 별처럼 오래오래 빛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언제나 빛날 거야."

그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별을 하나씩 품었다.

저 별-도리

13 3



2024/11/07
thursday, pm 11:59 | 17읽음
박현민(심리학과)

#9일차 #빛나다

빛나는 걸 생각해보니 갑자기 나의 태몽이 생각났다.
태몽은 어머니께서 금은방에서 가장 크고 빛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하고 훔쳐왔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 태몽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항상 빛나는 걸 좋아했다.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하늘에 있는 별부터 시작해서 빛나는 옷이나 악세사리, 화장품(글리터)까지. 항상 예뻐보였던 것 같다.

그렇게 나 자신도 빛나길 원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행복하며, 누가 봐도 빛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러나 빛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일까? 누군가가 그렇게 봐주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걸까?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빛나는 사람을 정의한다면 내가 원하는 빛남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언제나 인간은 과거를 그리워 하고 자신보다 남의 삶이 더 특별하다고 느낀다. 내가 타인의 삶을 부러워 하며 타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듯, 또 다른 사람도 나의 삶을 부러워 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을 때도 친한 친구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너는 뭘 하든 잘 해낼 것 같아.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라며 말이다. 내가 스스로가 빛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빛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생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이라도 사랑해줘야 한다.

우리는 별의 조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하며, 우리는 별의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어둠이 존재해야 그 빛남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우리또한 힘듦이라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환하게 빛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누군가는 지금이 어둠일지라도 더욱 더 빛날 별이 되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길.

14 5



2024/11/07
thursday, pm 11:59 | 16읽음
강하늘(심리학과)

#9일차

"그래도 나는 내 위에 달은 될 수 없잖아"

'달을 향해 쏘아라 실패해도 별은 될 것이다.'라는 말에 나의 친구가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빛나는 존재이기를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빛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내 친구 역시 높은 하늘위에 별이 되고 싶어했고 하늘을 넘어 우주에 은하수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은하수가 아니라는 것에 아쉬워하는 친구를 보며 생각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의 빛나는 별이지만 그 자체로 은하수이기도 해." 라고 말이다.

나의 빛나는 부분은 때론 나에게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믿고 마음껏 뿜어내라. 그것이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14 10



2024/11/07
thursday, pm 11:59 | 18읽음
이나영

#9일차 #빛나다

다들 '줄불놀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최근에서야 한국에 이런 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쥐불놀이와 헷갈릴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놀이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줄불놀이는 선비들이 향유하던 전통 놀이로, 시와 노래를 곁들인 한국식 불꽃놀이랍니다. 저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선유 줄불놀이에 갔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전통 놀이인 '낙화놀이', '달걀불놀이'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회마을을 흐르는 낙동강과 백사장 건너편에는 부용대라는 70m 높이의 절벽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에서부터 부용대까지 아주 긴 동아줄을 세 줄을 연결합니다. 동아줄에는 뽕나무와 소나무를 빻아 만든 수백개의 숯가루를 달아놓아서, 끝에서부터 불을 붙이면 화려한 빛을 내며 타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하늘에 수놓아지는 서양식 불꽃놀이와는 아주 다릅니다. 한국 전통 특유의 단아하고 잔잔한 모습으로, 하지만 절대 약해지거나 휘청거리지 않는 꿋꿋한 속도로. 심지처럼 곧게 나아가는 모습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혼을 잘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줄불놀이를 보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흘러나오는 구슬픈 전통악기의 소리와 함께 맞이한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에 저도 눈을 떼지 못하고 울컥했어요. 정말정말 아름다운 경험이라 혼잡한 인파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싹 사라졌어요. 내년에 하는 줄불놀이에 한번쯤 가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14 7



2024/11/08
friday, am 12:11 | 21읽음
이덕영

#9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글로 적어준 빛나는 순간들이 각기 다른 의미로 반짝였어요.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 여러분의 글도 각자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순간을 많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16 0



2024/11/08
friday, am 7:48 | 38읽음
이덕영

#10일차 키워드: 선
오늘의 키워드는 '선'입니다. 선은 공간을 나누고 구분 짓는 역할을 하죠. 물리적인 선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해요. 그 선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때로는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선은 어떤 의미였나요? 혹시 그 선을 넘으려 했던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기억이 있나요? 그 선에 얽힌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세요.

19 0



2024/11/08
friday, am 9:58 | 26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0일차
여러분들은 "선" 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마음의 벽, 상호 간의 존중, 예의가 생각나네요.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선배, 동기들의 얼굴을 서로 알아두고 싶은 마음으로 1, 2학기 동안 과, 중앙동아리, 과동아리 개강총회, 과 MT 활동을 참여하면서 술 자리에 갔습니다. 술 자리에 가서 선배들, 동기들이랑 서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금방 어울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선배들에게 말 놓기" 였습니다. 술 자리에서는 놀기 위해서 과 선배들에게 잠시동안 말을 놓았습니다. 말 놓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존댓말을 합니다... 제가 반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다가 제가 "선"을 넘어서 선배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과 선배들에게 다시 존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비슷한 경험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나요?

17 14



2024/11/08
friday, am 11:46 | 21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선 한 사람

'잠시후 2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시고...'

버스가 도착한다는 소리에 정류장에 있던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멍하니 휴대폰만 보다가 어기적 줄을 서는 대학생,
친구와 수다 삼매경에 빠져 깔깔 웃는 중학생,
큰 소리로 통화하는 아주머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시크하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할아버지.

버스 안은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선'지키기가 한창이다.

대학생은 버스 안을 쓱 훑더니 자리 싸움할
기력이 없는지
휴대폰에 고개를 박고 서 있기로 한다.

중학생은 빈 자리를 발견하고는 잽싸게
뛰어든다.
"아싸, 앉아서 간다!" 당당하게 자리를
확보한 아이들이 다시 저들끼리 웃음을
터뜨린다.

하차하기 위해 미리 일어난 승객을 귀신같이
발견한 아주머니 역시
재빠르게 한 자리 차지한다.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은 안중에도
없는지,
"어우, 장날인가봐~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럽게 통화를 이어간다.

한편, 할아버지는 버스 기사님께 경례로
인사를 건네고 여유로이 버스에 오른다.
빈 자리에 슥 앉은 할아버지는 밝기를 최대로
올린 탓에 휴대폰 화면이 승객들에게 모두
보여도 개의치 않고 야구를 본다.

할머니는 짐을 이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그녀의 눈이 노약자석에 닿았다가 떨어졌다.
가장 늦게 탑승한 탓에 이미 만석인 버스,
몸을 한껏 움츠리고 손잡이를 겨우 붙잡은
쭈글쭈글한 손이 애처롭다.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엉덩이들이 달싹인다.
아닌 척 하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할머니께
집중된 탓이리라.

중학생 아이들이 저들끼리 속닥거리더니
할머니를 직접 이끌고 자리에 앉힌다.
짐을 들어다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쪽에 앉으세요! 저희 곧 내려요!"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는 연신 꾸벅거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그 관경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머, 학생들이 너무 착하네~"
자리를 양보하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도 더욱 환해졌다.
야구를 보던 할아버지도,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고 있던 대학생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미소가 서린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빈 자리가
늘어가고 사람들의 '선'은 무의미해진다.
모든 이가 자신의 '선'을 지키려 애쓰지만
결국,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영역 침범을 허용한다.

정류장에 내린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지러이
흩어진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선' 지키기 싸움은 금방
잊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10일차

15 9



2024/11/08
friday, pm 12:00 | 25읽음
전수현(법학과)

#10일차

[선]

'인생은 선이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정체기를 이루는 직선과, 때로는 시련에 마주쳐 곡선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 시기는 곡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다. 신입생, 모든 활동이 막혀 기억이 별로 없는 시절. 2학년의 나이에 군대를 가 전역하고 4학년의 나이에 복학. 내 동기나 친구들은 졸업반으로 졸업 준비를 하거나 이미 졸업해서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빨리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일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진로도 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학점에만 신경쓰고 있는 직선의 상태일지도 모른다.
2년 뒤면 나도 상승 직선을 원하며 살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어느 정도로 친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지켜야 한다. '넌 착한 사람이니까, 잘 받아주잖아'라며 선을 넘는 사람들, 그저 무례해서 넘는 사람들 저마다 각각의 이유로 선을 넘나들며 산다. 선을 넘어 지적을 하면 '왜 이렇게 속이 좁냐'라며 주객전도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싶었던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냥 친하게 대해지는 것이 어색해진 걸 수도 있다. 누군가와 연을 끊거나 손절하는 것을 20살 전까진 아예 하지 못했다. 허나 사회의 맛을 봐서일까, 아니면 그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일까. 첫인상이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다. 하지만 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거절도 못 하고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나의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의 선(善)이자 선(線)이다.

15 8



2024/11/08
friday, pm 3:04 | 20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0일차
나는 '선'이란 키워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서로 간의 선을 넘지 말며 지내자"라는 말을 할 때의 선이 생각났다. 서로 선을 지킨다는 것은 예의와 비슷한 의미인 듯 하다. 나는 평소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 중요시 생각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서로 선은 지키며 지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난 고3 초반까지만 해도 친했던 친구가 생각났다. 초2 때부터 알던 친구였는데 초6 때부터 절친이 됐었다. 분명 중1 때까지는 엄청 순진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점점 성격이 변해갔다. 점점 이 친구에게서 선을 넘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영화관에서 폰 후레쉬를 키거나 팝콘을 던지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등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래도 난 꾹 참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절친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이 친구는 나에게까지 선을 넘기 시작했다.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돈 많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는 공부 잘한다며 나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다. 난 이 친구가 선을 계속 넘어 선 좀 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선을 넘는 행위는 고쳐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 친구의 모습은 전교에 알려졌다. 다른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1학년 후배에게 디엠으로 "같이 술 마실래?"같은 말을 보내는 등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느꼈다. 내가 알던 이 친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또한 평소에 나는 이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결국 나는 절교를 택했고, 이 친구를 멀리했다.
가끔 한 때 변하기 이전의 이 친구와의 추억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립다는 느낌도 든다. "내가 절교하는게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론은 후회 없다. 이 친구의 선 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나를 생각하니 잘한 행동이라 생각이 든다.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 와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절교한 앞에서 말한 친구와 이름이 같았다. 좀 신기했다. 대학에 와서도 내 삶에 이 이름이 함께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지만 대학 와서 만난 친구는 전혀 달랐다. 선을 너무 잘 지켜주며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려하며 예쁘게 하는 친구였다. 오히려 내가 배우고 싶을 정도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잘 지키는 친구였다. 선을 안 지키던 과거에 있던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은 잊고 대학 와서 만난 이 친구와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다!

13 14



2024/11/08
friday, pm 6:57 | 23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0일차
"잇는 자와 잊는 자"

너와 나를 잇는다. 선을 따라 가면 네가 있고, 내가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짙은 선은 너와 나를 연결한다. 네 마음이 힘들면 선을 따라 마음이 전해진다. 찌르르. 떨리는 너의 마음이 나까지 흔들리게 한다. 그러나 난 알고 있다. 너의 떨림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너에게 돌아가는 길에 양손 가득 사랑을 챙겨간다. 맛집에 들러 음식을 사고, 정성 들여 쓴 편지도 챙기고, 네가 갖고 싶다던 작은 인형도 산다. 너를 위한 사랑이 나를 설레게 한다. 행복해할 너를 상상하니 마음이 들뜬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는 듯 달려 너의 집 앞에 닿았다. 수십번 누른 도어벨을 바라본다. 벨을 누르면 놀란 네가 나를 맞아주겠지. 어떻게 왔냐며 양손에 든 짐을 들어주고, 뭐 이런 걸 사왔냐며 누구보다 빠르게 상을 펴겠지. 양손으로 들던 짐을 한손에 몰아 들고 벨을 누른다. 띵동. 문에 귀를 기울인다. 우당탕 거리며 급하게 달려오는 너를 기대한다. 늘상 그랬으므로. 그런데 이상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현관 너머에 나를 기다리는 네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왜, 텅 비어있는 기분일까.

마음을 긋는다. 선 안에는 내가 있고, 그 밖에는 네가 있다. 나는 널 잘 안다. 너는 선하고, 따듯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너는 길을 가다 술에 취해 널브러진 나그네를 보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들쳐 메고 집에 바래다 주었다.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 그 얘기를 들어줬고, 언제 어디서나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갔다. 모든 사람은 너를 좋아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성실하고, 활기차며,

세심한 너를 싫어할 수 없었다. 언제나 나를 위해 달려오는 널 보며 마음이 일렁였다. 울고 있는 나에게 웃어주고, 미워한다는 말에 사랑한다 답해주는 네가 고마웠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처음 본 초록 풍경처럼 너는 나를 밝혔다. 처음엔 눈이 부셨고, 익숙해지니 예뻤다. 평생 바라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내 안에 응어리진 열등과 우울이 넘쳐흘렀다. 주워 담으려 애썼지만 걷잡을 수 없는 나를 알아챘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자꾸 달려오는 너를 발견했다. 그렇게 깨달았다. 너와 나를 잇는 이 선을 끊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선을 그었다. 어쩌면 이 선 안에는 네가 있고, 그 밖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너의 맑음이었으므로.

12 6

2024/11/08
friday, pm 7:13 | 19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0일차

요즘 한국은 사회에서 선이 진해지고 굵어지고 있다.

세대갈등이라는 세대간의 구분선이라든지 개인주의 사회로 변하면서 개인과 다른사람을 구분하는 선, 혹은 가난과 부자의 선은 뚜렷해지고 있다.

불과 십 몇 년 전 까지 내가 어렸을때는 동네 사람들은 낮이면 집 문을 열어놓았었다. 꼭 동네 친구 두명이 모이면 아파트나 주변 집을 돌으며 oo이 놀아도 되나요? 라고 물으며 친구들을 모아서 놀았었다. 그때는 동네 가족끼리도 친해서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동네 친구 집에 부모님께 여쭤보고 들어가서 목을 축이거나 화장실을 썼었다. 그리고 종종 엄마는 집에 음식 재료가 떨어지면 옆지 윗집에게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하면서, 우리집에 있는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다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는 윗 층 집에서 참기름을 가져오는 심부름을 하면서 내려오다 참기름을 계단에 조금 쏟아버렸었다.
그때 아파트내에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난다고 엄마한테 꾸중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정도로 가정집과 가정집 마다 서로 생각해주고 배푸는 등 지금처럼 구분하는 선이 없었다.

또한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세대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급격한 사회의 발전으로 세대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의 노인혐오도 생기며, 지금의 중년층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난과 부자를 나누는 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요즘은 아이들도 잘사는 집 못사는 집을 구분한다고 한다. 언니의 친구께서 아이들이 자기들 끼리 임대 아파트인지, 나라에서 지원을 받은 아파트인지, 자가인지 등을 구분해서 논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이말을 듣고 꽤나 충격적이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소수의 사람들의 명품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며 언제나 행복하고 풍족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등 보여주기 식 삶에 취중해 있다. 이것 또한 가난과 부를 더 뚜렷하게 나누는데 기여를 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선으로 예전에 불편했던 부분들은

줄은건 있지만 과거보다 더 삭막해진 사회를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어떤 선들이 더욱 나타나고 어떤 선들은 희미해질지 궁금하다.

15 9



2024/11/08
friday, pm 7:17 | 22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10일차 #선
#외곽선

오늘 그림을 그리며 외곽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림을 그릴 때 외곽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선명하고 굵은 외곽선으로 인물을 강조하며, 그림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외곽선은 단순히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넘어서, 작품의 분위기를 정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다. 무하처럼 외곽선을 활용하면 그림 속 요소들이 더욱 명확해지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

외곽선의 색깔도 그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하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곽선의 색이 배경이나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대비를 줄 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외곽선의 색과 형태에 따라 작품이 주는 인상이 달라지고,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작품명: 뿌리는 향수
작가: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



작품명: 사계 -봄, 여름
작가: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

14 10



2024/11/08
friday, pm 8:11 | 17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0일차
세상에 직선과 곡선으로 만나
내 주변도 여러 실타래가 엉켜서 이어졌다.
얽히고 설켜서 뒤죽박죽이라도
우리의 타래가 존재할 때 까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의 선을 지킬 것이다.

어느 날 실뭉텅이가 데굴데굴 굴러가
한올 두올 풀어진다면,
우리는 더이상 이어질 수 없다.

아무 날 신호등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너의 발걸음이 차선을 넘는다면,
너는 아마도 다칠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보이지 않는 차선을, 실선
넘지, 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4 6



2024/11/08
friday, pm 8:16 | 19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0일차 #선

[스물다섯 번째 접시]

조금 전에 만년필 관련된 만화를 보고
왔습니다. 만년필로 써진 글씨들을 보니
필체가 참 개성있고 예뻐보였습니다. 전부터
만년필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사각사각
소리와 날카로운 펜촉에서 나오는 알록달록
색채의 잉크, 종이 위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글씨들, 그 글씨의 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부드럽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한
양면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선을 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되었는데, 만년필은 사용하면 펜촉이 사용자
필기 습관에 따라 닳는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 글씨체가 악필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편이라, 만일 만년필을 쓰게 된다면 어떤
모양으로 닳을 지 궁금합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5 7



2024/11/08
friday, pm 8:44 | 23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0일차

우리는 각자의 선을 가지고 있다.이
'선'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해서 누구는
길이가 짧거나 길 수도 있고 색깔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꼭 직선일 필요 없이
구불구불하거나 곡선일 수도 있을
것이다.이렇게 두 점을 이은 1차원의 형태를
선분이라고 하는데,독특한 점은 이 선분들이
여러 개 모이면 2차원인 하나의 면을
이룬다는 것이다.보잘 것 없을 것 같은
선분들이 힘을 합쳐 무려 한 차원의 상승을
이뤄냈다는 뜻이기도 하다.그리고 만들어진
여러 면이 서로 연결되면 언젠가 이것은
하나의 입체도형으로 귀결되며 끝내 2차원이
모여 3차원을 만드는 기염을 토해낸다.

해당 원리는 개인이 이 세상에 홀몸인 점으로
태어나 가정과 학교에서 성장하며 다른
'점'들과 교류해 연결되어 선분들을

만들어낸다.그리고 이 '선분들'에 의해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있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이어지며 사회로 승화하는데,이때 사회란 하나의 입체이므로 화합과 균형이 잘 맞아떨어져야 보기에 좋고 서로 무너지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치인가.모든 존재가 세상에 오기를 혼자인 몸으로 왔다지만 눈을 뭉쳐 눈밭에 굴리면 점점 커져 눈덩이가 되는 것과 같이 선분들이 면이되고 면이 합쳐져 그들 자신만의 형태를 이룬다니...역시 이 세상에 혼자이고 싶어도 점으로서,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선분이나 면으로 뭉치지 않고 외롭게 점으로 남아있는 것이란 불가능할 듯 싶다.자신 스스로가 자연인이나 종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지금도 아마 지구 위엔 수많은 선들이 있을 것이고 선은 다른 선들을 찾아 면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며 이내 도형이라는 총체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곳저곳 새로운 면들을 찾아다니고 있겠지.

나도 언젠가 나만의 면을 이뤄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본다.

16 12

2024/11/08
friday, pm 8:52 | 19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10일차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완전히 다른 나라에 도착한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공 위에서는 하늘과 구름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내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이 비행기는 국경선을 넘어서 내가 도착할 곳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있다 내리면 이제껏 내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가에 올 수 있다는 것도요.

사람간의 관계의 선을 넘는 일도 비행기를 타고 국경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체감할 수 없지만 비행기는 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처럼, 나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떤 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곤 하니까요. 그렇게 관계의 선을 넘고 누군가의 세상에 다다르게 되면 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해외 여행을 하는 것 처럼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비행한다는 건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을 넘어 비행에 성공하든, 넘지 못하고 실패하든 결국 내가 남긴 비행운은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오래 그곳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나는 누군가를 향해 언제든 마음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16 8



2024/11/08
friday, pm 8:57 | 23읽음
최오영(심리학과)

#10일차

선[9] 善

1. 명사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
2. 명사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

성선설과 성악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지지하시나요? 각 관점마다 너무 쟁쟁해서 성무선악설이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저는 선을 생각하니 선과 악이 생각나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지지하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본능적인 이타심을 선이라는 입장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지지해오곤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그 이타심 마저도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 주제는 언제 이야기해도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학우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해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

또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을 실천하셨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꼭 누구나 알 법한 선의가 아니어도 자신이 소소하게 실천한 선도 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셨는데 제가 색다른 관점을 제시했길 바라며,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

14 8



2024/11/08
friday, pm 9:29 | 20읽음
서정원(심리학과)

#10일차
얼마 전 한 후배한테 '선'을 긋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큰 각오를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였다. 본인 과거력의 영향이 컸던 친구였다. 만족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사랑의 총량이 남들보다 많은 이 친구는 늘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완전한, 모순이 가득한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채우려 했다. 사람과의 관계 말고도 글쓰기나 취미 생활에 전념해서 채우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에는 불안해져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추측상 아동기 불안 애착 유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만족감을 위해, 아마도 살기 위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이 친구였어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글을 정말 잘 써서 교수님에게도 칭찬받고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난 친구인데 이런 부분에서 의도치 않은 '흠'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과거력이 딱히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친구보다 선을 잘 긋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전에, 선을 긋는 것은 평범한 나에게도 큰 인지적 노력과 결심을 요구한다. 이전 키워드에서 잠깐 언급한 적 있지만, 나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만약 헤어지거나 짝사랑에 실패한 후 서로가 친구가 되려는 징조가 보이면 바로 선을 긋고 멀리하는 편이다. 이전에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사귀었을 때 혹은 짝사랑 했을 때 나누었던 대화들은 만약 이후 친구사이가 됐을 때 '금지 대화'가 되기 때문에 친구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로 잘 지내다가
언급해서는 안되는 과거 이야기가 흘러나와
서로가 불쾌해지면 이게 친구인가? 그렇지
않고 그 때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친구인가? 두 상황을
모두 겪어보았는데, 이 경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성립할 수 없다. 친구로 성립하려면 두
쪽 모두 헤어져도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아마도 태평양 건너 있는
대부분의 신대륙 사람들의 가치관과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유교문화권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일지는 몰라도, 저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래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 중에 그가 이전에 좋아했고 사귀었던
사람이 있다.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뉘는데, 세게 말하자면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었으면 한다.

13 4



2024/11/08
friday, pm 9:40 | 19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0일차
인간관계에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다.
선을 넘지 않고 선 안에 가만히 있다 보면
타인은 나랑 가까워지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불편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선을 넘어버리면 타인에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나는 누군가가 먼저
선을 넘어와야 나도 스스럼없이 잘 다가가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선에 대해 생각해 보니 사람에 따라 선의
유형도 변하는 것 같다.
가깝고 친한 사이에는 말과 행동이 편안해져
선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할 수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에 선은 존재하기에 선의
유형은 점선인 것 같다. 반대로 교수님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대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행동과 말 하나하나 신경써야하니
굵은 선인 것 같다. 하지만 유형이 변해도
확실한 건 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곡선의 특징 때문에
선을 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다.

13 6



2024/11/08
friday, pm 10:18 | 18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0일차

"선"하니, 작년에 친구와 함께 별똥별을 본
일이 생각난다.

그 날은 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늦은 밤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걸어갔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선이 빠르게
지나갔다. 처음에는 무엇이 지나간건지, 혹은
잘못 본건지, 친구와 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별똥별이였다.
나와 친구는 잠시 벙쪄 있었다.
"우리 지금 별똥별 본거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둘은 서로 놀라움과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똥별은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때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꼈다.
사실 작년에는 뭘 해도 일이 안풀렸던 해였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운이
안좋았던 해인 것 같다. 끊임없는 도전을
했지만, 단 한 개도 성공한 것이 없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더라도, 장애물이
생겼으며, 소중한 사람 3명을 떠나보낸
해였다.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나날이였던, 그 때,
별똥별을 본 것은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게 만들었다. 살면서
별똥별을 우연히 보는 확률은 1%라고 한다.
그만큼 정말 기적같은 일이다. 그날의
별똥별은 마치,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과도 같았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한 번 도전을 하기로 했다.
물론 다 실패했지만 하하.

14 8



2024/11/08
friday, pm 10:19 | 19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0일차 #선

학창 시절에 짝궁과 책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선을 그은 적이 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서로 짝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책상의 선을 넘으면
다 자기 것이라는 일종의 벌칙을 정했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화해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 친구는 잘 있을까 궁금하지만
누구였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다.

내게도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 생활 속에서
선이 존재했을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이가
있었나를 따져봤을 때 관계의 선은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 남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기에는 익숙해졌지만, 선을
흐릿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더 해야겠다.

14 16



2024/11/08
friday, pm 10:19 | 25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10일차 #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을 마주하고,
때로는 스스로 그 선을 긋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들이 때론 우리에게 상처와 좌절을 주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제한하는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선, '외국인'이라는
선, '종교적 소수자'라는 선, '이주
노동자'라는 선, '성소수자'라는 선,
'노인'이라는 선, '한부모 가정'이라는 선,
'아동'이라는 선, 그리고 '나이'라는 선까지.
이 외에도 여기에 미쳐 쓰지 못한 많은 선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허공에 막대기가 있다고
말하니 다른 사람들마저 그 막대기를 피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우리도 그저 그래야 한다고만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그런 선들을 만났다면,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 보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숙여야지!"라고 외치고,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 막대기가 있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겁니다.



Still from Neneh Cherry, Kong, 2018 © Jenn Nkiru

16 7

2024/11/08
friday, pm 10:45 | 18읽음
유채원(일본학과)

#10일차
인간관계에서 선은 비가시적이며 상대적이다. 그런 선들이 쌓이면 면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면은 벽이 된다. 선들은 투명한 벽이 되어, 아무도 본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나 대개, 벽을 세운 본인은 자신이 그걸 세웠다고 인지하지 못한다. 그 사람 눈에는 그저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 보인다.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선은 점점 더 쌓여 단단한 벽이 탄생한다.
벽을 부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심리 상담사나, 눈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 무던한 사람 등이 벽을 부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한번은 벽이 부서지고 나서야 선을 적당히 그을 수 있다.

14 6

2024/11/08
friday, pm 10:54 | 20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10일차
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선 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가벼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까다로우면서도
선을 넘을락 말락 하는 간질 간질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
가벼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을 넘는 다는 것의 표현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례함.
인 듯 합니다. 무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 "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러한 선도 보고 저러한 선도 보고 다양한 형태의 선들을 보았을 것 입니다. 저는 무례함이라는 선을 넘어보는 사람들도 꽤 봐왔고 정말 가지각색 선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듯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각자의 선의 기준을 묻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선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16 8



2024/11/08
friday, pm 11:03 | 22읽음
강하늘(심리학과)

#10일차

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과 개인이 정해놓은 선.이렇게 두 종류의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그 '개인이 정한 선'이 없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 없이 좋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계속 받고 받고 받다가 20살의 어느 밤에 처음으로 나에게 있던 선을 찾았다.

나의 선은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이었다.

친구는 나에게 "너는 나를 너가 생각하는 만큼 좋아하지 않아.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손대면 넌 금방 변할걸?"이라는 말을 하였고 그때 알게 되었다.

내가 타인을 친구를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타인이 부정하고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자만이 나에게는 선이었던 것이다.

그때의 불쾌했던 경험을 지금의 나는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걸 알게 되는건 좋은일이다. 그게 나와 관련된 거여서 더 의미가 있고 좋았다.

실제로 그 이후 친구는 나에게 사과하였고 아직도 친구로 지내고 있다.

나는 때때로 타인의 선을 알고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

나에게는 가벼운 것이 너에게는 선이라면 나는 너를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알고 배려해주는 것이 좋은 대인관계가 아닐까.

18 5



2024/11/08
friday, pm 11:08 | 16읽음
정우현(철학과)

#10일차

나는 항상 아슬아슬한 선을 타는 걸 좋아했다. 내가 장난기가 많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그런 외향적인 성향 같은 부분도 있지만 내 선을 정확히 만들지 않은 이유가 컸다.

상대가 장난을 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준 적이 요즘 많았다. 그래서 내 선에 대해 고민해 보고 기분이 나쁜 포인트들을 정리했다. 정확히 내 기준을 세우고 남에게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확실히 남들에게 기분 나쁠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남의 선을 넘지 않으려면 내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내 기준이 소중하듯이 남의 기준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한다.

13 6



2024/11/08
friday, pm 11:18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0일차
최근에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마련이죠.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반대로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내 주변엔 악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끼리끼리'라는 말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이 결국 나의 본성과 맞닿아 있다는 이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항상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에는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이 있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와는 끝내 안 좋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들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 이유가 나의 어떤 악한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내가 '악한 사람'이라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내가 겪은 일들이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아픔은 서로의 다른 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 또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상처입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가 그런 아픔을 겪은 이유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 나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내가 경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마다 내 안의 선한 본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과 악은 단순히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었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선과 악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 변화하는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끼리끼리라고 느껴졌던 그 생각도, 그 자체로는 한 가지 진리일 수 있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나갈지에 대한 선택과 노력일 것입니다.

 12  5



2024/11/08
friday, pm 11:28 | 18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0일차
키워드는 '선'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과 비슷하게
가느랗고 길다랗다고 표현되어서 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붉은 실 이야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붉은 실로 이어졌다는 건 마치
운명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깊은
인연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붉은 실이 운명적인 연인을 잇는 실로
여겨지며, 중국 전통에서도 붉은 실은 두
사람이 서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붉은 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해당 이야기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실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저 우연으로 보이는 만남이나 관계가
하나하나 쌓여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붉은 실 같은 운명의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특히 누군가와의 인연이
깊어지고 소중해질수록 마치 그 사람과는
처음부터 이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붉은 실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하는 좋은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인연이 우연이 아닌 특별한
연결로 여기게 되면 그만큼 더 애정을 가지고
그 관계를 돌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붉은 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있나요? 혹 붉은 실로 이어진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관계가 있나요?

15 4



2024/11/08
friday, pm 11:42 | 17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10일차

선(線)은 관계를 표현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직선은 두 점을 단순히 잇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담겨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선적 관계는
명확하고 일직선처럼 고요한 신뢰를
보여주는 반면, 곡선처럼 부드럽고 완만한
선은 유연하고 다정한 관계를 암시한다.

또한, 서로 교차하고 얽히는 선들은 마치 우리
삶 속 다양한 인연과 같다.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 관여하고 흔적을
남기며, 그 짧은 만남은 새로운 흐름과
스토리를 만든다. 교차 후 각자의 길을
가지만, 그 만남은 삶 속에 하나의 의미 있는
흔적으로 남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곡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형상을 만들며, 마치 관계가 깊어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닮았다. 때로는 평행선처럼
나란히 걷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이어져 간다. 선은 단지 형태가
아닌, 관계가 맺어지고 풀리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사람 사이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백야-짙은

13 5



2024/11/08
friday, pm 11:43 | 16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10일차 #선
놀랍게도 '선' 이라는 단어를 보니 x축과 y축 위에 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그래프를 그리는 수업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연상하게 된다. 나는 누군가를 특별히 싫어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나에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소문이나 타인의 말을 통해 미리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된 경우다. 누군가가 내게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거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모를 미리 알게 되면, 정작 내 눈앞에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혼자 상대방에게 조금의 어색함이 자리 잡는다. 처음부터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다 보니, 미처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소문이나 말들이 관계의 장벽을 만들게 된다.

두 번째는 나와의 성향 차이를 느끼거나 상대방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을 때다. 작은 불편함이나 불쾌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기고 만다. 상대방을 완전히 피하거나 멀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고 안좋게 보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관계에 점점 선이 그어진다.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선은 내 안에서만 쌓여가는 생각의 오해와 편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작 상대방에게 내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의도는 없다. 생각해보면 그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굳이 해결할 만큼 친해지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그 선은 내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고 그냥 이렇게 선이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을 대하고 생각하는거에 있어서는 신경쓰이는 선인 것 같다.

11 4



2024/11/08
friday, pm 11:45 | 19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선

선은 항상 넘으면 안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사랑은 선을 넘어야 이루어진다.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것, 선을 절대 넘지 않는다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사랑처럼 선을 넘어야만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 친구나 가족 간의 의가 상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선을 넘지 않는다면, 마음 속 깊은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 이 구덩이는 무한정 묻어둘 수 없다. 묻었던 것 위에 다시 묻는 것을 반복하다 더이상 공간이 남아나지 않은 구덩이는 결국 넘쳐버리고 만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선을 넘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의 이름이 용기라면? 용기의 선을 넘어야만 마음 속 구덩이가

깨끗히 비워진다. 그게 사랑 고백일 수도, 싸우고 난 후의 사과일 수도, 상처 받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일 수도, 당신이 행한 일은 나에게 부당하니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선을 지킨다는 이유로 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속의 구덩이만 가득차게 된다.

선을 지킨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용기라는 선을 넘자!

14 12



2024/11/08
friday, pm 11:55 | 20읽음
정은지(임상의학통계)

#10일차 #선과악

선은 구분을 짓습니다.
당신과 나를 구분짓고 우리와 저들을 구분짓습니다.
선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내 모습
선을 따라가는 건지 선에 끌려가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선이 있어야 명확하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안의 나는 너무나 많아 나조차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선과 악의 총체인 본연을 떠올리며
서로를 이해해봅시다.

15 5



2024/11/08
friday, pm 11:58 | 17읽음
이나영

#10일차 #선

관계 속에서 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단지 선이 투명하거나, 흐물흐물 잘 늘어나는 사람과 두텁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나뉠 뿐이지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선이 있다.

나의 선은 고무줄처럼 굉장히 유연하다. 누군가의 첫 인상이 좋으면 내 선은 고무줄을 한없이 늘리는 것처럼 저 멀리까지 열리곤 한다. 빠르게 친해지고 싶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부분이 맞지 않아 실망하고 삐끗하면 고무줄이 손에서 튕겨 날아가듯이 선이 한 순간에 좁아진다. 나는 그게 좋지 않다. 좋을 땐 그 사람의 무엇이든 이해할 것 같은데, 막상 모든 것을 품으려기엔 내 마음이 그다지 깊고 넓지 않다는 걸 느낀다. 고무줄을 자꾸 늘리다보면 쪼그라든 상태에서도 늘어나버리는 것처럼, 상처를 받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땐 아주 견고하고 확고한 선을 가진 이들이 부럽기도 하다.

15 9



2024/11/08
friday, pm 11:59 | 19읽음
김경환(화학과)

#10일차
오늘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도로 위의 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의 선들은 단순히 차량의 길을 구분하는 역할을 넘어,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선을 어길 경우, 사회에서는 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그
법이라는 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를 제시하지만,
때로는 그 선을 넘고 싶다는 유혹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나
가벼운 거짓말 같은 일들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며, 그로 인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15 5



2024/11/08
friday, pm 11:59 | 21읽음
박현민(심리학과)

#10일차 #선

"세상이 다정했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부터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미워했다.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도 모자랄 판에 왜 버리는 거지?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왜 바닥에 버리는
거지? 친구들이 버릴 때마다 얼굴을 찌부리며
항상 꾸짖었다. 뭐하는 짓이니.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
할아버지를 꾸준히 믿었다. 할아버지의
정체가 아빠였던 것을 알게 되었어도, 착한
사람이 되기로 말이다. 선과 악이 출발선에서
누가 먼저 출발했을까? 예전에는 무조건
선이라 생각했다. 착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 착한 게 이길 것이라고. 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다 보니 악이 먼저 출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각보다 악한
이들은 너무나 많았고, 이런 악들이 선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세상이 다정하길 간절하게 바라지만,
다정함도 체력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본인에 대한 여유가 조금이라도
존재해야 한다. 한없이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다정함을 바라는 것도 욕심일까.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쟁이를 자처하고 싶다.

15 4



2024/11/09
saturday, am 12:14 | 32읽음
이덕영

#10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글을 통해 각자가 마주했던 선들이
서로 다르고, 그 선을 대하는 태도도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 선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고민하며, 선을
넘고, 지키고, 때로는 선을 지우며 나아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23 0



2024/11/11
monday, am 7:45 | 36읽음
김양선

#11일차 키워드 : 향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의 키워드는
'향기'입니다. 좋아하는 향수,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 땅에서 나는 향기...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향기가 있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향기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향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향기를 파는
산업, 조향사라는 직업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향기와 관련된 추억이나 경험, 혹은
정보를 나눠 봅시다.

17 0



2024/11/11
monday, am 8:37 | 25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1일차

당신이라는 존재는 마치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마음은 당신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그 향기는
점차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때로는
당신의 향기에 이끌려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향기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주고, 결국엔
당신이 남긴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향기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또
다른 사람의 향기는 상쾌함과 새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향기로 서로를
기억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타인의 향기에 이끌려 자신의
향기를 잊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잊어버린 나의 향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니까요.
살다보면 가끔 방황 하고,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때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16 7



2024/11/11
monday, am 9:19 | 20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1일차
오늘은 '향기'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향기 하면
향수에서 나오는 향이 떠오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향수를 뿌린 것처럼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향수 냄새처럼 코에서
느껴지는 향기도 있지만, 사람 속 성격이
향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성격이 향기로 느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성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랑 대학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이러한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인지 궁금해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친구들의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이
친구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법과 멘탈 관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람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줄만 알았고, 멘탈 관리 하는 것이
워낙 힘들지만 저는 제 친구들만큼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성격에서 나오는 향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유치한
면도 있습니다. 어린 애처럼 울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생각 없이 다니고, 저를
아래로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부려먹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안 좋은 향기가 나서 두 번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향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향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15 10



2024/11/11
monday, am 9:57 | 21읽음
전수현(법학과)

#11일차

[향기]

그리움의 향기.

누구에게나 그리워하는 상황, 시간, 인물, 장소 등 많은 그리움의 향기가 묻어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학업, 취업, 등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과거의 있던, 예를 들어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하굣길에 떡볶이를 먹던 것, 같이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며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 등과 같이 큰 미래의 걱정없이 뛰어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찰나의 환기가 될 수 있다. 과거의 그리워하던 사람, 옛 연인, 나와 가장 친했지만 지금은 다른 길을 걷는 옛 인연 등과 같이 마음 한편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다 해서 그 사람과의 향기를 잊었는가. 우리는 그저 그리움을 동력으로 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른다.
나는 계절의 향기를 그리워하고 있다.

봄은, 봄 내음을 가득 담은 꽃을 감상하며 따스하게 감싸는 따듯한 향기

여름이면 바다의 짠 내음을 담은 바다를 거닐던 뜨거운 향기

가을이면 단풍과 낙엽의 내음을 담은 거리를 산책하는 쌀쌀한 향기

겨울이면 연말의 내음을 담은 눈을 보며 1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향기

계절이 모여 인생이 된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 너무나도 감명받아서 개인 SNS에도 올려놨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나한테 계절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이 다르다.

박노해 시인의 '꽃은 짧아서'
봄날의 향기가 느껴오는, 첫사랑의 설렘의 향기가 느껴지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날 아침이면
마음이 설렌다

마을 산길에 첫 진달래가 피고
첫 산매화가 피고 첫 생강나무꽃이 피고
첫 히어리꽃이 피고 첫 산벚꽃이 날리고

꽃은 짧은 것!
반복되는 일에 매달려
첫 꽃 피는 날들을 놓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생은 짧은 것!
남들의 인정에 매달려
꽃 피는 날을 허비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해버렸다
꽃은 짧아서, 생은 짧아서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15 4



2024/11/11
monday, am 10:50 | 21읽음
유채원(일본학과)

#11일차
향기를 떠올리니 저는 지하철에서의 델리만쥬 향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배가 한계라고 외쳐대는데도, 노릇노릇한 빵 냄새에 이끌려 만쥬를 몇 개만 먹고 싶어집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붕어빵 또한 그러합니다.

붕어빵을 떠올리니 겨울 냄새가 떠오릅니다. 건조한 느낌에 산뜻함을 한 움큼 첨가한듯한 겨울향은 매우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이 내리고 난 후에 겨울향이 극대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면 나오는 입김이 마치 겨울향의 가시화처럼 느껴집니다. 더 보고 싶다, 더 맡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집니다.

17 9



2024/11/11
monday, am 11:00 | 21읽음
최오영(심리학과)

#11일차

다들 향수 즐겨쓰시나요?
저는 '향기'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계절에 맞게, 무드에 맞게 뿌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돌려가며 쓰는 재미도 있고, 향수가 바뀜에 따라 계절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향기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길에서 누군가와 지나쳐 갈 때 좋은 냄새가 나면 한 번 뒤돌아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후각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음식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아마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다시 향수 얘기로 돌아와서... 향수는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취향을 알기에도 좋은 수단입니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지, 색다른 향을 맡았다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넓게 생각해보니 자꾸만 '냄새'에 초점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한 학우 분의 글을 통해 우리의 후각은 상상력을 자극시킨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에도 후각은 생각을 자극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겨울간식인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냄새를 맡으며 오늘 하루를 그려보기도 하고, 저녁 냄새는 하루를 되돌아보게 하고요.
물론,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들도 우리를 자극하지만 일부러 숨을 참지 않는 한 외면할 수 없는 후각의 영역은 압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기로 시작해서 향수를 떠올렸다가 끝내 우리의 감각기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과연 실제로는 어떤 감각기관이 먼저 반응할까요? 감각기관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할까요?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글도 마치겠습니다 :-)

16 6



2024/11/11
monday, am 11:05 | 33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1일차

혹시 '프루스트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프루스트 효과란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이라는 영화에서 주요 인물인 마담이
불안해하는 주인공에게 홍차와 마들렌을
대접하며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에서
기인했다.여기서 '홍차와 마들렌'은 찻잎의
향긋함과 마들렌의 고소한 버터향으로
주인공의 어린시절을 회상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는데,이렇듯 어떠한 향기를 맡고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현상을 아울러
프루스트 효과라고 한다.

향기란 참 굉장하다.공간을 보다 더 아름답고
품위있도록 가미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까지 생생히 불러일으키니
말이다.어쩌면 일종의 추억 촉매제일지도
모르겠다.그러고보니 나 역시 향에 관한
추억이 있었다.일종의 그리움(향수)일 수도.

내가 5살 때까지 외할머니께서는 평창
두메산골에 살고 계셨다.나는 그곳을
우리집보다도 좋아했다.그래서 집에 갈 때
쯤이면 항상 차에 타서 안가겠다고
울었다.외할머니와 그 장소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했었기 때문이다.그도 그럴 것이,댁 앞
도랑물은 작은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고 뒷
산은 아늑하게 집을 감싸줬던 곳이라 예뻤고
안마당엔 정원을 가꾸신 덕분에 작약꽃과
맨드라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색채와 향이
만발하던 곳이었다.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작약향(피오니)을 맡으면 외할머니 댁에서의
한 때가 떠올라 그리워진다.어쩌면
할머니께서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오셔서
더 이상 그 풍경을 볼 수 없기에 20년
버금가는 옛 시절을 그리는 마음이 당연한 걸
지도 모르겠다.그만큼 특별하고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향은 기억을 부르고 그 안의 사람까지
떠오르게 만든다.그래서 다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것이겠지.좋은
향이 좋은 순간을 만든다는 말 처럼 그런 좋은
순간들이 모여 또 하나의 좋은
기억으로,누군가에겐 내가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21 19

2024/11/11
monday, pm 12:59 | 24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1일차
저는 향기라는 주제를 보고 제가 애용하는
향수에 대해 소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1학년 때 즐겨
사용했던 딥디크의 '도손'이라는 향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손을 접하게 된
계기는 딥디크의 헤어미스트 제품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향이 나의 이미지와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손'은 제가
좋아하는 꽃향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향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오드뚜왈렛, 오드퍼퓸
제품을 모두 구매하게 되면서, '도손'을
다양한 형태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딥디크 향수의 공병을 모으는
취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되면 무조건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딥디크는 한정판 향수나 특별한
에디션을 자주 출시하는데, 그 중 일부는
디자인이나 향이 정말 독특해서 소장 가치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향수들은 단순히
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패키지 디자인이나
콜라보레이션 요소에서도 큰 매력을 느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딥디크 향수들을 모으면서, 그 향기가 주는 감정의 변화를 즐기고 있답니다. 향수는 그저 나만의 향기를 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딥디크 향수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경험해보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도손'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향인 것 같습니다. 그 향이 나를 둘러싼 분위기나 하루의 기분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느낄 때마다 향수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편입니다. 향수는 그런 점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15 6



2024/11/11
monday, pm 1:42 | 23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1일차
이번 키워드인 '향기'를 보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계절과 날씨가 떠올랐다. 봄과 가을엔 밖으로 나가면 뭔가 산뜻한 향기의 느낌이 있다. 너무 습하지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모든 식물들의 향이 뭔가 산뜻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여름엔 밖으로 나가면 너무 습해서 살짝 꿉꿉한 향? 같은게 난다. 너무 더워 숨이 턱 막힘과 동시에 조금씩 들어오는 향이 꿉꿉함이었다. 겨울에는 뭔가 설명하기 향이 난다. 시원하고 건조한 상태에서의 뭔가 깨끗한 향? 무엇보다 상쾌한 향? 같은 향기가 나는 것 같다. 난 이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겨울의 향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서 숨을 들이키면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 다음으로 생각난 향기는 흔히 말하는 '지하 주차장 향기'이다. 이 향기가 듣기로는 지하 주차장이 자하라서 습한 환경 때문에 나는 곰팡이 냄새라고 들었다. 근데 왜 이 냄새가 좋은지 모르겠다. 나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이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다. 아직도 이 냄새가 왜 좋은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향기는 음식의 향기이다. 그 중에서도 동남아 음식의 향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특히 쌀국수 파는 곳은 근처에서부터 향신료의 향기라 풍겨온다. 나는 이런 향신료 맛을 좋아하기에 관심이 끌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떠오른 것은 학교 근처 '미성카츠'라는 곳에서 파는 안심카츠의 향기이다. 이 곳에서 먹어 본 음식이 안심카츠 밖에 없어서 안심카츠 향기만 맡아봤는데 흔한 돈카츠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한 숯불향 같은 향기가 났다. 그 향기는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더욱 폭발한다. 이 안심카츠의 향기를 생각하니 침이 고이는 것 같다.
뭔가 '향기'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같이 느껴진다. 냄새라는 단어랑 뜻의 차이는 엄청 느껴지지 않는데 냄새라는 단어보다 더욱 긍정적인 뜻을 가진 느낌이 든다. 그래서 '향기'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 밖에 없는 것 같다.

16 13



2024/11/11
monday, pm 6:17 | 20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1일차
“쓸쓸한 겨울 향기”

한 겨울에 길을 걷다 유난히 쓸쓸한 향이 나는 사내를 지나쳤다. 살갗을 파고들어 스민 담배 냄새, 어제 저녁쯤 먹었을 깡소주의 달큰한 냄새.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는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덮고 자는 신문지의 텁텁한 냄새. 손 끝에서 나는 비릿한 쇠 냄새, 어깨 위에 덮인 먼지 냄새. 그 모든 냄새가 한 데 어우러져 고독하고 공허한 한 남자의 향수가 되었다. 낮춰 말하자면 걸인, 높여 말하자면 나그네인 그. 심장까지 파고 든 향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홍해의 기적처럼 그를 둘러싼 인파가 갈라진다. 누군가는 인상을 쓰며 그를 위 아래로 훑고, 누군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쳐다보지 않는다. 철 없는 아이는 코를 틀어 막고 엄마를 올려다 보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소연하고, 그 엄마는 아이 입을 다급히 막으며 짧은 아이 걸음을 신경 쓰지 않고 달리듯 떠난다. 그가 가른 길에는 개척이나 환호 대신 경계와 멸시가 서려있다. 따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그의 걸음 앞에 흩뿌려진다. 그의 낡은 등산화를 찢고 들어간 파편들은 그를 상처입게 한다. 그럼에도 그는 걷는다. 기운 조끼에 양손을 찔러 넣고 벙거지 모자로 시야를 가린 채 앞으로 나아간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낭만도 사랑도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 삶이 주어진 것을 원망하는 듯, 혹은 그러한 삶을 선택한 스스로를 탓하는 듯하다. 그 뒷모습은 집을 잃어 떠나는 초라한 달팽이같다. 무거운 짐인 줄 알았던 보금자리를 잃고 나니 그제야 후회하는 달팽이. 그의 걸음은 꼭 그러했다. 그도 길에 나앉기 전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사위이자, 상사였고, 선배 혹은 후배였을 것이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 한 번 제대로 못해봤더라도, 그도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사랑이었을지라. 그런데 어쩌다 그의 삶은 차가운 시멘트 위를 떠다니고 있을까. 마땅한 부표 하나 없이 길에 떠 있는 그가 눈에 밟혔다. 이미 깊게 새겨진 향과 외모 때문에 어딜 가도 환대받지 못할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가 걷다 말고 잠시 벤치에 앉았다. 바로 보이는 편의점에서 따듯한 음료를 사 그에게 건넸다. 고맙다며 짓는 미소가 씁쓸했다. 그에게선 또 쓸쓸한 향이 났다. 바람에 비릿한 겨울 향과 그의 쓸쓸함이 섞여 불었다. 꼭 반가운 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의 향기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 향은 누군가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쓸쓸함...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모든 기억은 나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16 6



2024/11/11
monday, pm 6:54 | 26일
강하늘(심리학과)

#11일차
'향기'

오늘의 주제를 보자마자 옷을 입고 길을 걷기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적는 것보다 지금 느끼는 '향기'를 적는게 어울릴 것 같았다.

2024년 11월 11일.
오늘의 향기에서는 가을에만 나는 젖은 낙엽 냄새가 밑에서 부터 올라왔다.

가을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의 향기를 맡고 알았다.

가을에 떨어지던 낙엽보다 떨어진 낙엽이 더 많을 때.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보다 바닥에 쓸리는 낙엽들이 더 많을 때.
머리위에 낙엽보다 발 밑에 낙엽에 더 많이 스칠 때.

그게 가을이 무르익었다는 것인가 보다.

가을이 찾아올 때는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 냄새가 나는데
가을이 무르익은 지금은 어째서 비도 오지 않았는데 젖은 낙엽냄새가 나는 것일까?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가을에 나는 젖은 낙엽 냄새는 가을이 갈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가을이 떠나기 싫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오늘과 같이 무언가에 젖은 듯한 낙엽냄새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

나는 가을이 가는 것을 멈출수도 막을수도
없기에 그저 가을하늘을 보고 생각한다.

1년뒤에 기어코 마른 낙엽 냄새와 함께 다시
찾아올 너를 그리고 젖은듯한 향기를 그때의
나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말이다.



p.s. 어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열차를
기다리다가 너무 아름다운 노을을 봤어요.
그 노을을 보니 힘든 하루가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제 옆과
앞의 지쳐보이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 노을을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힘든 월요일을 보낸 분들이 계시다면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기억에 남았던 좋은
순간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좋겠어요.

19 20



2024/11/11
monday, pm 8:09 | 23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11일차 #향기

우리가 떠올리는 추억 속에는 언제나 향기가
함께한다. 어릴 적 집안 가득 퍼졌던 따뜻한
음식 냄새, 설레는 마음을로 열었던 편지지의
잉크 냄샤, 바닷가에서 불어오던 짭조름한
바람의 냄새까지. 향기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어느 순간 불쑥,
향기와 함께 찾아올 때가 있다. 그 향기가
우리를 과거의 한 순간으로 데려다줄 때,
추억은 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다가온다.
이처럼 향기는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감정의 선을 따라가며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다. 추억이란
결국 향기와 함께하는 시간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15 5



2024/11/11
monday, pm 9:47 | 22읽음
서정원(심리학과)

#11일차
#11 '향기'
'향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향수이다.
혹시 여름보다 봄, 가을, 겨울에 주변 '향'들이
더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비에
젖은 토양 냄새, 저 멀리 산 아래 기슭에서
장작 태울 때 나는 냄새. 다른 학우분이
언급했던 지하 주차장 냄새를 맡은
경험말이다. 어떤 과학적 기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이유로 뜨거운 여름과 달리

가을, 겨울만 되면 향수를 뿌릴 때 발향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향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냄새를 맡으면 남보다 더 예민해지지만 좋은 향을 맡으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좋은 향수를 많이들 뿌리고 다니는 가을과 겨울이 좋다.
코튼향(섬유유연제향)이 짙은 향수 빼고는 딱히 지금까지 호불호가 갈렸던 향수를 본 적이 없다. 나는 겨울에는 적당히 프루티하고 우디한 향이 좋은데, 차 향이 가미되면 더 좋다. 달콤함 치사량을 넘을 정도로 프루티하면 상대의 첫인상이 너무 통통 튀어 보이고, 나무와 혼연일체가 될 정도로 우디하면 상대가 너무 딱딱해보이고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래서 적당히 프루티하고 우디한 따뜻한 향이 좋다. 그런데 차 향이 가미되는게 더 좋은 이유는? 이런 향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향을 찾으러 더 현대 서울과 가로수길, 연무장길 곳곳에 있는 향수 매장들을 들락날락했다.

르라보의 향수는 생각보다 많이 인위적이어서 비호였다. 시향지에 뿌렸을 때는 괜찮았던 향이 몇 있었지만 직접 살에 뿌려보니 느낌이 많이 달랐다. 말 그대로 '니치 향수'의 향이 느껴졌달까, 이걸 누가쓰지? 쓰면 다른 니치향수보다 독특해서 좋겠네. 이런 느낌. 딥디크는 오 드 뚜왈렛과 오 드 퍼퓸 모두 타 니치 향수보다 발향이 아쉬운 편이다. 당장은 딥디크에서 유명한 도손과 탐다오가 생각난다. 난 탑 노트부터 베이스 노트까지 무화과 향이 나는 적당히 푸르티하면서 우디한 필로시코스라는 향수를 좋아했는데, 오 드 뚜왈렛은 한 번 뿌리면 향이 3시간도 가지 않고 사라져서 아쉬웠다. 가격 대비 발향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니치 향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샤넬이나 버버리 등 기존 패션 향수들에서 더 귀한 니치 향수 느낌이 난다. 발향 측면에선 이솝 향수들도 마찬가지다. '휠'과 '테싯'이 적당히 우디한 향수로 유명한데, 오 드 코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발향력이 낮아서 아쉽다. 향도 지속력도 좋았던 프레데렉 말의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도 생각난다. "스님이 장미꽃 들고 절간에서 담배 피우는 향"이 이 향수의 설명인데, 직접 맡아보면 실제로 그런 그림이 느껴진다. 내가 다음에 언급할 향수를 사지 않았으면 이 향수는 거의 구입 확정이었다.

'향기에 의한'이라는 뜻을 가진 '바이레도'라는 스웨덴의 니치 향수 브랜드가 있다. 블랑쉬, 모하비 고스트 등이 유명한데, 나는 그 중 '믹스드 이모션'이라는 향수에 푹 빠졌다. 탑 노트에 마테와 달콤한 블랙커런트가 있고, 미들 노트에 내가 원하던 차향, 그 중 '실론 블랙티'향이 있고, 베이스 노트에는 적당한 우디함(버치 우드, 파피루스)이 섞여 있다. 이 향수를 사려고 세달을 기다렸다. 면세점 그 어디에도 재고가 없었고, 공신력 있는 직구 사이트에도 두달 째 매물이 올라오지 않아 직접 가로수길까지 가서 사왔다. 원래 50ml를 사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100ml짜리로 구매하게 되었지만.. 35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괜찮다. 세달을 기다린 향수였으니까..!!

시간관계상 급하게 마무리..

14 6

2024/11/11
monday, pm 10:20 | 20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쿱)

#11일차
향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좋은 향기가 나고 맡아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향에 민감하고 반응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냄새로 추억을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했다고 느꼈던 시절의 부분들이 현재도 가끔씩 떠오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향기인지 기억도 안나고 어떤 향기인지 뭐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향기가 저도 모르게 기억되었는지 어떠한 향기를 맡게 되면 과거의 기억이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잊지말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향기가 주는 기쁨이 저에게는 매우 큰 행복입니다.

14 5



2024/11/11
monday, pm 10:21 | 21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11일차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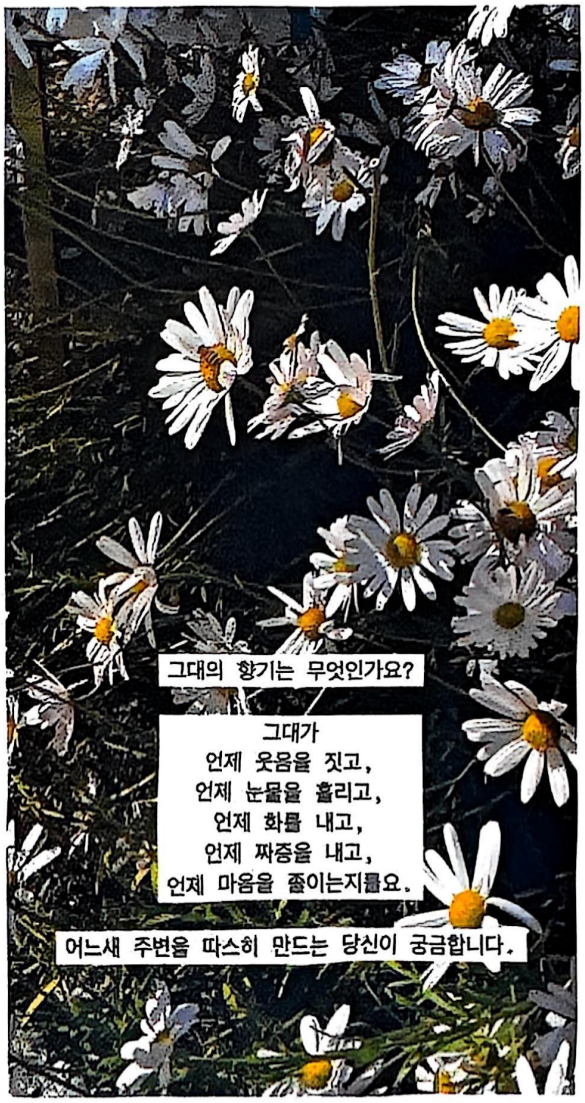
그대의 향기는 무엇인가요?

그대가
언제 웃음을 짓고,
언제 눈물을 흘리고,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짜증을 내고,
언제 마음을 졸이는지를요.

어느새 주변을 따스히 만드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13 3

2024/11/11
monday, pm 10:33 | 18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1일차
고향이 그리울 때 향수병이 걸린다고들 하죠. 그래서 향기가 추억하기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를 맡았을 때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향기를 생각하면 추억이 생각나고, 추억을 생각하면 향기가 떠오르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에게는 향기와 관련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예전 추억을 떠올리면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여서 기억에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냄새가 중독성이 있어 한동안 냄새를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페인트 냄새에서도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오래 맡으면 머리 아프다고 맡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맡았다가 한동안 머리가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냄새들이 하나의 향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냄새로만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 남았던 향기는 고등학생때 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조잔디가 아닌 진짜 잔디가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물을 자주 뿌려주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 때 교실 창문을 열면 물에 젖은 잔디에 산뜻한 냄새가 교실 전체에 퍼져서 아주 좋아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 냄새를 추억하면 당시 하늘과 교실 풍경들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향기로 인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 4

2024/11/11
monday, pm 10:42 | 15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1일차

향기, 향기와 더해진 기억은 오래간다.
우연히 비슷한 향기를 맡게 되면 그 당시의 기억이 살아난다.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를 좋아한다. 향수의 향기가 아닌 섬유유연제 향기가 참 좋다.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그런 향기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집마다의 향기도 있다. 어릴적 가깝게 지냈던 동네 친구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 특유의 향기가 났었다. 바로 그 집 섬유유연제 향기이다.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이 복도를 지나갔을때도 그 향기가 아파트 복도에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사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향기로 내 뇌를 각인 시킨다.

향기는 그 사람을 다시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작년부터 알게된 친구는 옷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났다. 그 집에서 쓰는 섬유유연제 향은 정말 부드럽고 은은하고 맑았다. 겨울에 차가운 공기와 어울리는 향기였다. 어느날 집 근처 카페에 갔는데 그 향기가 너무 강력하게 나 그 친구가 바로 떠올랐다.심지어 두리번 거리며 혹시 설마 여기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 향기 덕분에 그날 그친구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만났을때도 내가 어제 간 카페에 너 향기가 엄청 진하게 나서 너 생각이 났다고 말을 했다. 그 친구는 웃었다.

나는 아직도 그 친구의 향기를 정말 좋아한다.

13 4



2024/11/11
monday, pm 10:50 | 17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1일차 #향기

[스물여섯 번째 접시]

북퍼퓸을 아십니까? 북퍼퓸은 ' 책에 뿌리는 향수 ' 혹은 ' 책에서 영감 받은 향수 '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이 주는 느낌 혹은 책에서 큰 의미를 가진 향을 담은 향수가 북퍼퓸입니다. 독서할 때 그런 느낌의 향이 난다면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 본연의 종이 향이 가장 향기롭겠지만, 좀 더 분위기를 원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질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독서에 관심 있거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다른 재밌는 것도 하나 소개해보자면 ' 워터프루프북 '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은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버려지는 돌을 재활용한 친환경 방수 종이 ' 미네랄 페이퍼 ' 로 제작됩니다. 물에 완전 젖더라도 변형 없이 다시 말려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 편인지라 오늘은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3 5



2024/11/11
monday, pm 10:56 | 19읽음
김경환(화학과)

#11일차
향기를 떠올리면, 저는 영화관 매점에서 나는 팝콘 향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영화도 기대되지만, 그 달콤한 팝콘 향기는 영화관에 왔다는 기분을 더 실감나게 해주며 몰입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도 종종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향기'와 관련된 후각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향기가 나는 TV의 개발 소식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후각과 TV가 결합된 디지털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향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카페 장면에서 커피 향을 영화관에 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

카페를 떠나는 장면이라면, 영화관에 넓게
퍼진 커피 향을 어떻게 제거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스크린이나 스피커와 달리 향기는
그 자체로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향기를 사라지게 하는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농도, 온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돌(C8H7N)이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악취로 느껴지고, 적정 농도에서는
좋은 향기로 인식됩니다. 스피커도 소리가
가까우면 너무 크게 들리는데, 향기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누군가는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향기를
다루는데 매우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향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영화관이나 다른 문화 공간에서 보다 몰입감
넘치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기와 후각의 조절이 가능해진다면,
영화관에서 영화의 주제에 맞는 향기를
제공하거나, 특정 장면에서 향기를 변화시켜
관객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향기의 특성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가 많고, 그 적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와 관련된 기술이 더 발전하면, 향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면
영화관에서의 경험은 시각과 청각을 넘어,
향기까지 더해져 관객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4 5



2024/11/11
monday, pm 11:09 | 15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1일차
어릴 때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에 이끌려서 냄새의 근원을 쫓아서
가보니
흰색 꽃송이 몇 개가 피어있는 꽃치자 나무가
나를 반겼다.
달큰하면서 매혹적인 향기는
내 앞에서 더 강하게 자기를 뽐냈다.
꽃치자 나무의 꽃향기가 어릴 때 맡았던
강렬한 향기의 첫 번째 기억이다.

19살 때 였나? 잉글리쉬 라벤더를
꽃집에서 팔길래 충동 구매로 샀었다.
꽃봉오리가 대부분 오므려져 있는 걸
몇날며칠을 물주고 가꾸니
꽃망울들이 팡팡터져서 연보라색
물결들이 바람에 휘날려 내 코를 간지럽혔던
기억이 있다.

한림대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연푸른색, 흰색, 연보라색의 그라데이션
꽃잎들이 섞여있는 라일락도
매력적인 향기다.
비오던 날에도 그들의 냄새와 비냄새가 섞여
조화를 이루는 라일락,
싱그럽지만 달콤한 라일락도
한 여름 날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이다.

이렇게 향기는 내 안에 저장된
기억의 조향이다.

11 4



2024/11/11
monday, pm 11:13 | 19읽음
정우현(철학과)

#11일차

저는 어렸을 때는 향에 예민한지 몰랐습니다. 항상 집에서 고등어를 튀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화를 냈습니다. 얼른 환기를 시키고 음식을 치우자고 말이죠. 이런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 냄새에 예민하지 않더군요. 처음으로 저가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저는 향수를 사려고 향수를 300개는 맡아봤습니다. 특정 향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향수를 찾기 위해 몇 년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제가 마음에 꼭 드는 향수는 찾지 못했고요.

온갖 유명한 향수를 다 맡아봤는데 향수 특유의 알콜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몸에 뿌리는 바디 스프레이를 사용 중입니다. 향에 예민하다 보니 좋은 향이 맡고 싶어 한 개는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향수인 그랑핸드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11 4



2024/11/11
monday, pm 11:21 | 17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1일차
향기는 단순히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특정 기억의 열쇠처럼 어떤 향기를 맡으면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향은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엄마의 요리'에서 나는 향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던 따뜻한 국물 요리의 향이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부엌에서 풍겨오던 된장국 냄새는 저를 늘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배찜의 향기는 유독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조심스럽게 찌고 도라지와 꿀을 넣어 달콤한 향이 방 안에 퍼지면, 아프다는 불편함보다 엄마의 따뜻한 정성이 먼저 느껴지곤 했죠.
그래서인지 그 음식 냄새는 마치 그때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하는 특별한 열쇠처럼 저를 과거의 소중한 순간으로 데려다줍니다. 요즘은 스스로 요리를 하며 이런 향을 재현해 보려고 하지만 그 향기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까지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때문에 엄마의 요리 향기는 단순한 향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의 편안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향을 맡으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린 시절의 그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향이 있나요?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추억이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을 담은 그런 향기요

12 3

우리끼리, Band!

2024/11/11
monday, pm 11:26 | 17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향기 로운 붕어빵

평소 향수는 나에게 너무 강하고 독해 잘 쓰지 않지만,
붕어빵 냄새가 나는 향수라면 매일 뿌리고 다니고 싶다.

추운 거리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붕어빵 냄새는
내게 손끝만이 아니라 마음 속까지 데워주는 향기이다.

요즘은 카페에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붕어빵을 팔고,
다양한 속을 넣어 눈과 입, SNS까지 사로잡는다.

그런데도 옛날 노포의 붕어빵이 그리운 이유는 비단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그 향을 맡으면 어린 시절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목욕탕을 다녀오던 길이 떠오른다.

4마리에 천 원. 나와 동생, 엄마는 집에 가는 길에 하나씩 먹고
남은 하나는 아빠랑 나눠 먹던 그 시절.

붕어빵 향수는 단순히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차디찬 겨울을 지내는 동안 따뜻한 추억과 온기를 불러내는 나만의 향수이다.





#11일차

12 9

2024/11/11
monday, pm 11:28 | 19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11일차

4월 어느 날엔가 우리가 사거리에서 함께 걸을 때
그 애 몸에서는 작약 향기가 났다

버버리니 밤셸이니 존바바토스니
내가 외우지 못 할 어느 향들에 대해 신나서

말하는 너를 보며
나는 더 참지 않고
네 향기 좋다라고 말했다

5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꽃들은 다 지고 붕어빵이 어디는 두 개에
천원이고 어디는 세 개에 천원이고 하는
계절에도
그 애 몸에서는 작약 향기가 났다

나 오늘 무슨 향기 안 나
하고 신나서 말하는 그 애 뒤로 따라오는
향기가
나를 향해 연신 사랑해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없이도
잔향처럼 사랑을 맡을 수 있었다

13 5



2024/11/11
monday, pm 11:28 | 21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11일차

나는 향기에 매우 민감하다. 어떤 향기는 단숨에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다. 처음 맡았던 그 향, 혹은 어딘가에서 스쳐 지나갔던 냄새가 내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 어떤 사람은 장소를 사진으로 기억한다면, 나는 향기로 기억한다. 따뜻한 나무 향은 어릴 적 가을 산책로를 떠올리게 하고, 바다 내음은 한여름의 추억을 그대로 되살려준다. 낯선 장소에서도 특정한 향기를 맡으면 그곳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향기 하나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나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기억을 쌓아간다.

향기_샘김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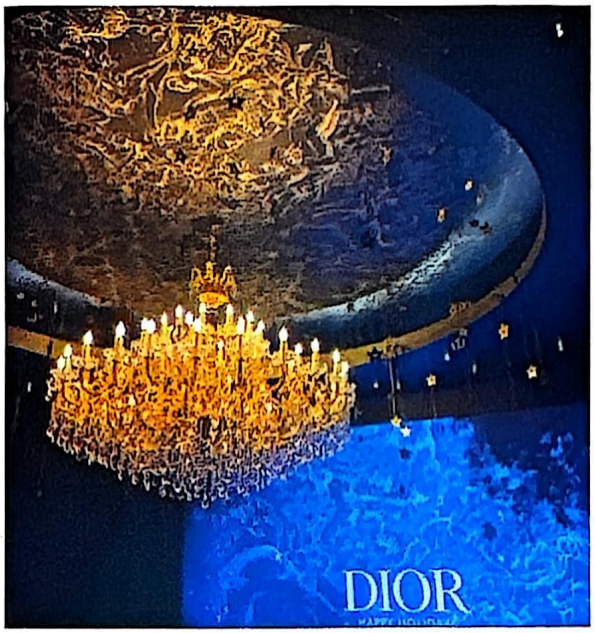
2024/11/11
monday, pm 11:35 | 20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11일차 #향기

2년 전, 친구들과 함께 디올 뷰티의 홀리데이 팝업 스토어를 방문했었다. 나보다는 친구들이 향수에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같이 방문 예약하고 초대장을 받아 같이 가게 되었다. 디올 팝업 스토어는 입구부터 시작해 두 개의 방과 미러룸을 지나면서도 볼거리가 많았다. 특히 예쁘게 꾸며진 방들에서는 큰 샹들리에가 세워져 있었고 천장에는 큰 조명, 별자리들과 별이 가득했다. 방을 지나 미러룸에서는 많은 조명과 화려한 디올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는데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감상했던 것 같다. 그 후 직원분의 안내로 아뜰리에동으로 이동했을 때 디올의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보고 테스트할 수 있었다. 향수를 직접 시향해 보며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찾아볼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화장품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경을 다 한 후 향수 샘플 박스를 받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 예쁜 디올 뷰티 홀리데이 팝업을 구경한 이후에 향수에 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다. 지금도 가끔 같이 구경했던 그때 그 친구들과 여전히 향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팝업 스토어에 함께 가자고 한다. (아무래도 디올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향수 팝업스토어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구경 다니게 된 것 같다.)

향기의 특별한 감각은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 향수와 관련된 여러 팝업에 가서 구경했을 때마다 아쉬웠던 건 향수를 구경만 하고 직접 사본 적이 없는 것이다. 같이 간 친구들과 향수를 서로 사서 선물하고 선물 받은 향수의 향기를 맡으며 그때의 추억과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11 6



2024/11/11
monday, pm 11:46 | 16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1일차 #향기

향기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내 아이덴티티를 내보이고자 향수를 자주 사용한다.

나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내 향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꼭 좋은 향기여야 하는 건 아니다. 그저 향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테니까. 그거면 좋겠다.

-꼭 내 향기를 기억해줘. 우연히 길을 걷다가 나를 기억해줘. 그 순간이 그리워져서 날 찾아준다면, 난 너무 행복할거야.

11 4



2024/11/11
monday, pm 11:47 | 16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향기

오늘은 날이 참 따듯했다. 한낮에 셔츠만 입고 있어도 더울 정도였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였다. 신나게 떠들고 마음 놓고 웃었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이런 소중한 인연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낮엔 따듯한 햇살을 맞고 저녁엔 쌀쌀한 공기에 움츠리게 됐던 날. 노란 은행나무가 가득 은행잎을 물들이다 그동안의 짐을 훌훌 털듯 떨어뜨렸다. 가을을 쓸쓸한 계절이라고들 한다. 낙엽의 소리 때문인지, 푸릇하던 잎이 시들어 떨어져서인지 외로운

느낌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겐 가을에만 들을 수 있는 그 사각사각한 낙엽 소리가 맑게 들린다. 가을은 그동안 땀나게 힘을 쏟다가 잠시 힘을 빼고 쉬어가는 여유있는 시간이다. 여름과 겨울 사이, 애매한 때가 아니라 매서운 겨울이 곧장 다가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가지도록 해주는 고마운 시간이다.
오늘 만끽한 가을의 향기가 좋다.

10 10



2024/11/11
monday, pm 11:59 | 19읽음
이나영

#11일차 #향기

내가 좋아하는 향기. 시금치, 깻잎, 취나물 같은 향긋하고 쌉싸름한 냄새. 유난히 맑은 아침에 먹는 신선한 우유 한 잔, 갓 구운 토스트 냄새.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캡슐을 넣고 기다리면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지는 따뜻한 커피의 향. 백화점에서 누군가 건네는 종이에 묻어난 유명 브랜드 향수 냄새. 처음 맡는 유럽의 겨울 냄새, 인상이 찌푸려지지만 중독성 있었던 굴라쉬 속 고수의 냄새. 가을을 맞아 방문한 부석사를 올라가며 맡은 은행 열매와 시원한 산바람 냄새. 갓 딴 향긋한 사과 향, 한겨울에만 맡을 수 있는 어묵 국물의 시원하고 얼큰한 냄새. 강원도 산 깊숙이, 아이들과 뛰어놀며 한움큼 맡았던 봄내음. 기숙사 창문을 열고 처음 맡은 눈 쌓인 춘천 냄새.

향에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나도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향기가 한 가득이다. 요즘은 추억을 핸드폰 속에 남은 사진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핸드폰 없이 내가 온전히 즐기고 느꼈던 것들은 떠올리지 않게 된다. 향기는 그렇게 함부로 잊어가는 것들을 문득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존재다. 가볍게 공기 중으로 흩어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감각과 기억을 담고 내 마음에 영원히 머물러있다.

14 6



2024/11/11
monday, pm 11:59 | 17읽음
박현민(심리학과)

#11일차 #향기

향기에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나마 잘 알게 되던 해에 많은 영향을 주던 것이 '향'이었다. 향은 나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색깔 중 하나였으며, 나의 팔레트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예전에는 코튼향을 가장 좋아했다. 향을 맡자마자 새파란 하늘이 떠오르며, 새하얀 이불이 휘날리는 장면이 보인다. 포근하면서 따스하고 기분 좋아지는 완연한 봄날같은 나를 만들어준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나다. 좋아하는 향도 많이 변화했
는데, 현재는 우디향과 코튼향이 섞인 것을 좋아하며 중성적인 향도 좋아한다.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야 하며, 너무 진하지 않고 잔향이 좋아한다. 나의 취향인 향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향수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하나의 향수만이 아닌, 여러 가지 향수를 수집하면서

12 4



2024/11/12
tuesday, am 12:13 | 22읽음
김양선

#1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향기로운 이야기들로 오늘 하루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아요. 저마다 좋아하는 향이 있다는 것, 그 향을 찾는 즐거운 여정에나도 함께 하는 기분이었어요. 향기는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향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13 0



2024/11/12
tuesday, am 7:57 | 33읽음
김양선

#12일차 키워드 : 새콤(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새콤', ,새콤하다입니다. 새콤한 과일이나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인생의 새콤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어요. 첫사랑의 설렘 같은 달콤새콤한 기억일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느꼈던 새큼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새콤'이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5 0



2024/11/12
tuesday, am 8:50 | 26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2일차

나는 신 걸 무지막지하게 좋아한다.어느 정도냐면 마트에서 파는 신맛 캬라멜부터 시다고 추천하는 유명한 제품들까지 웬만한 것들은 섭렵했을 정도로.이 외 레몬이든 감귤이든 새콤한 것을 먹었을 때, 입맛이 돌고 보다 활기차진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내가 신맛을 좋아하는 이유이다.사실 이 신맛은 식품에도 많이 쓰이는 첨가제인 구연산(시트르산이라고도 한다)에 의한 것인데,그 특유의 향과 함께 풍겨나오는 새콤함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레몬을 보면 그만 침부터 고이고 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과일이나 식품 등에 첨가돼 신맛을 내는 '구연산(시트르산)'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인용구를 빌려 잠시 적어보자면

'천연에서 추출되며 구연산은 감귤류에서 널리 발견된다. 구연산염의 산성화 또는 구연산염 에스테르의 가수분해(물이 빠져나가는 합성 반응)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미생물 발효를 통해 제조되고 시트로박터나 트리코데르마균과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제조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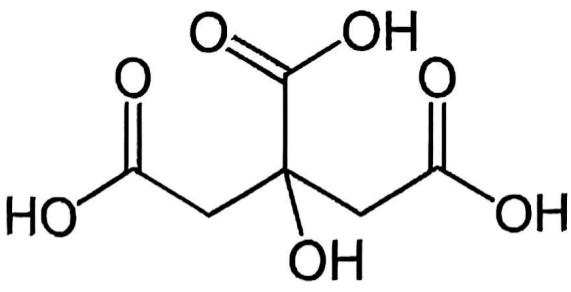
'구연산(시트르산)의 화학적 합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디프산과 말론산을 반응시켜 구연산을 생성하는 것이다.Aspergillus Niger(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당밀에서 추출되는데,이는 당밀에서 발효되어 추출 및 정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연산을 생성시킨다.'

오..몹시 신기하다.대강 균 등의 미생물을 활용해 발효해서 대량으로 생성하기도 하고,화학 반응을 이용할 수도 있단다.'만들 수도 있었구나?' '하긴 레몬이나 오렌지에서 추출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소비량을 못 따라갔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추가로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니,그 중량은 무려 연평균 100만 톤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그리고 이걸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10,000,000,000kg인데 가장 많이 생산된 연도는 2007년으로 당시 160만톤 수준까지 치솟았다고.실로 감도 안 잡히는 양이다.

어쨌든 오늘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신맛을 즐기게 해주신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위의 방법들을 발견하고 또 연구해가며 힘썼기에 새콤함을 맛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겠지.역시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고 탐구하는 과정은 늘 깨달음과 동시에 감사를 느끼게 해준다.

오랜만에 가는 길에 새콤달콤 하나 까며 걸어가야겠다.



※구연산(시트르산)의 화학식.나 같은 문과인은 봐도 잘 모르겠다,,,



※구연산(시트르산) 결정의 모습이다.은근 보석같이 예쁘다.
이런 새콤한 보석을 봤나! 왜인지 갈아서 뿌려먹고 싶어졌다.

Too much info.(TMI)

구연산과 함께 새콤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비타민c(아스코르브산)의 치사량은 레모나 7kg의 양 쯤 된다고 한다.

.....차마 다 먹기도 전에 다른 이유로 숨통이 끊기지 않을까

14 25



2024/11/12
tuesday, am 8:56 | 19읽음
유채원(일본학과)

#12일차
'새콤'하면 과일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귤, 파인애플, 키위 등 새콤한 과일이 참 많다. 수많은 과일 중에 나는 키위를 좋아한다.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키위를 엄청 많이 먹었기에 나 또한 좋아하는 걸까. 나는 키위를 칼로 반 갈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을 좋아한다. 한 번에 통째로 파내는 것에 성공하면 성취감이 생긴다. 키위 반쪽을 입에 넣자마자 새콤한 맛이 퍼지고, 곧이어 달콤함이 새콤함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새콤한 레모네이드. 레몬물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던데 나는 레몬물은 밍밍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에 탄산수에 레몬즙을 타먹는다든가 사이다에 레몬즙을 넣어서 먹는다. 탄산과 레몬에 조화는 기가 막히게 좋다. 서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밝히는 듯한 조합이다.

14 9



2024/11/12
tuesday, am 9:52 | 21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2일차
여러분들은 "새콤", "새콤하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콤하면 과일이 생각나고, 새콤한 과일 하면 감귤이랑 오렌지가 생각납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감귤을 먹는데, 귤에서 새콤한 맛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이 새콤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에게 감귤은 새콤한 맛과 추억을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과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겨울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놀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감귤을 껍질을 까서 주셨습니다. 제꺼만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꺼도 정성스레 껍질을 벗겨서 추우니까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는 추워도 놀고 싶은 의지가 강했기에 저는 감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주고 동네 정자에 앉아서 감귤을 먹었습니다. 그 때 감귤의 새콤한 맛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에 어머니께서 감귤 껍질을 까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감귤을 보고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동네 정자에서 감귤의 새콤한 맛을 경험했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한 감귤도 하나씩 나누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작은 감귤을 한 입에 다 먹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습니다.

15 8



2024/11/12
tuesday, am 11:23 | 21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2일차

"새콤"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신맛이 느껴진다. 나는 신맛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그냥 있으면 먹는 타입이다. 인생에서의 새콤한 경험도 사실 있었을지는 몰라도 잘 기억이 안난다.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보통 첫사랑 경험을 새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에게는 첫사랑 이야기도 없다. 귤 맛도 보통 새콤하다고 하지만, 나는 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귤과 얽힌 이야기도 없다. 아무래도 나에게 새콤하다란, 어떤 특별한 기억을 회상하기보다는 그저 그 맛, 혹은 그런 맛이 없었던 평범한 날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문득 시무룩해진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단조롭고, 특별한 '맛'을 느끼지 못했을까? 하지만, 어쩌면 그런 '새콤한' 경험이나 추억이 없다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항상 강렬할 수 없는것이 인생이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 "새콤"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지금은 어떤 특별한 맛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세상을 맛있게 사는 경험을 하고 싶다.

14 7



2024/11/12
tuesday, pm 12:00 | 24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2일차
새콤한 신김치, 새콤달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는 꿔바로우, 식초를 많이 넣은 물냉면,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 소스까지 새콤한 음식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새콤한 맛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 여름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다. 여름에 더워서 입맛이 없을 때 새콤한 걸 한 입 먹으면 입맛이 돌아 겨울보다 여름에 살이 더 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이상한 현상은 이번 여름에 나에게 찾아왔었다. 그래서 입맛이 살아나 살찐 경험을 얘기해 보겠다.
이번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다. 집에서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 수 없어서 카페를 많이 갔던 것 같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카페에서 상큼하고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주스 한 잔 먹으면 여름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당도 높은 과일주스를 마시다 보니 살이 좀 찐 것 같다. 여름하면 시원한 물회도 생각난다. 바다 근처를 지나가면 횟집이 많아 먹은 적이 있다. 한 번 먹으면 여름 가득한 음식을 먹은 것 같아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많이 찾아 먹었던 것 같다. 배달음식 같은 경우도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시원한 물냉면에 직화고기랑 같이 시켜서 여러 번 먹었던 것 같다. 배도 든든하고 시큼새큼한 맛이 입맛을 확 돌게 만들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여름에 맛난 음식 먹고 살이 쪘을지 궁금하다.

15 6



2024/11/12
tuesday, pm 12:36 | 21읽음
전수현(법학과)

#12일차

[새콤]

새콤하다: 조금 신맛이 있다. 새곰하다 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새콤하다'라는 단어는 전환의 비유이지 않을까 싶다. 주전부리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텁텁한 입을 새콤한 과일로 환기를 시켜준다면 상쾌하고 끝 맛이 좋다. 난 옛날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새콤한 젤리나 다른 대체될 수 있는 무언가를 섭취했었다. 다이어트 때문에 주전부리를 거의 안 먹다시피 하여 과일을 주로 먹으려고 찾아보다가 자몽을 찾게 되었다. 자몽의 쌉쌀함과 새콤한 과육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 지금도 새콤한 자몽 콤부차와 함께 글을 쓰니 상쾌하게 글을 쓰는 기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새콤한 자몽의 효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몽

과실류
100g당 30kcal
제철: 연중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후지오카 켄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자몽이 몸속의
인슐린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여기서 인슐린이란 혈당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는 호르몬, 이 활동이 부진하면
비만이 되기 쉽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자몽의
효능은

1. 자몽은 18세기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칼로리가 낮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몽
속 나란진 성분이 중성지방 분해 작용을 통해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2. 자몽 반 개에 일일 비타민 권장량에 충족할
비타민 C가 포함, 비타민 C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젖산을 제거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비타민 A와 C는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저 자몽의 씁쓸한 맛과 새콤한 맛,
너무 달지 않은 적정한 달달함의 매력으로
자몽을 먹기 시작했는데, 글쓰기 덕분에
자몽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몽차, 자몽청,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기에 취향에 맞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거나 다이어트 중에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콤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5 7



2024/11/12
tuesday, pm 2:17 | 17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2일차
오늘 "새콤하다"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과일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패션후르츠라는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동그랗게 생겨서 반을 갈라 그 속을
패션후르츠 씨와 같이 파 먹으면 새콤달콤한
과일이다. 예전에 애슐리에서 처음 접한
이후로 너무 매력적인 새콤달콤함을 가져서
이 과일 시즌만 되면 에이드로 많이 사먹었다.
생각만해도 새콤함이 느껴져 입 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다. 그리고 떠오른 과일은
귤이었다. 귤 중에서도 살짝 덜 익어서 겉에
초록 빛이 도는 귤이다. 먹자마다 달달함보다
새콤함이 내 입을 치고 들어온다. 저절로 눈이
찡그려지면서 온 몸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이런 덜 익은 귤로 청귤청을
담가서 먹으면 적당한 새콤한이 느껴지는
상태로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과일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아이셔나
새콤달콤 같은 것들이 떠올랐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새콤한 맛을 가진
것들인 것 같다. 이것들을 먹을 때마다 졸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확 깨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특히 수업 시간이나 과제 할 때 또는 중요한
영상을 볼 때마다 먹으면서 집중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새콤한 것들을 많이 먹어서 입
안에 있는 침들이 새콤과 비슷한 새큼의
느낌이 났었다.
마지막으로 요리 중에서는 똠얌꿍이 생각이
난다. 태국의 음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라임이나 레몬그라스로 새콤한 맛을 낸다고
알고있다. 누군가는 이 음식을 먹고
'시큼하다'하고 느끼곤 하는데 나는 약간의
단 맛도 나면서 입 안을 감싸는 신 맛 때문에
새콤으로 표현하고 있다. 뭔가 새콤달콤 같은
캔디류에서 나는 인공적인 새콤한 맛이 아닌
채소 등 자연의 새콤함을 넣어 만든 음식이라
난 이 새콤함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 글을 쓰면서 새콤한 것들을 수없이 떠올리는데 나도 모르게 입 안에 침이 고여있었다. 마지막으로 새콤함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정신을 깨워주면서 무엇인가 오래 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그리고 입맛을 살려주는 것 같다. 덥고 지쳤을 때 위에 내가 쓴 과일로 만든 에이드 한 잔 마시면 바로 살아난다. 진짜 새콤한 것은 너무 매력적이고 좋다!

14 16



2024/11/12
tuesday, pm 3:00 | 19읽음
정우현(철학과)

#12일차

저는 새콤한 맛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새콤달콤한 맛은 좋아하죠. 쫄면이나 물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새콤한 맛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저는 단 맛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새콤한 일들도 저는 싫어합니다. 새콤함은 결국 강한 여운을 주지만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새콤하기 한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반성까지 하게 되는 경험을 선호합니다.

인생의 새콤달콤한 경험들은 보통 반성을 불러옵니다. 항상 성찰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언제부터인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성을 한다는 게 제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처음엔 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는 게 확신이 들면서 반성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런 새콤달콤한 경험들이 모여 저라는 인간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많은 맛들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14 5



2024/11/12
tuesday, pm 3:23 | 23읽음
서정원(심리학과)

#12일차
담당자님께서 첫사랑의 설렘이나 뜻대로 되지 않아 느꼈던 인생의 새콤한 순간을 연상하라고 힌트를 남겨주셨다. 직접적으로 새콤함을 느낀 경험은 없지만 여기서 새콤함을 느껴본 적 없는 경험을 느껴본 적 있다고 비유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새콤한 음식을 먹었을 때—가령 레몬즙을 과하게 뿌린 연어를 먹는다거나, 후숙 단계를 거치지 않은 청귤을 먹는다거나—의 생리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자. 신 것을 과하게 먹으면 얼굴이 찌푸려진다. 음식의 신 성분이 미각 수용체, 특히 산성 물질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에 민감한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 해당 물리 정보를 감각수용기가 신경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보내 '시다'고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안면 신경과 같은 뇌신경을 통해 안면 근육을 제어하는 영역도 자극하여 입과 눈 주변의 비자발적인 근육 수축을 유발한다. 이 반응은 '찡그린 얼굴'이나 주름진 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리적인 반응이 음식의 신맛뿐만 아니라 경험의 신맛에서 유발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내가 최근에 발견한 한 가지 깨달음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을 좋아한다. 정확히는 '밤과 새벽에 지인과 3시간 동안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제가 심오한 인생, 철학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미제로 남는 순간'을 좋아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사랑한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카페나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떠드는 순간도 당연히 좋지만 새벽에는 글을 쓰거나 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아마도 '고양감' 때문일 것이다.

특정한 고전 문학을 몰입해서 읽고 책에 푹 빠져본 경험이 있는가? 비슷한 느낌이다. 살면서 지금까지 읽고 쓰면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능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에 대해 밤과 새벽에 이야기를 나누려면 소통의 주체인 양쪽이 모두 해당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지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어려운 주제라 표정을 찡그리거나 한숨을 쉬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순간들이 좋은 것이다. 고양감에 '취한' 상태라서, 소통하고 싶은 상대방과 말이 잘 통해서 좋은 것이다.

여기에 약간의 술까지 곁들이면 더 좋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편이라 버번위스키 한 샷과 콜라 또는 토닉워터를 넣어 하이볼로 한 잔을 마시면 적당히 취한 상태가 된다. 적당히 취한 상태면 알딸딸해서 기분이 좋음과 동시에 특이하게 말이 평소보다 더 잘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에도 수월하다. 술과 새벽과 고양감이 좋다. 신 것을 먹었을 때처럼 찌푸려지는 그런 순간들.

17 6

2024/11/12
tuesday, pm 6:48 | 20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12일차
새콤하다
저는 달콤새콤한 젤리 또는 사탕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 가루가 묻혀져있는 사탕이라던지 겉은 엄청 신데 속은 달달한 레몬사탕 같은거죠.
저는 많고 많은 다양한 새콤한 간식들 중에서 이름부터 새콤달콤함이 느껴지는 새콤달콤 마이쮸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파인애플 맛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 음식을 엄청 잘 드시고 좋아하셔서 그런지 저도 신 음식은 굳이 그렇게 자주 즐겨먹지는 않으나 은근히 잘 먹는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매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내염이 정말 자주 났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은 무조건 났었고 현재도 아주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보칠을 항상 지니고 다녔죠.
새콤한 간식을 무척 좋아하는 제가 구내염이 있을 때에 새콤한 간식을 먹었었는데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입이 불에 타 들어갈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새콤한 간식을 꾸역꾸역 고통을 감내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더랬죠.
행복하면서도 불행한 기억이였습니다.

13 5



2024/11/12
tuesday, pm 7:29 | 18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2일차
"아메리카노의 새콤함을 알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아메리카노는 쓴 게 아니라 고소하고, 가끔 새콤하고, 주로 향긋한 음료라고.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메리카노는 인상이

패일만큼 맛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카페에 가면 꼭 단 음료를 마셨다. 프라페, 스무디, 에이드 같은 것을 말이다. 그런 것들은 커피에 비하면 비쌌고, 나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언제나 나는 단 음료만 마셨다. 누군가 음료를 사준다고 하면 체면 치레를 위해 아메리카노를 시켜보기도 했지만, 이내 일그러지는 표정이 체면을 구겼다. 그 때마다 나는 평생 아메리카노를 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입맛이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냐고.
성인이 되고 나니 늦게까지 노는 날이 많아졌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는 게 버거워졌다. 졸면서 수업을 들으니 필기는 굽이 쳐 알아볼 수 없었고, 정신이 맑지 못하니 까먹는 것도 많아졌다. 할 것은 많은데 잠은 오고... 피곤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한 번, 잠을 깨워보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여전히 맛이 없었다. 그치만 두 눈을 꽉 감고 애써 한 모금, 두 모금 마셨다. 이상하게도 조금씩 잠이 깼다. 음료를 다 비웠을 땐 잠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꼭 마셨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졸립지 않은 하루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
그렇게 매일을 먹다 보니 언제부턴가 인상을 쓰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꿀꺽 삼키는 내가 되어 있었다. 졸음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점점 옅어져 갔다. 내성이 생긴 건지 예전만큼 잠이 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가끔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날이 생겼다. 입이 달 때 특히 생각 났다. 덕분에 빵과 아메리카노의 조화를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 커피를 먹는 날이 늘던 어느 날, 아메리카노의 새콤한 맛이 느껴졌다. 별 거 아니지만 그 맛을 자각했을 때 너무 신기했다. 내가 이해 못했던 그 문장. '아메리카노는 쓴 게 아니라 고소하고, 가끔 새콤하고, 주로 향긋한 음료'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었다. 알 수 없는 기분으로 커피를 마저 마시면 생각했다. 이런 게 어른이 되는 기분일까 하고.

14 7



2024/11/12
tuesday, pm 7:30 | 20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2일차
새콤은 약간의 산미가 띄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신 맛을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다.
커피도 산미가 낮은 걸 좋아한다.

새콤한 무언가에 집중하자면
새콤을 받는 대상은 아마도 과일이
유력할 것이다.

새콤달콤이라는 크라운의 제품도
과일을 모티브로 만든 식품인데
포도, 복숭아 등등의 맛이 있다.
나는 포도맛 새콤달콤이 가장 맛있었다.

새콤에서 좀 더 파생해서 생각하자면
나는 새콤보다 상큼을 더 좋아한다.
상큼은 새콤의 신 맛보다는
신선하면서 새콤한 느낌인데
초성이 같은데도 다른 뜻을 내포하는
단어들의 변화가 신기하다.

14 6



2024/11/12
tuesday, pm 8:20 | 21읽음
김경환(화학과)

#12일차
저는 새콤한 맛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냉면이나 막국수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식초나
겨자가 미리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넣지 않고 먹는 편입니다. 새콤한

맛은 일종의 자극적이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그 후의 여운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달콤하거나 부드러운 맛이 더 마음에 듭니다.

무언가를 바라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피하기도 하는 것이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멀리할지를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정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6 5



2024/11/12
tuesday, pm 9:31 | 20읽음
최오영(심리학과)

#12일차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새콤한 걸 좋아하고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새콤한 것을 정말 못 먹고 안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오죽하면 젤리 새콤달콤도 시어서 못 먹을 정도랍니다.

저는 새콤을 떠올리니 과일이 생각났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다룬 주제이긴 하지만 저의 이야기로 다시 써보자면, 대부분의 과일은 익으면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과일을 먹기 전에 떠오르는 자동적인 사고가 있어요.

'얘(과일)는 달까 안 달까?'

신 걸 잘 못 먹는 저에게는 과일 섭취는 아주 작은 도전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든 도전은 아니지만 긴장감을 갖고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입니다!
씨가 씹히는 식감도 너무 재밌고 맛있는 딸기는 신 맛과 단 맛의 조화가 너무 매력적인 과일인 것 같아요 ㅎㅎ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유도 함께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

14 4



2024/11/12
tuesday, pm 9:44 | 18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12일차 #새콤

새콤'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달콤'이라는 단어가 항상 뒤따라온다. 새콤한 맛은 음식을 먹었을 때의 신선하고 톡 쏘는 느낌이다. 음식이 새콤하기만 하면 우리는 설탕이나 매실청을 넣어 달콤함을 더한다. 적절하게 만들어진 새콤달콤함은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린다. 이처럼 새콤과 달콤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를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보았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다. 새로움은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새콤한 경험이지만, 그 뒤엔 언제나 달콤한 교훈이 따라온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얻게 된 교훈이기에 그 맛은 더욱 특별하고 오래 남는다. 또한, 새콤한 경험이 있었기에 달콤함은 더 깊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렇듯 두 맛이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삶에 풍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음식에서 새콤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져야 풍부한 맛을 내듯이, 삶 역시 여러 맛이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맛을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

15 5



2024/11/12
tuesday, pm 10:20 | 17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12일차 #새콤
#새콤한맛의효능

임산부들이 새콤한 음식을 찾는 이유는
입덧과 관련이 깊다.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때 새콤한 맛은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입맛을 돋우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맛은
침샘을 자극해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고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덧을
겪는 많은 임산부들이 본능적으로 새콤한
음식을 찾게 된다.

입덧 완화를 위한 캔디가 새콤한 맛을 가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새콤한 맛은
메스꺼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입덧이
심한 순간에도 잠시나마 편안함을 제공한다.
특히 휴대하기 쉬운 캔디 형태로 새콤한 맛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임산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신맛이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4 7



2024/11/12
tuesday, pm 10:22 | 19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2일차
'새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어렸을 때의 가을과 감의 맛입니다. 가을이
오면 엄마는 시장에서 커다란 주황빛 단감을
사 오셨는데, 그중에는 꼭 덜 익은 감도 몇
개씩 섞여 있었습니다. 덜 익은 감은 빛깔도
더 연하고 단단했죠. 그때 엄마는 항상 제게
감을 잘 깎아서 주셨는데,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던 그 새콤한 맛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단맛보다는 그 새콤한 신맛이 훨씬
강해서 처음에는 얼굴을 찡그리며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콤함이 마냥 싫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입안에서 퍼지는 새콤함이 싱그럽게
느껴졌고, 감을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분이 환기되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 느낌이 좋아서 종종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을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새콤한 감은 마치 제게 가을의 첫 느낌처럼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베어 물던 그 새콤함이, 지금도 문득
피곤하거나 지칠 때면 생각나곤 합니다.
또 여름철 바닷가에서 먹었던 새콤한
과일음료가 기억나는데요! 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나면 금방
목이 마르고 때문에 시원한 음료수나 과일을
찾곤 했었습니다. 그때 꼭 먹었던 것이 바로
새콤달콤한 과일, 특히 잘 익은 귤이 들어간
과일 음료였어요. 한입 마실 때마다 새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고 지친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서로 "정말 새콤해!" 하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바닷가에서 마신 새콤한
과일 음료가 그 무더운 여름날의 기억을
상쾌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14 6

2024/11/12
tuesday, pm 10:55 | 14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12일차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로 시작하는 안녕 자두야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어릴 때 안녕 자두야를 정말 좋아했어서 커서도 유튜브로 종종 챙겨 보곤 했던 만화예요. 일본 만화의 비중이 큰 만큼,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던 대부분의 일본 만화 사이에서 안녕 자두야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이었고 에피소드를 보며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생활과 그 때 친구들이 생각 나 공감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안녕 자두야도 투니버스에서 방영이 끝난 후 쯤에 안녕 자두야의 원작 작가님께서 개인 sns에 자두와 친구들의 성인이 된 모습을 업로드 하셨어요. 축구를 좋아하고 뛰기 좋아했던 자두는 체대생이 되었고, 자두를 싫어하던 같은 반 친구 은희는 여전히 자두를 싫어하고, 딸기는 서양화 전공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때도 만화 보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던 저는 이제 자두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 국문과생이 되었어요. 윤석이는 자두를 좋아하고 은희는 여전히 자두를 싫어하는 것처럼, 제가 여전히 글을 좋아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두는 여전히 저에게 새콤하고 달달한 좋은 친구고 자두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어린 시절이 좀 더 풍성했었다고 생각해요. 특별 에피소드로 방영된 안녕 자두야 미래편에서는 자두도 이제 직장인이 되어 공허한 눈으로 출퇴근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자두도 저도 우리도 언제나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책을 읽을 순 없겠지만, 사랑했던 것들을 변치 않고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콤하고 톡톡 튀는 그 시절의 빛나던 것들을요.

13 7



2024/11/12
tuesday, pm 11:15 | 16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2일차 #새콤

[스물일곱 번째 접시]

새콤한 맛, 정말 특이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맛과 단 맛이 공존하는 걸 보통 새콤한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맛은 사람들 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기에 대중적인 맛으로 자리 잡기 힘든데 단 맛이라는 대중적으로 호감인 맛이 결합되니 반전 있는 맛을 표현해 낼 때 쓰는 맛으로 자리매김한 듯 합니다. 새콤한 맛이 나는 것들 중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 아이셔 ' 라는 마이쮸 식감의 사탕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츄잉캔디일 텐데 소다맛, 청사과맛 등이 있습니다. ' 아이셔 ' 야말로 새콤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간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 뒤 쯤 기말고사가 있는데 모두들 새콤한 ' 아이셔 ' 먹으며 잠을 물리치고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4 6



2024/11/12
tuesday, pm 11:31 | 18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쿱

#12일차

새콤한 맛은 나에게 게임 속 스릴을 닮았다. 게임에서 새로운 레벨을 깨는 순간처럼,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작은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마치 어려운 보스를 겨우 물리쳤을 때 느끼는 상쾌한 승리감처럼, 상큼한 과일을 한 입 베어 물면 기분이 팍 트이는 느낌이다.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만났을 때처럼, 새콤한 맛은 언제나 활력을 주며 다음 한 입을 기대하게 만든다.

맛-엔시티드림

13 5



2024/11/12
tuesday, pm 11:35 | 19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12일차 #새콤

음료수를 마실 때 새콤한 맛이 나는 음료를 좋아하는 것 같다. 카페에 가면 항상 커피보다 에이드나 스무디 쪽에 눈이 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블루레몬에이드의 새콤한 맛이 좋아서 예전부터 빠져 있는 에이드이다.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면 항상 내가 블루레몬에이드를 사 먹는 모습을 보고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한 입만 달라고 한다. 먹어보더니 너무 새콤하고 시다면서 나에게 신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다. 생각해 보면 분명 달달한 음식이 더 좋은데 땡기는건 새콤한 음식이고 또 신 음식을 잘 먹다 보니 나에게 새콤한 음식은 있으면 먹게 되는, 자꾸 땡기는 맛인 것 같다.

블루레몬에이드랑 비슷하게 레몬이나 라임, 유자처럼 과일 맛 음료수도 좋아하고 특히 탄산 음료이면 더 좋다. 요즘 빠져있는 음료수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고흥 유자 스파클링 음료수이다. 궁금해서 도전해 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편의점에 가면 계속 사게 된다. 새콤하고 달달한 음료수라서 새콤한 탄산음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추천해 주고 싶다.

13 6



2024/11/12
tuesday, pm 11:35 | 21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새콤

< 새콤한 바나나 >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바나나는 너무 맛있어. 특히 끝맛이 따끔하고 약간 새콤한 게 좋아."

응?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이제껏 바나나 맛에서 새콤함의 시옷도 찾을 수 없었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친구는 오히려 의아해하며, 바나나를 먹으면 첫 맛은 달콤하지만 끝 맛은 새콤하다가 입천장이 따끔거리지 않냐고 되물었다.

"야, 너 그거 알러지 아냐?"

그렇다. 친구는 자기도 모르던 바나나 알러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오래 본 친구인데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바나나가 새콤하다는 말이 웃겨서 길에서 깔깔 웃었다.

생각해보니 전에 비슷한 짤을 본 기억이 났다.
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혹시 바나나를 먹을 때 새콤한 맛을 느낀 분이
있다면, 과일 알러지를 의심해보길 바란다.
친구는 다행히 따끔거리기만 할 뿐 심한
알러지는 아니기에 바나나를 무척 좋아한다.
새콤한 맛에 먹는 바나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진 에피스드였다.

일전에 트위터에서 어떤분이 "바나나는 목이 화- 해지는 맛에 먹는거지. 그 청량감이 좋아." 라고 했고 지인이 "응????????" 이라고 반응한 덕에 바나나 알러지가 있었다는걸 알게됐고 자긴 여태까지 바나나가 그런맛인줄 알고있었다. 라고했을때 웃었는데

16 19



2024/11/12
tuesday, pm 11:40 | 17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2일차 #새콤

새콤한 맛을 생각하니 소풍날 엄마가
싸주셨던 도시락이 생각난다. 소풍은 언제나
신나고 기대되는 날이었다.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사실과 엄마의 소풍
도시락이 너무 기대가 되었다.

언제나 도시락에는 먹음직스러운 유부초밥이
들어 있었다. 흰 쌀밥을 새로 하고 식감이
쫄깃한 유부와 유부초밥의 밥에 넣는 식초의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이 있다. 유부에
식초로 양념된 밥만 넣는 것이 아니라
김가루나 다른 야채를 채썰은 것을 넣으셨다.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엄마표 유부초밥은
언제나 맛있다.

소풍날 당일 아침에 국과 함께 먹고,
점심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친구들과도 나눠 먹고.

새콤한 유부초밥은 지금 먹어도 그때의
설렘과 기대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종종 집에 있을 때도 해 먹는다. 어느날
엄마가 입맛이 없어 유부초밥을 만든 적이
있다. 엄마가 드셨을 때 느꼈던 내 감정은,
내가 어릴 적 맛있게 엄마의 유부초밥을
먹었을 때 엄마가 느끼셨던 감정이셨을까.

15 7



2024/11/12
tuesday, pm 11:46 | 19읽음
강하늘(심리학과)

#12일차
#새콤하다.

나는 새콤하다고 하면 '자두'가 생각이 난다.

어렸을 적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자두나무 가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셨다.

어렸을 적 학교가 끝나면 나는 할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허허 못~생긴 손녀왔나~"라고
웃으시면서 갓 딴 새빨간 자두 하나를
씻어주셨다.

그때 흔들거리던 의자에 앉아 먹었던
자두의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엄~청 달고 맛있었지만 반드시 새콤한 맛이
났던 자두를 나는 좋아했다.

지금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흔들의자와
함께 할아버지의 자두나무를 볼 수도 먹을
수도 없게 되었다.

물론, 40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에 과수원을 만들어
5~6월에는 달콤새콤한 자두와 겨울에는
맛있는 고구마를 들고 찾아오신다.
~~ ~~
✵
~~ ~~

언제나처럼 여름에는 형제들과 자두 나무
가지치기를 하러 겨울에는 고구마를 깨러
할아버지의 과수원으로 간다.

이것이 K-과수원 손녀의 수확나기이다.

17 12

2024/11/12
tuesday, pm 11:55 | 15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2일차
저는 어릴 적 추억의 간식을 즐겨 먹곤
합니다.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 춘천에서
유명한 학곡리 닭갈비를 먹으러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로 향했습니다. 닭갈비를 먹은 후,
우연히 한 문구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옛 추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구점에 들어서자마자, 초등학교 시절 제가
즐겨 사용했던 크레파스, 색연필, 그리고
노트들이 가득한 선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슬라임과, 제가 어릴
때 자주 가지고 놀던 공기놀이 제품들이 매장
앞쪽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구경하며 한 코너를 돌다가, 제 시선을 끄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옛날 간식
코너'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간식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네모스낵, 맥주사탕, 콜라볼, 포포 등 다양한
추억의 간식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
그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간식은 바로
"새콤이"였습니다.

새콤이는 작은 봉지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젤리 형태의 간식으로, 이름처럼 새콤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젤리와 같은 츄잉
제품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맛이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어린 시절부터 자주 먹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새삼
떠오르며, 저는 새콤이를 한 봉지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맛과 기억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콤이와
네모스낵을 한 봉지씩 구매하고,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나누어 먹었습니다. 옛날
간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다시 느끼며, 한순간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구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간식들과 아이템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추억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인 것 같습니다.

13 4

우리끼리, Band!



2024/11/12
tuesday, pm 11:55 | 20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쿱)

#새콤 한 기름 한 방울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기, 나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일명 코로나 학번인 나는 원치 않게 소녀(?)가장이 되었다.
가족을 위해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휴학을 결심했고
생계를 위해 투잡, 많게는 포잡까지 감행했다. 월급을 받는 족족 생활비로 보탰고,
내 용돈 따로 빼기도 미안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반복되는 노동과 친구나 지인 만날 틈도 허락하지 않던 사회적 거리두기,
스스로를 가족과도 고립시키고
가족이기에 할 수 없는 말들을 마음 속에 담아두며 끙끙 앓았다.

하지만, 무심코 들렀던 동네 서점에서 발견한 <불편한 편의점>은
삐걱거리던 내 일상에 새콤한 기름 한 방울이 되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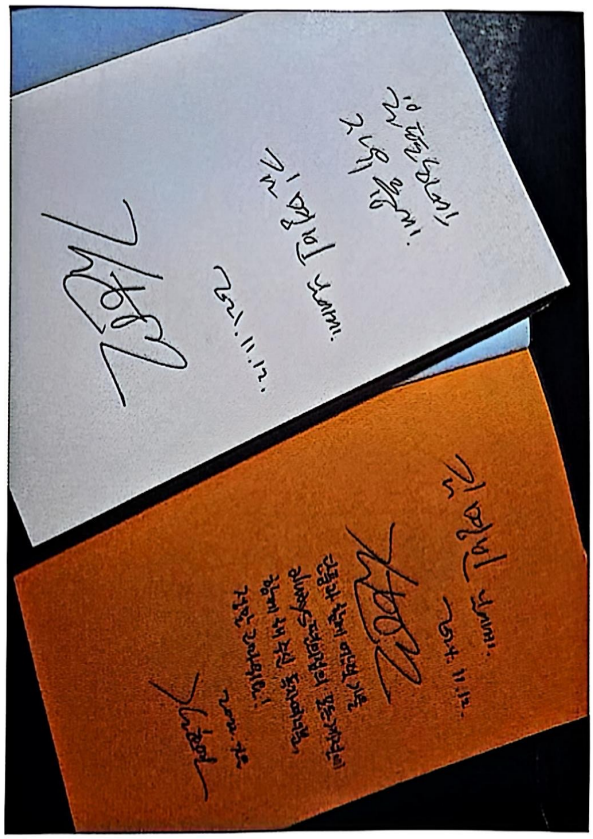
책 제목에서부터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한 편의점이 불편하다니?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모순된 편의점이라고 말이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었지만, 결핍을 계기로 타인과 부대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는다. 덜그럭거리는 내 삶에도 그 위로가 닿았다.

마침, 오늘!!
저자이신 김호연 작가님의 강연이 있었다.
작가님의 집필 일대기와 <불편한 편의점>의 탄생 비화를 들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누구나 말 못 할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저마다 살아갈 이유를 찾고, 살아낸다. 나에게는 <불편한 편의점>이 그랬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이며,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대목은 내게 새콤한 기름을 -한 방울도 아니고-한 바가지 부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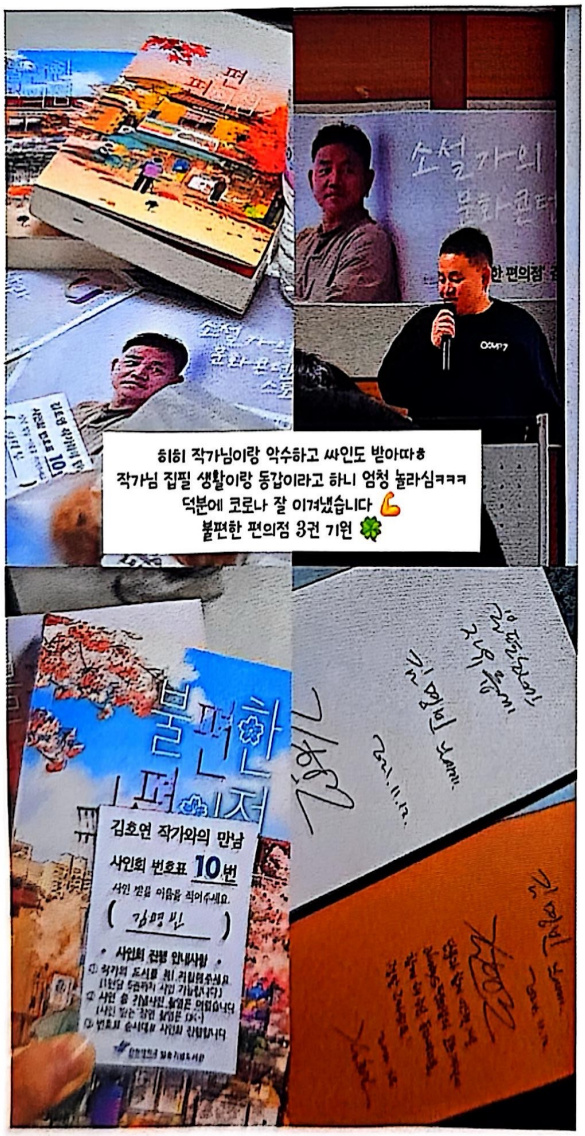
스토리는 인류 역사 가장 오래된 가상 현실이라는데 -조나단 갓셜-,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 속 가상 현실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했다. 소설 속 현실은 절대 밝지 않고 <불편한 편의점>의 주인공인 독고 역시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캐릭터의 불행을 간접 경험하며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문학의 순기능이란, 정말이지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다.

팬데믹 기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주친 이들,
생판 남이었던 그들이 생판 남인 나에게 주던 따뜻한 위로들이 생각났다.
나는 그들과 부대끼며 독고처럼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
지친 내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던 타인들 덕분에
내 삶은 더 이상 덜컹거리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절이 전생처럼 느껴지는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다.
돌아보니 고맙게도 그 '불편했던' 시간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구나.
<불편한 편의점>이 던진 새콤한 자극이
없었다면,
여전히 덜그럭대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글은 가족보다 가까운 타인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떠올리며
삶을 지탱해 준 '새콤한 기름 한 방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본다.



우리끼리, Band!



새콤한 술의 힘을 빌려,,,,,,,

#12일차

16 6



2024/11/12
tuesday, pm 11:59 | 20읽음
이나영

#12일차 #새콤

새콤한 맛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였다. 어릴 땐 엄마가 입맛이 없을 때마다 새콤한 오이지를 찾는 걸 신기하게 생각했다. 나한테는 매콤한 김치나 진미채가 입맛을 훨씬 돋구었는데 새콤한 반찬들은 뭔가 밥이랑 어울리는 듯, 아닌듯 입안에서 톡톡 쏘았다. 집을 떠나 기숙사에 산 지 어느덧 일년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점심을 집밥으로 배 채운 날이었다. 저녁을 먹기엔 너무 배가 불러서 걸렀는데 새벽이 되니 갑자기 허기가 졌다. 그 때 엄마가 흰 죽과 함께 장아찌를 반찬으로 내주셨는데 그 두 음식으로 폭풍 흡입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날을 기점으로 새콤한 음식도 속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이지, 단무지, 피클, 파래무침 같이 시큼한 음식들은 한 입 베어물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입 안에서 상큼한 향이 맴돌아서 밥 먹는 기분이 한층 좋아진다.

무엇보다 나는 편식이 잦았고 지금도 콩, 당근 같은 반찬은 꽤나 싫어한다. 그런데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새콤한 반찬이 입맛을 돋군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고, 점점 맛있게 느껴지는 게 정말 어른이 된 기분이다. 나이가 들면 입맛도 바뀐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앞으로 더 새로운 음식의 맛에 눈 뜨고 싶다.

13 3



2024/11/13
wednesday, am 12:02 | 18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2일차

새콤하다. 새콤하다 라는 표현은 귀엽다.
나는 새콤하다 라는 표현을 하면 어릴적
생각이 난다.
어릴때는 새콤한 음식을 좋아했다. 입 안의 단
맛이 퍼지면서 끝에는 약간 톡톡 튀는 느낌을
주었다. 팝핑캔디도 그런 예이다. 새콤
달콤하면서 톡톡 튀는 재미가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다. 어릴때는 입 안에 재미있고
달콤한 음식들을 좋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점 크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새콤한 맛을 안 좋아하게 되었다.
오히려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들에
적응되면서 입 안이 깔끔한 음식을 좋아한다.
아이스아메리카노나 디카페인 등 내 입 안의
끝맛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점점 재미와 동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음식조차 새콤달콤한 재미있는 것을 찾고
즐거워 했다면 지금은 그런 재미도 이게
오히려 귀찮아지고 불편해졌다. 이것을 보고
나도 점점 재미없는 성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13 3



2024/11/13
wednesday, am 12:14 | 20읽음
김양선

#1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새콤한 맛과 기억들이 다채롭게 펼쳐진
여러분의 새콤한 이야기들이 오늘 하루를
상큼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인생의 새콤한
맛이 때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 같네요.
내일도 상큼하고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13 0



2024/11/13
wednesday, am 8:03 | 34읽음
김양선

#13일차 키워드 : 차별
오늘의 키워드는 '차별'입니다. 나이로,
성별로, 출신으로, 또는 외모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차별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어떤 차별을 경험했나요? 또는
무의식중에 누군가를 차별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차별에 맞서
당당히 맞섰던 순간, 또는 차별을 극복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19 0



2024/11/13
wednesday, am 8:56 | 26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3일차

방금 친구와 아침밥을 먹다가 "오늘 키워드는
뭘까? 왠지 밝은 주제는 아닐 것 같아. 막
"차별" 같은거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올라온 키워드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기하네요.

살면서 차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의
국적으로 인한 차별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본인이신 한일혼혈입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와 지금 대학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한일혼혈이라고 하면, “부럽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2개국어를 할 수 있었겠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간혹 제가 한일혼혈이라는 이유로 제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는 유독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독도는 누구땅”이라는 질문은 기본이고, “일본인 주제에 한국에 왜 왔냐” “일본인이여서 체육을 못하니?” 등 참...재미있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일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날 “우리 엄마가 일본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래” 라며 친구와 멀어진 일입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아이들이 점점 철이 들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가끔 복도를 지나가면 옆반 남자아이들이 “야, 저기 일본인 지나간다”하고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럴 때마다 제 친구가 대신 화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는 일본에 가면 또 한국인이라고 차별당합니다. 일본인 특성상 한국인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도 못 받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겪다보니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국적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20 8



2024/11/13
wednesday, am 10:28 | 22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3일차
나는 이번에도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았다.솔직히 나는 살아오면서 차별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생각나는 몇 개를 써보자면 먼저 중3 때의 일이다.
코로나가 한창일 당시 교회 각 부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널널했었다. 그래서 내가 속했던 중등부에서는 포인트 제도가 생겼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마지막에 퀴즈를 했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얻는 것이었다. 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은 3명에겐 에어팟을 준다길래 나는 엄청 열심히 했다. 초집중을 해서 퀴즈를 엄청나게 맞췄다. 이후 규제가 풀리고 대면 예배 때 퀴즈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맞추기 위해 손을 계속 들었다. 하지만 나와 눈이 마주쳐도 계속 기회가 오지를 않았다. 전도사님은 "너무 잘 맞춰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좀 주자"라고 하셨다. 그 당시 나는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다 간 이후로 나는 3등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겨우 3등을 유지한 것이었다. 난 너무 억울했다. "왜 나를 차별해요!"라고 말했다. 그 때 당시 나에게 널널하게 1등을 달리다 간신히 3등이 된 현실이 너무 억울했다.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1등~3등이 상품을 받는 것이니까 다 똑같게 여기셨던 것 같다.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 순위 하나하나가 중요했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신 것이 아쉽다.

이번엔 경험이 아닌 내가 현재 차별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나는 현재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다. 유년부는 초등1학년~3학년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항상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조금만 누굴 가려서 하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는 차별이라고 받아들여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유년부 학생들을 놀아주고 퀴즈하고 상품을 나눠줄 때 진짜 최대한 서로 기분 좋고 공평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한다. 이러한 나의 노력은 뭔가 밖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아이들이 가진 여러 성격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차별 없이 대하려고 하는 자세는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유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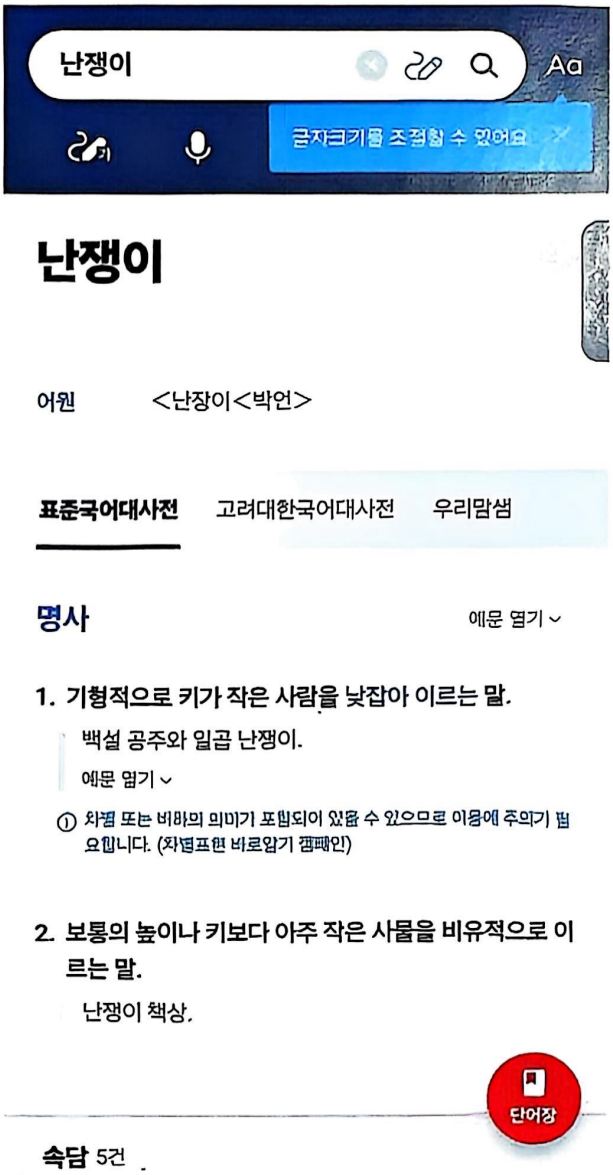
교사로서 아이들을 상대하며 느꼈던 차별에 대한 교훈은 차별은 이해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14 8



2024/11/13
wednesday, am 11:15 | 22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3일차
저는 어렸을 때 '차별'을 당한 경험담을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항상 키가 작다고 '난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난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나온 '난쟁이'는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라고 나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면 항상 '난쟁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구들은 "그럼 니가 나보다 더 커서 와라" 라고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같이 하고 싶다고 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난쟁이는 가라" 라고 말하면서 저를 놀이에 끼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 무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키가 작은 친구들은 저랑 같이 놀아줬지만, 저를 '난쟁이'라고 놀린 친구들은 서로 같이 저를 놀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끝내 참지 못했던 저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과를 받고 서로 같이 놀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 고등학교 때 '난쟁이'라고 놀렸던 친구들 중 몇 명은 저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저는 똑같이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사과를 받았어도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김사부가 강동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돼라,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복수라는 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사부의 말처럼 키에 대한 '차별'을 통해 그들보다 잘 살아가겠다는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14 12



2024/11/13
wednesday, am 11:28 | 21읽음
유채원(일본학과)

#13일차
오늘의 키워드인 '차별'을 보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우연히 오리들 사이에서 자란 백조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의 오리들에게 괴롭힘과 미움을 받는다. 다행히, 나중에 백조 무리와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결말로 끝난다. 백조가 평생 오리들 사이에서 살았다면, 본인을 틀린 존재라 여기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별은 본인을 본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순간 차별이 생긴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명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차별이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다른 건 그저 다른 것일 뿐이다.

16 6



2024/11/13
wednesday, am 11:29 | 24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3일차

이걸 차별이라 해야할 지,차이라 해야할 지 구분하기 어렵다.
어쩌면 둘 다 해당될 지도 모르겠다.모든 걸 떨쳐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늘처럼 날 따라와 괴롭히는 그것.

목소리다.

하긴 생각해보니 어릴 때도 또래 아이 치고는 낮긴 했다.그렇지만 여전히 아이 특유의 카랑카랑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키가 컸지만 아무도 내가 아이맞냐며 묻지 않았었고,내가 여자임을 아무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보건교육 시간에 성교육을 이수받아왔다. 따라서 기초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고,대다수가 거기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차이 역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예를들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성기'가 오며 여성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딱히 변성기라 칭하지 않는다는 것.어릴 때의 난 당연히 도시의 언니들 처럼 '여성스럽고 예쁜' 목소리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보다.

6학년 때였다.동요가창대회를 한창 앞두고 있어 연습으로 바빴다. 그렇게 연습에 매진하다 어느날 목이 잠긴 것 처럼 잘만 올라가던 음역대를 부르기가 힘겨웠다.아니,아예 올라가질 않던데.거기서 직감적으로 뭔가 뇌리를 스쳤다.아 이거 보건실에 가봐야겠군.참고로 동요는 순전히 복식호흡을 쓰는 창법으로 부르기에 목이 쉴 수가 없었고 또 쉰 적도 없었으므로,목이 나간 것이 원인은 아니었다. 보건선생님께서는 목이 잠긴 것 같다며 일주일 동안 박하사탕을 먹으며 무리하지 말라는 처방을 내리셔서 난 그대로 따랐다.정말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했었다.그만큼 중요한 대회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여가 지나고 평소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첫 음부터 삑사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저음화되었다.너무 놀랐고 또 너무 무서워서 울었던 것이 기억난다."진짜 이게 뭐지?무슨일이지?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거야?"결국 참다 못해 엄마와 이비인후과에 성대진찰을 받으러 가게 됐다.

"아동인데 성대가 평균 성인 여성보다 굵고 깁니다.변성기 소견으로 보이네요"

그랬다.저 11글자를 토씨 하나 안틀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적잖은 충격이긴 했나보다.'변성기 소견으로 보이네요'여자는 안 오는 거 아니었나?아니 근데 잠시만 뭐라고...아직 애인데 여자 어른보다 성대가 길다니.말도 안돼.하필이면 내가 왜?

병원에서는 내 목이 폴립(굳은살) 없이 깨끗하다고 하며 목을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일단 병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었는데,오...아무생각도 안들었다.모든 걸 잊자고 여겼는 지도 모르겠다.대회는 당연히 망쳤다.내려온 음역대는 다시 올라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나보다.

그래서 자그만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별 일을 목소리 때문에 다 겪었다."남자분이 예약하셨는데 여성분이 오셨네요"는 예삿일이며,담배피냐고 그러질 않나 심지어 목소리가 그런데 성전환했냐,성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는 '순수한 실례'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많았다.당장 지난 학기에도 겪었으니까.이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상처는 받지 않아 다행인가.

일화를 더 풀자면 소개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면전에서 나를 더러 트렌스젠더냐고 한 사람에 대한 당혹감(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의식은 없으나)과,전화를 하는데 남자인 줄 알았다.어떻게 여자인데 목소리가 그렇냐.여성성이 없어서 좀 그렇다...등등.이렇게 '남과 다름'을 향하는 '차별의 시선'은 자연스레 나를 옥죄어왔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이런 차별들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라 내가 굳이 먼저 꼬리내릴 필요가 없다.왜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쓰느라 스스로 '차이'를 '차별화'하는데 일조하냐는 거다.그리고 남들과 다르면 자연히 튀게 되고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동양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했다.'여자는 여자답게 목소리가 여성스러워야지.' '그래야 사랑받지'참...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게하는 '난제'다.

차별과 차이는 한 끝 차이다.그것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동일시되는 순간 한 개인의 삶은 무너져가기 시작한다.그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15 14



2024/11/13
wednesday, pm 2:08 | 22읽음
전수현(법학과)

#13일차

[차별]

차별과 구별은 한 끗 차이이다. 구별은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성질이나 종류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지 성질의 등급이나 종류의 수준의 구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각 소득 분위를 계산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별해 놓았다. 하지만 그걸 누가 차별이라고 문제를 삼겠는가. 차별은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예민한 주제 중 하나이다. 성별, 인종 등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이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요즘 초등학생의 실제 사례이다. 친구들은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다녀 학교에 빠지는 날이 많은데,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형편이 안되어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생각하여 '개근 거지'라고 놀림감이 되는 것이다. 또한 '빌 거지'는 빌라 거지,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엘사'는 사기업이 지어준 브랜드 아파트에 살 형편이 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준, 즉 공기업이 지어준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비하 단어이다. 부모님의 차가 벤츠나 BMW가 아니면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이 비싼 의류를 교복처럼 입고 다녀 저렴한 브랜드의 의류와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차별적 문화가 많이 생성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빛나다'라는 키워드에서 말한 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저마다의 별을 품고 있다. 그 별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빛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인 것 같다.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평등이다. 평등은 신분, 계층의 평등이 아닌 기회와 능력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능력 차이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사람들을 동등하게 출발시키기 위한 제도가 평등한 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이 능력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잡는, 이에 나아가 발현한 능력이 한 사람의 능력이 빛을 보게 하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패럴림픽도 그중 하나이다. 출신, 성별 등을 떠나 본인의 실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것이 패럴림픽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별은, 하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차별을 하는 이유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 나와는 다른 이들을 괄시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걸 허세 부리고,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재미있어서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남을 차별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얻는 득이 정신승리 말고 뭐가 있겠는가. 모두가 열심히 사는 이 세상에서 도와주질 못할망정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본인도 깎아내린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5 7



2024/11/13
wednesday, pm 3:30 | 23읽음
서정원(심리학과)

#13일차
#13 '차별'
이번 키워드에서는 조직과 기업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역차별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어제 '일의 세계와 인사심리' 수업 토의 시간에 나온 질문이다. 조직과 회사의 상사 위치에 있거나 운영중인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물음에 답해보자.

Q1.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에 실제로 효과적인가?(ex:팀플에서 다양한 전공, 성별, 학년, 나이를 포함하여 선정)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성별은 상관이 없었고 학년과 전공에서 그 차이가 있었는데 고학년, 같은과로 구성된 팀일수록 팀플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의견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학과, 학년으로 구성된 팀일수록 창의적인 주제로 양질의 팀플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조직'은 창의성보다는 기존에 운영되는 방식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뜻이 맞는(같은 과) 일을 잘하는(고학년)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의 팀플을 생각해 보자. 옆 팀은 PPT 제작 경력 4년차인 제작자, 스피치 관련 대외활동까지 한 발표자로 구성된 팀이고 우리 팀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만 구성돼 있다.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전자의 경우가 조직에 더 효과적이다. 다만 이 경우 팀플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히 보일 수 있고 따라서 교수님이 채점한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면 신입생 팀은 팀 구성시에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의 팀플은 대부분 교수님이 무작위 혹은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하시는 듯하다.

Q2.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 효과적인가?(평가결과가 더 나은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보다)
기업의 경우에도 의견이 갈렸다. 회사 실적을 따졌을 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팀원이 있다. 예를들어 본인이 옷을 파는 회사의 영업팀장이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성 여름 하의'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한철 장사를 하는 것이 실적이 더 클지, 아니면 남녀노소 모든 계절의 모든 연령층을 타겟으로 옷을 파는 '유니클로' 같은 회사의 실적이 더 클지 생각해 보자. 후자의 경우 물량 공세가 가능하기에 회사 실적이 더 클 것이다. 다양한 연령층, 남녀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자연스레 직원을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이는 곧 실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연스레 차별문제도 해결된다.

반면에 희소성을 띠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기업은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에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희소성을 갖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 큰 투자를 해야 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로 구성된 다양한 의견을 내는 직원보다 희소성을 띤 상품을 이쁘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처리 하는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이 기업은 만약 정부 지침으로 인해 다양한 성별, 인종을 가진 사람들을 필수로 20%이상 고용해야하면 실적 향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충분한 스펙과 재능을 가졌지만 20%의 사람으로 인해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다.

Q3. 효과성과 무관하게 기업이 다양성을 갖도록 개입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효과성과 무관하게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사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이 질문은 더 생각해보고 보완해야겠다. 같이 생각해봅시다!

17 7



2024/11/13
wednesday, pm 7:33 | 18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13일차
차별
차별의 형태와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수 많은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구분을 짓고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겨난 선입견과 편견은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별은 보통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차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차별이 다시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 느낍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차별을 겪어본 경험이 살면서 여러번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한 없이 자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책이라기보다는 괴로웠습니다.

12 7



2024/11/13
wednesday, pm 7:46 | 25읽음
강하늘(심리학과)

#13일차
#차별

차별에 대한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다가
트로이 시반(Troye Sivan)의
'HEAVEN'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트로이 시반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수로 성 소수자입니다.

그는 15살 때 가족에게 커밍아웃했고 이 노래는 15살 커밍아웃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해요.
제 주변에도 성 소수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렸을 적 학교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진실을 말한 후 돌아올 차별 어린 시선이 무서워 말하지 않고 지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말하는 게 힘들고 걱정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때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를 말해주고 싶어요.

'Without losing a piece of me
How do I get to heaven
Without changing a part of me
How do I get to heaven'
'내 일부를 잃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내 일부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저는 언젠가 내가 나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kAD6msj45_c



내 일부를 잃는다면, 천국에 가지 않을래 트로이시반-HEAVEN

The truth runs wild
진실을 걷잡을 수 없어

Like a tear down a cheek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Trying to save face, and daddy heart break
난 표정을 숨기고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 두려워

I'm lying through my teeth
잇새로 거짓을 내뱉지

This voice inside
내 마음속 목소리가

Has been eating at me
날 집어삼키고 있어

Trying to replace the love that I fake
내가 거짓으로 꾸며낸 사랑의 자리를

With what we both need
우리 전부에게 필요한 것으로 메꾸려 하지

.

The truth runs wild
진실을 걷잡을 수 없어

Like kids on concrete
도로 위의 아이들처럼

Trying to sedate, my mind in its cage
차분해지려 애써, 내 마음을 우리에 가두고

And numb what I see
무감각해지려

.

Awake, wide eyed
잠들지 못하고, 크게 뜬 눈

I'm screaming at me
나 자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어

Trying to keep faith and picture his face
신념을 지키려 애써,

Staring up at me
날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떠올리며

Without losing a piece of me
내 일부를 잃지 않고서

How do I get to heaven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Without changing a part of me
내 일부를 바꾸지 않고

How do I get to heaven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All my time is wasted
지금까지의 시간은 헛되게 보낸 거야

Feeling like my heart's mistaken, oh
내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

So if I'm losing a piece of me
만약 내가 내 일부를 잃어야 한다면

Maybe I don't want heaven
어쩌면 난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

[Betty Who]

The truth runs wild
진실을 걷잡을 수 없어

Like the rain to the sea
바다로 흘러드는 빗물처럼

Trying to set straight the lines that I trace to find some relief
안정을 찾아보려 내가 쫓는 이 선을 올곧게 그려보려 했지만

This voice inside
내 마음속 목소리가

Has been eating at me
날 집어삼키고 있어

Trying to embrace the picture I paint
이젠 내가 칠한 이 그림을 안아들고

And colour me free
날 자유로이 칠해볼래

Without losing a piece of me
내 일부를 잃지 않고서

How do I get to heaven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Without changing a part of me
내 일부를 바꾸지 않고

How do I get to heaven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All my time is wasted
지금까지의 시간은 헛되게 보낸 거야

Feeling like my heart's mistaken, oh
내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

So if I'm losing a piece of me
만약 내가 내 일부를 잃어야 한다면

Maybe I don't want heaven
어쩌면 난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

So I'm counting to fifteen*
그래서 난 15까지 수를 세어봐

Counting to fifteen, counting to fifteen
15까지 세고, 15까지 세지

So I'm counting to fifteen
난 15까지 수를 세

Counting to fifteen, counting to fifteen
15까지 세고, 15까지 세지

So I'm counting to fifteen
난 15까지 수를 세

Counting to fifteen, counting to fifteen
15까지 세고, 15까지 세지

So I'm counting to fifteen
난 15까지 수를 세

Counting to fifteen, counting to fifteen
15까지 세고, 15까지 세지

☺ 19 ··· 12



2024/11/13
wednesday, pm 7:51 | 20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13일차 #차별

나는 무신론자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를 통해 종교가 사랑과 이해를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교황의 메시지를 접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동성애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종교적 교리의 이름 아래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는 종교적 가르침이 본래의 포용적 의미와 달리 권위적 해석과 보수적 가치관에 갇혀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황은 모든 이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종교적 공동체는 보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소수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벽을 세우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교가 지닌 포용의 본질이 흐려질 때 사람들 사이의 간극은 커지고 진정한 연대는 멀어진다.

물론, 종교의 힘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들도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마주할 때마다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3 5



2024/11/13
wednesday, pm 9:00 | 19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차별

＜ 차별을 없애는 방법 ＞

갈수록 사회가 삭막하고 차갑다고 느껴진다. 어른들의 따듯함과 한국만의 정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떤 문제든 남의 입장에서 고려해보았다면 과연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던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더라고 본인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적인 예시로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 영상을 볼 때 흔히들 "내가 하면 저것보다 잘하겠다!" 말하며 단숨에 비난하고 그들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 해보고 난 후에야 대단한 사람이었다며 뻘쭘해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나' 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수많은 남도 하나뿐인 '나'를 가진 사람이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 15



2024/11/13
wednesday, pm 9:16 | 21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13일차 #차별

차별 키워드를 보고 홍진경님이 비행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해서 박준형님한테 영어 표현을 배우는 영상이 생각났다. 외국 승무원이 샐러드 애피타이저 없이 메인만 가져다줘서 한국 승무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외국 승무원한테 사과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인종 차별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박준형님한테 컴플레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컴플레인 레터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배운 영어를 정리해 주며 영상은 마무리된다.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영상을 통해 컴플레인 레터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컴플레인 레터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작성하는 글이라고 한다. yelp라는 전 세계 1등 맛집 리뷰 앱이 있는데 실명 인증 덕분에 생생한 후기로 가득하다고 한다. 이 앱에 서비스가 별로라고 쓰고 직원의 이름을 써서 올린다면 그 글은 글을 쓴 사람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한

직원에게 제일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인종차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가능하다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차별인 것 같다. 이런 차별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오면 좋겠다. 만약 나중에 나한테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4 5

2024/11/13
wednesday, pm 9:24 | 18읽음
김경환(화학과)

#13일차

차별이라는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은 명확히 차별처럼 느껴지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차별로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연히 대학영어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을 오랜만에 마주친 것이 반갑기도 해서, 이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저는 모의 토익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영어 교과목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대학영어 3', '대학영어 4'로 나뉘었고,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 '대학영어 1'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영어 성적이 강제로 공개당해서 속상했고, '대학영어 1'을 줄여서 '대영1'이라고 부르며 장난스럽게 놀릴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1학기가 끝난 후 성적을 산출할 때, '대학영어 1'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 과목들은 평가 기준에 토익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익 점수가 단 1점이라도 부족하면 무조건 학점 F를 받는다는 획기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F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는지, 결국 이 제도는 다음부터는 단계별 감점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싶어서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학영어 1'에 배정된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단순한 차별이 아닌, 저의 영어 실력에 맞춘 학습 과정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 영어 성적이 노출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었던 추억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13 4

2024/11/13
wednesday, pm 9:54 | 25읽음
최오영(심리학과)

#13일차

여러분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글에서 “차별을 지양하자!”는 뉘앙스인 것 같아 저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성향도 드러내지 않음을 밝히며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 아시나요?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버스인데요. 한
측면에서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버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ex. 좌석
부족 등) 때문에 더 잦은 의견충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차별과
역차별을 논하기도 합니다.

차별과 역차별. 같은 걸 바라보는 듯 다른 듯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이기만 하면 좋으련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갈등인 걸까요?
학우분들이 생각하는 차별과 역차별의
인식이 궁금해지네요.

혹시 오늘 제 글에서 주제나 용어, 단어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 말씀
드리며 오늘 글도 마치겠습니다!

20 9



2024/11/13
wednesday, pm 10:32 | 19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3일차
아마도 설날이었다.
내가 꼬맹이었던 어느 해의 설날.

집안 아이들이 색색의 예쁜 한복들을 빼입고,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용돈을 받은 후,
어린 애들을 뒤로 물리고,
최고 웃어른인 할아버지가 무게를 잡고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선물을 건넸다.

수정인지 옥인지 핑크빛의 조약돌이
고추 모양으로 만들어진 핸드폰 고리
공예품 2개 각각을 우리 엄마, 작은 엄마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 후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애를 더 낳아라, 남자를 낳아라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집은 나 포함 여자 셋,
작은 집은 외동딸.

손주들이 다 딸인 거가 마음에 안 드셨나보다.
근데 저런 선물을 우리 엄마한테 준
행위 그자체가 어릴 때
나에게 큰 상처였나보다.
꽤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아직도 저날의 기억이 꽤 생생하니.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내게 거짓된 사랑을 고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중학생때 직접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다.
엄마나 작은 엄마가 지금이라도
임신해 남아를 낳는다면
그래도 날 가장 사랑해주실거냐고.

할머니는 그순간 내게 거짓을 말하면
내가 간파하실거라 생각했는지
내게 진실되게
손자를 더 좋아하실 거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더더욱 내 성별에
혐오감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수십년간 이러저러한 일이 쌓여
나는 내가 여성인 게 싫었다.

물론 남성으로서 겪는 고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여성이기에 그들의 불만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법이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내가 편하게 지냈던
남자들에게 다음 생에 무슨 성별로
태어나고 싶냐고 물으면
내 표본 데이터가 적어 신뢰성은 잃겠지만
어쨌든 내 지인들로 설문했을 시
남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이것도 내 존재가 싫었던 이유이다.

지금에 와서는 나는 혹여나 내가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면
다 남아였으면 좋겠다.
내가 느꼈던 이 감정들을 태어나지도 않은
내 여아가 느끼길 원치 않는다.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표면적 차별이 사라진대도
표현하지 않을 뿐 내가 늙어 죽을때까지
혹은 내 사후 꽤 오랜 시기까지
이 보이지는 않아도 서로의 성별을
차별하는 의식들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15 7



2024/11/13
wednesday, pm 10:42 | 19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3일차
"우린 다르다"

난 가난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부유한 적
없지만 가난이라 칭할 만큼 뼈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적도 없었다. 물론 장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몸이 아파 앓아 눕는
날이 많대도 병원을 갈 팔 다리가 있으니
말이다. 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삶도 잘
모른다. 사회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모습,
그로 인해 견뎌야 하는 무게 같은 것도 알 수
없다. 또한 난 아직 자녀이기에 부모의 마음도
모른다.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늠만
할 뿐이다. 난 황인종이기 때문에 백인의
삶도, 흑인의 삶도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누군가의 삶도
느낄 수 없다. 청년이기에 노인의 삶을 가늠할
수 없고, 현 청소년 세대의 문화를 공감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나는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상처를 긁었을지 모른다. 이것이 차별의
출발이다.
차별의 시작은 무지다. 알지 못하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니 배척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 차별이다. 여기서 아주 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 또한 그랬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상은 우리 삶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 예시를 들겠다. 만약 가정
폭력을 당한다면 그 피해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트라우마가 생길까? 몸과
마음의 상처 회복을 위해 애쓰게 될까? 뭐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상처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의 구체적인
실현을 생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상상을
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분명히 있다.
세계 미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단 소식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쟁쟁했던 후보 사이에서 그녀가 1위를
거머쥘 수 있던 이유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이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사회자가 물었다. 이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이다. 우리 나라 대표는 그 해답이
'공감'이라고 말했다. 세계 전 분야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악화의 원인은 공감의
결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상은 다름으로 가득하다. 나도, 너도, 그도,
그녀도 모두 다르다. 길이라고 같은 길이

없으며 가로수라고 같은 가로수는 없다. 우린 같은 시간 속을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간과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의 다름은 더 깊어져 갈 것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차별이 된다. 너와 나는 틀리다고 심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차별없는 세상은 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은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그 꿈을 이뤄가는 하나의 사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힐 것이다.

14 8



2024/11/13
wednesday, pm 11:01 | 26워읍
김명빈 (미디어스쿱)

#차별 ? 솔직히 저도...

때는 바야흐로 대 혐오의 시대, 대 차별의 시대.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날을 세우고 알고리즘은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보여준다.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편승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차별을 하게 된다.

바로 '과제 차별' 말이다...

사실 어려서부터 우린 과목을 가려 공부하지 않았나?
좋아하는 과목에는 애정을 쏟고, 싫어하는 과목은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선조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다.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어떤 과제냐에 따라 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니
그야말로 '과제 차별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내겐 -미디어스쿨의 빛과 소금인- 이황석 교수님과 조상미 교수님 수업이 그러하다.

두 분 수업에선 나도 모르게 인간 다글로(daglo) 모드 -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 대학생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다.-가 된다. 이황석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에 감탄하고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조상미 교수님의 따뜻한 피드백은 과제도 팀플도 즐거운 취미생활처럼 느끼게 한다.
자연스럽게 두 분 교수님 수업에 애정이 가고, 정성을 쏟고, 잘 해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열심히 하게 된다.

이번 학기가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두 분의 수업이 내 시간표에 없기 때문이다. 과제는 해도 해도 사라지지 않고, 휴대폰 상단바는 스마트리드 알림으로 도배된다.

꽉 찬 상단바와 달리 마음 어딘가가 허전하다. 다른 교수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다 보니 애정이 갈피를 잃은 것 같다. 학문에 대한 열의, 그것도 좋아하는 분야여야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나의 '과제 차별'이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차별 없이 모든 수업과 과제를 사랑하기란 내겐 쉽지 않다. 어쩌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솔직하게 과제에 애정을 나누는 게 내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지도.

뭐, 이렇게 '선택적 과제 애정증'을 가진 게 나뿐만 아닐 거란 나름의 합리화를 해본다. 하기 싫은 과제여도 잘 해내는 게 진정한 어른이겠지?





#13일차

17 12



2024/11/13
wednesday, pm 11:04 | 17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3일차 #차별

[스물여덟 번째 접시]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것을 보면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몹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과 다른 피부색, 인종, 문화 등을 보면 ' 다르다 ' 라는 점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어딘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현상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 차별 ' 이 되고, 더 심화된다면 ' 혐오 ' 가 되어 ' 혐오 표현 ' 이 생깁니다. 노래 가사, 교과서, 강의, 연설 등 많은 곳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자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차별이 사라지고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오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차별은 사라지기 아주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편견도, 차별도 하지 않고 상대를 올곧게 바라봅니다. 그저 자신과 같은 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이 빛바랜 어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까지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3 6

2024/11/13
wednesday, pm 11:05 | 20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고 조별로 퀴어 축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교양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팀원 여섯 명 중 저를 포함해 세 명이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셨고 그 중 저를 제외한 두 분은 퀴어 축제를 넘어서 성 소수자 존재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이셨습니다. 자세히 쓸 수는 없으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독교적 사상이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직하게 저는 그 주장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무례한 언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몇 천년 전 쓰여진 교리 하나 때문에 종교 집단의 주도 하에 구원이라는 위선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했는지 또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배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그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성 소수자들에겐 주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기독교인들은 교리의 가르침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적으로 골라 사랑하고 용서한다며 기도합니다. 흉악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 하면 구원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천국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과 조두순 유영철 같은 피해자에겐 용서를 구한 적 없지만 하나님께는 용서 받[illegible] 받은 범죄자들이 있고 지옥에는 성[illegible]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교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진짜 지옥은 어느 쪽일 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어떠한 핍박이나 차별 없이 신의 뜻을 닮아 살아가는 훌륭하신 분들 또한 정말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때가 있었어서 동성애 차별이 주류 관점으로 자리잡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지금도 큽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랑과 공감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치의 인종 청소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인종 차별 범죄였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독교도 성 소수자 배척이 차별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종교라는 이름 하에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소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5 4

2024/11/13
wednesday, pm 11:15 | 19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3일차
학과 특성상 장애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 차별하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장애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애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라마

장면이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장애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고, 그런 차별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때 되게 뜨거웠던 “선재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드라마 초반에 여주인공이 사고로 인해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는데, 서류합격으로 회사로 면접을 보러가게 되었죠. 근데 알고보니 2층 회사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어서 면접을 보지 못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죠

다른 부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버스를 탄다고 하면 버스 타고 내릴 때 휠체어를 옮기고, 안전 장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조금의 여유도 용납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기다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모욕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 시선과 말은 다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부분이고요. 또한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계단에 자리를 차지한다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에 타게 되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있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길이 장애인들에겐 눈치 보이고, 힘든 여정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 7

2024/11/13
wednesday, pm 11:17 | 19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3일차

차별이라는 주제는 쉽게 어떤 글을 쓰기가 어렵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별에 관한 주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로 정말 많이 싸우고 있다. 생각해 보면 개개인이 정말 다른데, 살아온 환경, 부모님 등등,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평등과 무차별은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노인차별 ,장애인 차별 등

현재 우리는 수많은 차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차별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요즘에 차별에 느낌은 옛날처럼 정말 부당한 차별보다는 누가 더 기분이 나쁘고 누가 더 양보하냐의 싸움이 된 것 같기도 한다.

남녀차별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벌기에 여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남자들은 힘든일을 할때는 주로 남자를 더 시킨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말한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유없이 흑인들을 과잉진입 한다고 하며 백인들은 똑같이 노력을 해도 대학교에 입학할때 유색인종들이 합격가능성을 크게 준다고 오히려

차별이라고 한다.

가난이라는 이름 아래에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을 중간층에
사람들은 예매한 정책으로 자신들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며

부자들은 엄청난 세금과, 증여세 등으로 이것
또한 차별이라고 한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자고 하지만 , 차별
없는 세상이 되는 것, 누구나 평등한 세상은
아무래도 복잡한 것 같다.

12 6



2024/11/13
wednesday, pm 11:37 | 16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3일차 #차별

복수전공 강의 시간에 배운 다문화 청소년의
의미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을
걸쳐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청소년
연령에 속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점은 학교
부적응, 언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경험, 높은 일탈 가능성
등이 있다.

이 중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한국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친구를 사귀는 것에 방해요인이
된다. 편견을 가지게 되면 색안경을 끼는
것이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하는 행동들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다.
인격적으로 존중과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조별로 특별학교 및 특별학급을 만드는 것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토의해 보았다. 모든 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 역시 그들끼리 분리하는
것만큼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나누지 말고 일반 학교에
진학해서 청소년들이 중학교 교육과정 때
필수로 다문화 과목을 이수하게끔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학우의 의견을
덧붙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을 듣게 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있는 (자발적) 멘토멘티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1 6



2024/11/13
wednesday, pm 11:45 | 19읽음
박현민(심리학과)

#13일차 #차별

인간은 자신과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반감을 갖는다. 그로 인해 나와는 다르니까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보통의
인간관계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때로는 질책이나 혐오를
내뱉기도 힌다.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하나둘
쌓여 '차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행하는 사람들이 놓친 부분은, 일부의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생각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로 돌아온다.

상처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고 마음 속에 남아진다.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각자 살면서 겪어온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인 것이 당연한데 이를.. '틀리다' 생각해 행하는 사람들의 언행들의 씁쓸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어찌 사람이 단편적이라 생각하여 모진 말을 내뱉는 것일까. 사람은 입체적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했던 것은 언제나 단편적인 면일뿐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의 면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이옥섭 감독이 했던 그런 말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기보디는 사랑하라고. 자신이 싫어했던 모습의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사랑스러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입체적인 것을 생각하여 좀 더 타인에게 다정해지길 바란다.

11 4



2024/11/13
wednesday, pm 11:45 | 19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3일차
차별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흔하게 존재하지만 때로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입견이 그것입니다. 한때 나이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배와 후배를 만날 때 선배는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고 후배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후배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덜 존중하고 역할을 한정되게 했던 행동이 후배들에게 위축감을 주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을 극복하고 편견을 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나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되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편견을 깨는 작은 노력이 쌓여갈 때, 우리 사회는 점차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다른 배경, 나이,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존중하려 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이나 배경으로 인해 누군가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편견이 드러나는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차별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13 6



2024/11/13
wednesday, pm 11:46 | 18읽음
정우현(철학과)

#13일차

오늘날에 차별을 안 당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큰 차별이든 작은 차별이든 피해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어렸을 적 원주에 살다가 춘천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평소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습니다."내가 공부 제일 잘한다"한마디로 애들은 제 성적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한 번도

저는 성적으로 놀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전학 왔다고 차별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셔틀런이 끝나고 화장실을 가서 처음으로 토를 했습니다. 1등을 했고 첫 번째 증명이었습니다.

원주에 있을 땐 제가 친구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었습니다. 놀림을 받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됐습니다. 내가 진짜 공부를 못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고 충격을 받아 집에 가자마자 역사책을 두 시간 동안 매일 봤습니다. 결국 저랑 제일 친했던 외고에 간 엘리트 친구보다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주는 피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화가 났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큽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면 차별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본인 자신뿐입니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13 6

2024/11/13
wednesday, pm 11:56 | 15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3일차
저는 최근 통일부가 주최한 강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고, 제가 기대했던 연령대는 주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체로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참가자가 많았고, 이는 제게 다소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예상치 못한 연령대와의 만남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통일부 관계자 분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통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었고, 그 후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2부로 넘어갔습니다.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랜덤으로 나누어진 조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두 분과 중장년층 3명, 그리고 노인 분 두 분과 함께 한 조가 되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 앞에 계신 두 분의 노인 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북한을 떠난 분들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었기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가진 고통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부당한 현실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한 할머님이 전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머님은 A4 용지 한 장을 들어 보이시며, 북한에서는 종이 자체가 매우 귀한 자원이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처방전조차도 그 용지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지 한 장은 매우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물건이라 동네 주민들 중 한 사람이 병원에 다녀와 처방전을 받으면, 그 처방전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돌려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너무나 쉽게 쓰고 버리던 일상적인 물건, 종이가

북한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원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할머님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말하시면서, 물질적인 부족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탈북 후에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분단된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처방전 한 장의 소중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넘쳐나는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겪은 현실은 그저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마저도 간섭받고 제한되는 고통의 연대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겪는 차별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크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해 가지는 시선이나 차별이 단순한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역사와 그들의 삶의 상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나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통일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정치적 논의나 경제적인 이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는 내가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되돌아보게 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 5



2024/11/13
wednesday, pm 11:57 | 17읽음
이나영

#13일차 #차별

차별은 혐오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혐오는, 단순히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내면화된 사회적 편견이다. 혐오는 타인을 열등한 대상으로서 차별화하고 타자화하는 행위이다. 역사 속에서는 늘 인종 차별, 여성 차별 등이 존재했다.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은 사회를 결속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고, 갈등을 이용하기 위해 혐오를 사용했다.

태어나자마자 신분, 성별, 인종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해 차별받는 불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등'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나 또한 필연적으로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며 학습하는 사회적 가치관 곳곳에 숨겨진 불공평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서서 해결하지는 못한다. 많은 경우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당장 눈앞의 내 상황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헤아려보고 공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이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는 당연하게도 사람들의 더 큰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만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설령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타인의 삶과 입장을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다. 받아들이는 바는 다 다르기 때문이다.

현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나 또한 강자의 입장이기도 하며, 동시에 어떤 갈래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요소, 낡은 전통문화와 가치관에 의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고, 유머와 밈(meme)으로 이미지가 소비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SNS,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비하적 용어와 밈이 수위 조절 없이 소비되는 것 같다. 비하와 조롱이 섞인 단어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그저 재미있으니까 사용한다.

나는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며 다양한 청소년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보았다. 또래 멘토와 봉사자 이외에도,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조차 아동 혐오를 농담처럼 내뱉는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진상 학부모들을 통틀어 '맘충'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례 속 진상은 남성분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동, 청소년을 비하하는 용어들은 장난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내면화되기 마련이다. 미성숙하고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로 아이를 비하하는 '잼민이'란 단어는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를 잼민이라고 지칭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으며, 어린이를 뜻하는 '~린이' 또한 새로운 운동이나 게임에 입문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라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평등하고 좋은 문화를 지향하고, 차별과 혐오에서 비롯된 옛 가치관을 지양해야 한다.

14 9



2024/11/14
thursday, am 12:17 | 20읽음
김양선

#1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차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을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네요. 외모차별, 키차별부터 나이와 성별, 장애와 성소수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차별의 두터운 벽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타자를 향한 열린 마음과 배려, 평등한 내일을 꿈꾸며, 좋은 밤 보내세요.

14 0



2024/11/14
thursday, am 12:18 | 19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13일차 #차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로 우리 사회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당연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면에 내재된 편견,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중 무심코 내뱉은 말, 그리고 아버지가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전용 아이 돌봄 시설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 우리는 그 역사를 잊고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사건을 지구 반대편의 일로 다루며, 그저 다른 진도를 더 나가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홀로코스트(Holocaust)'입니다.

홀로코스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집단학살 사건입니다. 나치 독일 정권은 동맹국, 협력자들과 함께 약 1100만 명의 사람들(민간인과 전쟁포로)을 죽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폐망한 독일 사회에서 떠오른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배한 독일은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찍어낸 돈은 독일 경제에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히틀러는 독일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며 추종자를 얻었고, 나치는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 편견을 이용해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을 나라의 문제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주장에 일부 독일 국민들은 빠져들었고, 나치당은 총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얻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 대통령은 힌덴부르크였고, 나치당의 득표로 히틀러는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독일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반유대주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이미 유럽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이었고, 나치는 이에 자극을 주어 인종적 반유대주의를 조장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리며, 유대인과 다른 인종들을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독일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탄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반유대법(뉘른베르크 법), 공개적인 식별(다윗의 별), 배제, 집단 폭력(수정의 밤), 강제 이주(게토), 수감, 약탈, 강제 노동 등.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들에게도 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수록, 희생양으로 사회적 약자가 먼저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차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로 확산됩니다. 홀로코스트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집단학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편견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며, 결국 집단학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과 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4/11/14
thursday, am 7:52 | 35읽음
김양선

#14일차 키워드 : 물들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의
계절, 가을이 시나브로 저물고 있습니다.
‘물’은 빛깔이나 색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비단 색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이나 성격에 물들기도 합니다.
‘물들다’, ‘물들이다’ 이 단어를 보며 든 생각,
누군가에게 물들거나 누군가를 물들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8 0



2024/11/14
thursday, am 8:58 | 22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4일차

인간은 태어남에 있어 본질부터
백지이다.이후엔 다른 이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서,점차 여러 색깔로 물들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색깔이 '빛깔'일 수는
없을 것이다.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색 뿐만
아니라 '얼룩'도 엄연히 존재할 테니.

그래서일까?어른들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런 얼룩이 묻을까 노심초사하며 온갖
주의를 기울인다.좁게는 교우관계부터
넓게는 접하는 미디어를 포함한 교육까지
말이다.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의 깐깐한
평가를 거친 소위 '양질'의 것에 노출되어
물이 든다.따라서 부모의 의지 아래 여과된
것들은 부모의 의사가 개입된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자연스럽게 부모와 닮은 색으로
변해갈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오늘은 이 내용을 빌려 뜨거운 감자인 '교사와
진상 학부모' 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030세대는 알 것이다.정확히는 해당
세대부터 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이 선생에게 대든다'라는 문장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아니,성립
불가능했다.과제 안 해오면 손바닥을 맞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체벌이 존재했으며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 위에 있어 시키는
것은 뭐든지 따라야만 했기 때문이다.일단
교사와 학생의 위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분위기 자체가 그랬었다.왜 어른이
혼내는데 대드냐는 것.교육에는 당연히
훈육도 포함되어 있다 봤기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교권이 곤두박질쳤다.학생이
오히려 교사를 만만히 여기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종국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범죄까지 등장한 실정이다.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과거 교사에게 통제 받았던 학생들은 현재
성인이 되어 결혼과 출산을 하고,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됐다.이에 대부분은
교사와 학교를 믿으며 지침에 성실하게
따른다.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니 잘 대해드려야지"라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이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별 사람이 있으매 독특한
종자들은 꼭 있는 법.이들은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라며 교사를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당신 같은 사람은 교사 자격
없어!"처럼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붇는다.이러한 반응에 교사들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교사도
사람이다.당장 이런 소리를 남에게 들으니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까지 할 것이다.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고소해버리겠다며 되려 교사를 '협박'했다고 하는데 실제 법적 절차를 밟는 교사들의 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한다.

그렇다.현 상황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건대,여러 원인과 사정이 있겠으나 내겐 과거 '을'이었던 학생이 커서 '갑'인 학부모가 되자 마치 앙갚음을 하듯 과거와는 아무 상관 없는 제 3의 교사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마치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 만큼은 나처럼 교사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지낼 수 있을거야.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당신들이니 우리한테 잘해야지.애들 없으면 니들도 없어! 같은 복수심과 이기심으로 덩어리진 것 마냥.

니체가 남긴 명언 중 "괴물과 싸울 때는 본인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라는 문장이 있다.또한 비슷한 흐름으로"당신이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가 있다.이는 주로 어떤 것에 관심있게 대응하는 것은 좋으나 분에 차거나 몰두한 나머지 자신마저 갉아먹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과거에 아무리 남으로부터 '오염'되었다거나 설사 '얼룩'졌다하더라도 그것에 감정을 품어 타인의 빛깔을 망치거나 덮어버려선 안된다는 걸 내포한다.그 길의 끝은 역사가 말해주듯 파멸만이 기다릴 뿐으로,원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까지 검게 얼룩지게 될 것이니까 말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얼룩은 또 다른 얼룩을 물들인다.각자의 고른 색깔을 나누어 물들여 줄 시간도 모자란 게 우리네 인생인데 존중하지 못할지언정 얼룩으로 오염시켜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15 19

2024/11/14
thursday, am 10:24 | 16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4일차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게 서로에게 물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환경에 맞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물드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성격은 누구한테나 쉽게 물들어 버린다고 생각한다.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의 특성이나 성향이 조금씩 나에게 묻히는 기분이다. 말을 험하게 하는 친구에게는 똑같이 험하게 나온 다거나, 장난을 잘 치는 친구에겐 장난을 많이 친다. 또 잠을 일찍 자는 친구와 친해지면 나도 그 패턴에 맞게 자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금방 다른 사람에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 과연 내 자신인지는 잘 모르겠다.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장점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방금 말한 잠 패턴에 대한 문제도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좋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어 나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외에도 무례하거나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에게 똑같이 본보기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기분을 나쁘게 해주기도 한다.

단점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을 때 그 영향이 내가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일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별과제에 부원이나 조장이 의지가 없고 대충하고 싶어

하면 나도 똑같이 닮아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같이 다니는 친구가 게으름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친구면 나도 똑같이 그 행동을 닮아간다. 내가 집에서 쉬는 날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 속에만 있다거나, 하루 종일 뒹굴뒹굴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 색을 다 물들일 수 있는 좋은 기질이 있지만 검은색도 물들일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것 같다. 수용범위를 잘 지켜 나만의 색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

13 7



2024/11/14

thursday, am 10:46 | 16읽음

유채원(일본학과)

#14일차
할머니가 봉숭아로 내 손톱을 물들여 주었던 추억이 있다. 나는 초등학생 때까지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친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부모님과의 추억보다 훨씬 많다. 그중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봉숭아를 물들인 추억은 지금도 가끔 생각날 정도로 좋았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봉숭아꽃을 구해와서 작은 절구에 빻았다. 그리고 내 손톱에 빻은 봉숭아꽃을 한 뭉텅이씩 올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조심스레 내 손에 비닐장갑을 끼웠다. 곧이어 고무줄 같은 것을 봉숭아가 고정되게끔 칭칭 내 손가락 마디에 감았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손톱에서 주황빛 노을이 반짝였다. 봉숭아가 예쁘게 물들여진 것을 보고 나보다 더 기뻐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4 7



2024/11/14

thursday, am 11:09 | 17읽음

전수현(법학과)

#14일차

[물들다]

'물들다'는 키워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풍이었다. 난 겨울과 가을을 좋아하는데, 겨울은 연말과 성탄절의 향기, 하얀 눈으로 물든 거리를 좋아한다. 가을도 마찬가지다. 단풍으로 물든 거리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유독 단풍이 늦게 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단풍은 '식물의 잎이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그렇게 변한 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단풍은 왜 물드는가, 나무의 잎에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자가분해가 진행된다. 엽록소가 자가분해 과정에서 안토시안이 생성되면 붉은색, 갈색 계열, 안토시안이 생성되지 않으면 노란색 단풍이 되는 것이다. 가을에는 비가 적게 오고 가뭄이 이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엽록소의 파괴속도가 빠르기에 색깔이 선명하게 물드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단풍이 추석 즈음에 물들기 시작하는데,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였다. 우리나라는 평균 10월 최고 평균 15도 최저 평균 5도였고, 이번 연도는 최고 평균 23도 최저 평균 10도였다. (찾아보다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무래도 단풍이 늦게 드는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있는 것 같다. 다른 것보다 가을의 단풍과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지만, 아직까지도 오후에는 더운 느낌이 있다. 얼른 온도가 내려갔으면.
지구 온난화가 문제일까. 지구온난화를 만든 인간이 문제일까.

앞선 글에서 설명했던 초등학생들의

사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본성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주변 환경에 의하여 물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괄시하고 비하하는 것은 결국 SNS를 이른 나이에 시작하고 그러한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SNS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안되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엔 정서적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 된 미성년자들이 정보의 바다에서 옳고 그름, 거짓 뉴스를 구별할 능력 없이 무작정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을 그들에게 물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2 5



2024/11/14
thursday, am 11:40 | 20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4일차

"물들다" 하니, 저는 새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우가 익는 과정에서 검은색이였던 새우가 빨간색으로 물들여지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곧 점심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살짝 배고프네요.
저는 이상하게 음식이 구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그 모습을 보면 살짝 마음이 편안해진달까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음식은 구워질 때야말로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색만 더해졌을 분인데 먹음직스러워보이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빨리 점심을 먹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실건가요?

14 11



2024/11/14
thursday, pm 1:44 | 15읽음
이쥰호(사회복지학부)

#14일차
'물들다', '물들이다' 하면 마치 저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친구들로부터 '물들다', '물들이다'에 관한 경험담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학생 때 이야기 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동아리 친구랑 사귀었고, 그 친구랑 마음이 잘 맞아서 언제 어디서나 매일 붙어 다니는 소울 메이트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착했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니다,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접시를 깨뜨리고,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2층 높이에서 깨진 접시를 던졌습니다.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잠깐 혼나고 끝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때 제 친구의 본심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저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랑 놀러 다니는 도중, 엄마랑 전화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던 저는 핸드폰을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던져서 핸드폰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친구도 화가 나면 무언가를 던지고, 혼나지 않기 위해 접시를 2층 높이에 던졌습니다. 저는 친구로부터 물들인 상태였고, 그 친구 또한 저의 행동으로부터 물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같은 학교였지만, 제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먼저 아는 척 하면 저에게 친한 척 하면서 조금씩 놀리고, 3학년 때는 밤까지 학교에 남아서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반에 소화기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성인이 됐을 때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친구랑 자연스럽게 절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친해지고 2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랑 다른 반이 됐고, 저는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없어 매일 이 친구네 반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이 친구네 반에 가게 됐고, 친구랑 맨날 연락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고, 돈을 안 가져와서 택시를 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비 대신 내달라고 시키고 돈 더 준다고 부려먹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화가 나면 무작정 다 때려부수고 자신의 손이 망가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벽에 주먹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그 친구 일로 부모님과 자주 싸우게 되었고, 싸울 때마다 그 친구가 화낼 때 하는 행동들을 따라서 벽에 주먹질을 하고, 성격도 화만 내는 모습이 그 친구에게 물들었던 저의 경험입니다. 지금은 2명의 친구랑 절교를 하고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인연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12 12

2024/11/14
thursday, pm 1:57 | 18읽음
김경환(화학과)

#14일차

'물들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스며들어온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어느덧 3주차 14일까지 왔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키워드에 맞춰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제 생각도 한 겹 한 겹 덧칠해지며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키워드에 대해 탐구해보고 타인의 생각도 받아들이며 함께 물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만의 고유한 색이 더 풍부하게 물들어가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들어가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봅니다.

13 7

2024/11/14
thursday, pm 3:35 | 17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

#14일차
물들다

"물들다, 물들이다" 는 단순하게 색이 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떠오른 생각이 어떠한 감정이 어느순간 서서히 스며들어 내 안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나를 물들일 때 느껴지는 그 잔잔한 설렘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감정이 공유되고 공감이 되어서 물든다든지 등등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물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론 우리를 조용히 울리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니 어쩌면 자주 문득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을 좋아합니다. 바쁘디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마음 속안으로 물들이는 경험들이 흔하다면 흔하고 드물다면 드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서서히

물드는 것들이 모이고 점점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처럼 우리 서로를 물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2 6



2024/11/14
thursday, pm 4:17 | 20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4일차
처음 '물들다'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은 다른 사람의 성경을
닮아가는 의미의 물들다가 떠올랐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다. "질 나쁜
애들이랑 놀지마. 놀다가 그 애들한테
물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다. 분명
닮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나는
저절로 닮는다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
나는 성인이 되기까지 술 담배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 대신 항상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친구들에겐
물들고 싶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다가 가서
같이 놀았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생각이 난 것은 '봉숭아
물들이기'이다. 어렸을 때 많은 친구들의
손이 봉숭아로 인해 주황빛이 돌았다. 물들인
색이 너무 진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아서
너무 예뻤다. 몇몇 애들은 너무 과하게 해서
진하기도 하긴 했었다. 나도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봉숭아를
구하는 법조차 몰랐다. 지금에야 다이소 가면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 때 당시 내 주위
친구들은 진짜 꽃을 따서 봉숭아 물들이기를
했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봉숭아가 없어서
물들이기를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하는 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물드는게 두려워서 못 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단풍이 생각났다. 가을을 알리는
것 중 하나가 단풍인 것 같다. 여름엔
초록색이었던 잎들이 가을만 되면 노란빛,
주황빛, 빨간빛 등으로 탈바꿈된다. 하지만
유독 올 가을은 단풍이 좀 느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저번 주 시민지성 한림연단에
오신 정지아 작가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자신은 지리산 밑에 사는데 아직 지리산은 잎
색깔이 푸릇푸릇하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엔 단풍이 늦게 찾아오는 구나 싶었다.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 밖을 보니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 단풍이 땅 떨어진 것을 보면
뭔가 예쁜 색을 가진 그림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도 많이 없어 더욱 예쁜
것 같다. 기숙사 창문으로 살짝 보이는 붉은
잎들도 꽤 이쁜 것 같다.

이번 키워드인 '물들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물들다'가 우리에게 주는
강렬함은 강한 것 같다. 앞으로 이어질 가을
동안 더 많은 '물들다'를 느낄 것에 기대가
된다!

13 14

우리끼리,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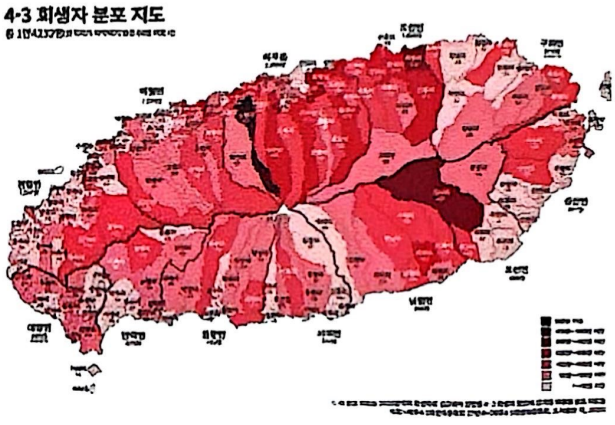
2024/11/14
thursday, pm 4:33 | 28워용
서정원(심리학과)

#14일차



<천명(天鳴)>, 김요섭, 1991

※ 초토화작전 시기의 피학살지 : 펼치기 · 접기



#작별하지않는다
경북 지역 보도연맹원 1만여 명
대구형무소 1천 5백 명 재소자
경산 코발트 광산 및 인근 가창
4월 3일 제주도 중산간지역
그곳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며

1948년 제주도에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깡패
서청세력(이하 서북청년단)이 있었다.
새빨갛게 물든 극우 성향의 청년단체로,
자유당의 편에서 백색테러를 무수히
자행했던 준군사조직에 맞먹었던
조직이었다. 빨갛게 물든 이 단체는 4월3일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또한 잔인한 피로
빨갛게 물들였다.

이승만과 미군의 후원 아래 제주 사태의
최일선에 서게 된 서북청년회는 군 · 경
모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중산간마을인 애월면 광령리 주민이던
고치돈은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했다가
그곳에서의 무차별 총살에 놀라 다시 제주읍
외도리로 소개했다. 고치돈은 외도리
민보단장이 처가 쪽 친척이라 그의 배경으로
양민증도 비교적 빨리 얻었고, 특공대에
편입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치돈은 특공대 시절 목격했던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들의 잔혹했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내가 외도지서 특공대 생활을 할 때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이윤도(李允道)의
학살극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날
지서에서는 소위 '도피자가족'을 지서로 끌고
가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총살터로
끌려갈 적엔 이미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됐지요.

이윤도는 특공대원에게 그들을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스스로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눈이 튀어나오며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때 약 80명이
희생됐는데 여자가 더 많았지요. 여자 중에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윤도는 젖먹이가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자 칼로 아기를 찔러 위로 치켜들며
위세를 보였습니다. 도평리 아기들이 그때
죽었지요.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며칠간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71쪽-

서청 사람들이 잔인해그네, 내내 가이 댕기던
민보단원들도 수틀리면 죽여분다는 소문이
이시난 나는 걱정되었주게. 파출소 마당에다
산사름 각시를 총검으로 찔렁 눕혀놔그네
민보단 사람들헌티도 다 한 번씩 죽창으로
찌르렌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난. 아무헌티도

원수 살 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거념허민
우리 서방은 항상 그래서. 이냑은 통역 일만
한다곡. 서청이 제주말을 못 알아듣곡 제주
사람들은 서청 말을 못 알아들으난,
소까이ㅡ소개ㅡ때 중산간에 불 놓으렁 댕길
때도 우리 서방은 문 두드렁 나옵서... ...

-초토화 작전:해안선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 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위배하는 자는 총살에 처할 것임.-

제주도는 과거 조선 시대부터 유배지였고,
유배지 특성상 어업이 발달하지 못해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바다
주변보단 중산간 지역에서 생활하던 주민이
많았는데, '무장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서청 세력은 이 사정을 고려하는 척도 하지
않고 중산간 지역의 주민을 학살하였다.
바다에 이웃이 있어 운 좋게 해안선 5km
반경 안으로 내려온 이주민들도 '반공'
프레임을 씌워 학살하였다. 뭘 해도 죽을 수
있었던 현장이다.

서청 세력은 어떻게 이런 잔학무도한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청 세력은 주로
평안도에서 월남한 사람들로 구성된
청년단체(양호단, 대한혁신청년회,
함북청년회, 황해회청년부, 북선청년회,
평남동지회, 평안청년회)들이 모인 세력이다.
이들은 대부분 개신교 신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상에 의해 박해받으며 살았다. 박해는
살인까지 이어졌고, 박해받은 이들은 대부분
가족을 잃은 채로 월남하였다. 이들이
공산주의를 향한 '복수귀'가 되어 제주도에서
저지른 일은 절대로 정당화되면 안되지만,
이들에게는 월남 후 반공 정권의 지시를 받고
'빨갱이' 들을 처리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군의 이념은 각자
달랐다. 친러 성향, 친미 성향은 기본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분파의 독립군이 있었고,
일제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이념을 가졌던 이들은 좀처럼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독립 이후에 강대국에 의해
갑자기 북쪽은 빨갛게 물들고, 남쪽은 파랗게
물들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분파의
정치적 이념을 따랐던 이들은 또다시
혼란스럽게 각 나라의 한 가지 이념만
강요당했다. 북쪽에 있으면 공산주의를
따라야 했고, 남쪽에 있으면 자유주의 사상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에 글을 읽지 못했던 국민이 어떻게
사상과 이념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특정
사상이 본인과 주변에 도움이 되면 그 사상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서청 세력은 원래 개신교 신자가
대부분이었는데,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이념을 강요받다가 이념에
박해받고 결국에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형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고,
제주도 주민 또한 마찬가지다. 3.1절
행사에서 일어난 경찰의 발포 사건에 대해
정당히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뿐인데
이곳저곳에서 극우, 극좌 세력임을 자칭하는
세력이 개입하고 주민을 포섭하면서
4.3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제주도
주민이 무엇을 알았겠는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알았겠는가? 이들은 그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았던 선량한
주민이었고, 갑자기 이념이 개입하여 더
혼란스러워졌을 뿐이다.

이념에 물들어 학살자가 된 서청 세력과
학살된 제주도 주민. 힘이 없던 나라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큰 힘으로 또
갈라졌던 우리는 스스로 또 4월 3일의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러면 탄압받고 갈라져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일제강점기의
열사와 강점기 이후 제주도 주민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강대국에 의해

통일되고 분단된 것이면 그들의 노력과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날의 기억과 진실은 탄압과 제제 속에서 희미해질 것 같지만, 악착같은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의 영혼이 종속되어 그 뜻은 후대까지 이어져 온다.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의 글을 빌려보자면,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름 방학에 제주 4.3사건의 현장을 담아낸 한강 작가님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는데요, '물들다' 키워드를 보고 4.3사건 당시 이념 차이로 희생됐던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책을 참고하여 글이 수월하게 잘 써질 줄 알았으나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직접 쓴 독후감 내용을 참고했지만 4.3사건의 전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서론부터 본론까지 '물들다' 키워드가 보이게 쓰는 것이 어려웠어요. 이것저것 자료를 참고하며 두 시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맘에 들지 않는 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네요. 글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글은 여유를 가지고 써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기 중이라 여유가 없으면 매일 주어지는 키워드에 대해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지적인 노력이 꽤 들어가는 글쓰기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주말과 방학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라이팅 챌린지는 지난주에 그랬듯 수월하게 잘 써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개인적인 일화를 수필 형식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외에도 집중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깐요. 사실 이렇게 될 것을 처음 키워드에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인간은 늘 그렇듯 실수를 반복하네요.)

17 10



2024/11/14
thursday, pm 7:47 | 17읽음
안세원(귤로벌비즈니스)

#14일차

우리는 조금씩 옆에 가까인 사람에게 물듭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물든다는 것은 서로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물들기 마련이지요.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우리는 점점 서로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간의 사랑이든 친구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연인간의 사랑이든지요.

아기는 엄마아빠가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우정은 어느새 친하게 지내는 서로의 말투와 웃는 모습과 포인트가 비슷해지면서 서로의 모습이 물들어 갑니다.
연인의 사랑은 서로의 애정 표현 방법이 비슷해지며 마찬가지로 서로의 말투와 모습까지 닮아갑니다.

저는 이런 물들어 가는 모습을 저한테도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적 부터 가족만큼 자주 보았던 저의 친구와 저는 서로의 웃음 코드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농담을 하거나 헛소리를 해도 우리끼는 자지러지게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무한도전을 아직까지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 덕분에 저도 무한도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도 점점 물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긴장하고 겁먹는 성향이 있으며 상대방을 많이 신경쓰는 저와 반대로 큰 걱정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잘 신경을 안 쓰는 친구와 지내다 보니 저도 너무 매사에 긴장하고 걱정하는 성향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말의 표현 방식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 이거 그 친구가 쓰는 말투인데 하며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을때가 언제 있나요?

☺ 13 ⋯ 8



2024/11/14
thursday, pm 8:26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4일차
최근 읽고 있는 책들 중 '불편한 편의점'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독고씨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기억을 잃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독고씨는 처음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그는 영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영숙의 지갑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그녀와 얽히게 된 독고씨는, 이 작은 계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독고씨가 일하게 되는 이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각자의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고씨에게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를 무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가진 삶의 지혜와 통찰을 인정하고 이내 그에게 물들게 됩니다.
독고씨는 일하는 동안 여러 손님들과 만나게 되며, 그들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조언을 합니다. 점차 주변 사람들은 독고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독고씨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조금씩 되새기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후회만이 아니라, 그 후회 속에서도 여전히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독고씨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반성하면서도, 그것을 원망만 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독고씨의 변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의 삶도 그와 함께 변해가며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후 독고씨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심을 내리게 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로 인한 변화와 사람들 간의 관계,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 14 ⋯ 7



2024/11/14
thursday, pm 8:47 | 18읽음
강하늘(심리학과)

#14일차
#물들다.

오늘 주제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표가 되었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진로
수업이 끝나고 진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늘아. 고마워~"라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서 '뭐지?' 싶었지만
진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감동과
기쁨만이 저를 채웠습니다.

때는 2018년 춘천에서 '장애인
인권프레젠테이션 대회'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학교에서 청중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 진로 선생님의 따님분이 청중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과 달리 마이크 하나만 들고
무대 위에 올라와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던 한 사람을 보고 소극적인 성격에
타인의 앞에 나서는 것을 무서워하던 진로
선생님의 따님분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발표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였습니다.

그 후, 진로 선생님의 따님은 2019년 장애인
인권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하였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로 선생님은 따님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2018년 영상을 찾다가 딸이 말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아보셨고 따님을 대신해
저에게 감사를 전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전율과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목표가 되는 기분.
내가 누군가의 이상이 되는 기분에 저는
아직도 생생할 정도의 벅참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물들인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마음이나 생각, 사상처럼 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듣고 함께하며 나의
변화를 다짐하고 행동하는 순간이 내가
누군가에게 물드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물들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군가의 목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
'오늘 내가 느끼는 행복을 전하고 싶다,
기쁨을 알려주고 싶다.'와 같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목표가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13 9



2024/11/14
thursday, pm 9:41 | 21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14일차 #물들다

물들다: 예측할 수 없이 스며들다

서로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물들어 간다. 마치 연한 색의 잉크가 물에 스며들 듯 마음 한구석부터 차근차근 변해가는 것이다. 상대의 말투, 표정, 작은 습관까지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순간 그 변화는 조용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 향기와 따스함이 나의 일상 곳곳에 스며든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색에 물들며 조금씩 한 사람이 되어간다.

물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 때 그 색은 예측할 수 없이 깊고도 선명하게 번진다. 함께 나눈 기억들 손 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그 속삭임이 나를 감싸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존재는 나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 물드는 과정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별한 색으로 완성되는 시간들이다.

16 8



2024/11/14
thursday, pm 10:07 | 19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4일차
“얼룩진 싸움”

피로 물든 전쟁. 그것은 잔인하고 비참한 싸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승자 없는 전쟁’이다. 피에 물들다 못해 절여진 땅을 얻었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상처 입힌 만큼 나도 상처를 입었을테니 말이다. 이것은 비단 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속 크고 작은 갈등 또한 승패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고, 좋고 나쁨이 흐릿한 것들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길 망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대학교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에서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 시작은 여대 존속이었던 듯 하나 지금은 서로를 향한 조롱과 비난만 남아있다. 사실 지속적으로 남녀 차별, 페미니즘 등 성 갈등에 대한 글은 게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갈라치기는 오랜만이다. 성 갈등에 대한 입장은 언제나 차이와 편견을 동반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도, 여성도 타 성별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진실이라 믿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게시글 각각의 입장에 대한 논평은 가능한 삼가려고 한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왜 이런 싸움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설령 우월감이나 소속감을 느낀다 한들 그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내가 낫고 네가 열등하면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있는가? 그 무엇도 아니다. 그냥 우린 언제나 날 선 상태로 이를 갈며 서로를 물기 위해 준비하는 것 뿐이다. 누군가는 진실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생각의 시작은 합당했을지도 모른다. 성 갈등과 관련한 기사, 영상, 사설 등을 보니 특정 성별이 더 모나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이후엔 타당함을 잃는다. 하나의 개념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 때부턴 서로를 상처 주기 위한 싸움일 뿐, 대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이 주제로 글을 써도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여기에도 각자만의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싸움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상처로 얼룩진 이 사회가 처참했다. 사랑, 희망, 꿈, 그런 가슴 벅찬 것이 아니라, 비난, 조롱, 상처로 물든 게시판이 슬펐다. 하나 되어 사랑하자는 허울 뿐인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산산히 부서져 먼지가 되진
말았으면 한다. 사회가 조각 나 흩어지면 그
사이로 누군가의 사리사욕이 채워질테니.
각자의 목소리가 올곧게 뻗으면 좋겠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태양을 향해 쏘아야
별이 될 거란 말을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그 별이 되어준다면 그로 충분할 것
같다.

14 6



2024/11/14
thursday, pm 10:18 | 20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14일차 #물들다

빨간 사과가 내 눈길을 끌었어요.
따스하고 열정적인 그 빛이 부러워 나를
빨갛게 물들였죠.

푸른 청귤이 내 콧끝을 자극했어요.
상큼하고 발랄한 그 향기가 부러워 나를
푸르게 물들였죠.

파란 바다가 내 귀을 간지럽혔어요.
시원하고 청량한 그 파도가 부러워 나를
파랗게 물들였죠.

길을 걷다 웅덩이를 만났어요.
웅덩이에 비친 형체는 나였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었어요.

이 색, 저 색으로 물들다 보니,
어느새 내 본래의 색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14 9



2024/11/14
thursday, pm 10:31 | 19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4일차
날씨가 추워져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나뭇잎들이 연두빛, 초록빛에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화했다.

누군가에게 단풍은
가을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죽음의 목도이다.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데
겨울에는 햇빛의 양이 턱없이 부족해
양분을 만들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자신의 잎들을 모두 떨어뜨린다.
잎을 떨구는 과정에서
처음에 초록색인 엽록소가 파괴되는데
초록색에 가려져있던 다른 색소가
나타나는 과정이 단풍이고,
시간이 지나 단풍 색소들도 분해되어
색이 탁해지고 수분공급도 차단되면
잎들이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잎들도 저마다 여름까지 왕성히 살았을텐데,
쓸모를 다 해 푸르른 기운을 잃고
쓸쓸히 메말라가다 차가운 바람에 떨어진다.

붉은 기운으로 타들어가는 잎들은
땅으로 돌아갈테니
가을의 푸른 하늘과 더 멀어질테지.

회색 연기로 물들 내 육신도
언제가 흙으로 돌아가면
하늘을 누워서 보겠지.

13 8

2024/11/14
thursday, pm 10:51 | 18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4일차 #물들다

물들다는 단어를 보니 친한 친구 한명이
떠올랐다.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다.
이를테면, 말투나 노래 취향, 음식 취향 같은
것들을 말한다.

친구와 만나서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코인노래방을 가는 게
일상이다. 코인노래방을 가서 항상 발라드를
제일 많이 부른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즐겁게
노래를 부른 어느 날이었다.

-우린 정말 노래 취향이 잘 맞는 거 같아 !

라고 말했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너랑 친해지기 전에는 노래를 잘 안 들었어.
그런데 너가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나도
찾아서 듣게 되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난 정말 놀랐다! 당연히
친구도 원래부터 발라드를 즐겨 듣는 줄
알았던 것이다. 친구가 나에게 물든 것처럼
나도 친구에게 물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만일 이후에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현명하게 판단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13 6



2024/11/14
thursday, pm 11:01 | 19읽음
정우현(철학과)

#14일차

저는 봉숭화같은 사람이 좋습니다.너무
진하게 물들이지도 연하게 물들어지지 않는
정도말이죠.기분에 따라 지울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아 좋습니다.항상 진하게
물들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딘가가
공허해보입니다.자신의 텅 빈 부분을
채우려고 애쓰는 기분이
느껴집니다.그렇기에 자신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을 좋아합니다.공허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타인의 내면도
바라볼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타인을
챙길 줄 압니다.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물들여집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색을
칠해줄지 고민하는 제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는 강제로 색을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들면
좋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언제나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들처럼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진하고 지워지지 않는 색이 아닌 지워지는
연하고 이쁜 색으로 물들여주고 싶습니다.

15 6

2024/11/14
thursday, pm 11:23 | 20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쿱

#13일차

차별이란 언제나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한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듯 지나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모든 이들의 일상 속에 그늘을 드리운다. 다가서면 멀어지는 환상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거운 구름처럼 위에 얹혀 답답하게 만든다. 차별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느껴지고 있다. 누구도 차별을 원하지 않지만, 어느새 그 틀 속에 갇힌 채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

고칠게-죠지

13 4



2024/11/14
thursday, pm 11:26 | 17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쿱

#14일차

처음엔 아무런 의미 없는 색감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이, 한 번 머물다 사라질 작은 인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이 서서히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빗방울이 천천히 스며들어 천을 적셔 가듯, 그 색은 무심한 듯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 이후로는 사소한 순간마다 다른 색감이 내 앞에 펼쳐졌다. 이전엔 단조롭게 보였던 하늘이 이제는 다채롭게 변화했고, 길가의 작은 꽃들도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걷던 길, 스쳐 가던 사람들, 머무르던 공간들이 조금씩 다른 빛을 띄고 있었다. 그 색이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배어들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다시금 내 눈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 색으로 물들어 가며 서서히 변해갔다. 매 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 스며든 그 색감이 나를 가만히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어느새 내 세상은 그 색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just another girl_aespa

13 8



2024/11/14
thursday, pm 11:28 | 21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14일차 #물들다

흰 티셔츠로 천연 염색 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천연 염색은 꽃잎, 식물의 줄기, 과일 껍질 등 자연에서 구한 원료로 옷에 색을 물들이기 때문에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자연의 색이라서 그런지 편안하고 피부에 자극도 적다. 천연 염색을 하는 방법은 흰 옷을 준비하고 군데군데 고무줄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묶어준다. 그럼 고무줄로 묶인 부분에는 색이 물들지 않아서 무늬가 생긴다. 천연 재료를 넣어서 염색물을 끓이고 천에 담가서 주물러준 후 염색된 천은 백반을 넣은 물에 담가 염색물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맑은 물에 헹군 후 그늘에 말리면 천연 재료로 염색된 옷이 완성된다.
천연 염색의 색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색계는 꼭두서니, 홍화, 소목, 코치닐 등이 있고
청색계는 쪽, 누리장나무, 닭의장풀
녹생계는 소귀나무, 칡, 솔새, 참억새
갈색계는 해당화, 차, 석류, 팽나무, 밤나무, 마취목
흑색계는 떡갈나무, 붉나무, 참나무, 오이풀, 층층나무
등이 쓰인다고 한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고무줄로 옷을 잘 묶어서 무늬를 예쁘게 내고 싶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만든 옷을 자주 입던 기억은 없지만 흰옷의 색이 점점 다른

색으로 물들 때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아직도 생각나는 것 같다.

13 7



2024/11/14
thursday, pm 11:31 | 18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4일차 #물들다

[스물아홉 번째 접시]

물든다, 라는 말은 참 예쁜 말인 것 같습니다. 어감도 그렇고 떠오르는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을 1년 전 일이라며 추억으로 넘겨버리고, 그렇게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현재에 물들어 과거에 노란 필터를 끼워 과거를 잔상으로 남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또 1년이 지나가려 합니다.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빠르고, 한 달, 그리고 1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푸념하면서도 하루하루에 살아간 우리는 스며든 하루들을 차곡차곡 모아 1년을 채웁니다. 그렇게 1년을 삶에 물들이고 나면 또 다른 1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제각각 예쁜 1년들에게 흠뻑 물들고 적셔진 계절이 될 겁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14 8



2024/11/14
thursday, pm 11:31 | 22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4일차
제게는 물든다는 것이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서서히 배어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친구나 가족, 혹은 제3자가 제게 준 가르침이나 위로가 제 마음에 스며들어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때가 있죠.
작년 가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서 스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스님께서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다가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늘 앞날을 걱정하고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언이었죠. 그런데 템플스테이 동안 사찰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명상과 참선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이후로 저도 일상 속에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일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거죠.
스님의 사고방식에 물들여져 저도 마음속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고 현재에 충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템플스테이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심어준 경험이었고, 스님의 가르침은 제가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 인해 물들여진 경험 혹은 기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4 7



2024/11/14
thursday, pm 11:45 | 20읽음
최오영(심리학과)

#14일차

"물들다"의 표현이 왜 저에게는 낭만적으로 보일까요?

의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녹아들어 있는 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요.
여러 학우분들의 글을 보며 친구, 연인, 환경에 물드는 경우도 있고 추억의 봉숭아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인 만큼 단풍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수채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수채화 그림이란 물과 잉크를 가득 머금은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걷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이 뻗어나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세심함 터치가 필요하고 물에 젖은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사람도 친구, 연인, 가족 그 밖에 어딘가에 물들게 되면 예상할 수도 없이 깊고 넓게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근묵자흑,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사자성어와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개성"을 잊지 않고 챙겨왔고, 또 중요시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를 공유하는 이상 모르는 사람과도 융합이 쉽게 되는만큼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잃기 십상이니까요.
키워드와 학우분들의 글을 보며 저는 어디에 물들어 있는지,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지, 물들어 가는 중이라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물듦이 제 취향을 반영한다면 저의 취향은 또 무엇일까요? 바쁜 시기가 지나고나면 저에 대해 많이 들여다 볼 시간을 계획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매일 라이팅 챌린지를 써야한다는 작은 습관도 물들임의 일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만 오늘 글도 마치겠습니다 :-)

15 7



2024/11/14
thursday, pm 11:54 | 19읽음
이나영

#14일차
물든다는 표현을 보면, 물들어 라는 한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짧게 인용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너의 손이 닿은 후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물들어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들어

물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이 들고, 애정이 깃들고,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지며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 누군가의 사랑에 흠뻑 물드는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실 지금의 저는 혼자 고립되어 자라온 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였던 나에서 스물 다섯의 내가 있기까지 지나쳐 온 모든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물들여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드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고처럼 엎어진 물은 피할 새 없이 옷자락을 적시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 싫은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인생에서 아예 피할 수는 없으므로 부정적 감정과 기억도 흡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애정하고 아끼며 저도 그와 닮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원래의 나를 버린다는 표현도 이해가 갑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 나를 이루던 흰 색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색에 섞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앞으로도 기꺼이 뛰어들어 나를 물들이고 변화시키고 싶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타인에게 같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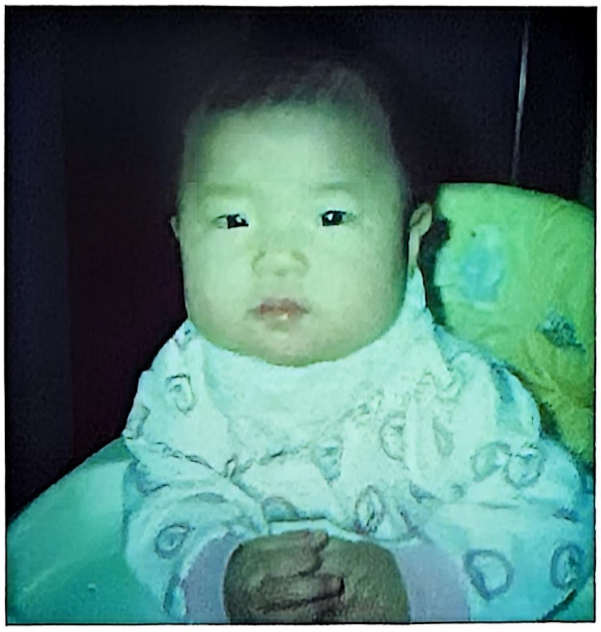
2024/11/14
thursday, pm 11:55 | 21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차 #물들다

어릴 적 집안 곳곳 서랍에 필름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아마 나의 어릴 적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다. -아마 먹고 살기 바빠 필름 현상을 미뤄두신 것 같다. - 고등학생이 돼서 필름들이 눈에 들어와 그것들을 한데 모아 두었다. 성인이 된 후에 그 필름들을 현상해보았는데 내가 모르던 나의 새로운 순간들을 보게 되었다.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나이의 내 얼굴과, 새벽 기도를 가신 엄마를 찾아 울던 동생의 아기 적 얼굴, 놀이터에 나가 뛰어놀던 날과, 태어난 지 5개월 밖에 안 돼 기억에도 없는 나의 모습. 내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이 찍어주신 사진들이 나에게 좋은 기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필름을 현상하기 전에도 인화된 사진들을 엮어 사진 앨범을 만들어 두셨다. 듣기로는 어릴 적 나를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앨범을 펼쳐 보여주시던 것이, 동생이 태어난 후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 느꼈던 질투를 잠재우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사진은 빛으로 물들인 그림이다. 색색의 빛들이 네모난 화면 곳곳에 물든다. 초록, 파랑이 한창이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알록달록한 빨강, 노랑색이 눈에 들어온다.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름다운 빛의 색들을 한 눈에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한 순간의 추억이 쌓여간다. 낭만과 추억을 먹고 사는 나에게 사진은 추억의 조각집이다.



엄격. 근엄. 진지한 태어난지 5개월 된 나.

15 15

2024/11/14
thursday, pm 11:59 | 20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14일차

작년 2월 달에 처음 알게 된 언니가 있어요.
송리단길 카페에 수플레가 맛있대서 일부러
찾아 간 곳이었는데 그 언닐 만난 순간
수플레는 아예 내 알 바가 아니었을 정도로
귀엽고 예쁘고 빛나는 언니였어요. 어디가
가장 빛났냐고 하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로움이 대화하는 내내 계속 반짝거리던
게 기억나요.

저는 그 언니가 너무 궁금해져서 원래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는 누군가요. 어떤 사람이고 무얼
좋아하나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정말 알고 싶었어요.

포항공대에 다니고 내년에 졸업 예정이라는
언니는 자리를 옮긴 칵테일 바에서 인생은
기세라서 당당하면 된다는 얘길 해 주었어요.
그 한 마디가 마음에 너무 깊이 물들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언니 생각을 했어요. 그
언니는 정말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1년이 지나 이제 우리는 하루종일 실없는
얘기를 하고 수플레니 푸딩이니 하는 맛있는
걸 먹으러 일부러 찾아 가고 여전히 저는 그
언니를 동경하고 있어요. 실없는 농담을 해도
매번 가게를 찾다가 길을 헤메도 내게는
언제나 1년 전처럼 빛나 보인다는 걸 아마 그
언니는 모르겠죠. 내가 언니를 정말 많이
생각하곤 한다는 것도요. 이미 나의 삶에
언니가 너무 많이 물들었다는 것도요.

15 9

2024/11/15
friday, am 12:00 | 22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

스트레스로부터 낭만에 #물들다

미칠 것 같다. 도대체 뭐지?

아, 좋은데, 뭔가 부족해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부탁해요.



네? 그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말씀이시죠??

피드백이라는 이름 아래 추상적인 언어로
나를 괴롭히는 클라이언트.
다급하게 노트북 앞에 앉아 메일함을 연다.

진짜진짜최종찐찐찐막수정제출본_

또 한 바가지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파일을 전달한다.



그만해! 이 피드백 중독자야!

그들에겐 닿지 않을 불만을 속으로 삭힌다.

스트레스의 바다로 나를 떠미는 마감일,
수정 요청의 늪에서 허우적 허우적.
아이고 나 죽네!

모든 것이 흰 옷에 튄 빨간 국물처럼
느껴진다.
돕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정신이 아득해진다.
애꿎은 머리카락만 내 손에 쥐어 뜯긴다.

하지만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나는 다시 얌전히 노트북 앞에 앉는다.

왜냐,

마감일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손수 한땀한땀 만든 작품들에 대한 자부심과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이 느껴지는 답장이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때만 넘기면 내 속에 성취감이 차오른다.

클라이언트가 고맙다고 보내오는 한 줄의
메시지-와 수고비-가
결국 내 낭만 게이지를 충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는다.

다시 낭만에 물들러 갈 시간이다.

#14일차

14 7



2024/11/15
friday, am 12:03 | 19읽음
박현민(심리학과)

#11일차

'물들다'
참 좋아하는 표현이다. 예전부터 물에 물감을
잔뜩 타 서서히 물들어 가는 듯이 표현하는
미술 기법을 좋아했다. 진한 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새하얀 도화지가 점점 물들듯, 서로
다른 색이 점차 섞이듯 표현되는 갓 말이다.

사랑도 물들어가는 게 좋다. 한눈에 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가랑비에 맞아 점차 젖어가는 길가의
모습과 같이 상대에게 서서히 물들어간다.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도 상대가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지게 되고, 그의 음악 취향을
닮아가며, 좋아하는 계절이 닮아간다.
앞만 보고 가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에
오늘의 하늘이 어떤지 쳐다보며 잠깐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하나에 그를 생각하게 된다.

14 7



2024/11/15
friday, am 12:14 | 24읽음
김양선

#1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색에 물들기도
하고,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들기도
합니다. 간혹 주변의 나쁜 기운에 물들까봐
경계하기도 하죠. '물들다'는 이 아름다운
단어는 우리가 자연이든. 사람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물들었나요?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답게 물들기 바라며... 수고했습니다.

14 0



2024/11/15
friday, am 7:54 | 35읽음
김양선

15일차 키워드 : 작별
챌린지 마지막날의 키워드는 '작별'입니다.
작별은 헤어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만나고 헤어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혹은
어떤 존재와 작별의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작별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나요? 잘
작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학기
챌린지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들, 마지막 날에
어울리는 작별인사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21 0



2024/11/15
friday, am 8:24 | 33읽음
정우현(철학과)

#15일차

저는 벌써 라이팅 챌린지 3회째입니다.
근데도 부담이 조금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글이 평가된다는 생각에 조금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회기를 지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으로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팅
챌린지의 목적도 일단 하루에 그냥
쓰자였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부담을
내려놓고 글을 적었습니다. 한 번쯤은 마음
편하게 쓰고 싶었어요. 계속 글을 적고 싶은데
부담을 항상 지니기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느 순간부터 힘을 빼고 글을 적으니까 글이
읽기 쉬워지더라고요. 너무 힘 주고 하는 게
오히려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의
글 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항상 자신을
챙기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팅챌린지 완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24 14

2024/11/15
friday, am 8:41 | 29읽음
김도은(광고홍보)

#15일차

시작과 끝은 늘 '안녕'

참 신기하다. 우리들의 만남은 항상
'안녕'이라는 인삿말로 시작되고 또
'안녕'이라는 말로 끝나게 된다. 세계 어떤
언어가 만남과 이별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같단 말인가? 이는 제법
기묘하기까지 하다.

그래서일까, 만남과 이별은 맞닿아있다고들
한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고
이별은 다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다.그런 노랫말도 있지 않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모르던 낯선 이들은 시간이 지나 점차 얼굴이
무르익어간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별할
때가 되면 아쉬워하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한다.그러고선 또 다른 만남과 관계의
시작을 반복하고 이별과 헤어짐으로 막을
내린다.이때 다른 이들과 지내는 동안 어깨를
맞닿아가며 다투기도 하고 토라질 때도
있지만,그 순간들은 추억으로 오롯이 남기에
더욱 의미있어진다.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

드디어 3주 간의 라이팅 챌린지가 오늘자로
종료된다.처음 신청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과제로 바쁜데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지만 이렇게 무사히 끝
마쳤다니 다행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다.그리고 이 프로젝트 덕분에
내 생각을 전 보다 훨씬 일목요연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글로 쓰면 아무도 뭐라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고싶었는지 하나씩 조목조목 알 수
있으니까 말이다.즐거웠다.진심으로 행복한
그동안이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다시 우리는
서로 뿔뿔이 흩어
지겠지.그리하여 그저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라 이별이라 말하는 것이려나? 이별은
가슴 아프고 아쉽지만 미래에서 기다릴 새
시작을 위해 서는 기꺼이 이별로서 남을
필요가 있기에.그렇게 서로 각자의 행운과
안녕을 빌어주고 떠나나 보다.

그동안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정들었던 이 학교를 떠나갈
테지만,쌓아온 4년의 추억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신입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 이라니 감회가 남다르네요.올해 남은
학기도 무사히 잘 보내시고 각자 원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중에 넘어 지고 차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있을거에요.
그러나 인내하며 다시 일어나 한 곳을 향해 한
걸음 씩 전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근처라도
도달해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당신은 역경을 이겨내는 굳센
마음으로,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이런 당신을 알게되어 행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후일 또 어디선가 만나요.

그럼 안녕!

24 16



2024/11/15
friday, am 9:22 | 25읽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5일차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그에 맞는 키워드 '작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친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이 생각납니다. 우선 저희 집안을 간단히 소개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초등학생이셨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외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할아버지를 뵈러 친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시고, 친척들을 못 알아보실 때 유일하게 저를 알아봐주셨습니다. 할아버지랑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저 설날, 추석에만 다녔는데 할아버지께서 손주, 손녀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랑 큰아빠 작은아빠, 친할머니만 할아버지 면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말씀하셔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면회하러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찾아뵀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할아버지께 손자가 당당히 어깨 피고 대학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셔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5월 달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할아버지께 증손주까지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작별'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외삼촌께서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와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외사촌동생이 문자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작별의 순간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작별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별을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작별을 하신다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팅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학우분들처럼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하나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과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정보들을 알게 됐고, 제 자신이 예전보다 상대방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으로 마무리 하고 내년에 라이팅챌린지를 또 하게 된다면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 20



2024/11/15
friday, am 9:34 | 28읽음
최오영(심리학과)

#15일차

안녕,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라이팅 챌린지.

수업이 있던 기초교육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라이팅 챌린지 포스터. 15일동안 매일 하나의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거라니.
어쩌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다.
내가 쓰게 될 글은 무엇인지, 같이 하는 학우들은 어떤 글을 쓸지, 내가 까먹지 않고 매일 쓸 수 있을지, 어떻게 써야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읽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떤 날은 쉬운 키워드였고, 어떤 날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지나며 어두워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두드리며 깨웠다.
온라인 특성상 서로 대면하지 않으니 비교적 솔직한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이 환경이 썩 괜찮았다.
내 글에 달리는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괜히 반가워서 그 분의 글도 한 번씩 찾아서 읽게 되고, 진정으로 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반응을 볼 땐 한 켠에서 뿌듯함과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이름에 "챌린지"가 붙은 만큼 매일 같이 찾아와 글을 쓰고 상호작용 하는 이 활동은 누구에게나 도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5일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지막날이라니 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매일 인증을 잊지 말라던 밴드의 알림도, 글에서 자주 보이던 분들의 이름도, 글을 쓰던 습관도 점차 잊혀지고 열려있던 이 밴드도 닫히겠지만 적고보니 첫 키워드가 "열리다"였던게 생각나서 나 혼자 혹시 수미상관이 아닐까 하는 추리도 해보며 졸업을 앞두고 의미있는 활동을 해본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나는 항상 글의 마지막에 물음표를 던지며 마무리 했었는데, 혹시 학우분들이 댓글 달기에 어려움을 겪진 않았는지 걱정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의 글을 음미하고 반응해준 댓글들이 있음에 감사했고 그 분들께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처음 라이팅 챌린지에 참가하며 신청서에 참가목적을 적을 때 여기 있는 학우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시야를 넓히고 잠시나마 매일 글 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정도면 잘 달성한 듯 싶다.

과연 다른 학우들의 참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이 되어서야 궁금해지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며 라이팅 챌린지와 "작별"하고자 한다.

꿋꿋이 완주에 함께 해준 학우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최 오영 드림.

22 12



2024/11/15
friday, am 10:56 | 26읽음
전수현(법학과)

#15일차

[작별]

15일 동안 진행되었던 라이팅 챌린지가 오늘 종료된다. 누군가와 생각을 교류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간접경험의 경험치가 쌓이는 느낌이랄까. 처음으로 열고 들어온 교류의

'문'을 열고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샘솟는다. '찰나'에 보게 된 라이팅 챌린지의 모집공고를 그때 보지 않았다면 아마 생각이 확장되지 못 한 채 편협한 사고의 갇혀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필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서 글을 쓸 때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항상 '쫄깃'한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갔던 것 같다. 이 챌린지를 통해 된 얻게 된 교훈과 여운, 심상은 뇌리 속에서 '잊히지'않고 계속 남아있길. 나라는 '가방'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 인생의 '꿀팁'들을 넣고 작별과 동시에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발자국 내디딜 것이다. 어디선가 이 챌린지에 참여했던 사람의 '향기'가 나오면 먼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성별, 나이, 학년,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본인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내려갈 수 있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못할, 경험들을 글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면서 나의 생각 또한 넓어졌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을 '물들인 것이다. '
부족한 필력임에도 좋게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 생각이 이리도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챌린지를 참가했던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생각을 교류하려는 목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알게 되어 너무나 값진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엔 그동안 써왔던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한 번만 눈 감아주시길..
그동안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날이 쌀쌀해지는 만큼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 24



2024/11/15

friday, am 11:28 | 23읽음

이주현(사회복지학부)

#15일차
작별이란 항상 오는 것 같습니다. 작별할 것임을 알면서도 작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작별을 하는 순간엔 아쉬우면서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만남이 있으면 작별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작별이 찾아올 것임을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알았음에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막상 작별이 찾아오면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작별한 라이팅 챌린지 또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 할 때는 3주란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 이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벌써 3주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온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키워드를 통해 키워드와 관련된 나의 경험 등을 생각하며 많은 추억과 기억을 되살렸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을 이렇게 글을 통해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며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쓰기 위해 글을 읽는데 많은 위로와 공감도 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12시 전에 글을 쓰며 교수님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침 8시에 항상 키워드를 올려주시고 새벽 12시 넘어서 마침의 글을 올려주시는데 상당한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김양선 교수님과 이덕영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제 글을 읽어주시고 반응해주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글을 보고 좋게 써주시니 그 댓글을 읽는 제 기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3주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으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교수님까지 모두 감사했고 3주 동안
유익했고 즐거웠다는 말을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승승장구
하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녕!!

20 22



2024/11/15
friday, pm 12:36 | 23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쿱)

#15일차
작별

어떤 만남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하지만
작별은 언제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은 무겁고 우리는
매 순간을 기억하려 애쓰죠. 평소 당연하게
느꼈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특별해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그동안
지나치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같습니다. 작별의 아쉬움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게 해주고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라이팅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어떤
주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기도 했고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씩 나아가며 도전을
이어가다 보니 글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과
성취감이 정말 컸던것 같습니다. 이 챌린지는
매일의 작은 작별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제와 작별하고 나면 또 다른 주제가
기다려지고 그렇게 조금씩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곁에 있던 일상 속 글쓰기가
더 친숙해졌고, 작별을 고하는 지금은
아쉬우면서도 뿌듯합니다!!

19 10



2024/11/15
friday, pm 2:14 | 28읽음
유채원(일본학과)

#15일차
저는 평소에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해서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3주 동안 매일 키워드에 맞추어 글을
쓰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키워드에
따라, 어떤 날은 글이 막힘없이 써지는 반면,
또 다른 날은 한참을 숙고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쓴 글을 보며 감탄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이토록 여러 방면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가지각색으로 글들이
예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이
챌린지 활동이 끝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작별은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삶이란 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장은 참 아쉽고 섭섭하고
눈물 나고 그러겠지만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

170402 푸른밤 종현입니다 中

사실, 작별 키워드를 보자마자 라디오의 저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짐은 언제나
아쉽지만 그래서 만남이 더욱 값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연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3 11



2024/11/15
friday, pm 8:18 | 26읽음
서정원(심리학과)

#15일차
'작별'
딱 어제 한강 작가님 소설책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 키워드로 글을 작성했었는데, 오늘 작성했었으면 4.3사건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작별'에 초점을 맞춰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책 내용을 언급하자면, 우리는 작별할 수 없습니다. 매일 글을 썼던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학교를 떠나도 희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라이팅 챌린지에서 그 의지가 이어지겠죠.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합니다."

어제도 짧게 이야기했는데 학기중에 하나의 키워드로 양질의 글을 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이 키워드로 어떻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창의적인 글을 쓸까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 언급했지만 한숨이 나오고 그런 순간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군분투했는데 여러분은 어땠을까싶어요. 노력해서 썼던 괜찮은 글들이 꽤 보였죠. 당장 생각나는건 재치있는 유머를 써서 짧은 소설?을 썼던 명빈님의 글, 솔직함을 담아내 늘 찾아봤던 유진님의 글, 늘 다양한 주제로 열심히 써주셨던 도은님 글이 생각나요. 외에도 새벽에 읽다보면 생각이 많이나고, 눈물이 나고, 웃겼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언젠가는 유영님의 강아지 관련된 글을 보고 새벽에 눙물을 조금 흘렸죠. . .

우리 다음에도 다시 만납시다.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긴 한데 육체가 있으면 더 정확할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21 27



2024/11/15
friday, pm 8:58 | 24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5일차
오늘로써 그동안 해오던 라이팅 챌린지가 끝을 맺는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처음 이 도전을 시작할 때는 새롭고 신선한 흥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은 모험처럼 느껴졌고, 그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글쓰기를 미루고, 그다지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챌린지를 통해 제가 얻은 경험은 매우 값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이 작성한 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았으며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렇게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글이 펼쳐져 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들의 글 속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도전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작성한 글들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글을 읽고 "그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단지 글을 남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건, 단순히 저의 글을 읽어주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보고 느낀점을 작성해주는 것은 제가 더 나은 글을 쓰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한 줄의 댓글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고,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글쓰기가 단순히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글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커졌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저 자신도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제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이 가능하게 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글을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저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 10



2024/11/15
friday, pm 9:06 | 26읽음
김도희(영어영문학과)

#15일차 #작별

SNS에서 일회성 콘텐츠를 소비하며 흘려보내던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휘발성 정보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주긴 했지만 그 여운은 짧고 흐릿했다.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주제를 받고 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 글을 쓰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글을 쓰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생기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도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왔다.

작별의 순간이 오니 더 아쉬움이 남는다. 매일 주어진 글감을 통해 작은 것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글로 기록되면서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준 이 경험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1 8



2024/11/15
friday, pm 9:17 | 24읽음
김경환(화학과)

#15일차

작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어제 본 영화에서 별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딸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며, 문득 작별이란 어쩌면 별을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별은 요즘의 밤하늘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직접 만든 유일한 작품이기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21 9



2024/11/15
friday, pm 9:17 | 25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쿱)

오리와 #작별

작심삼일일 줄 알았는데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했다.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끝까지 과제와
마감에 쫓기는 모습만 보인 것 같아
착잡하면서도, 학우분들의 공감을 얻어
기뻤고 피식거렸을 누군가를 상상하니
뿌듯하다. 언제 다시 꺼내봐도 이때의 나,
아이디어 기가 막히는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최대한 피했다. 멀쩡한
키워드를 비틀고 짜고 뒤집어엎고 멱살도
잡아보고.... 청개구리 심보였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것 같다.

물론 미련이 남지 않는 건 아니다. 글이 너무
중구난방인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데?
너무 억지스러운가? 이 짤 말고 다른 걸 쓸 걸
그랬나? -사실 짤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도 같다. ㅋㅋ-하지만 아리송한
글들도 내 의식의 일부였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래 좀 왔다 갔다
한다....-그래도 라이팅 챌린지를 함께한

러닝메이트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다.
타인의 생각을 시공간 제약 없이 꽤 깊게
보고, 서로의 경험을 스스럼없이 나누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소재로 쓰인
글들 덕에 15일을 즐거이 보냈다.

갑갑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라이팅 챌린지와 이만 작별을
고한다.

니체가 말하길 "성숙이란 어릴 때 놀이에
열중하던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도전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다. 글쓰기란 결국 나와의
대화이고 내 안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펼치는
과정이다. 이를 놀이처럼 즐기고 열중할 수
있게 된 우리는 분명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며, 아디오스!



우리끼리, Band!



이만 물러갑니다

#15일차

20 26



2024/11/15
friday, pm 9:48 | 27읽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5일차
오늘 주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잘 쓰고 싶다는 내 욕심과
마지막 글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마무리 글을 써야할지 막막하다.

글쓰기 챌린지와의 작별에 대한 아쉬움?

올해 초에 강아지별로 돌아간 밍키와의 작별?

헤어짐이 있으면 새 인연이 찾아온다는
흔한 말?

작별에 떠오르는 주제들은 많지만
어떤 주제도 내 마음에 드는
마침표는 없었다.

어쩌면 나 스스로 작별이라는 것은
특별한게 아니라 당연한 이치여서
더 쓸 말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정된 작별이니까,
예측 가능한 작별이니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15번으로 글쓰기 챌린지와
작별을 고한다.

21 9



2024/11/15
friday, pm 10:03 | 27읽음
박지영 (경제학과)

#15일차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015B -이젠 안녕

모든 맺음 끝엔 시작이 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밝아오고, 인연이 끊기면 새로운
만남이 성사된다. 뜨겁던 여름이 끝나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불이 꺼지면
따스한 숯이 남아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모든 것. 이번 작별 또한 그럴 것이다.
난 평소에도 생각이 많은 탓에 삶이 버거울
때면 글을 쓰곤 했다. 어느 날은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썼고, 또 어느 날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썼다. 혼자 적은 많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빛을 못 보고 컴퓨터 한
켠에 보관되어 있다. 가끔 꺼내 읽기도 하지만
그 뿐. 누군가와 글을 주고 받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써도 큰
보람이 없고, 속 얘기를 주절주절 적는 행위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3주 동안 정말 즐거웠다. 매일 아침 올라온 제시어를 보고 하루 종일 그와 관련된 생각과 사색을 이어갔다. 마음에 드는 소재를 발견하면 설렜고, 글을 게시하면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상상에 들떴다. 글을 쓰고 나면 댓글과 인증글 하나하나 열심히 읽었다. 같은 단어를 보고 이렇게나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다. 참여하다 보니 순위를 가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문학의 장처럼 느껴졌다. 덕분에 보름동안 많은 이야기를 즐겁게 써내려갔던 것 같다. 그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이라니 서운하다. 나도, 또 다른 분들도 더 많은 이야기와 글이 남아있을 텐데.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워 이제까지 쓴 글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미처 다 담기지 못한 글도 있었고, 공허한 문장과 모호한 단어로 얼룩진 글도 있던 듯하다. 섭섭한 마음은 앞으로 쓰일 글들이 채워주길 바라며 이만 작별을 고한다. 안녕, 2024년 나의 가을.

20 9

2024/11/15
friday, pm 10:03 | 28읽음
안세원(글로벌비즈니스)

#15일차

작별
마지막 챌린지 다운 키워드였다. 작별이라는 느낌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애뜻하고 슬프며 두렵다.

특히 사람과 사람간의 작별은 슬프다. 내가 사랑하고 함께 언제나 존재하던 사람이 작별을 고하면 마음이 벅차오르듯이 아프다. 꼭 내가 작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길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성장하게 하는 작별이 있다. 그건 과거에 대한 작별이다. 나는 과거로부터 온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작별하고 싶다. 어릴적 경험으로 의심이 정말 많은 성격이어서 나 조차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싫다. 꾸준하지 못하고 계속 잘 흔들리는 나의 모습과도 작별하고 싶다. 나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책하는 모습과도 작별하고 싶다.

이렇게 나한테 모든 작별은 애뜻한 것은 아니고 홀홀 털어내고 싶다.

이 라이팅챌린지를 작별하며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분이였다. 그리고 그들의 글과 생각을 읽으면서 배울점도 많았다. 무엇보다 나의 일기같은 글들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모로 애뜻해진 이 챌린지와 이제는 작별한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틈을 내서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내 미래에는 내가 작별하고 싶은 모습들을 작별하고 새로운 모습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22 8



2024/11/15
friday, pm 10:37 | 26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

#15일차 #작별

어떻게 3주가 지나간 건지 모르겠다. 1박 2일 인제 답사 중에도, 과제와 공모전과 학술제 준비를 하면서도 라이팅챌린지를 매일 열심히 썼는데.. 챌린지하는 3주 동안 해야 하는게 겹치면서 바쁘게 살아온 덕분인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린 느낌이다.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나 떠오르는 걸 일단 막 적어보고 정리하면 금방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것은 글을 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오래 걸린다. 그래도 라이팅챌린지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 의견, 글을 쓰는 법을 읽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이 지났어도 모두에게 댓글을 달아주려고 노력했다. 그냥 오늘은 좋아요만 누를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았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의 글이 궁금하다 보니 어느새 댓글을 달고 있는 나를 발견했던 것 같다. 책도 잘 안 읽는 내가 사람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공감도, 인상 깊은 점도, 재미있는 점도, 새로 알게 되는 점도, 배워가는 점도 많았다.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댓글로 써내려 가며 두 번, 세 번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혹시라도 내 댓글로 알림이 가서 새벽에 깬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긴 했다.)

이번 라이팅챌린지 도전에서 12시가 10초 지난 후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래서 내 도장판에 도장 하나가 안 찍혀져 있다. 항상 컴퓨터로 글을 적고 톡으로 보내서 폰으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컴퓨터로 쓴 걸 컴퓨터 밴드로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였는데.. 생각할수록 미련했던 것 같고 시간 내에 못 올린 점이 너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작별은 항상 슬프다. 금방 정든 챌린지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쉽다. 24년도 1학기, 2학기를 챌린지에 도전해 보며 저번에도 함께 글을 썼던 분들을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작별일 뿐 완전한 결별은 아니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싶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19 10



2024/11/15
friday, pm 10:55 | 23읽음
한샘(언어병리학과)

#15일차
라이팅 챌린지 첫날 '열리다'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 '작별'이 되었네요. 챌린지하면서 시간이 참 빨리 가기도 하면서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평일마다 키워드를 생각하며 글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키워드에 맞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기도 한 날도 있었고, 오랜 시간 글 쓰는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쉽지 않다',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날이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글이 술술 써질 때면 혼자 들떠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댓글이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젠 이 활동도 끝이 보여서 아쉬움도 남고 해방감도 느끼기도 하네요. 이런 기분은 작별할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작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슬프다, 무조건 기쁘다가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끝이라는 선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설렘, "끝이다~"하면서 기뻐하다가 나중에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죠. 참 씁쓸하지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모두 이 시간 이후로는 글을 쓰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3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18 9

2024/11/15
friday, pm 11:06 | 23읽음
김지현(국어국문학전공)

#15일차
챌린지를 시작하며 가장 걱정됐던 건 내가 과연 3주동안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을지였는데, 3주차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어서 뿌듯함이 정말 커요. 무엇보다 같은 키워드여도 저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읽을 수 있었고 학우님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글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철학을 담아낸 진실된 글에는 분명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글 쓰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것인지, 그러한 능력으로 발휘된 글의 치유력이 사람과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글쓰는 습관은 나라는 사람을 사유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짧은 기간이나마 학우님들의 글을 읽고 같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진심으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챌린지가 끝나면 작별하겠지만 학우님들과 나눈 소중한 글과 댓글들과는 작별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3주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18 9



2024/11/15
friday, pm 11:07 | 25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5일차 #작별

어른이 되면 같이 살자며 함께 살 집을 구상하던 친구,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던 친구와 약올리게 놀리던 친구의 오빠, 초등학교 내내 붙어다니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서도 같이 놀았던 친구, 동네 놀이터 탐방을 하던 친구, 교회에서 놀던 언니 오빠 동생들, 학교 앞 놀이터에서 삥을 뜯던 언니들, 나에게 주먹질을 한 짝꿍, 같은 반 일진 무리들, 분식집 아주머니, 급식 아주머니, 지금껏 속했던 반의 담임 선생님들, 중학교 때 함께 아이돌을 덕질했던 친구, 유머러스하시던 체육 선생님, 일 년에 두 번 보는 사촌 언니 오빠 동생들...

작별이라는 단어에 수많은 인연들이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엔 어린 시절을 반짝이게 만들어준 사람도 있고 상처를 남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은 인연이 다시 닿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때 그 언니 뭐하고 지내려나?", "그 때 그 친구 잘 살고 있으려나?" 하며 말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숨이 턱 막혀 엄두가 안 나다가도 일이 술술 풀리는 날이 오고,
죽을 것 같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다가도 꽤 괜찮은 날도 생기는.

글쓰기의 시작을 함께하고 안 올 것 같던 끝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모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끄적이듯, 아쉬운 마음도 훌훌 털어버리고 그저 후련한 마음만 가지고 작별합시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짐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회를 만들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이 순간 함께 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꽤 괜찮은 날들이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20 14



2024/11/15
friday, pm 11:11 | 26읽음
박세진(중국학과)

#15일차 #작별

만남은 설레지만 작별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잃어버린 관계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껏 어느정도인지 감 조차 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다가 또 다시 작별인사를 할 때가
오면 문득 기억이 나는 듯 하다.

마지막 키워드를 볼 때 그러했다. 글쓰기를
3주동안 하면서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글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었다. 학번과 학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글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

그래서 라이팅챌린지 3주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꾸준히 글을 적어내릴 생각이다. 글 속에서
보이는 가치 있는 생각들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닐거다. 그래서 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 끝으로 챌린지를 같이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챌린지를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 다들 각자에
자리에서 다양한 챌린지를 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길 바랄게요 :)

20 9



2024/11/15
friday, pm 11:15 | 26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5일차
작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 삶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며
지난날의 몇 가지 작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별 중 하나는 몇 주 전
인간관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와 점차 멀어지며 자연스레 작별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관계를 정리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별이 주는
교훈도 분명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에서의 모든 의미를 잃는 건
아니며,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잘 작별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했던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들이 내 삶에 남긴
흔적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앞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서로에게 했던 가장 따뜻한 말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그 작별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나마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작별의 순간이
다가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눈 생각과
기억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앞으로의 길에서 또 다른 만남과
작별을 경험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좋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했고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빛나기를 바랍니다

20 13



2024/11/15
friday, pm 11:27 | 25읽음
김미도(일본학과)

#15일차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화났어? 그동안 아무소식이 없어서 삐졌어?
화내지마~ 내가 미안해

어제는 네가 나오는 꿈을 꾸었어
너랑 같이 바다로 놀러가는 꿈.
그러다가 문득 네가 그리워졌어.
그래서 너를 만나러 온거야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서
내가 싫어졌으려나?
이제 나같은거 보기 싫으려나?

우리 내년에, 같이 전주 여행 가기로 했는데
결국 못가네
그 날 일로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슬프다.
조금 더 너랑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너랑 가고 싶은곳, 먹고 싶은 음식이 잔뜩
있었는데
이제는 너에게 그런 말 조차 들려줄 수 없어

미안해.

있잖아,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있어줘서 고마워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전부 다 고마웠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고마워.

그냥 아는 사람 떠올리면서 쓴 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였지만,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2 라이팅 챌린지 참여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 11



2024/11/15
friday, pm 11:30 | 28읽음
이채원/20242562/미디어스쿨

#14일차

직면해야한다. 그리고 그때 그순간 느낌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감정들이 불쑥불쑥
찾아와 나를 다시 그 상황으로 데려갈 것이다.
후회하지 말아야한다. 내 선택이
최선이였음을 믿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한다.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검열하고 돌아보며
마음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이 있다는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 무섭고 왜 시작해야하는지 몰랐던
나날들이 이어졌다. 그치만, 그래도 이별
뒤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긴다면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침없이 고민하지말고 시작하길
바란다.
시작해봐야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생길 수 있기에. 같이 있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주길

슬픔이여 안녕-잔나비

21 10



2024/11/15
friday, pm 11:34 | 29읽음
강하늘(심리학과)

#15일차
#작별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여러 작별을 하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작별은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죽음을 적으면서 웃는 이모티콘을
쓰는게 어쩌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죽음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서 인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두근거려요!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제 글을 보신 분들 중 예상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ENFP 그 중에서도
호기심이 정~말 가득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어떤 걸까요?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저는 천국에 혹은 지옥에 혹은
사후세계에 가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무언가를 느낄지도 혹은 아무것도 못
느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죽음'이란, 제가 경험하는 가장 마지막
경험이자 저의 왕성한 호기심에 대한 답일
거에요!

하지만, 작별이란 혼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작별'
말 그대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때부터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순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남겨진 사람들과 작별하지 못하고 남겨진
누군가가 일방적인 이별을 겪게 될까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쌓인 유언장은 어느새 매년 매순간
새로 갱신되어서 이제는 상자에 가득 쌓이게
되었어요.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놔서 제가 죽으면
아마도 모두에게 편지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유언장을 써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주
추천하곤해요! 꼭 타인과의 작별을 상상하고
글을 쓴다면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던 마음도
슬펐던 마음도 원망도 가벼워지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찾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까지 살아와 준 나를 생각하고
글을 쓰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싶었었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작별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이 제가 마지막 키워드인 '작별'을 보고
쓰고 싶었던 글입니다.

p.s1
안녕하세요!

3주 동안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썼던
강하늘입니다!

저는 3주동안 이 밴드에 글을 쓰면서 기존에
알고있던 사람들이 쓰는 글도 봤고 알고
싶었던 사람들의 글도 봤고 앞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의 글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챌린지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글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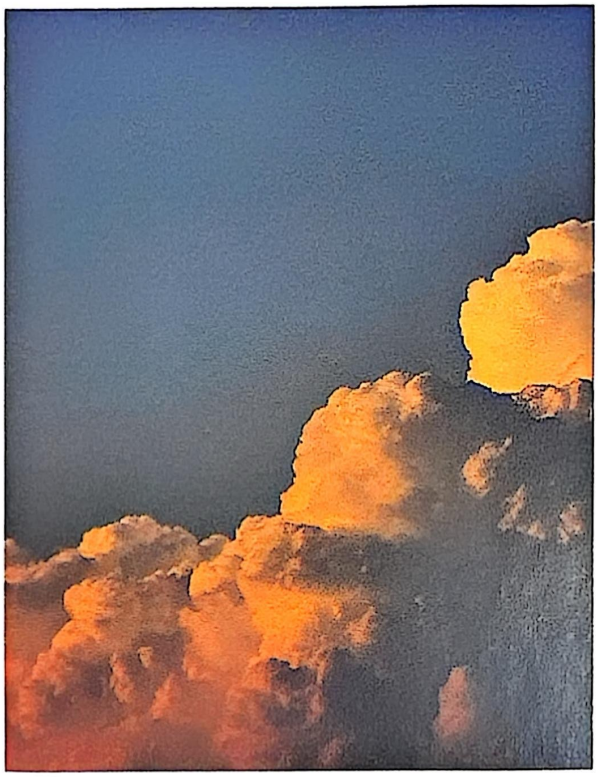
위의 글처럼 작별은 혼자하는게 아니기에
여러분과의 작별도 하고 싶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대학교는 그보다 매우
작기에 저는 언젠가 여러분과 이 밴드,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순간이
찾아올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또다시 새롭게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3주동안 즐거웠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늘 밝게 인사해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히계세요!



p.s. 2
언젠가 본 너~무 아름다웠던 하늘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행복을
공유합니다~!

20 29



2024/11/15
friday, pm 11:34 | 28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5일차 #작별

[서른 번째 접시]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간 글로 만나
서로 얘기했는데 이 시간이 끝나버리다니
많이 시원섭섭합니다. 정이 들어버린 건지
조금은 귀찮기도 했던 일일 글쓰기도 벌써
그리워지는 듯 합니다. 이번 2024 -2
라이팅챌린지도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글쓰기 실력도 출중하시고, 선한 댓글들도 많아 온라인 상이지만 많은 놀라움과 따뜻함을 얻어갑니다. 제가 댓글을 달 때 네잎클로버를 붙였는데, 이전 2024 -1 라이팅챌린지에서 말했듯이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붙였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몸 챙기시고, 하얀 겨울이 지나 연둣빛 싹이 자라날 때 다음 번 라이팅챌린지 때 보자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 전해봅니다. 담당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22 12



2024/11/15
friday, pm 11:50 | 22읽음
박현민(심리학과)

#15일차 #작별

만남이 있기에 작별이 있는 것이고, 작별이 있기에 만남이 있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지만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다. 끝을 생각하면 어찌 시작할 수 있을까.

너를 만난 건 올해로 벌써 14년쯤 됐으려나? 첫 만남은 강렬했지. 너를 보자마자 꼬옥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좋았으니까. 하지만 거리를 조금 두었어. 혹여나 나의 행동 하나에 너가 상하진 않을까 걱정됐거든. 어린 마음에 서툴까 봐 겁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해.
너와 함께한 추억들을 꺼내보라고 하면 햇빛이 비쳐 반짝이는 윤슬같을 거야. 다 너무나 소중하고, 예쁠 테니까. 너를 안을 때면 너만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코를 잔뜩 박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 내 코에서 너의 향기가 떠나가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걸 줄 알아? 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야. 잘 때마다 자꾸만 너를 안고 싶어지는 게 너가 너무 좋아서 그냥 꼭 껴안고 싶었어. 포근한 이불 속에서 따뜻한 너를 안으며 너의 심장 소리, 숨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름쯤이었나. 학교 마치고 너와 단둘이 집에 있던 말이었는데, 너는 한창 졸린 눈을 하고 있었어. 나는 너를 눈으로 담는 게 좋으니까 한참을 바라보았지. 그렇게 꽤나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너가 점점 눈을 감는 게 너무나 귀엽더라.
에구 졸렸어? 하며 너를 귀여워 하던 마음이 기억이 나.

나의 학창시절에는 너가 없는 날이 없었어. 나의 친구였고 동생이었고 가족이었고, 전부였었지. 요즘에 너를 만날 때마다 선물 하나씩 챙겨가는 거 기억나? 최근 들어 자꾸만 예전에 너가 좋아하던 걸 자주 선물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기만 해.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챙기게 되더라.
언젠간 너와의 이별도 가지게 되겠지? 있지. 나는 알면서도 그게 참 겁이 나. 지금은 자주 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아예 못 본다 생각하면 그냥.. 하염없이 울 것만 같아.

있잖아, 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나중에 나도 다리를 건너게 될 때 마중 나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마중은 조금 느리게 와줘도 되니까 조금만 더, 아니 조금 더 오래 우리랑 함께해주라.
고마워. 내 친구해줘서. 고마워 내 가족으로 와줘서. 다음에도 나랑 가족해주라. 너가 언니 하고 내가 동생할까? 아무튼 사랑해 우리 강아지

19 7



2024/11/15
friday, pm 11:59 | 25읽음
이나영

#15일차 #작별
나는 드라마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단순한 로맨스나 코미디 장르보다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 관계와 감정선이
섬세하게 그려진 이야기를 선호한다. 최근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의 작별 방식에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공감도 많이 됐다. 주인공 '해조'처럼 세상과
작별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부정하고 도피할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까?

드라마에 나오는 크고 작은 작별은 슬프지만
아름답고, 담담하지만 처절하게 그려지곤
한다. 실제로도 사람이 사람과 이별하는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드라마만큼 열렬하고 괴로운
연애를 한 친구도 있고, 또 좋아하던 사람도
한 부분이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손절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떤 식으로
작별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막상 나도 갑작스럽게 나의 죽음이
예정된다면, 처음에는 '해조'처럼 훌쩍
떠나고 싶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슬픔을 안기기보다 외로움을 택하지 않을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남은 삶을 아쉽지 않게 재미있는 일들로
채우고 싶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사랑은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다.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버팀목도 될 수 있다. 영원히
작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을 택할 것이다. 내게
남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또 나를 그들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말이다.

20 13



2024/11/15
friday, pm 11:59 | 26읽음
조세린(생명과학과)

#15일차 #작별
[작별과 이별]
작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이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작별: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짐. 또는,
그러한 인사.
이별: 서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거나 헤어짐.

그 뜻을 보면, 작별과 이별은 모두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치만, 의미 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니다. 작별은 나의 의지가 담긴
헤어짐이고, 이별은 나의 의지가 없는
헤어짐입니다. 그러니 이별은 '겪여야 하는
것'이고 작별은 하'는 것'입니다.
이별은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기에 슬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별은 그 슬픔을
스스로 선택해서 상대에게 헤어짐을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상대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니다.
상대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또 잘
되기를 바라며 고마움과 미안함 등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인사을 전할 수 있는 작별이 있다면
그 헤어짐을 감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다가올 때까지
고마움을 마음 속에 담아두지 않고 평소에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요.

이 글을 마치면서, 15일간의

‘라이팅챌린지’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글을 써보고, 다른
이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 각자가
가진 조용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생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라이팅챌린지에서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의 작별을 고해봅니다.

남아있는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잘 지내십시요!

 20  10